中國學

CHINESE STUDIES

第 42 輯

大 韓 中 國 學 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12. 8. 31

＜大韓中國學會＞

고　　문 : 성파 스님　조남규 여사
명예회장 : 이근효(경성대 명예교수)
회　　장 : 이철리(경남대)
부 회 장 : 김세환(부산대) 서석흥(부경대) 오창화(경성대) 임수암(경남정보대)
감　　사 : 김태관(동의대) 이재하(경성대)
연구이사(겸 위원) : 김용운(동아대)
연구윤리위원 : 강경구(동의대) 김창경(부경대) 박재진(동서대) 유병태(인제대)
하영삼(경성대)
총무이사 : 김현태(경남대:어문학) 이주형(창원대:사회과학)
학술이사 : 진광호(부산외대:총괄) 서창배(부경대:사회과학) 이종민(경성대:현대문학) 정윤철(부산외대:어학) 최형록(부산대:고전문학)
편집이사(겸 위원) : 김창경(부경대)
편집위원 : 강경구(동의대) 김명구(명지대) 문병순(경남대) 장호득(단국대)
오만종(전남대) 이규일(영동대) 이정남(고려대) 하영삼(경성대)
김태만(한국해양대)
섭외이사 : 김윤정(창원대) 김태만(한국해양대) 이문혁(세명대) 이중희(부경대)
기획이사 : 김언하(동서대) 김진영(부산외대) 김태식(경남대)
손성문(경남과학기술대) 이웅길(동서대)
출판이사 : 강경구(동의대) 신홍철(동아대) 정옥근(동의대) 한상덕(경상대)
운영이사 : 김민정(부산정보대) 김소현(동아대) 김인호(동의대) 김종현(동아대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김현태(경남대) 남덕현(부산대)
류영표(경성대) 정원호(동의과학대) 박경송(영산대) 박기현(인제대)
박부열(진주보건간호대) 박안수(창신대) 박용래(부산경상대)
손성문(경남과학기술대) 신석찬(부산여대) 왕옥지(동명대)
왕충의(부산외대) 이경미(동서대) 이상도(울산대) 이치한(창원대)
임수암(경남정보대) 정태업(부산외대) 서창배(신라대) 정헌철(경상대)
최세윤(고신대) 한종호(동주대)

연 락 처 : 김현태 055-249-2128, 010-4569-8302 dochtkim@kyungnam.ac.kr
이주형 055-213-3264, 010-5012-6728 leejh@changwon.ac.kr

[題字] : 성파스님(通道寺 瑞雲庵 住持)

中國學

第42輯 2012年 8月

目 次

나도원··速 器物群의 年代 問題와 서주 왕년 再論
--夷王부터 宣王까지 ····· 1

이융길··兩漢時期 秦晋지역 之部 및 支部 分部考 ····· 21

서원남·이현경·최란희··≪漢書·本紀≫ 通假字 용례 연구 ····· 37

왕옥지··中國의 表音文字에 대한 深層考察 ····· 65

肖 潇··上古"往"语义场研究 ····· 81

김정필··중국어 'PP+NP'의 부사적 용법과 인지격 ····· 101

김세환··≪周易≫ 八卦와 文字 ····· 121

金荣奇··高丽李穡基于≪春秋≫的理解探讨其历史意识和经世思想 ····· 143

오창화··<清苦先生傳>으로 본 楊維楨의 茶文化觀 ····· 161

정헌철·천대진··한국 내 郁達夫 연구 I --소설과 비교연구 ····· 191

박재진··중국의 경상계정 불균형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거시경제적 함의 ·· 225

유준·한기조··中國 鐵鋼産業의 對 韓國 産業內貿易 分析 ····· 259

贺莹·金昌庆··中·韩·日广播电视行业国际竞争力的比较分析--以波特
钻石模型为中心 ····· 279

于德豪··多元文化社會整合的少數族裔社區服務角色--多倫多華人與
韓人社團為例 ····· 299

■ 부록

심사규칙 및 학문윤리위원회 규정(외) ····· 335

CHINESE STUDIES

Volume 42 Aug.2012

The Question about Period of '速' Bronze Group and Period of Emperor 夷 to 宣 in the *Zhou* Dynasty / ***Na, Do-Won*** ····· 1

The Study of Lianghan(兩漢) Qinjin(秦晉) Region's zhi(之) and zhi(支) Rhyme Category / ***Lee, Wong-Gil*** ····· 21

A Study of Tong-Jia in ≪*HanShu漢書*≫ / ***Seo, Weon-Nam & Lee, Hyun-Kyung & Choi, Ran-Hee*** ····· 37

A Study on the Phonetic Symbols in China / ***Wang, Ok-Ji*** ····· 65

A Class of Verbs contain the Semantic Features of "to go to a place" in the Ancient Chinese / ***Xiao, Xiao*** ····· 81

An Analysis on the Conginative Case of Adverbial Phrase 'PP + NP' Structure in Chinese Syntax / ***Kim, Jeong-Pil*** ····· 101

≪*Zhouyi周易*≫ Bagua and Chinese Characters / ***Kim, Se-Hwan*** ····· 121

A Study on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Administrative Thought From *Lee-Saek's* Understanding of ≪*ChunQiu春秋*≫ / ***Kim, Young-Kie*** ····· 143

A View on Tea Culture of *Yang WeiZheng楊維楨* in his <*Qingkuxianshengzhuan清苦先生傳*> / ***Oh, Chang-Hwa*** ····· 161

A Study About '*Yu DaFu郁達夫*' In Korea / ***Cheng, Heon-Chul & Chen, Dae-Jin*** ····· 191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na's Imbalances in Current Account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 ***Park, Jae-Jin*** ····· 225

An Analysis on the IIT of Steel Industry between China and Korea / ***Liu, Jun & Han, Ki-Jo*** ····· 259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hinese, Korean and Japan Broadcast Content Industry - Based on Porter's Diamond Model
/ He, Ying & Kim, Chang-Gyeong ····· 279

The Role of Minority Ethnic Community Service Agencies in the Integration of their Members into Multicultural Societies: Cases of Chinese and Korean Service Agencies in Toronto
/ Yu, Der-Haur ····· 299

■ **Appendix**

Editorial Rules of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 Ru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 335

中國學 第42輯(2012.8)
pp.1~20

逑 器物群의 年代 問題와 서주 왕년 再論
--夷王부터 宣王까지

나도원*

〈목 차〉

1. 들어가며
2. 逑 기물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3. 시간기록 명문을 통한 서주 말기 왕년 고찰
   3.1 시간기록 명문의 비교
   3.2 厲王의 王年 고찰
   3.3 宣王의 王年 고찰
   3.4 幽王의 王年 고찰
   3.5 夷王의 王年 고찰
4. 마치며

1. 들어가며

2003년 1월 19일 중국 陝西省 眉縣 馬家鎭 楊家村에서 27점의 청동기가 발견되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 한자학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발굴이었다. 특히 【逑盤】의 명문은 【散盤】 이후로 가장 긴 명문인 373자에 달하는 명문을 가지고 있으며, 주나라 역사의 系譜를 나열하고 있어서 그 역사적 가치는 실로 큰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오랜 역사서인 사마천의 ≪史記≫에 기록된 「周本紀」의 주대 왕들의 계보가 사실임을 입증하였고, 單이라는 한 귀족세가의 8대에 걸친 가족사를 서술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이전에 발굴된 청동기물의 연대고증이나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연관관계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逐”기물군의 발견은 그동안 논쟁거리였던 金文歷譜 문제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서주 왕들의 재위기간, 표준역법 등의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의견의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逐”기물은 宣王시기의 것이라는데 대체로 일치한 견해를 얻고 있지만, 42년과 43년의 【逐鼎】에 기록된 시간기록이 현재 알려진 宣王의 재위연도와 부합되지 않고 있는 문제 등은 여전히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逐”기물군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발굴되었는데 1985년 4점의 【逐鐘】과 3점의 【逐鎛】, 【雲雷紋甬鐘】 2점, 【竊曲紋甬鐘】 4점이 있고, 2003년에 발굴된 것으로는 42년 【逐鼎】 2점, 43년 【逐鼎】 10점, 【逐盤】 1점, 【逐盉】 1점, 【叔五父匜】 1점, 【單五父壺】 2점, 【單叔鬲】 9점, 【盂】 1점이 있다. 이 외에도 楊家村에서 1955년 발굴된 【盞方彝】 2점과 【盞方尊】 1점, 【盞驹尊】 1점, 【陶鬲】 1점 중에서 “盞”가 【逐盤】의 발견 이후 單씨 세족의 제4대 惠中盞父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972년 양가촌에서 발굴된 【大旗鼎】 역시 “逐”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逐”기물군은 가장 최근에 발굴된 가장 중요한 청동기물의 하나이고 중국 학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학계에는 그다지 소개되지 못하였다. 현재까지 “逐” 기물군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연구는 박혜숙의 「西周 靑銅器 《逐盤》銘文 硏究」[1]가 최초의 것이지만, 단지 【逐盤】의 명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밝힌 것은 단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逐” 기물군이 야기시킨 중국 학계의 여러 가진 논점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逐” 기물군의 왕년문제와 더불어 시간기록이 있는 다른 금문명문들을 재분석하여 서주 말기 왕세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서주 중기에 속하는 夷王시기부터 宣王시기까지의 금문자료 중에서 시간기록이 있는 명문들을 대상으로 張培瑜의 ≪中國先秦史歷表≫[2]의 역법

1) ≪中國文化硏究≫ 제7집

을 대조해가며 기물이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의 연대를 검토하여 보았다.

서주의 왕년문제는 너무도 복잡한 문제이다. 이는 중국에서 야심차게 발족된 "하상주단대공정"(1996~2000) 전문가 집단에서 발표한 성과보고[3]에 대한 비판이 중국 외부 뿐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조차 맹렬히 일어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주시기의 왕년의 정확한 연도를 결론짓기 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逑 기물군의 귀속 왕년이 宣王시기가 아니라 厲王시기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기타 시간기록 명문들을 가지고 검증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단지 금문역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을 낳고 있는 중국의 '信古'경향[4]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본 논고의 목적이 있다.

2. 逑 器物群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逑 기물군이 발견된 이후 학계에서 가장 크게 논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서주의 표준 역법 문제와 주대 왕들의 재위기간에 대한 문제였다. 특히 42년 【逑鼎】의 "隹卅又二年五月旣生覇乙卯"와 43년 【逑鼎】의 "隹卅又三年六月旣生覇丁亥"가 주 宣王의 재위연도의 曆日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현재까지 학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逑 기물군의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 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逑 기물군의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역시 王年의 문제이다. 42년과 43년의 재위기간을 가지고 있

2) 張培瑜, ≪中國先秦史歷表≫, 齊魯書社, 1987.
3) 정확한 명칭은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이다.
4) 중국의 '信古'경향에 대해서는 심재훈의 「하상주단대공정과 信古 경향 고대사 서술」(≪韓國史學史學報≫ 16집, 2007)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는 왕은 현재까지 알려진 서주사에서는 宣王 뿐이며, 逐의 기물군들은 모두 서주 말기의 기물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왕시기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逐 기물군이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宣王 42년인 786년 5월은 壬戌이 合朔이기 때문에 乙卯일이 旣生霸가 될 수 없다. 宣王 43년인 기원전 785년 6월은 乙卯가 合朔이므로 6월에는 丁亥가 없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책명을 받드는 사람인 "史減"에 대한 것이다. "史減"은 厲王 28년의 【寰盤】에도 책명의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나온다. 만약 42년 【逐鼎】의 史減과 【寰盤】의 史減이 동일 인물이라면 厲王의 재위기간을 37년, 공화 14년, 그리고 宣王 42년까지 무려 66년의 기간 동안 책명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 되고, 처음 책명의 임무를 맡았을 때를 아무리 못해도 스무 살이라고 가정해도 宣王 42년은 이미 86살의 나이이다. 만약 史減이 계승되는 직책이거나 혹은 집안의 대물림되는 이름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일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학자들은 厲王의 재위 시기를 共和 14년까지 합쳐서 37년으로 보기도 하고[5], 각 왕의 즉위년을 한 해씩 뒤로 미루는 방식을 쓰거나 혹은 아예 명문이 틀렸다고 말하는 학자[6]도 있다. 그러나 역시 모두 조금씩 틀어지고 어긋나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다. 둘째는 逐 기물군의 불완전한 조합문제이다. 逐 기물은 祭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簋와 盨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완전한 한 벌이 되지 못하였고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7] 또한 발굴된 기물들도 42년 【逐鼎】은 2점이지만 43년 【逐鼎】은 10점이나 발견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주대의 用鼎制度인 "천자는 9개의 鼎을 쓸 수 있고, 제후는 7개의 鼎을 쓰며, 경대부는 5개의

5) 李仲操, 「西周共和前諸侯年紀追溯--爲記念司馬遷誕辰二千一百四十年而作」, ≪文博≫, 1995년 제4기.
6) 黃盛璋, 「眉縣楊家村逐家窖藏銅器解要」, ≪中國歷史文物≫, 2004년 제3기.
7) 「陝西眉縣出土窖藏青銅器筆談」--馬承源, ≪文物≫, 2003년 제6기.

鼎을, 士는 3개에서 1개의 鼎을 쓸 수 있다."는 규정과 어긋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두 벌의 기물들이었지만 모두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혹은 주대에는 用鼎制度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대의 鼎의 사용 상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는 逑 기물들이 묻혀있던 지하 움굴의 특수한 형태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청동기물들은 갑작스러운 적들의 침입과 같은 위급한 상황일 경우 무거운 청동기를 옮겨가기 어려워서 대충 흙을 파서 덮어두는 형상으로 발굴되는데, 逑 기물군들의 보존 상황은 달랐다. 우선 반듯한 장방형의 수혈식 동굴을 파고 다시 동굴 가쪽을 따라 굴을 파서 기물을 숨겨놓았다. 이것은 마치 무덤을 위해 준비한 곳이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 보여서 학자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아마도 幽王 7년 서주 왕조가 망해가면서 單 일족이 난이 일어나기 전에 움굴을 수리하고 예기를 보관하였을 것[8]이라 생각되고 있다.

넷째, 單 세족의 封地가 어디인지, 單이 姬姓인지, 逑의 隸定을 佐라고 보아야 할지[9]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첫 번째인 왕년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시간기록 명문을 통한 서주 말기 왕년 고찰

3.1 시간기록 명문의 비교

【逑鼎】의 명문에 보이는 "佳卌又二年五月旣生覇乙卯"나 "佳卌又三年六月旣生覇丁亥" 등과 같이 년 월 일시의 기록을 가진 금문 명문은 표준기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또한 당시 정확한 역사의 기록이므로

8) 「陝西眉縣出土窖藏青銅器筆談」--李學勤, ≪文物≫, 2003년 제6기.
9) ≪考古與文物≫편집부, 「寶鷄眉縣楊家村窖藏單氏家族青銅器群座談紀要」, 13쪽, ≪考古與文物≫, 2003년 제3기.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필자는 서주 금문 중에서 夷王시기의 기물로 추정되는 기물부터 시작하여 王年, 月, 月相이 기록되어 있는 금문[10]에 대하여 張培瑜의 ≪中國先秦史歷表≫[11]의 역법을 대조해가며 기물의 정확한 연대를 검토하였다. 달의 월상기록에 대하여도 많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기서는 왕국유의 "月相四分說"을 따랐으며[12] 다만 월상을 네 가지로 나누었을 때 초길을 초하루에서 7일, 8일까지로 보고 기생패를 7일에서 13~14일, 기망을 14~16일, 기사패를 17~30일로 나누어서 여기에 들어맞는 날짜를 찾으려 노력하였다. 이처럼 각각의 기간을 되도록 길게 설정하여 서로 겹치게 잡은 이유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기 위해서이다.

다음은 본고에서 왕년을 조사한 夷王부터 幽王시기까지의 시간기록이 나타나는 금문과 합삭이 일치할 수 있는 연도를 도표화 시킨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연도는 모두 기원전의 연도이며 ≪사기≫에 나타난 왕년

---

10) 본고에서 살펴본 금문은 馬承源의 ≪商周靑銅器 銘文選≫, 文物出版社, 1988을 참고하였으며 왕년분류 역시 馬承源을 따랐다.

11) 張培瑜, ≪中國先秦史歷表≫, 齊魯書社, 1987.

12) 王國維는 『生覇死覇 考』에서 금문과 대대로 전해지는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月相四分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옛날에는 대략 한 달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 하나가 초길 이었다. 초길은 1일부터 7, 8일까지를 일컫는 말이다. 두 번째는 기생패이며 8, 9일부터 14, 15일까지이다. 세 번째는 기망인데, 15, 16일부터 22, 23일까지이다. 네 번째가 기사패이고, 23일부터 그믐까지이다."라고 하였다.(王國維 『觀堂集林』19-26쪽, 中華書局, 1959). "月相四分說"의 기간이나 명칭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이 제기 되기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월상사분설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黃盛璋은 王國維의 四分說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두 개의 월상에 대한 定點이 있어야만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晉侯蘇鐘】의 旣望은 旣生覇의 終點이고, 旣望 이후 달이 이지러지기 시작할 때가 旣死覇의 시작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기생패의 제한 범위를 8(9)~14(15)일로 두고, 가장 빠른 날은 상현의 바로 뒷날, 즉 8(9)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망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3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초길은 月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上旬인 10일간을 말한다고 하였다.이러한 관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王國維의 학설이 단지 30일을 사등분 한 것이라면 황성장은 비교적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달의 월령을 살펴보면 초생달에서 상현까지의 기간이 7-8일정도 되고, 상현에서 보름까지의 기간이 8-9일 정도이다. 보름에서 하현까지의 기간이 7-8일, 하현에서 그믐까지의 기간이 6-7일 정도이다.

과 비슷한 시간대의 합삭이 일치하는 연도만 기록하였다.

번호	기물명	귀속 왕년	시간기록 명문	합삭이 일치하는 시대(기원전)
1	【師𠂤簋】	夷王	隹王元年正月初吉丁亥	908, 898, 888, 887, 877, 862, 852, 851, 841
2	【師𢦏簋】	夷王	隹十又一年九月初吉丁亥	909, 899, 888, 873, 863, 862, 852, 842
3	【輔師𢦏簋】	夷王	隹王九月旣生霸甲寅	907, 903, 893, 892, 882, 881, 878, 872, 871, 867, 861, 857,846,
4	【大師虘簋】	夷王	正月旣望甲午	910, 909, 908, 900, 899, 898, 888, 887, 884, 877, 873, 863, 862, 857, 853, 852, 848, 842, 841
5	【虘鐘】	夷王	正月初吉丁亥	888, 887, 877, 862, 851, 841
6	【十二年大簋蓋】	夷王	隹十又二年三月旣生霸丁亥	912, 909, 908, 898, 897, 887, 877, 876, 866, 856, 852, 851, 845, 841
7	【大簋】	夷王	唯六月初吉丁巳	909, 899, 898, 888, 873, 863, 862, 852, 842
8	【梁其鼎】	夷王 혹은 厲王	隹五月初吉壬申	911, 901, 891, 890, 886, 880, 865, 855, 854, 844, 834, 833, 829, 823, 819
9	【梁其壺】	夷王 혹은 厲王	隹五月初吉壬申	911, 901, 891, 890, 886, 880, 865, 855, 854, 844, 834, 833, 829, 823, 819
10	【鄭季盨】	厲王	隹王元年,王在成周,六月初吉丁亥	893, 878, 868, 867, 857, 847, 837, 836, 826, 821
11	【敔簋】	厲王	隹四月初吉丁亥	893, 878, 872, 867, 857, 847, 846, 837,

				836, 826, 821,
12	【康鼎】	厲王	唯三月初吉甲戌	891, 886, 880, 865, 855, 854, 844, 834, 829, 823,
13	【南宮柳鼎】	厲王	隹王五月初吉甲寅	893, 892, 883, 882, 872, 867, 857, 836, 835, 826, 815, 810
14	【何簋】	厲王	隹三月初吉庚午	900, 890, 880, 869, 854, 844, 843, 833, 823, 812, 808
15	【此鼎】	厲王	隹十又七年十又二月旣生霸乙卯	888, 887, 877, 873, 866, 862, 856, 852, 851 ,845, 842, 841, 840, 830, 820, 816, 809
16	【  鼎】	厲王	隹十又九年四月旣望辛卯	882, 871, 861, 835, 825, 814, 804, 799, 778
17	【寰盤】	厲王	隹廿又八年五月旣望庚寅	887, 876, 866, 856, 851, 840, 830, 820, 809, 794, 784, 783, 773
18	【  从鼎】	厲王	隹卅又一年三月初吉壬辰	873, 863, 862, 853, 852, 848, 842, 827, 817, 816, 806, 795, 791, 785, 770
19	【史頌鼎】	共和	隹三年五月丁巳	860, 859, 857, 853, 850, 849, 848, 847, 846, 839, 838, 836, 835, 828, 827, 826, 825, 824, 821
20	【史頌簋】	共和	隹三年五月丁巳	850, 849, 848, 847, 846, 839, 838, 836, 835, 828, 827, 826, 825, 824, 821
21	【頌鼎】	宣王	隹三年五月旣死霸甲戌	837, 836, 835, 832, 826, 825, 821, 815, 814, 812, 811, 810, 804, 801, 800, 799, 790
22	【頌簋】	宣王	隹三年五月旣死	837, 836, 835, 832,

			覇甲戌	826, 825, 821, 815, 814, 812, 811, 810, 804, 801, 800, 799, 790
23	【頌壺】	宣王	隹三年五月既死覇甲戌	837, 836, 835, 832, 826, 825, 821, 815, 814, 812, 811, 810, 804, 801, 800, 799, 790
24	【兮甲盤】	宣王	隹五年三月既死覇庚寅	833, 829, 823, 822, 819, 812, 809, 808, 798, 797, 794, 788, 787
25	【虢季子白盤】	宣王	隹十又二年正月初吉丁亥	848, 838, 837, 827, 826, 805, 795, 794, 784, 774
26	【不簋蓋】	宣王	唯九月初吉戊申	861, 846, 835, 825, 822, 815, 814, 804, 799, 789, 779, 778
27	【無叀鼎】	宣王	隹九月既望甲戌	843, 833, 822, 812, 786, 776
28	【山鼎】	宣王	隹卅又七年正月初吉庚戌	861, 860, 850, 835, 825, 824, 814, 804, 803, 799, 793, 778
29	42년【逑鼎】	宣王	隹卌又二年五月既生覇乙卯	846, 836, 835, 826, 825, 824, 815, 814, 810, 804, 799, 793, 790, 789, 779, 778
30	43년【逑鼎】	宣王	隹卌又三年六月既生覇丁亥	847, 846, 837, 836, 835, 826, 825, 821, 815, 814, 811, 810, 804, 800, 799, 790, 789, 779, 778
31	【柞鐘】	幽王	隹王三年四月初吉甲寅	805, 795, 794, 784, 774, 773, 763

이 기물들은 대부분 서주 중·말기에 귀속된 기물들이지만 여전히 그

王世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13] 여기서 【速鼎】은 왕년이 가장 길고 기물이 서주 말기의 기물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선왕시기 기물로 인정하고 있다. 42년 【速鼎】과 43년 【速鼎】의 합삭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도는 기원전 836년과 835년, 826년과 825년, 기원전 815년과 814년, 기원전 790년과 789년, 기원전 779년과 778년의 5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역사인식에 의거하여 778년 이후의 연대는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기원전 836년이 선왕 42년이라면 선왕의 元年은 877년이 되고, 기원전 826년이 선왕 42년이라면 선왕의 元年은 867년이 된다. 마찬가지로 선왕의 元年은 기원전 856년이거나, 기원전 832년, 기원전 821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42년 【速鼎】과 43년 【速鼎】의 왕년을 宣王시기로 귀속시키면 다른 시간기록 명문과 합삭이 일치하는 기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厲王시기의 기물로 귀속시키면 다른 시간기록 기물들과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速鼎】의 정확한 왕년의 고찰을 위하여 厲王의 재위기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厲王의 王年 고찰

厲王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厲王이 彘 땅으로 도망갔다는 기록이 ≪國語·周語≫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厲王虐, 國人謗王, 邵公告曰 : ‘民不堪命矣!’, 王怒, 得衛巫, 使監謗者, 以告, 則殺之. ……厲王說榮夷公, 芮良夫曰 : ‘王室其將卑乎! 夫榮公好利而不知大難.’ 榮公爲卿士, 諸侯不享, 王流于彘.(厲王이 성정이 포악하여 백성들이 왕을 비방하였다. 소공이 이를 고하며 말하길 ‘백성들이 감히 왕의 명을 견디질 못합니다!’ 왕이 크게 노하여 위나라의 무당을 곁에 두고 비방하는 자들을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고하면 즉시 그들을 죽였다. ……厲王이 영이공을 등용할 뜻을 말하자 예량부가 말하길 ‘왕실이 장차 무너지리라! 무릇 저 영공은 이익만을 탐하

13) 오제중, 「서주시대 표준 청동기 연구」, ≪중국어문학논집≫제50호, 52~54쪽.

> 고 어려움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영공이 공경대부가 되자 제후들이 함께 하지 않았으며, 왕은 彘로 도망갔다.)"

≪史記·周本紀≫는 ≪국어≫에서 내용을 따서 기록한 것으로 "厲王卽位三十年, 好利, 近榮夷公……王行暴虐侈傲, 王人謗王. 三年, 乃相與畔, 襲厲王. 厲王出奔于彘.(厲王이 즉위한 지 30년, 이익만 좋아하고 영이공을 가까이 하여……왕이 포악하고 사치하며 오만방자하니 왕의 사람들이 왕을 비방하였다. 3년 째 되던 해 서로 반란을 도모하여 厲王을 습격하니 厲王은 체로 도망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周語≫에는 厲王의 정확한 재위연수나 쫓겨난 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기≫에는 왕 30년, 그리고 3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33년의 재위연수를 말하고 있다. 厲王의 奔彘에 대한 기록은 이 외에도 각 제후들의 世家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厲王의 奔彘시기나 각 제후들간의 제위연대간 격차가 동일하지 않아서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42년과 43년【速鼎】을 왕년 확정의 기준점으로 삼아 살펴보면 42년 【速鼎】과 43년 【速鼎】의 합삭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도는 기원전 836년과 835년, 826년과 825년, 기원전 815년과 814년, 기원전 790년과 789년, 기원전 779년과 778년의 5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이 【速鼎】을 宣王시기의 것으로 보고 다른 기물들과 비교해보면 宣王시기의 시간기록 기물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만약 厲王시기의 기물로 살펴보면 厲王의 원년 기물인 【鄭季盨】와 厲王 17년 【此鼎】, 厲王 28년 【寰盤】이 모두 부합되는 연도가 존재하는 데 바로 厲王의 元年을 기원전 867년으로 보는 것이다. 즉 厲王의 元年이 기원전 867년이고, 厲王17년은 기원전 851년이며, 려왕 28년 기원전 840년이다.

【鄭季盨】는 "隹王元年, 王在成周, 六月初吉丁亥"라고 하였는데 기원전 867년 6월은 壬午가 합삭이므로 丁亥일은 초엿새가 되며 초길에 속한다. 厲王 17년 기물인 【此鼎】에는 "隹十又七年 十又二月 旣生覇 乙卯"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원전 867년이 厲王 원년이면 기원전 851년

이 厲王17년에 속한다. 이 해의 12월은 乙巳가 합삭이다. 따라서 乙卯는 11일째가 되는 날로 旣生覇에 속한다. 厲王 28년 기물인 【竇盤】은 기원전 840년인데 명문에 “隹廿又八年 五月 旣望 庚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840년 5월은 乙亥가 합삭이니 庚寅은 16일이 되는 날로 旣望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논증이 틀리지 않았다면 월상사분설에서 旣望이 반드시 15일만 말한다기보다 보름 근처의 며칠간을 이야기 하는 것일 수도 있다.

【速鼎】이 厲王시기의 기물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共和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사기≫에는 厲王 37년 厲王이 彘 땅으로 도망하고 共和시기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였는데 만약 厲王의 왕년을 어떻게 43년 이상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이렇다. 아마도 厲王 37년인 기원전 831년에 厲王이 彘 땅으로 도주하고 기원전 830년부터 공화시기가 시작된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 예로 馬承源이 공화시기 기물로 귀속시켜놓은 【史頌鼎】의 “隹三年 五月 丁巳”라는 명문이 기원전 828년의 역일과 부합된다. 그리고 기원전 816년 宣王의 원년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830년 부터는 공화시기로 실제로 왕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왕년은 여전히 합산하여 기록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厲王의 실제 재위기간은 37년이지만 나머지 공화시기 14년간의 연수 역시 厲王의 재위기간 속에 포함된 것이며, 따라서 【速鼎】의 명문에 厲王까지의 기록만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3.3 宣王의 王年 고찰

司馬遷은 ≪사기≫에서 宣王은 46년간 통치하였으며 幽王은 기원전 781년에 등극하여 11년간 통치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宣王은 기원전 816년이 元年이 된다. 이를 다른 기물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頌鼎】에 “隹三年五月 旣死覇 甲戌” 이란 명문이 있는데 선왕의 원년을 기원전 816년으로 잡았을 때 선왕 3년인 814년의 5월 합삭이 甲辰으로 甲戌이 旣死覇가 되

는 조건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兮甲盤】에 “隹五年 三月 旣死覇 庚寅” 라는 명문은 기원전 812년 선왕 5년의 합삭과 부합된다. 이뿐 아니라【虢季子白盤】의 명문에 “隹十又二年 正月 初吉 丁亥”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正月 丁亥가 초길이 될 수 있는 연도 중에서 기원전 805년은 다른 명문의 연도와도 서로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頌鼎】, 【兮甲盤】, 【虢季子白盤】 등의 시간기록과 일치되는 연도는 기원전 816년 이며 宣王은 바로 이 해가 원년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幽王의 원년은 언제가 시작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3.4 幽王의 王年 고찰

幽王은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782년에서 기원전 771년까지 재위하였다고 하였다. 본고에서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기원전 782년 宣王 35년이고 ≪사기≫에 선왕의 재위연도를 45년 이상 재위한 것으로 기록한 것을 볼 때 幽王의 원년은 좀더 후대일 것이라 생각된다. 幽王 시기는 아직 확고한 표준기물이 없고 해당시기 시간기록이 모두 있는 명문도 거의 없어서 단지 여기서는 馬承源에 의해 분류된 기물인 【柞鐘】만을 참고로 할 수 밖에 없다. 【柞鐘】에 “隹王三年 四月 初吉 甲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연도는 805, 795, 794, 784, 774, 773, 763 등이 있지만 만약 ≪사기≫의 기록대로 宣王의 재위기간을 40년 이상으로 본다면 아마도 기원전 774년 혹은 773년 혹은 763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기원전 763년으로 본다면 宣王의 재위기간은 54년을 넘는다. 幽王의 정확한 재위기간은 좀 더 금문자료가 보충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5 夷王의 王年 고찰

≪史記≫ <周代君主繼承表> 에 의하면 夷王은 B.C 894년에 등극하여 16년간 재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미 42년 【逑鼎】과 43년 【逑鼎】을 통한 역추정의 방법으로 려왕과 선왕의 재위기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왕년을 기준으로 하여 夷王의 재위기간을 역

추정 할 수 있다. 서주 夷王시기 기물인 【師𠂤簋】에 “隹王元年 正月 初吉 丁亥”라는 기록이 있다. 合朔으로 부터 丁亥가 적어도 10일 이내에 속하는 연도를 모두 살펴보면 기원전 908, 898, 888, 887, 877, 862, 852, 851, 841이 가능성이 있다.

【師𡢁簋】에 “隹十又一年 九月 初吉 丁亥”라고 하였으니 9월의 合朔이 丁亥로 부터 10일 이내인 연도는 기원전 909, 899, 888, 873, 863, 862, 852, 842가 있다.

【十二年大簋蓋】에 “隹十又二年 三月 旣生霸 丁亥”라고 기록되어있다. 旣望은 旣生霸의 끝점이므로 丁亥로부터 7일~8일 이내에 旣望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최대 8일까지의 범위 이내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원전 912, 909, 908, 898, 897, 887, 877, 876, 866, 856, 852, 851, 845, 841 등이 합삭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우선 夷王의 11년과 12년에 속하는 기물에 들어맞는 연도를 먼저 계산하고 다시 夷王의 원년을 살펴보면 夷王의 재위기간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夷王 11년과 12년이 동시에 만족되는 연도는 모두 기원전 909년과 908년, 898년과 897년, 888년과 887년, 852년과 851년, 842년과 841년이 있다. 여기에서 왕 원년으로 기록된 【師𠂤簋】의 명문 시간기록과 일치하는 연도는 기원전 908년, 기원전 898년, 기원전 862년, 기원전 852년이 가능성이 있다.

이중에서 려왕의 재위시기, 【師𠂤簋】와 【師𡢁簋】그리고 【十二年大簋蓋】의 모든 명문의 기록을 만족시키는 연도는 기원전 898년이며 재위기간은 려왕 원년인 기원전 867년 이전해인 기원전 868년으로 총 재위기간은 31년에 이른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에 대해 학자들은 반박할지 모른다. 그러나 본 결론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사기≫에 夷王은 B.C 894년에 등극하여 16년간 재위하였다고 하였는데 등극연도는 본고의 결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夷王과 厲王, 宣王에 귀속된 기물들 중에서 厲王시기에 속하는

【  鼎】과 【  从鼎】은 厲王의 재위기간에 부합되지 않는다. 【鼎】에 “隹十又九年 四月 旣望 辛卯”라고 하였는데 려왕 19년 기물이며 려왕 19년은 본고의 결과에 의하면 기원전 849년에 속한다. 그러나 이 해의 4月은 戊辰이 합삭이므로 辛卯일은 24일로 기망이 될 수 없다. 【从鼎】에 “隹卅又一年 三月 初吉 壬辰”이라고 하였는데 【从鼎】은 려왕 31년 기물이므로 기원전 837년에 해당하는데 이 해의 3월은 戊午가 합삭이므로 壬辰은 초길이 될 수 없다.

또한 【山鼎】은 宣王 37의 기물인데 명문에 “隹卅又七年 正月 初吉 庚戌”이라는 기록이 있다. 宣王 37년은 본고의 결론에 의하면 기원전 787년이다. 이 해의 정월은 己巳가 합삭이므로 庚戌은 초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고에서 추정한 주대 말기 왕년과 시간이 기록된 귀속기물의 적합성을 도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기물명	귀속왕년	추정연도 (기원전)	적합성 여부
【師簋】	夷王 元年	898	O
【師  簋】	夷王 11년	888	O
【十二年大簋蓋】	夷王 12년	887	O
【鄭季盨】	厲王 元年	867	O
【此鼎】	厲王 17년	851	O
【  鼎】	厲王 19년	849	X
【寰盤】	厲王 28년	840	O
【  从鼎】	厲王 31년	837	X
42년 【速鼎】	厲王 42년	826	O
43년 【速鼎】	厲王 43년	825	O
【史頌鼎】,【史頌簋】	共和 3년	828	O
【頌鼎】, 【頌簋】,【頌壺】	宣王 3년	814	O
【兮甲盤】	宣王 5년	812	O
【虢季子白盤】	宣王 12년	805	O
【山鼎】	宣王 37년	787	X

4. 마치며

본고는 42년 【速鼎】과 43년 【速鼎】의 역일이 부합되지 않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서주 중말기 왕년에 대해 연, 월, 월상의 시간기록이 있는 명문들을 중심으로 張培瑜의 ≪中國先秦史歷表≫에 근거하여 합삭이 부합되는 연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42년과 43년 【速鼎】이 宣王시기에 속하는 기물이 아니라 厲王시기에 속하는 기물로 볼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 【速鼎】을 금문역보의 중요 기준점으로 삼아 다른 연, 월, 월상이 기록된 명문을 적용하여 검증하고 이 가설이 매우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張培瑜의 ≪中國先秦史歷表≫가 정확한지의 여부이다. 둘째, 馬承源의 기물 왕세분류의 정확성 여부이다. 셋째, 기물의 시간기록의 정확성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기물에 새겨진 명문이 정확하리라는 가설위에 서주의 금문역보 연구는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주조 당시 연도를 잘못 새겼거나 혹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왕년기록과 차이가 있을 경우, 혹은 당시 사용하던 曆法이 현재의 모습과 다르던지, 혹은 지역마다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논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문역보 전체에 관련된 문제점이며, 결국 풀지 못한 숙제로 학계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 때문에 금문역보연구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 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문의 왕년문제는 매우 중요한 고대사와 문화, 민족이동, 국가전쟁 등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인식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결코 홀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금문의 시간기록명문에 대한 역일문제와 왕세에 대해 중국이나 서구, 일본 등의 학자들이 열띤 논쟁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나라 학자들 또한 그들과 함께 우리 역사와 깊은 연관을 가진 중국 고대사를 함께 논쟁해 가야하며 이 소논문은 바로 그를 위한 작은 시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成果報告(簡本)≫에서 제시한 서주연대와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에드워드 쇼네시의 절대연대 및 본고의 결과로 유추된 연대를 도표화한 것이다.[14]

왕년	하상주단대공정	쇼네시의 절대연대	본고의 귀납 연도
夷王	B.C.885-B.C.878(8)	B.C.865-B.C.858(8)	B.C.898-B.C.868 (31)[15]
厲王	B.C.877-B.C.841(37)	B.C.857/853-B.C.842/828 (16/12)	B.C.867-B.C.831 (37)
共和	B.C.841-B.C.828(14)	B.C.841-B.C.828(14)	B.C.830-B.C.817 (14)
宣王	B.C.827-B.C.782(46)	B.C.827/825-B.C.782 (43/45)	B.C.816-B.C.787 (37)/ B.C.816-B.C.777 (44)
幽王	B.C.781-B.C.771(11)	B.C.781-B.C.771(11)	B.C.786- / B.C.776-

여기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더 깊이 있고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연구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주변 제후국들의 관련 자료 및 정확한 역법도 더욱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고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탐구해나가야 할 것이며, 역사의 진실을 찾는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일천한 학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만족하며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밑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

14) 이 도표는 심재훈의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추기"-하상주단대공정 서주 기년의 허와 실」, 79~80쪽의 필요한 부분을 수정 인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共和의 시작인 기원전 841년을 중국의 공식적인 연도기록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서주역보를 다룰 때 반드시 기원전 841년을 공화원년에 맞춘다. 그러나 본고는 이 모든 원칙적인 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42년 【逑鼎】과 43년 【逑鼎】의 역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다른 기물의 귀속왕년과의 대조 비교를 통하여 연도를 재배열 한 것이다.

15) 夷王의 재위연도로 8년이라고 보기도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질정을 부탁드린다.

<參考文獻>

李學勤,「對"夏商周斷代工程"西周歷譜的兩次考驗」,≪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學報≫, 2002년 제5기.

李學勤, 「眉縣楊家村器銘歷日的難題」, ≪寶鷄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院)≫, 2003년, 제5기.

李學勤,「眉縣楊家村新出靑銅器硏究」,≪文物≫, 2003년 제6기.

張培瑜, 「速鼎的王世與西周晩期曆法月相紀日」, ≪中國歷史文物≫, 2003년 제3기.

張培瑜, ≪中國先秦史歷表≫, 齊魯書社, 1987.

張培瑜,「速鼎的月相紀日和西周年代」,≪文物≫, 2003년 제6기.

黃盛璋,「眉縣楊家村速家窖藏銅器解要」,≪中國歷史文物≫, 2004년 제3기.

≪考古與文物≫編輯部, 「寶鷄眉縣楊家村窖藏單氏家族靑銅器群座談紀要」, 13쪽, ≪考古與文物≫, 2003년 제3기.

「陝西眉縣出土窖藏靑銅器筆談」,≪文物≫, 2003년 제6기.

田率,「陝西眉縣靑銅器窖藏與西周單速家族」,≪中國陝西眉縣出土窖藏歷史文物≫, 2008년 제4기.

劉士莪,「牆盤, 速盤之對比硏究-兼談西周微氏, 單公家族窖藏靑銅器群的歷史意義」,≪文博≫, 2004년 제5기.

劉懷君·辛怡華·劉棟, 「四十二年, 四十三年速鼎銘文試釋」, ≪文物≫, 2003년 제6기.

張天恩, 「從速盤銘文談西周單氏家族的譜系及相關銅器」, ≪文物≫, 2003년 제7기.

楊家村聯合考古隊, 「陝西眉縣楊家村西周靑銅器窖藏發掘簡報」, ≪文物≫, 2003년 제6기.

周曉陸,「<速盤>讀箋」,≪北京師範大學學報≫, 2003년 제5기.

周曉陸,「西周"速器"及相關問題探討」,≪北京大學學報≫, 2003년 제4기.

辛怡華,「“𠂤”--周王朝的良馬繁殖基地-眉縣東李村盞尊(駒尊)組器再研究」,
戚桂晏, 「厲王在位年考-兼論西周諸王在位年數問題」, ≪山西大学学报≫, 1979年 제1기.
王晶, 「卌三年速鼎銘文中的“歷人”卽≪周禮≫中的“校人”」, ≪中原文物≫, 2007년 제3기.
張懋鎔,「速盤與西周王年」, ≪齊魯學刊≫, 2006년 제6기.
楊 皞,「司馬遷稱周歷, 周宣之際爲“共和”趣旨探微」, ≪華南師範大學≫,
王澤文, 「周厲王三十七年奔彘說獻疑」,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學報≫, 2002년 제2기.
李玉洁,「評周厲王革典」, ≪河南大學學報≫, 1986년 제1기.
李仲操,「周厲王年數釋疑」, ≪文博≫, 1996년 제5기.
李仲操, 「西周共和前諸侯年紀追溯--爲記念司馬遷誕辰二千一百四十年而作」, ≪文博≫, 1995년 제4기.
張應橋,「重評周厲王」, ≪鄭州大學學報≫, 2006년, 제2기.
박혜숙,「西周 青銅器 《速盤》銘文 研究」, ≪中國文化研究≫ 제7집
오제중,「서주시대 표준 청동기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50집
심재훈, 「하상주단대공정과 信古경향 고대사 서술」, ≪韓國史學史學報≫ 16집, 2007.

<中文提要>

2003年1月19日，在中国的陕西省眉县马家镇杨家村，出土了27件青铜器。这一重大发现对考古学，历史学，汉字学史都有非常重要的作用。特别是，速盘的铭文是在散氏盘的305个字以后最长的铭文，为373个字，里面的内容主要是对周朝历史的系谱的罗列，这具有巨大的历史性的价值。但是，“速”器物群的发现又重新引起了一直具有争论性的对金文历谱的争论，并再次开始了对西周帝王的在位时间的争论，直到现在，各方意见至今未能统一。现在，“速”器物出现于宣王时期的主张见解被大部分所认可，但是纪录在42年与43年的“速鼎”的记时纪录与现在所证实的宣王在位年度并不一致，

等等仍是需要研究的问题。

本论稿中，关于“速”器物群的问题与属于夷王时期的青铜器物中，与纪录有王世，月，月相的青铜器为中心，用张培瑜的≪中国先秦史历表≫的历法相对照，揭示了夷王的元年是元前898年，除此之外，对于宣王的在位年度与专制时期提出了新的见解，并对的厉王的“三十七年奔彘说”做出了新的解释说明。

關鍵詞 ： 周，厲王，宣王，夷王，王年，在位期間，曆日，月相，速鼎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21~35

兩漢時期 秦晋지역 之部 및 支部 分部考

이웅길*

〈목 차〉

1. 들어가며
2. 韻部分論
  2-1. 之部
  2-2. 支部
3. 나오면서

1. 들어가며

언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고대중국어부터 현대중국어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나타난 특징들이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 연구업적들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兩漢시대에 경학의 발달로 인해 언어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세워지게 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결과 ≪爾雅≫, ≪方言≫, ≪說文解字≫, ≪釋名≫과 같은 저작들이 출현한 시기였다.[1] 특히 揚雄의 ≪方言≫은 고대한어 특히 漢代의 방언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후세의 여러 학자들이 ≪方言≫에 나타난 방언구역을 정리하여 7개의 방언구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2] 그 중 하나인 秦晋방언은 漢代에 수도인 長安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공동어(共同語)인 '通語'의 기초가 되는 방언이었다.[3] 오늘날의 山西省 서부와 陝西省 寧夏回族자치구와

*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woong@dongseo.ac.kr)

1) 拙著, 〈兩漢 詩歌 用韻 硏究〉, ≪中國學≫ 第37輯, 2010년, 1쪽.

2) 羅常培 周祖謨, ≪兩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硏究≫(北京, 科學出版社, 1958), 72쪽.

3) 李恕豪, 〈揚雄方言中的秦晋方言〉, ≪四川師範大學學報≫ 1992年 第1期,

甘肅省을 포함하고 있는[4] 秦晋지역의 방언을 살펴봄으로써 兩漢시기 공동어의 면모를 알 수가 있다.

후세 학자들은 ≪方言≫에 수록된 어휘들의 사용 지역에 따라 방언구역을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兩漢시기에 음운학적 방언구역과 어휘학적 방언구역이 일치할까?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羅常培·周祖謨는 ≪兩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 第1分冊에서 兩漢시기 문인들의 압운자를 근거로 하여 陰聲韻 8부, 陽聲韻9부, 入聲韻 10개 모두 27개의 운부를 분류하였다. 羅常培·周祖謨는 당시 전 지역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운부 분류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위에 제시한 두 가지 문제 즉 음운학적 방언구역과 어휘학적 방언구역의 일치 여부와 지역적 특수성을 밝히기 위해 먼저 通語의 기초가 되는 秦晉방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羅常培·周祖謨가 분류한 운보를 근거로 하여 兩漢시기 秦晋지역 문인들이[5] 사용한 압운자를 통해 ≪詩經≫시대에 포함된 운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한 之部 및 支部가 어떻게 나누어지며, 어떠한 운류의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韻部分論

2-1. 之部

≪詩經≫의 之部에는 ≪廣韻≫ 之韻, 咍韻(일부분). 灰韻(일부분), 皆韻(일부분). 尤韻(일부분) 侯韻(母, 畝자), 脂韻(일부분), 眞韻(敏자)이 포함되어 있다.[6] 兩漢시대 詩歌 用韻에서의 之部는 ≪廣韻≫ 之韻, 咍韻

76쪽.

4) 丁啓陣, ≪秦漢方言≫, 東方出版社, 1991年, 35쪽.

5) ≪兩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의 운보에 분류된 兩漢시기 秦晋지역 문인 18명의 詩文 46首 142組를 대상으로 하였다. 秦晉지역 문인 18명은 劉友, 司馬遷, 劉旦, 李陵, 劉去, 班倢伃, 馬援, 班彪, 馮衍, 杜篤, 梁竦, 梁鴻, 傅毅, 班固, 班昭, 馬融, 秦嘉, 徐淑, 皇甫規, 張衡, 傅干 등이다.(丁啓陣, 99쪽)

6) 羅常培 · 周祖謨, 16쪽.

의 '來臺材哉災, 海, 再'자, 灰韻의 '悔'자, 尤韻의 '尤, 友有'자가 포함되어 있다.[7] 이 시기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之	脂	微	咍	豪	尤
之	19	5	1	7	1	12

〈표1 之韻 독용 및 통압 통계표〉

之 咍 尤	2	之 尤 皆	1	之 尤 蕭	1

〈표2 之韻 세 韻 통압 통계표〉

之 脂 尤 侯	1	之 咍 尤 幽	1	之 尤 幽 虞	1

〈표3 之韻 네 韻 이상 통압 통계표〉

〈표1〉에서 之韻의 獨用이 뚜렷하나, 脂韻, 咍韻, 豪韻, 尤韻과의 통압이 있다. 이 네 韻은 각각 독용 예보다 之韻과의 통압 예가 많거나 비슷하다.[8] 이것은 각 운 내에 나누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사용된 脂韻字의 상황부터 살펴보겠다.

독용 및 통압	작가	사용 운자
脂韻 독용	司馬遷	私悲
	杜篤	湄夷
	班倢伃	愧淚
之韻과 통압	司馬遷	否
	傅毅	軌
	班固	軌否備

7) 拙著, 〈兩漢時期 詩歌用韻研究〉, ≪中國學≫ 第37輯, 6쪽.
8) 脂韻의 독용 예는 3회, 咍韻의 독용 예는 2회, 豪韻의 독용 예는 3회, 尤韻의 독용 예는 14회임.

微韻과 통압	馮衍	綏, 悴
	傅毅	橐夷追師
	班固	追, 位帥墜貳轡
	班昭	師悲追誰
支韻과 통압	馮衍	悲
咍韻과 통압	傅毅	備
灰韻과 통압	班固	夷
	馬融	帷
皆韻과 통압	馮衍	悲
齊韻과 통압	班固	綏祇
		地
祭韻과 통압	傅毅	悴
皆·齊韻과 통압	班固	楣
咍·灰韻과 통압	傅毅	墜
微·灰韻과 통압	班固	暨醉
微·咍韻과 통압	班固	類
微·支韻과 통압	杜篤	衰師維眉姿
	班固	姿
之·尤·侯韻과 통압	傅毅	軌
支·微·佳韻과 통압	馬融	兕
咍·灰·麻韻과 통압	傅幹	器
未·隊·祭韻과 통압	馬融	鷙
祭·泰·未韻과 통압	班固	頴
微·支·皆·灰韻과 통압	徐淑	師追

〈표4 脂韻 독용 및 통압 작가와 사용된 韻字〉

〈표4〉에서 脂韻字를 분류하면 之韻 및 咍韻과의 통압에 사용된 것과 그 외 나머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之韻 및 咍韻과의 통압에 사용된 '否備軌'자 중 '否備'자는 ≪詩經≫시대에 之部에 포함된 글자들이었고, '軌'자는 幽部에 속한 글자이었다. '否備'자는 秦晋지역 문인들의 用韻에서도 ≪詩經≫시대와 마찬가지로 之韻과 통압을 하고 있어 之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軌'자는 ≪詩經≫시대와 달리 秦晉지역 문인들에게 있어서는 之部로 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齊韻과의 통압에 사용된 '地'자는 ≪詩經≫시대에 歌部에 속하

였으나,[9] 兩漢시기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는 齊韻과 통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支部에서 다시 논하겠다.

위의 사실로 脂韻은 之韻 및 咍韻과의 통압에 사용된 '否備軌'자, '地'자, 그 외의 나머지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咍韻자 중에서 '該台來臺才哉災, 海在, 再態菜代'자는 ≪詩經≫시대에 之部에 속하였고,[10] '開哀閤, 愷, 槩溉愛逮'자는 微部에 속하였다. 兩漢시기 詩歌에서도 ≪詩經≫시대와 마찬가지로 '來臺材哉災, 海, 再'자는 之部에 속하였다.[11]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도 ≪詩經≫시대와 兩漢 시기에서처럼 咍韻 내에 나누어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운	작가	사용한 운자
독용에 사용된 咍韻字	傅毅	代載
	班固	載代
之韻과 통압한 咍韻字	班固	裁災在海
	杜篤	采
	傅毅	態
脂韻과 통압한 咍韻字	傅毅	載代
尤韻과 통압한 咍韻字	馮衍	改
	班彪	災
灰韻과 통압한 咍韻字	劉去	再
	馮衍	再
皆韻과 통압한 咍韻字	班固	再
微韻과 통압한 咍韻字	班固	開
之·尤韻과 통압한 咍韻字	劉友	財
	班彪	來
微·皆韻과 통압한 咍韻字	班彪	嘻
脂·灰韻과 통압한 咍韻字	傅毅	溉
脂·微韻과 통압한 咍韻字	班固	槩
之·尤·幽韻과 통압한 咍韻字	班倢伃	災
脂·灰·痲韻과 통압한 咍韻字	傅幹	愛

〈표5 咍韻 통압 작가와 사용된 韻字〉

9) 羅常培·周祖謨, 24.
10) 羅常培·周祖謨, 16.
11) 拙著, 4쪽.

〈표5〉에서 사용된 咍韻字를 분류하면 독용 및 脂韻과 통압, 之韻、尤韻、幽韻과 통압, 灰韻、皆韻과 통압, 微韻과 통압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독용과 脂韻과 통압에 사용된 '載代'자와 之韻、尤韻、幽韻과 통압에 사용된 '來裁災在海采態財改'자, 灰韻、皆韻과 통압에 사용된 '再'자는 ≪詩經≫시대에 之部에 속한 글자들이었고, 微韻과 통압한 '開皚溉概愛'자는 ≪詩經≫시대에 微部에 속한 글자들이었다. 兩漢시기 秦晉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는 咍韻 내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독용과 脂韻과 통압에 사용된 '載代'자부터 살펴보면. '載代'자와 통압한 脂韻字는 '備'자인데,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詩經≫시대와 마찬가지로 之韻과 통압을 하고 있어 之部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載代'자는 之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來裁災在海采態財改'자 중 '裁在海采態'자는 之韻과 통압한 글자들이고, '改'자는 尤韻과 통압에 사용된 글자이고, '災'자는 之韻 및 尤韻과 통압에 사용된 글자이다. 그리고 '來財'는 之韻과 尤韻 동시 통압에 사용된 글자들이다. 이들 글자들은 ≪詩經≫시대에 모두 之部에 속하였다. 이들 글자들은 兩漢시기 秦晉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 다른 운과의 통압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來'자는 蜀 지방에서 去聲으로 읽혔지만,[12] 秦晉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는 平聲자와만 통압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平聲으로만 읽는다고 할 수 있다.

'再'자는 皆韻 및 灰韻과의 통압에 사용되었는데, 사용된 皆韻字 및 灰韻字는 '悔'자와 '戒'자이다. 皆韻字 및 灰韻字는 ≪詩經≫시대에 일부분은 之部에 일부분은 脂部에 일부분은 微部에 속하였는데, '悔'자와 '戒'자는 之部에 속하였다. 兩漢시기 秦晉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 '悔'자와 '戒'자는 脂韻, 微韻 등 ≪詩經≫시대 脂部와 微部에 속한 운류들과 통압이 없다. 이로 보아 皆韻 및 灰韻도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고, '悔'자와 '戒'자는 之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리서 '再'자도 之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開皚溉概愛'자는 ≪詩經≫시대에 微部에 속하였다. 위의 표에서도 보

12) 拙著, 6쪽 참조.

이듯이 이 글자들은 주로 脂韻, 微韻과의 통압에 사용되었다.

이로 보아 兩漢 시기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 咍韻자는 '來裁財災, 海在, 再采態載代'자와 '開皚溉概愛'자 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된 尤韻字의 상황을 살펴보겠다.

≪詩經≫시대에 尤韻의 일부분은 之部에 속하였고, 일부분은 幽部에 속하였다.[13] <표 1-3>에서의 尤韻 중 '郵謀丘龜, 有友久右, 囿富副'자만이 之部에 속한 운자이고 나머지는 幽部에 속한 운자들이다. 兩漢시기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 尤韻에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를 독용과 다른 운과 통압을 통해 살펴보겠다.

운	작가	사용한 운자
독용에 사용된 尤韻字	班固	遒囚, 舟流, 周劉, 囿富
	班彪	遊周浮, 游脩
	馮衍	州流, 流丘
	杜篤	求修儔遊
	班昭	丘疇遊游
	馬融	儔流
	秦嘉	由周仇攸休
	皇甫規	流逑周猷
之韻과 통압한 尤韻字	班固	有, 囿, 舟流浮, 秋由流, 阜首
	馬融	友
	馮衍	由, 久
	梁竦	悠
	班昭	求
	傅毅	輈斿, 舟流遊遊,
咍韻과 통압한 尤韻字	馮衍	有
	班彪	留遊
豪韻과 통압한 尤韻字	馮衍	謀
	杜篤	周疇
	班固	囿
蕭韻과 통압한 尤韻字	杜篤	憂柔州

13) 羅常培·周祖謨, 16쪽과 19쪽.

	傅毅	求流
侯韻과 통압한 尤韻字	馮衍	友
	馬融	右, 舟幬流浮游
	杜篤	壽
虞韻과 통압한 尤韻字	梁鴻	流浮休
	班固	周
	班彪	囿
之 咍韻과 동시통압한 尤韻字	劉友	仇
	班彪	流脩
之 皆韻과 동시통압한 尤韻字	馬融	富
蕭 魚韻과 동시통압한 尤韻字	劉去	愁
之 蕭韻과 동시통압한 尤韻字	班彪	遊丘流
之 宵韻과 동시통압한 尤韻字	班固	狩
虞 魚韻과 동시통압한 尤韻字	馬融	副
之 脂 侯韻과 동시통압한 尤韻字	傅毅	有
之 咍 幽韻과 동시통압한 尤韻字	班倢伃	郵周流
之 虞 幽韻과 동시통압한 尤韻字	班固	周
蕭 宵 幽韻과 동시통압한 尤韻字	班固	周龜流

〈표6 尤韻 독용 및 통압 작가와 사용된 尤韻字〉

위의 표에서 사용된 尤韻字를 계련하면 '舟流州丘儔逑周猷劉遊浮求修儔疇游由仇攸休脩舟秋悠求輈斿留疇憂柔幬壽脩龜郵愁'(이하 'A'), '囿富', '有', '阜首', '友'. '久', '謀', '右', '副', '狩', '遒囚'로 분류할 수 있다. 'A'에서 ≪詩經≫시대 之部에 속하였던 '丘'자는 ≪詩經≫시대 幽部에 속하였던 글자들과 통압하고 있어 다른 운부로 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郵'자는 용례가 之·咍·幽韻과 동시 통압한 예 1회 뿐이어서 다른 운부로 전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 羅常培·周祖謨는 '郵'자의 뜻이 '과실, 잘못'이며, '尤'자와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之部에 포함시켰다.[14] '謀'자는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 ≪詩經≫시대 幽部에 속하였던 豪韻과 통압한 예 1회뿐이어 다른 운부로의 전입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 하지만 兩漢시대 에 賈誼, 王褒, 楊雄, 張衡 등의 詩文에 之部字와 압운하고 있다. 어느 한 방언구에 편중되지 않고 있어서 '謀'자가 다른 운부로 전입되지 않

14) 羅常培·周祖謨, 18쪽.

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5] '龜'자는 蕭 · 宵·幽韻과 동시 통압한 예 1회뿐이지만 같이 통압한 尤韻字 '周流' 또한 ≪詩經≫시대 幽部에 속한 글자들이어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는 다른 운부로 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久'자는 之韻과 통압한 예 1회뿐이어 다른 운부로의 전입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지만 賈誼, 劉詢, 劉向, 楊雄, 張衡 등의 詩文에 幽部字와 압운하고 있다. 이 또한 어느 한 방언구에 편중되지 않고 있어서 '久'자는 다른 운부 즉 幽部로 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용에 사용된 '遒囚'자는 秦晋지역 문인들 뿐만 아니라 兩漢 전체 문인들의 용운에 용례가 거의 없다. ≪詩經≫시대 幽部에 속하였고, 용례 모두 ≪詩經≫시대 幽部의 尤韻자와 통압하고 있다. 그래서 ; 遒囚'자는 幽部에 포함시킨다. '囿富'자는 ≪詩經≫시대 之部에 속하였다. '囿'자는 之韻, 豪韻, 虞韻과 통압하였고, '富'자는 之 · 皆韻과 동시 통압하였다. '囿'자는 통압관계로 之部에 속하는지 아니면 다른 운부에 속하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 그래서 諧聲관계에 있는 '有'자가 어느 운부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富'자와 통압한 皆韻자는 '怪'자인데, 앞에서 皆韻도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면 '怪'자가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怪'자의 용례는 秦晋지역 문인들 중 馬融 외에 없으며, 兩漢시대 문인들 전체 가운데에서도 劉歆의 용례 1회뿐이다. 之·咍韻과 동시 통압한 예로 모두 之部에 속하는 글자들이다. 그래서 '怪'자는 之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富'자도 之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有'자는 之韻, 咍韻과의 통압, 그리고 之·脂·侯韻 동시 통압에 사용되었다. 이들에 사용된 咍韻字는 '改'자이고, 脂韻字는 '軌'자이다. 이 두 글자 모두 앞에서 之部에 속한다고 하였다.

'狩'자와 '阜首'자 모두 ≪詩經≫시대 幽部에 속한 글자들이었다.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 용례가 각각 1회뿐이어서 之部에 속하는 지 아니면 幽部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兩漢시기 문인들의 용운을 보면 '阜首'자는 대부분 幽部에 속한 운들과 통압하였다. '狩'자는 兩漢 전체 용례가 1회뿐이어서 알 수 없지만 諧聲관계에 있는 '守'자가 幽部

15) 賈誼와 張衡은 周洛方言區 문인이며, 王褒와 揚雄은 楚方言區 문인이다.

에 포함되어있다.

‘友右副’자는 ≪詩經≫시대 之部에 속한 글자들이었다.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 ‘友’자의 용례는 之韻과 통압 1회, 侯韻과 통압 1회 모두 2회뿐이다. 侯韻字는 ‘茂’자로 ≪詩經≫시대 幽部에 속하였고, 魚部나 幽部자와 통압하고 있다. 兩漢시대 대부분 문인들의 용운에 ‘友’자는 之部字와 통압하고 있어 之部에 포함시킨다. ‘右’자는 ≪詩經≫시대 侯部에 속한 厚韻의 ‘後’자와 통압하고 있고, ‘副’자는 ≪詩經≫시대 侯部에 속한 虞韻의 ‘數’자와 魚部에 속한 語韻의 ‘距’자와 동시 통압하고 있다. ‘右副’자를 압운자로 사용한 秦晋지역 문인은 馬融인데, 양한시기 문인 전체에서 ‘右’자를 압운자로 사용한 문인은 張衡, 蔡邕, 胡廣이다. 周洛方言區 사람들인 張衡과 蔡邕만이 之部字와 통압하고 있다. 이로 보면 ‘右’자는 之部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副’자는 諧聲관계에 있는 ‘富’자가 본 韻部에 포함되어있다.

위의 사실로 尤韻은 ‘郵謀, 有友副, 囿富’자와 나머지 尤韻字 둘로 나누어진다.

2-2. 支部

≪詩經≫시대의 支部에는 ≪廣韻≫ 支韻(일부분). 齊韻(일부분), 佳韻이 포함되어 있다.[16] 그리고 支韻은 歌部와 支部 둘로 나뉘어져 있다. 兩漢시기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먼저 사용된 支韻字와 통압 관계로 살펴보겠다.

운	작가	사용한 운자
독용에 사용된 支韻字	馮衍	知儀
	杜篤	祇麾奇螭披斯 移虧危池
	傅毅	戲卑, 宜枝, 離皮, 羈垂
	班固	麗侈, 誼避累
	馬融	池陂, 彼此
	秦嘉	施爲

16) 羅常培·周祖謨, 16쪽.

佳韻과 통압한 支韻字	班固	螭羆
齊韻과 통압한 支韻字	馬融	議瑞
	班固	規
脂韻과 통압한 支韻字	馮衍	披
微韻과 통압한 支韻字	班固	羆垂
	傅毅	麾
戈韻과 통압한 支韻字	杜篤	氏奇螽彌騠
佳·齊韻과 동시 통압한 支韻字	班固	池猗陂
	杜篤	支題璃觿
佳·歌韻과 동시 통압한 支韻字	傅毅	谿
佳·麻韻과 동시 통압한 支韻字	馬融	隨
脂·微韻과 동시 통압한 支韻字	杜篤	危
	班固	奇
佳·齊·戈韻과 동시 통압한 支韻字	馬融	池委陂螭鯢
脂·齊·灰韻과 동시 통압한 支韻字	馬融	危枝
脂·微·佳韻과 동시 동시 통압한 支韻字	馬融	枳

〈표7 支韻 독용 및 통압에 사용된 운자 및 작가〉

支韻은 ≪詩經≫시대에 일부분은 支部에 속하였고, 일부분은 歌部에 속하였다. 〈표7〉에서의 支韻자 중 '支枝規知卑此枳斯氏'자는 支部에 속한 자이고, '儀祇麾奇螭披移虧危池戲宜離皮羈垂麗侈誼避累 陂彼施爲螭羆議瑞螽彌騠猗題璃觿谿隨委鯢'자는 歌部에 속한 자이다. 羅常培 · 周祖謨는 兩漢 支部와 歌部를 前漢시기와 後漢시기로 나누었고, 後漢시기에 이르러 支部에 속한 支韻과 歌部에 속한 支韻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하였다.[17]라고 하였지만 위의 표를 보면 支韻은 ≪詩經≫시대의 歌部와 支部 관계없이 서로 통압하고 있다. 즉 支韻은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詩經≫시대에 齊韻은 支部, 微部, 祭部에 속하였다. 兩漢시기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齊韻字와 통압 관계로 살펴보겠다.

17) 羅常培·周祖謨, 26쪽.

운	작가	사용한 운자
독용에 사용된 齊韻字	馬融	鷖鷗
	班固	禮濟
		系帝
支韻과 통압한 齊韻字	馬融	帝
	班固	齊
脂韻과 통압한 齊韻字	班固	迷
		帝
支·佳韻과 동시 통압한 齊韻字	班固	隄
	杜篤	觿
脂·皆韻과 동시 통압한 齊韻字	班固	躋迷稽低
祭·隊韻과 동시 통압한 齊韻字	班固	契
支·佳·戈韻과 동시통압한 齊韻字	馬融	堤
支·佳·灰韻과 동시통압한 齊韻字	馬融	磎

〈표8 齊韻 독용 및 통압에 사용된 운자 및 작가〉

위의 표에서의 齊韻자 중 '帝觿磎隄堤'자는 ≪詩經≫시대에 支部에 속하였고, '禮濟迷稽低齊躋'자는 脂部에 속하였으며, '契'자는 祭部에 속하였다. '系鷖鷗'자는 어디에 속하였는지 용례가 없어 알 수 없다. 독용과 통압상황으로 보면 '觿磎隄堤'자는 支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禮濟迷稽低齊躋'자는 脂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契'자는 祭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詩經≫시대에 支部에 속하였던 '帝'자는 독용, 支韻과 통압, 脂韻과 통압에 사용되어 支部에 속하는지 아니면 脂部에 속하는지 단정지을 수 없지만, '帝'자와 통압한 脂韻字는 '地'자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地'자는 ≪詩經≫시대에 歌部에 속하였다. 秦晋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 '地'자의 용례는 이것뿐이지만 兩漢시기 다른 지역 문인들의 용운에서도 支部字와 통압하고 있다. 이로 보면 '地'자는 支部에 속하고 따라서 '帝'자와 '系'자도 支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鷖鷗'자도 용례가 이것뿐이어서 어느 운부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두 글자의 反切字가 '奚'와 '雞'로 모두 支部에 속하는 글자들이다. 그래서 이 두 글자도 支部에 포함시킨다.

3. 나오면서

之韻의 독용과 통압 상황으로 운부를 분류한 결과 兩漢시기 秦晋지역 문인들 用韻에서의 之部는 ≪廣韻≫ 之韻, 咍韻의 '來裁財災, 海在, 再采態載代'자, 灰韻의 '悔'자, 皆韻의 '戒'자, 脂韻의 '否備軌'자, 尤韻의 '郵謀, 有友副, 囿富'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支部는 ≪廣韻≫ 支韻, 佳韻, 齊韻의 '觿磎隄堤鷖鷍系帝'자, 脂韻의 '地'자가 포함되어 있다.

羅常培·周祖謨가 나눈 운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8]

韻部	본고 韻類	羅常培 · 周祖謨 韻類	
之	≪廣韻≫ 之韻, 咍韻의 '來裁財災, 海在, 再采態載代'자, 灰韻의 '悔'자, 皆韻의 '戒'자, 脂韻의 '否備軌'자, 尤韻의 '郵謀, 有友副, 囿富'자	≪廣韻≫之韻, 咍韻, 灰韻, 尤韻, 脂韻, 皆韻, 厚韻(畝,母), 軫韻(敏)	
支	≪廣韻≫ 支韻, 佳韻, 齊韻의 '觿磎隄堤鷖鷍系帝'자, 脂韻의 '地'자	前漢	≪廣韻≫支韻, 齊韻, 佳韻, 至韻
		後漢	≪廣韻≫支韻, 佳韻, 齊韻, 至韻

<參考文獻>

逯欽立 輯校, ≪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 木鐸出版社, 1983, 臺灣
丁福保, ≪全漢三國晉南北朝詩≫, 世界書局, 1978, 臺灣

18) 각 韻部 속에 포함된 구체적인 韻類는 羅·周의 韻譜를 참조.

嚴可均, ≪全上古秦漢魏晉南北朝文≫, 世界書局, 1982, 臺灣
余迺永 校著, ≪互註校本宋本廣韻≫, 聯貫出版社, 1980, 臺灣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廣東教育出版社, 2000, 中國
董同龢 著, 孔在錫 譯, ≪漢語音韻學≫, 凡學圖書, 1975, 서울
羅常培·周祖謨, ≪兩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第一分冊, 科學出版社, 1958, 北京
周祖謨, ≪周祖謨學術論著自選集≫,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3, 北京
于安瀾, ≪漢魏六朝韻普≫, 河南人民出版社, 1898, 中國
丁啓陣, ≪秦漢方言≫, 東方出版社, 1991年, 北京
付海波, 劉冠才, 劉文敏, 〈論脂微兩部在兩漢時代的關係〉,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 第4卷 第2期, 2002年
謝榮娥,〈秦漢時期楚方言區文獻中的東部與冬部〉, ≪武漢大學學報≫, 第62卷 第6期, 2009.11
劉冠才,〈論質物眞文在兩漢時代的關系〉, ≪語言研究≫特刊, 2002年
趙振鐸, 〈兩漢的經學和語言學〉, ≪楚雄師專學報≫第14卷 第1期, 1999年1月
劉冠才,〈論兩漢陽聲韻中的去聲字〉, ≪古籍整理研究學刊≫第4期, 2003年 7月
李恕豪,〈揚雄方言中的秦晋方言〉, ≪四川師範大學學報≫ 1992年 第1期,
李雄吉, 〈兩漢時期 詩歌用韻研究〉, ≪中國學≫ 第37輯, 2010년 12월

<中文提要>

语言随着时性和地性不同, 不断演变。从汉武帝开始崇尚儒学, 经学发展起来了。随着语言学自然建立一个学问分野进行了系统的研究。以後≪尔雅≫、≪方言≫、≪说文解字≫、≪释名≫出现了。特别扬雄的≪方言≫是研究汉代方言的重要材料。後代的许多学者整理≪方言≫的方言地区分类7个方言区, 其中之一秦晋方言是以汉代首都长安为中心的当时共同语'通语'的基础方言。两汉的秦晋地区包括今山西省西部和陕西省宁夏回族自治区、甘肃省. 考察秦晋方言可以了解两汉时期共同语的面貌。

本稿以≪两汉魏晋南北朝韵部演变研究≫的韵谱为材料, 通於两汉时期

秦晋文人使用的押韵情况, 考察之部和支部分类过程, 以及每一韵部里面有什么韵类。进而考察比较罗常培・周祖谟分类的两汉时期的韵部起来有什么样的差异。

结论认为, 两汉时期秦晋文人的之部包括≪广韵≫之韵、,咍韵的'来裁财灾、海在、再采态载代'字、灰韵的'悔'字、皆韵的'戒'字、脂韵的'否备轨'字、尤韵的'邮谋、有友副、囿富'字, 支部包括≪广韵≫支韵、佳韵、齐韵的'觿溪堤堤鷖鸂系帝'字、脂韵的'地'字。

關鍵詞 : 两汉, 秦晋地域, 韵部, 韵类, 之部, 支部, ≪诗经≫时代, 通押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37~64

≪漢書·本紀≫ 通假字 용례 연구

서원남*·이현경**·최란희***

〈목 차〉

1. 서 론
2. ≪漢書·本紀≫에 나타난 通假字 용례 분석
2.1 상고음의 聲母가 같고 韻母가 다른 경우
2.2 상고음의 韻母가 같고 聲母가 다른 경우
2.3 상고음의 聲母와 韻母 모두 동일한 경우
2.4 상고음의 聲母와 韻母가 모두 다른 경우
3. 결 론

1. 서 론

≪漢書≫는 ≪史記≫와 더불어 중국 史學史上 대표적인 저작으로, 한 무제에서 끊긴 사마천의 ≪史記≫의 뒤를 이은 正史로 '두 번째의 正史'라고도 한다.[1]≪史記≫는 통사로 黃帝때부터 漢武帝 太初년간(BC104~101)의 기록이며, ≪漢書≫는 단대사로 漢高祖 元年(BC206)에서 王莽 地黃4년(AD23)간의 기록이다. 반고는 한서를 편찬함에 있어 ≪史記≫의 체례를 답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의 답습과 수정 등의 과정을 거쳐 위대한 걸작을 완성시켰다. ≪漢書≫는 12帝紀·8表·10志·70列傳으로 총 100권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문헌적 가치는 ≪史記≫와 함께 중국문헌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漢書≫의 문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史記≫와 마찬가지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swnyelin@hanyang.ac.kr)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is38317@hanmail.net)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iljwkim2@yahoo.co.kr)

로 주로 기록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연구 성과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실 ≪漢書≫는 한어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언어문자 사료로서 선진 및 서한 시기의 문자, 훈고, 음운 등 언어현상들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으며 魏晋시기 나아가 수당의 注釋學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 문헌이다. 주지하다시피 통가 현상은 중국의 고대문헌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후대인들의 문헌 해독에 많은 장애가 되었다. 청대 朱駿聲은 '가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고문헌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고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문자의 가차현상을 제대로 판별해 낼 수 없다(不知假借者, 不可與讀古書, 不明古音者, 不足以識假借)'라고 통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지적하고 있다. ≪漢書≫는 편찬시기가 빠르고 고자의 사용, 다양한 판본의 유통으로 인하여 교감작업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고적정리 작업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통가자에 대한 판별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고문헌과 마찬가지로 ≪漢書≫에도 많은 통가자가 사용되고 있고, 그 현상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통가내용을 살펴보자. <武帝本紀>의 "擇兵振旅"구절에 대해서 王先謙은 '擇은 釋으로 써야 마땅하다, 글자를 잘못 쓴 것이다. 古書에서는 釋과 澤을 통용하였는데, 釋과 擇은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글자의 형체가 유사한 관계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擇當爲釋, 字之誤也. 案古書, 釋澤通作, 釋擇不通作, 因形近致訛耳.)'라고 하였고, 楊樹達은 '무릇 동일한 소리의 글자들은 모두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擇과 釋은 모두 睪을 성부로 구성하고 있어, 통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왕선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凡同聲類之字皆可通作. 擇釋同從聲, 自可通作. 王說非.)'라고 하였다. 실제 고서에서는 '釋'과 '澤'이 통용되었고, '擇'과 '釋'도 통용 사례가 보인다. <韓非子·五蠹>편의 '布帛尋常, 庸人不釋'구절의 <論衡·非韓>에서는 '釋'을 '擇'으로 쓰고 있고, <呂氏春秋·察今>의 '故擇先生之成法'구절의 舊註釋에서는 '擇一作釋'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두 주장에 대한 결론으로 이는 통가현상으로 접근해야지 글자의 오류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漢書≫의 통가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漢書·本紀≫의 통가현상에 대하여 <설문>의 풀이와 상고음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漢書≫ 전편에

대한 통가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양한 및 위진, 수당 시대의 통가현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漢書·本紀≫에 나타난 通假字 용례 분석

2.1 上古音의 聲母가 같고 韻母가 다른 경우

1) 雙聲 + 對轉

① 酈 ↔ 鄜

≪漢書·高帝紀上≫「還攻胡陽, 遇番君別將梅鋗, 與偕攻析、酈, 皆降.(또 호양을 공격하다가 번군 별장 매현(梅鋗)을 만나 함께 析과 酈을 공격하니 모두 항복하였다.)」[1]

謹案 : ≪高帝紀上≫의 원문에서 '酈'를 顔師古注에서는 "析酈二縣名蘇如兩音並同耳析縣今內鄕酈卽菊潭縣也.(석(析), 력(酈)은 두 현(縣)의 이름이다. 소주(蘇)시에 속해 있는 이 두 현의 두 음은 모두 일반적인 음(音)이다. 析縣은 지금 내향(內鄕)이라 불리고, 酈縣은 국담현(菊潭縣)이라 불린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는 酈을「南陽縣. 從邑麗聲.(남양현(南陽縣)이다. '邑'을 의부로 삼고 '麗'를 성부로 삼았다.)」로 풀이하여 顔師古注와 같은 의미로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풀이는 ≪史記·楚世家≫에서 「襄公十八年楚人說楚王曰 : 楚之故地, 漢中, 析, 酈可得以復有也.(襄公 18년 초나라 사람이 초왕에게 고하기를 楚나라의 옛 영토인 漢中, 析, 酈을 다시 찾아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酈縣'이 ≪漢書·地理志≫의 '鄜縣'과 같으며, 이를 통해 '酈'와 '鄜'가 통용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문헌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呂氏春秋·順民≫에서는 '鄜其手'라고 하였고, ≪論衡·感虎≫에서는 '酈其手'라고 하였다. 따라서 ≪高帝紀上≫의 '酈'은 '鄜와 통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酈'의

1) 坿考證 漢 班固 撰 唐 顔師古 注 據武英殿本排印 ≪四部備要≫ 臺北, 臺灣中華書局 景排印本 上卷 12면.

상고음은 ‘支來’이고, ‘鄒’의 상고음은 ‘錫來’이다. ‘酈’와 ‘鄒’의 성모는 모두 ‘來母’자로 두 글자는 雙聲을 이룬다. 그리고 ‘酈’의 운모는 ‘支部’로 원래는 ‘佳部’의 陰聲韻으로 음은 [ig]이다. ‘鄒’의 운모는 ‘錫部’로 ‘佳部’의 入聲韻이며 음은 [ik]이다. 이것은 주요 모음은 변하지 않고, 운미가 다른 운미로 변하는 것으로, 이 때 변하고 난 뒤의 운미는 변하기 전의 운미와 조음 위치가 동일하다. 이러한 音變 현상을 ‘對轉’이라고 하는데, ‘支部’와 ‘錫部’는 ‘陰入對轉’의 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酈’와 ‘鄒’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② 亡 ↔ 無

≪漢書·高帝紀下≫ 「其與秦始皇帝守塚二十家, 魏、齊各十家, 趙及魏公子亡楚忌各五家令視其塚, 複, 亡與它事.(그는(한고조유방)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도록 20家를, 초, 위, 제왕에게는 각 10家를, 조왕 및 위나라 공자 무기에게는 각 5家를 하사하여 그 무덤들을 보살피도록 명했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하사하는 것이 없었다.)」[2]

謹案 : ≪高帝紀下≫의 원문에서 ‘亡’을 顔師古注에서는 “亡忌即信陵君也.(‘亡忌’는 魏나라의 信陵君을 말한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亡’은 “逃也. 從人從匚.(도망치다. ‘人’과‘匚’를 의부로 삼았다.)”로 풀이하고, ‘無’ 또한 “亡也. 從亡無聲.(도망치다. ‘亡’을 의부로 삼고, ‘無’을 성부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史記·高祖本紀≫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十二月, 高祖曰 : 秦始皇帝、楚隱王陳涉、魏安釐王、齊緡王、趙悼襄王皆絕無後, 予守塚各十家, 秦皇帝二十家, 魏公子無忌五家.(12월에 말하기를 “진나라 시황제, 초나라 은왕 진섭, 위나라 안리왕, 제나라 민왕, 조나라 동양왕이 모두 끊겨 후손이 없고, 각각 열 가구씩 묘를 수호하는 민가를 주고, 진시황제는 이십 가구를 주고, 위 공자 무기에게는 다섯 가구를 주어라” 하라고 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므로, ≪史記≫에서의 ‘無忌’와 ≪漢書≫에서의 ‘亡忌’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 시대의 원전에서 ‘無忌’와 ‘亡忌’가 같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漢書≫에서의 ‘亡’과 ≪史記≫의

2)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上卷 17면.

‘無’는 서로 통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두 글자는 의미가 같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인해 종종 통가가 되고 있다. ‘亡’의 상고음은 ‘陽明’이고, ‘無’의 상고음은 ‘魚明’이다. ‘亡’과 ‘無’의 성모는 ‘明’母로, 두 글자는 雙聲을 이루고 있다. ‘亡’의 운모는 ‘陽部’로, ‘魚部’의 陽聲韻이며, 음은 [ang]이다. ‘無’의 운모는 ‘魚部’로 陰聲韻을 가지고 있으며, 음은 [ag]이다. ‘亡’과 ‘無’는 주요 모음은 변하지 않고, 운미가 조음 위치가 동일하지만, 다른 운미로 바뀌는 ‘對轉’ 관계에 있으며, ‘陽陰對轉’이다. 따라서 ‘亡’과 ‘無’는 성모가 雙聲이고, 운모가 ‘魚部’에 속하므로 이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③ 耳 ↔ 仍

≪漢書·惠帝紀≫「上造以上及內外公孫 、耳孫有罪當刑及當爲城旦舂者, 皆耐爲鬼薪、白粲.(상조(上造)이상 및 내외의 공손(公孫)·이손(耳孫)에게는 용(舂)이나 성단(城旦)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들을 하사하여 귀신(鬼薪)이나 백찬(白粲)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3]

謹案 : ≪惠帝紀≫의 원문에서 ‘仍’를 顔師古注에서는 「據爾雅昆孫之者爲仍孫仍耳聲相近.(≪爾雅≫에서 昆孫의 아들은 仍孫이다. ‘仍’와 ‘耳’의 음은 비슷하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耳’는 「主聽也. 象形. 凡耳之屬皆從耳.(듣는 것을 주관한다. 상형이다. 무릇 귀에 속하고 모두 ‘耳’를 의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仍’은 「因也. 從人乃聲.(인하다. ‘人’을 의부로 삼고, ‘乃’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이러한 통가 현상은 다른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爾雅·釋親≫에서 ‘仍孫’을 풀이하기를 ‘玄孫의 아들은 來孫이고, 來孫의 아들은 昆孫이며, 昆孫의 아들은 仍孫이므로, 즉 仍孫은 팔세손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漢書·惠帝紀≫의 ‘耳孫’과 ≪爾雅≫의 ‘仍孫’ 동일 인물이므로 ‘耳’와 ‘仍’는 서로 통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耳’의 상고음은 ‘之日’이고, ‘仍’의 상고음은 ‘蒸日’이다. ‘耳’와 ‘仍’의 성모는 ‘日母’에 속하므로 두 글자는 雙聲을 이룬다. ‘耳’의 운모는 ‘之部’로 陰聲韻을 가지고 있으며, 음은 [əg]이다. ‘仍’의 운모는 ‘蒸部’로 ‘之

3)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二 2면.

部’의 陽聲韻을 가지고 있으며, 음은 [əng]이다. ‘耳’와 ‘仍’는 주요 모음은 변하지 않고, 운미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지만, 다른 운미로 바뀌는 ‘對轉’ 관계에 있으므로 ‘陰陽對轉’이다. 그러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④ 趨 ↔ 促 ↔ 趣

≪漢書·高帝紀≫ 「漢王輟飯吐哺, 曰 : “豎儒幾敗乃公事 ! ”令趨銷印.(한왕은 음식을 먹다가 황급히 멈추고 말하기를 “어리석은 제가 여러 차례 공사를 그르쳤습니다! 급히 官印을 거두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漢書·成帝紀≫에서 「遣丞相長史、禦史中丞持節督趣逐捕.(승상부의 장사(관직명)와 어사부의 중승(관직명)을 지절(持節)로 임명하여 급히 뒤쫓아 가서 붙잡도록 독려했다.)」[4]

謹案 : ≪高帝紀≫의 원문에서 ‘趨’를 顔師古注에서는 「趨讀曰促. 促, 速也. 他皆類此.(‘趨’는 ‘促’라고 읽는다. ‘促는 급하다. 라는 뜻이다. 그것은 모두 이와 비슷하다.)」라고 풀이하였다. 趨’와 ‘促’의 발음 ≪說文≫에서 ‘趨’는 「走也. 從走芻聲.(가다. ‘走’를 의부로 삼고, ‘芻’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고, ‘促’은 「迫也. 從人足聲.(가까워 오다. ‘人’을 의부로 삼고, ‘足’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禮記·樂記≫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宋音燕女溺志, 衛音趨數煩志, 齊音敖辟喬志.(송의 음악은 그 의지를 약하게 하여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하고, 위의 음악은 지나치게 빨라서 그 의지를 조급하게 하며, 제의 음악은 오만하고 편벽되니 그 의지를 교만하게 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高帝紀≫의 ‘趨’는 顔師古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促’과 동일하게 읽었으므로 두 글자는 통가될 수 있다.

謹案 : ≪成帝紀≫의 원문에서 ‘趣’를 顔師古注에서는 「讀曰促.(‘促’라고 읽는다.)」라고 하였는데, ≪說文≫에 ‘趣’는 「疾也. 從走取聲.(빠르다. ‘走’를 의부로 삼고, ‘取’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고, ‘促’

4)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十 23면, 11면.

은 「迫也. 從人足聲.(가까워 오다. '人'을 의부로 삼고, '足'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글자가 의미가 동일하지 않지만 통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史記·陳涉世家≫에서 「趣趙兵亟入關.(조나라의 병사들은 함곡관으로 가까이 들어가다.)」라고 풀이하였고, ≪禮記·月令≫에서도 「孟秋之月 : 乃命有司, 趣民收斂, 務畜菜, 多積聚.(맹춘 달에 말하기를 유사에게 명하여 백성들을 재촉해서 조세를 수납하게 하고 야채를 저장하여 생활 필수품을 모으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趣'는 '促'의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로 보아 서로 통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趨'의 상고음은 '侯淸'이고, '促'의 상고음은 '屋淸'이며 '趣'의 상고음은 '侯淸'이다. '趨'와 '促', '趣'의 성모는 '淸母'로, 세 글자는 모두 雙聲을 이룬다. '趨'와 '趣'의 운모는 '候部'로 陰聲韻을 가지고 있으며, 음은 [ug]이다. '促'의 운모는 '屋部'로 '侯部'의 入聲韻을 가지고 있으며, 음은 [uk]이다. '趨', '趣'와 '促'은 주요 모음은 변하지 않고, 운미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지만, 다른 운미로 바뀌는 '對轉' 관계에 있으며, '陰入對轉'이다. 그러므로 '趨'와 '促', '趣'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2) 雙聲 + 旁轉

① 飢 ↔ 饑

≪漢書·武帝紀≫ 「三年春, 河水溢於平原, 大饑, 人相食.(무제 삼년 봄에, 황하의 물이 평원에 넘쳐흘러서 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5]

謹案 : ≪武帝紀≫의 원문에서 '饑'를 顔師古注에서는「河溢之處損害田畝, 故大飢.(황하의 물이 넘치는 곳에서 논밭의 피해가 있어, 고로 기근이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飢'를 「餓也. 從食幾聲.('餓'와 같으며 '食'을 의부로 삼고, '幾'를 성부로 삼았다.)」 라고 풀이하고, '饑'는 「穀不孰爲饑. 從食幾聲.(곡식이 익지 않아 굶주리게 된다. '食'을 의부로 삼고, '幾'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원문과 注를

5)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六 3면.

비교해 보면, ‘飢’와 ‘饑’는 서로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飢’의 상고음은 ‘脂見’이고, ‘饑’의 상고음은 ‘微見’이다. ‘飢’와 ‘幾’의 성모는 ‘見母’에 속하며, 두 글자는 雙聲을 이룬다. ‘飢’의 운모는 ‘脂部’이고, 음은 [id]이다. ‘饑’의 운모는 ‘微部’로 음은 [əd]이다. 이것은 운미가 동일하고, 주요 모음이 비슷한 다른 운의 글자로 변하는 旁轉이다. 또한 李方桂(1980: 64)에 의하면, ‘脂部’와 ‘微部’는 시경 압운에서도 서로 혼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2.2 상고음의 韻母가 같고 聲母가 다른 경우

1) 疊韻 + 旁紐

① 卒 ↔ 猝

≪漢書·平帝紀≫「以元壽二年倉卒時, 橫賦斂者, 償其直.(元壽 2년에, 갑작스럽게 함부로 조세를 부과하여 거둬들인 자들에게 그것을 직접 배상하도록 했다.)」[6]

謹案 : ≪平帝紀≫원문에서 ‘卒’을 顔師古注에서 「卒讀曰猝.(‘卒’을 ‘猝’으로 읽었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卒’은 「隸人給事者衣爲卒.(노예나 급사가 입는 옷이 졸(卒)이다.)」라고 풀이하고, ‘猝’은 「犬從艸暴出逐人也. 從犬卒聲.(개가 풀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람을 쫓는다. ‘犬’을 의부로 삼고, ‘卒’ 을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풀이는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孫臏兵法≫影本注에서「讀卒爲猝.(‘卒’을‘猝’라고 읽었다.)」와「卒窘猝窘卽.(‘卒窘’을 ‘猝窘’으로 한다.)」로 顔師古注와 동일한 풀이를 하고 있다. 따라서 ‘卒’와 ‘猝’은 통가될 수 있다. ‘卒’의 상고음은 ‘物精’이고, ‘猝’의 상고음은 ‘物淸’이다. ‘卒’과 ‘猝’의 운모는 ‘物部’로 疊韻을 이룬다. ‘卒’의 성모는 ‘精[ts]’이고, ‘猝’의 성모는 ‘淸[tsh]’으로, 둘 다 齒音으로 ‘卒猝旁紐’임

6)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十 二 3면.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② 當 ↔ 堂

≪漢書·高帝紀≫「周勃定代, 斬陳豨於當城.(주발(周勃)이 대(代)를 평정하고, 당성(當城)에서 진희(陳豨)를 참수했다.)」[7]

謹案 : ≪高帝紀≫의 원문에서는 '當'을 「당성(當城)」이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當'은 「田相值也. 從田尚聲.(밭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田'를 의부로 삼고, '尚'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고, '堂'은「殿也. 從土尚聲.(큰집이다. '土' 를 의부로 삼고, '尚'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璽彙≫에서는 '堂城府', '堂城', '當城'을 모두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高帝紀≫에서의 '當城'과 '堂城'은 같으므로 '當'과 '堂'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當'의 상고음은 '陽定'이고, '堂'의 상고음은 '陽端'이다. '當'과 '堂'의 운모는 '陽部'로 疊韻을 이룬다. '當'의 성모는 '定[d]'이고, '堂'의 성모는 '端[t]'로, 둘 다 舌頭音이고, '定端旁紐'이다. 그러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③ 信 ↔ 申

≪漢書·宣帝紀≫「遭值匈奴乖亂, 推亡固存, 信威北夷, 單於慕義, 稽首稱藩.(흉노의 반란을 만났으나, 무도한 나라를 전복시키고 도를 존중하는 나라를 공고히 하여, 북쪽 오랑캐에게 믿음으로 위엄을 보이자, 흉노의 선우 모의(慕義)는 엎드려 절하고 스스로 번(藩, 속국)이라 칭하였다.)」[8]

謹案 : ≪宣帝紀≫의 원문에서 '信'은 顔師古注에서는 「信讀爲申, 古通用字. 一說恩信及威並著北夷.(信'은 '申'으로 읽으며, 옛날에는 글자를 통용하였다. 일설에는 은혜 믿음으로 북쪽 오랑캐에게 위엄을 드러냈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信'은 「誠也. 從人從言.(진실하다. 人과 言을 의부로 삼고 있다.)」라고 하고, '申'은 「神也. 七月, 陰

7)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下卷 16면.
8)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八 21면.

氣成, 體自申束.(펀다. 7월을 대표하고, 이 시기에는 음기를 형성하고, 몸을 이루어 스스로를 폈다 오므렸다 한다.)」라고 풀이하였다. 이외에도 ≪史記·管晏列傳≫에서도 「吾聞君子詘於不知己而信於知己者.(나는 군자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굴복하나 자기를 아는 자에게는 자기 뜻을 편다고 들었다.)」라고 하고, ≪禮記·儒行≫에서 「雖危起居, 竟信其志.(비록 기거동작이 위태롭지만 필경 그 뜻을 믿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釋文≫에서도 동일하게 '信'을 「信, 本又作伸, 古伸字義同.('信'은 본래 伸로 되고, 옛날 伸와 의미가 같다.)」라고 풀이하여 顔師古注와 동일한 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宣帝紀≫의 '信'은 '申 '과 통용할 수 있다. '信'의 상고음은 '真心'이고, '申'의 상고음은 '真書'이다. '信' 과 '申'의 운모는 모두 '真部'에 속하며, 疊韻을 이룬다. '信'의 성모는 '心[s]'이고, '申'의 성모는 '書[ɕ]'이다. 두 글자 동일하게 齒音이며 '信申旁紐'이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④ 伉 ↔ 犺

≪漢書·宣帝紀≫「秋, 大發興調關東輕車銳卒, 選郡國吏三百石伉健習騎射者, 皆從軍.(가을에, 관동의 兵車와 날랜 군사를 크게 일으키고, 郡國의 300석 이상 관리로 하여금 강건하고 말 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자들을 선발하여 모두 종군하게 했다.)」[9]

謹案 : ≪宣帝紀≫의 원문에서 '伉'은 顔師古注에서는 「伉強也音口浪反.('항(伉)'은 '강하다(強)'의 의미이고, 음은 口와 浪의 반절로 (kang)이라 발음한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伉'은 「人名. 從人亢聲.(인명(人名)'이다. '人'을 의부로 삼고 '亢'을 성부로 삼았다.)」로 풀이하였으며, '犺'은 「健犬也. 從犬亢聲.(건장한 개다. '犬'을 의부로 삼고, '亢'을 성부로 삼았다.)」로 풀이하였다. 顔師古注 '伉'과 ≪說文≫ '犺'은 모두 '강하고 건장하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용됨을 알 수 있다. '伉'의 상고음은 '陽見'이고, '犺'의 상고음은 '陽溪'이다. '伉'과 '犺'의 운모는 '陽部'에 속하며 疊韻을 이루고 있다. '伉'의 성모는 '見[k]'이고, '犺'의 성모는 '溪[kh]'이나, 두 글자 모두 牙音이며 '見溪

9)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八 6면.

旁紐'이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⑤ 進 ↔ 贐(賚)

≪漢書·高帝紀≫「蕭何爲主吏, 主進, 令諸大夫曰 : 進不滿千錢, 坐之堂下.(소하(蕭何)는 주리(관직명)로, 하례드릴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여러 대부들에게 명하기를, '2,000전이 안 되는 선물을 드리는 자는 당하에 앉히도록 하라고 하였다.)」[10]

謹案 : ≪高帝紀≫의 원문에서 '進'은 顔師古注에서는 「進者會禮之財也.('進'은 회례(會禮)에서의 '재물'을 뜻한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進'은 「登也. 從辵, 閵省聲.(오르다. '辵' 을 의부로 삼고, 생략된 '閵'을 성부로 하고 있다.)」로 풀이하고, '贐'은 「會禮也.(회의(會議)의 예의(會禮))」라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呂氏春秋·達鬱≫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원문에 이르기를 「'盡'을 '進'으로 읽었다.」라고 하였으며, ≪爾雅·釋詁≫에서도 「'藎'은 '進'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사용되는 언어들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지만 비슷한 발음의 글자들이 서로 통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進'의 상고음은 '真邪'이고, '贐'의 상고음은 '真精'이다. '進'과 '贐'의 운모는 '真部'로 疊韻을 이룬다. '進'의 성모는 '邪[z]'이고, '贐'의 성모는 '精[ts]'로, 두 글자 모두 齒音으로 '進贐旁紐'이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⑥ 辟 ↔ 僻

≪漢書·高帝紀≫「又以辟陋之地, 自漢中行威德, 誅不義, 立有功. (또한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 스스로 한중에서 위엄 있는 덕을 행하고, 불의한 자를 벌하고 공을 세웠다.)」[11]

謹案 : ≪高帝紀≫의 원문에서 '辟'는 顔師古注에서는 「辟讀曰僻.('辟'는 '僻'라고 읽는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辟'을 「法也.

---

10)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上卷 3면.

11)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下 3면.

從卩從辛, 節制其辠也 ; 從口, 用法者也.(법도. 卩을 의부로 삼고, 그 죄를 절제하다. 口을 의부로 삼고,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僻'는 「避也. 從避辟聲.(비키다. '避'을 의부로 삼고, '辟'를 성부로 삼는다.)」로 풀이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동일시대인 문헌인 ≪史記≫에서도 볼 수 있다. ≪史記·範雎蔡澤列傳≫의「夫秦國辟遠, 寡人愚不肖, 先生乃幸辱至於此.(진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과인은 어리석고 착하지 못한 사람인데 선생께서 욕되게 생각지 않으시고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高帝紀≫의 해석과 동일하다. 따라서 ≪史記≫와 ≪漢書≫ 모두 '辟'의 풀이를 '僻'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辟'의 상고음은 '錫幫'이고, '僻'의 상고음은 '錫滂'이다. '辟'과 '僻'의 운모는 '錫部'에 속하며 疊韻을 이룬다. '辟'의 성모는 '幫[p]'이고, '僻'의 성모는 '滂[pʰ]'이다. 두 글자는 모두 脣音으로 '辟僻旁紐'이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⑦ 辨 ↔ 班

≪漢書·高帝紀≫「吏以文法教訓辨告, 勿笞辱.(관리들은 문의 법도로써 교훈하고 변고하되, 매질하거나 모욕하지 말도록 하였다.)」라고 하고 있다.[12]

謹案 : ≪高帝紀≫의 원문에서 '辨'를 顔師古注에서 「辨告者, 分別義理以曉喻之.('辨告'라는 것은 깨닫는 것으로 의리를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辨'은 「憂也. 從心辡聲. 一曰急也.(근심하다. '心 '을 의부로 삼고, '辡'를 성부로 삼는다. 일설에는 급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고, '班'은 「分瑞玉. 從珏從刀.(서옥을 나누다. '珏'과 '刀'를 의부로 삼는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두 글자들은 ≪說文≫에서의 풀이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서로 통가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상고시기에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高帝紀≫의 '辨'과 '班'은 서로 통용될 수 있다. '辨'의 상고음은 '元並'이고, '班'의 상고음은 '元幫'이다. '辨'과 '班'의 운모는 모두 '錫部'에 속하며, 疊韻을 이룬다. '辨'의 성모는 '並[b]'이고, '班'의 성모

12)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下 4면.

는 '幫[p]'으로, 두 글자 모두 脣音이며, '辨班旁紐'이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⑧ 齊 ↔ 齋

≪漢書·高帝紀≫「於是漢王齊戒設壇場, 拜信爲大將軍, 問以計策. (그리하여 한 왕은 재계하고 단상을 설치하여,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계책을 물었다.)」[13]

謹案 : ≪高帝紀≫의 원문에서 '齊'는 顔師古注에서는 「齊讀曰齋.('齊'는 '齋'라고 읽는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齊'를 「禾麥吐穗上平也. 象形. 凡叁之屬皆從叁.('곡식은 평탄함 위에서 생기다.'라고 하고, 상형이다. 무릇 재계하는 것에 속하고 모두 叁을 의부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풀이는 ≪孟子·公孫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원문에서 보자면「弟子齊宿而後敢言, 夫子臥而不聽, 請勿複敢見矣.(제자가 재계하한 후에야 감히 말씀드리는데 선생님께서는 누워계시며 듣지 않으시니, 다시는 감히 뵙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풀이하였으며, ≪禮記·曲禮≫에서는 「故日月以告君, 齊戒以告鬼神, 爲酒食以召鄉黨僚友, 以厚其別也.(고로 일월을 임금에게 보고하고 재계하여 귀신에게 알리며,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향당의 동료들과 벗들을 부르고 그 두터움이 다르다.)」라고 하였다. ≪釋文≫에서 '齊'는 「齊, 本或作齋.(가지런하다. 본래 재계하다로 된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齊'의 상고음은 '脂從'이고, '齋'의 상고음은 '脂精'이다. '齊'와 '齋'의 운모는 모두 '脂部'에 속하며, 疊韻을 이룬다. '齊'의 성모는 '從[dz]'이고, '齋'의 성모는 '精[ts]'이므로, 두 글자 齒音이다. 따라서 '齊齋旁紐'이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2) 疊韻 + 準旁紐

① 飭 ↔ 飾

13)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上 17면.

≪漢書·宣帝紀≫「今複飭兵重屯, 久勞百姓, 非所以綏天下也.(오늘날 복식을 갖춘 병사들이 거듭 주둔하고 있어, 백성들이 오래도록 수고로우니 천하가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14]

謹案 : ≪宣帝紀≫의 원문에서 '飭'를 顔師古注에서는 「飭讀與勅同飭整也.('飭'은 '勅'으로 읽고, '飭'은 정돈하다의 의미이다.)」라고 풀이 하였다. ≪說文≫에서 '飭'은 「致堅也. 從人從力, 食聲.(가지런히 정리하다. '人'과 '力'을 의부로 삼고, '食'을 성부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으며, '飾'은 「飭也. 從巾從人, 食聲.(정돈하다. '巾'과 '人'을 의부로 삼고, '食'을 성부로 삼았다.)」로 풀이하였다. 이러한 풀이는 ≪詩·小雅·六月≫에도 보이고 있는데 원문에 따르면 「六月棲棲, 戎車既飭.(유월에 서둘러서 군대의 수레를 이미 정돈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唐石經에서 '飭'을 '飾'으로 사용하여 '飭'과 '飾'을 모두 '정리하다.'인 동일 의미로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飾'의 상고음은 '職審'이고, '飾'의 상고음은 '職透'이다. '飭'과 '飾'의 운모는 '職部'로 疊韻을 이룬다. '飾'의 성모는 '審[s]'이며, '審'은 '精組'이다. '飾'의 성모는 '透[th]'이며, '透'는 照二 莊組이다. 즉, 두 개가 동일한 종류이지만, 상고 시기에는 '精組'와 '照二 莊組'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審透準旁紐'이다. 그러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② 棺 ↔ 綰

≪漢書·高帝紀≫ 「漢王下令, 軍士不幸死者, 吏爲衣食棺斂, 轉送其家.(한나라 왕이 명령하길, '군사들이 불행하게 죽었으니, 관리들은 옷과 시체를 덮을 홑이불과 관을 준비하여 염을 하여 그들의 집에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15]

謹案 : ≪高帝紀≫의 원문에서 '棺'은 顔師古注에서는 「棺音工喚反.('棺'음자는 '工gong'자의 反切上자와 '喚 huan'자의 反切下자의 합음이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棺'은 「關也. 從木官聲.('關'과 같

14)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八 8면.
15)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上卷 27면.

고, '木'을 의부로 삼고, '官'을 성부로 삼았다.)」라고 하고, '綰'은 「惡也, 絓也. 從糸官聲. 一曰綃也.(나쁘다. '糸'을 의부로 삼고, '官'을 성부로 삼았다. 일설에 의하면 생사로 짠 직물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위의 풀이로 살펴보면 두 글자들은 ≪說文≫에서의 풀이가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서로 통가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상고시기에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高帝紀≫의 '棺'과 '綰'은 서로 통용될 수 있다. '棺'의 상고음은 '元影'이고, '綰'의 상고음은 '元見'이다. '棺'과 '綰'의 운모는 '元部'로 疊韻을 이룬다. 이 두 글자는 각각 '影母'와 '見母'로 조음 위치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喉音과 牙音으로 조음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喉牙準旁紐'이다. 그러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③ 適 ↔ 謫

≪漢書·文帝紀≫ 「乃十一月晦, 日有食之, 適見於天, 災孰大焉!(십일월 그믐날, 일식이 있었는데, 하늘의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었다.)」[16]

謹案 : ≪文帝紀≫의 원문에서 '適'를 顔師古注에서는 「適讀曰謫, 責也, 音張革反. 見音胡電反.('適'는 '謫'라고 읽고, 책임지우다. 음은 '張'과 '革'의 반절이다. '胡'와 '電'의 반절로도 볼 수 있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適'는 「之也. 從辵啻聲.('가다.'라고 하고, 辵을 의부로 삼고, 啻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하고, '謫'는「罰也. 從言啻聲.('처벌하다.'라고 하고, 言을 의부로 삼고, 啻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였다. 이러한 풀이로는 ≪孟子·離婁≫에서 「人不足與適也, 政不足與間也. 唯大人爲能格君心之非.(小人으로 높은 자리 있는 것을 상대하여 허물할 것이 못되며, 有德한 인물을 쓰지 못해서 졸렬하게 되어버린 政事를 是是非非하여 보아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大人이라야 능히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풀이하였고, ≪詩經·商頌·殷武≫에서는 「歲事來辟, 勿予禍適, 稼穡匪.(해마다 하는 일로 와서 뵈어 나에게 禍을 내리고 꾸짖지 말다. 농사일을 게을리

16)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六 7면.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두 글자들은 ≪說文≫에서의 풀이가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서로 통가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상고시기에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文帝紀≫의 '適'과 '謫'은 서로 통용될 수 있다. '適'의 상고음은 '錫書'이고, '謫'의 상고음은 '錫端' 이다. '適'과 '謫'의 운모는 모두 '錫部'에 속하며, 疊韻을 이룬다. '適'의 성모는 '書[ɕ]'이며, 齒音이다. '謫'의 성모는 '端[t]'이며, 舌頭音으로 '適謫準旁紐'이므로 두 글자는 서로 통가될 수 있다.

2.3 상고음의 성모와 운모 동일한 경우

1) 振↔ 賑

≪漢書·文帝紀≫「爲憫父母將何如？其議所以振貸之.(가련한 부모를 위해 장차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賑貸하는 것에 대해 의논 하였다.)」[17]

謹案 : ≪文帝紀≫의 원문에서 '振'는 顔師古注에서는 「振, 起也, 爲給貸之, 令其存立也. 諸振救、振贍, 其義皆同.('振'은 일으키다. 공급하고 주어서 살아남아 일으키게 한다는 뜻이다. '振救'와 '振贍'는 모두 그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振'은 「舉救也. 從手辰聲.(구제하다. '手'를 의부로 삼고, '辰'을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였고, '賑'은 「富也. 從貝辰聲.(풍부하다. '貝'를 의부로 삼고, '辰'을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振'은 '구호할진, 구휼할진'의 의미이고, '賑'은 '구휼할 진 (베풀다)'의 의미로 동일하게 쓰였다. 따라서 '振'은 '구휼하다.'의 의미로 쓰일 경우 '賑'과 서로 통하였다.[18] 따라서 '賑濟'는 당연히 '振'로 되어야 하는데, 후세에는 '振'과 통용되었으며, '振貸'는 '賑貸'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振'과 '賑'는 통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振'의 상고음은 '文照'이고, '賑'의 상고음 역시 '文照'이다. '振'와 '賑'의 성모와 운모 동일하게 雙聲疊韻 동음자로서, 두 글자는 서로 통가할 수 있다.

---

17)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四 6면.

18)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編輯局, 2007, 835면, 1975면.

2) 胸 ↔ 匈

≪漢書·高帝紀≫「何苦乃與公挑戰！羽大怒, 伏弩射中漢王. 漢王傷胸, 乃捫足曰：虜中吾指！(그대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란 말인가! 항우는 크게 노하여, 엎드려 활로 한왕(漢王)을 쏘아 맞추었다. 한(漢)왕은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만, 발에 손을 얹으며'저 오랑캐 놈이 내 발가락을 맞추었다!)」[19]

謹案 : ≪高帝紀≫의 원문에서 '胸'은 ≪說文≫에서「匈或從肉匈. (匈혹은 肉을 의부로 삼는다.)」라고 풀이되어 있으며, '匈'은 「聲也. 從勹凶聲.(소리를 난다. 勹를 의부로 삼고, 凶은 성부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漢書·高帝紀≫ 역시 '胸'과 '匈'은 '흉부'를 나타내는 의미로 통가되었고, ≪玉篇≫에서는 '匈'이 '膺' 혹은 '胷'으로 풀이하였다. 따라서 ≪高帝紀≫와 ≪玉篇≫이 동일한 풀이를 하였으므로 '胸'와 '匈'는 통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胸'의 상고음은 '東曉'이고, '匈'의 상고음 또한 '東曉'이다. '胸'과 '匈'은 雙聲疊韻으로 동음자로서, 두 글자는 서로 통가할 수 있다.

3) 阮 ↔ 原

≪漢書·成帝紀≫「秋, 關東大水, 流民欲入函穀、天井、壺口、五阮關者, 勿苛留.(가을에, 관동지역에 큰 홍수가 나서 유민들을 함곡·정천·호구·오원 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가혹하게 머무르지 못하게 하였다.)」[20]

謹案 : ≪成帝紀≫의 원문에서 '阮'은 顔師古注에서는 「五阮在大郡.(五阮은 大郡에 있다.)」라고 풀이하였다. 이 두 글자는 ≪說文≫에서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글자의 사용의 용례를 살펴보면, '五阮'은 '五原'으로 서로 통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阮'의 상고음은 '元疑'이고, '原'의 상고음 또한 '元疑'이다. '阮'와 '原'은 성모와 운모 모두 동일한 雙聲

19)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上卷 26면.
20)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十 6면.

疊韻 동음자로서, 두 글자는 서로 통가할 수 있다.

4) 亞 ↔ 傍

≪漢書·武帝紀≫「遂北至琅邪, 並海, 所過, 禮祠其名山大川.(드디어 북쪽 낭야에 이르러 바다를 아우르고 거쳐서 명산대천의 사당에 예를 올렸다.)」[21]

謹案 : ≪武帝紀≫의 원문에서 '亞'를 顔師古注에서는 「亞讀曰傍.('亞'을 '傍'으로 읽었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傍'은 「近也. 從人旁聲.(가깝다. '人'을 의부로 삼고, '旁'을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集解≫에 따르면 「服虔曰亞音傍. 傍, 依也.('服虔'은 '亞'을 '傍'이라고 했다. '傍'은 '依'와 같다.)」라고 顔師古注와 동일한 풀이를 하고 있다. '亞'의 상고음은 '陽亞'이고, '傍'의 상고음 역시 '亞'와 동일하다. '亞'와 '傍'은 성모와 운모 모두 같은 雙聲疊韻 동음자로서, 두 글자는 서로 통가할 수 있다.

5) 北 ↔ 背

≪漢書·高帝紀≫「田榮歸, 沛公、項羽追北, 至城陽, 攻屠其城.(전영(田榮)이 돌아와서, 패공과 항우를 추격하여 달아나게 하고, 성양에 이르러 그 성을 공격하여 성안의 주민을 모조리 학살하였다.)」 [22]

謹案 : ≪高帝紀≫의 원문에서는 '北'은 顔師古注에서 「北, 古背字也.('北'은 '背'의 고금자이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北'은 「乖也. 從二人相背.(어그러지다. 두 사람에서 나왔고 서로 등지고 있다.)」라고 풀이하며, '背'은 「脊也. 從肉北聲.('背'은 '脊'와 같다. '肉'을 의부로 삼고, '北'을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였다. '北'은 '달아날 북, 북녘 북'의 의미로 풀이되며, '背'는 '달아날 배, 북쪽 배'의 의미이다. 따라서 '北'과 '背'는 의미상으로 서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으며 ≪高帝紀≫의 '北'은 '背'으로 풀이가 가능하다.[23] '北'의 상고음은 '職幫'

21)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六 21면.
22)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上卷 8면.

이고, '背'의 상고음 역시 동일하다. '北'과 '背'는 성모와 운모 모두 같은 雙聲疊韻 동음자로서, 두 글자는 서로 통가할 수 있다.

6) 罷 ↔ 疲

≪漢書·成帝紀≫「天下虛耗, 百姓罷勞, 客土疏惡, 終不可成.(온 세상은 허모(虛耗)라는 악귀로 가득하고, 백성은 피곤하고, 외지에서 온 풍속은 거칠고 좋지 못했으니, 결국 이룰 수 없게 되었다.)」[24]

謹案 : ≪成帝紀≫의 원문에서는 '罷'를 顔師古注에서는 「罷讀曰疲.('罷'는 '疲'라고 읽는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罷'는 「遣有辠也. 從網、能.(죄를 지은 사람을 보내다. 網과 能을 의부로 삼았다.)」라고 하였고, '疲'는 「勞也. 從疒皮聲.(피로하다. 疒을 의부로 삼았고 皮를 성부로 삼았다.)」로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일한 풀이는 여러 문헌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史記·秦始皇本紀≫에서「安土息民, 以待其敝, 收弱扶罷, 以令大國之君, 不患不得意於海內.(국토를 평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쉬게 하여 다른 나라가 피폐하기를 기다렸다가 약소한 나라를 거두고 피폐한 나를 도왔지만 대국의 군주를 호령함으로써 천하에서 뜻을 얻지 못함을 근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그리고 ≪釋文≫역시「疲, 本亦作罷. 罷, 本或作疲.('疲'은 또한 '罷'이 된다. '罷'은 본래 '疲'이다.)」라고 하고 있어 顔師古注와 동일한 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서로 통가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상고시기에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成帝紀≫의 '罷'과 '疲''은 서로 통용될 수 있다. '罷'의 상고음은 '哥亞'이고, '疲'의 상고음도 '罷'와 동일하다. '罷'와 '疲'는 성모와 운모 모두 같은 雙聲疊韻 동음자로서, 두 글자는 서로 통가할 수 있다.

7) 傅 ↔ 敷

≪漢書·成帝紀≫「古之選賢, 傅納以言, 明試以功.(옛날에 현명한 사람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23) 班固 原著,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編輯局, 2007, 324면, 1685면.
24)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十 10면.

그의 공적을 명확하게 검증하였다.)」[25]

謹案 : ≪成帝紀≫의 원문에서 '傅'을 顔師古注에서는 「傅讀曰敷, 敷陳也.('傅'는 '敷'라고 읽으며, 진술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傅'는 「相也. 從人尃聲.(보좌하다. 人을 의부로 삼고, 尃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였다. ≪史記·宋微子世家≫의 원문에서도 「凡厥庶民, 極之傅言.(무릇 백성들은 원칙을 따르고 진술한 말을 따르기도 한다.)」라고 풀이하여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글자는 통가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동일한 의미이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成帝紀≫의 '傅'와 '敷'는 서로 통용될 수 있다. '傅'의 상고음은 '魚捕'이고, '敷'의 상고음도 '傅'와 동일하다. '傅'와 '敷'는 성모와 운모 모두 같은 雙聲疊韻 동음자로서, 두 글자는 서로 통가할 수 있다.

8) 竟 ↔ 境

≪漢書·元帝紀≫「加以邊境不安, 師旅在外, 賦斂、轉輸, 元元騷動, 窮困亡聊, 犯法抵罪.(더구나 변경이 불안하여 군대는 외곽에 있으니, 토지세를 거두고 이것을 운수해야 하므로,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하여 질서가 문란해지고, 곤궁하여 무기력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여 벌을 받게 되었다.)」[26]

謹案 : ≪元帝紀≫의 원문에서 '竟'을 顔師古注에서는 「竟讀曰境.('竟'은 '境'라고 읽는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竟'은 「樂曲盡爲竟. 從音從人.(악곡을 끝내는 것을 竟이라고 한다. 音과 人을 의부로 삼는다.)」라고 하고, '境'은 「疆也. 從土竟聲. 經典通用竟.('변경'이라고 하고, 土를 의부로 삼고, 竟을 성부로 삼았다. 경전에는 竟을 사용하여 통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용례는 ≪漢書≫ 이외에도 보이고 있다. ≪史記·秦始皇本紀≫에서「天下已定, 外攘四夷以安邊竟, 作宮室以章得意.(천하는 이미 정해졌으며, 외부의 4개의 오랑캐는 그 변경

25)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十 8면.
26)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九 8면.

에 머물고, 궁실은 문장으로써 그 의미를 얻는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春秋左傳·宣公二年≫에서는 「子爲正卿, 亡不越竟, 反不討賊, 非子而誰?(그대는 正卿으로 도망가고 국경을 나가지 않고, 오히려 돌아와서는 토벌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대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禮記·曲禮≫에서도 「入竟而問禁, 入國而問俗, 入門而問諱.(국경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금령을 묻고, 남의 나라의 들어가면 그 풍속을 물으며, 남의 집 문안에 들어가면 그 집의 휘하를 묻는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비록 두 글자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지만 상고시기에 같은 발음이므로 통가가 가능하다.

'竟'의 상고음은 '陽見'이고, '境'의 상고음도 '竟'과 동일하다. '竟'과 '境'은 성모와 운모 모두 같은 雙聲疊韻 동음자로서, 두 글자는 서로 통가할 수 있다.

9) 婁 ↔ 屢

≪漢書·元帝紀≫「朕承至尊之重, 不能燭理百姓, 婁遭凶咎.(짐은 지존의 중함(중책)을 이어받았으나, 백성을 영명하게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 차례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

≪漢書·宣帝紀≫「婁蒙嘉瑞, 獲茲祉福.(여러 차례 훌륭하고 상서로움을 겪었고, 이런 행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였다.[27]

謹案 : ≪元帝紀≫의 원문에서 '婁'를 顔師古注에서는 「婁讀曰屢.('婁'는 '屢'라고 읽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宣帝紀≫의 원문에서 '婁'를 顔師古注에서는「婁古屢字.('婁'는 '屢'의 옛글자이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婁'를 「空也. 從母、中、女, 空之意也. 一曰婁, 務也.(비어 있다. 母、中、女, 空을 의부로 삼았고, 일설에는 종사하다.)」라고 하였으나, '屢'는 ≪說文≫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詩經·小雅·賓之初筵≫에서 동일한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원문에서 「舍其坐遷, 屢舞仙仙.(그 자리를 놓아두고 옮겨가서 자주 춤추기를 너울너울 하도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釋文≫ 또한 「屢, 本作婁.('屢'는 본래 '婁'이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두 글자는 비록 의미

27)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十八 17면, 卷九 8면.

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상고시기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통가가 가능하다. '婁'의 상고음은 '侯來'이고, '履'의 상고음 역시 '婁'와 동일하다. '婁'와 '履'는 성모와 운모 모두 같은 雙聲疊韻 동음자로서, 두 글자는 서로 통가할 수 있다.

10) 雍 ↔ 壅

≪漢書·武帝紀≫「今或至闔郡而不薦一人, 是化不下究, 而積行之君子雍於上聞也.(지금 만약 합군(闔郡)에 이르러서 한 사람도 추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교화가 아래에 까지 관철되지 않아서 군자의 행적이 황제가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28]

謹案 : ≪武帝紀≫의 원문에서 '究'를 顔師古注에서는 「究, 竟也. 言見壅遏, 不得聞達於天子也. 雍讀曰壅.(결국이다. 말하는 것과 보는 것을 가리고 막아서, 천자까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雍'는 '壅'라고 읽는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이 두 글자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동일 시기의 문헌인 ≪史記·秦始皇本紀≫에서「先王知雍蔽之傷國也, 故置公卿大夫士, 以飾法設刑, 而天下治.(선왕은 언론을 막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임을 알았기에 공경대부와 선비를 두어 법령을 정비하고 형벌을 설치했으므로 천하가 다스려졌던 것이다.)」라고 풀이하였고, ≪詩經·小雅·無將大車≫에서는「無將大車, 維塵雍兮.(큰 수레를 떠밀고 가지 말고, 먼지가 가리우다.)」라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두 글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武帝紀≫의 '究'와 '壅'은 발음이 상고시기에 동일하였으므로 서로 통용이 가능하다. '雍'의 상고음은 '東影'이며, '壅'의 상고음도 '雍'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雍''과 '壅'은 성모와 운모 모두 같은 雙聲疊韻 동음자로서, 두 글자는 서로 통가할 수 있다.

2.4 상고음의 성모와 운모가 모두 다른 경우

1) 對轉 + 旁紐

28)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六 7면.

① 暴 ↔ 薄

≪漢書·宣帝紀≫「既壯, 爲取暴室嗇夫許廣漢女.(나중에 暴室嗇夫(궁녀 환자를 재우는 방을 관장하는 관직) 허광한(許廣漢)의 딸과 혼인하였다.)」[29]

謹案 : ≪宣帝紀≫의 원문에서 '暴'을 顔師古注에서는 「應昭曰暴室宮人獄也今日薄室.(응소(應昭)가 말하길 '暴室'은 궁 안의 감옥으로, 오늘날에는 '薄室'이라 칭한다.)」라고 풀이하였다. ≪說文≫에서 '暴'은 「晞也. (마르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薄'은 「林薄也. 一曰蠶薄. 從艸溥聲.(숲이 보잘 것 없다. 일설에는 보잘 것 없음을 말한다. '艸'를 의부로 삼고, '溥'을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한다. 비록 다른 문헌에서는 두 글자의 통가현상을 찾아볼 수 없지만, ≪說文≫의 의미가 동일하고 顔師古注에서도 '暴室과 '薄室'을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두 글자는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暴'의 상고음은 '鐸亞'이고, '薄'의 상고음은 '魚滂'이다. '暴'의 운모는 '鐸部'로 '魚部'에 속하며 入聲韻이고, 음은 [ak]이다. '薄'의 운모는 '魚部'에 속하며 陰聲 운미를 가지고 있고, 음은 [ag]이다. 이렇듯 주요 모음은 변하지 않고, 운미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다. 그러나 다른 운미로 바뀌는 '對轉' 관계에 있으며, '入陰對轉'이다. '暴'의 성모는 '亞[b]'이고, '薄'의 성모는 '滂[ph]'이다. '亞'와 '滂'은 모두 脣音으로 '亞滂旁紐'이다. 따라서 '亞'와 '滂'은 雙聲을 이루지도, 疊韻을 이루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두 글자는 '對轉', '亞滂旁紐'이므로, 서로 통가될 수 있다.

2) 旁轉 + 旁紐

① 傅→附

≪漢書·高帝紀≫「從陳以東傅海與齊王信, 信家在楚, 其意欲複得故邑.(진(陳)나라 지역으로부터 동쪽 연해까지를 부속시켜 제왕 한신에게 봉

29)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八 2면.

토로 주었는데, 한신의 집안은 초나라 지역에 있었으므로 그는 다시 고읍(楚)을 얻으려고 생각했다.)」30)

謹案 : ≪高帝紀≫의 원문에서 '傅'를 顔師古注에서는 「傅讀曰附.('傅'를 '附'로 읽는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說文≫에서 '傅'는 「相也. 從人尃聲.('傅'는 '相'과 같다. '人'을 의부로 삼았고, '尃'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하였고, '附'는 「從自付聲.(自'를 의부로 삼았고, '付'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였다. 이렇듯 ≪說文≫의 풀이가 동일하지 않지만, '傅'과 附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이 통가가 가능하다. '傅'의 상고음은 '魚幫'이고, '附'의 상고음은 '侯亞'이다. '傅'의 운모는 '魚部'에 속하며 陰聲 운미를 가지고 있고, 음은 [ag]이다. '附'의 운모는 '侯部'에 속하며, 음은 [uag]이다. 李方桂에 의하면, '侯部'의 음이 [ug]에서 [uag]로 바뀌었는데, [ag]와 [uag]는 주요 모음이 같은 '旁轉' 관계이다. '傅'의 성모는 '幫[p]'이고, '附'의 성모는 '亞[b]'이다. '幫' 과 '亞'는 모두 脣音으로 '幫亞旁紐'이다. 따라서 '傅'와 '附'는 雙聲을 이루지도, 疊韻을 이루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두 글자는 '旁轉', '幫亞旁紐'이므로, 서로 통가될 수 있다.

② 殺 ↔ 弒

≪漢書·宣帝紀≫「顯前又使女侍醫淳於衍進藥殺共哀後, 謀毒太子, 欲危宗廟.(곽현(霍顯, 霍光의 처)은 전에 또 여시의(女侍醫, 궁중의 여자 산부인과 의사) 순우연(淳於衍)으로 하여금 독약을 넣어 애제의 황후(許皇後)를 시해하였고, 태자를 독살하려 모의하는 등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려하였다.)」31)

謹案 : ≪宣帝紀≫의 원문에서 '殺'을 顔師古注에서는 「殺讀曰弒. 共讀曰恭.('殺'은 '弒'라고 읽고, '共'은 '恭'라고 읽는다.)」라고 하였다. ≪說文≫에서 '殺'를 「戮也. 從殳殺聲.(죽이다. '殳'를 의부로 삼고, '殺'를 성부로 삼았다.)」라고 풀이하였고, '弒'는 「臣殺君也. 從殺省式聲.(신하

30)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下卷 2면.
31) 班固 原著, ≪前漢書/中華書局 註編≫ 臺灣中華書局, 民國(第一冊) 1981 卷八 10면.

가 임금을 죽이다. ‘殺’를 의부로 삼고, ‘式’의 성부를 생략하였다.)」라고 풀이하였다. 이러한 용례는 또한 ≪春秋左傳·僖公九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원문에 따르면, 「冬, 晉裏奚克殺其君之子奚齊.(겨울, 진나라 奚克이 그 임금의 아들 奚齊를 죽였다.)」라고 풀이하였고, ≪論語·公冶長≫에서 「崔子弑齊君, 陳文子有馬十乘, 棄而違之.(최자가 제나라 임금을 죽였다. 그러자 문자가 말 십 승을 소유하였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위의 문헌들을 근거해 보면 ≪宣帝紀≫의 ‘弑’와 ‘殺’은 동일한 의미에 속하면서 상고시기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통가가 가능하다.

3. 결 론

이상의 ≪漢書·本紀≫에 나타난 通假字 용례 현상은 의미와 발음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漢書≫에 나타난 통가자들은 일정한 형식의 규칙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규칙들을 살펴보면 성모는 다르지만 운모가 같은 첩운현상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글자는 ‘卒↔猝’, ‘當↔堂’ 등으로 전체 29개의 현상 중에서 11개가 속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성모와 운모가 모두 같은 동음자로 ‘振↔賑’, ‘胸↔匈’ 등으로 10개로 비교적 많은 글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외에도 성모가 같은 경우와 성모와 운모가 모두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규칙에 포함되는 글자들은 ‘酈↔鄜’ ‘傅↔附’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모와 운모가 같은 동음자는 물론, 성모나 운모 중 한 가지만 같은 쌍성이나 첩운 관계에서도 통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성모는 같고 운모는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운모가 많이 다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모가 같은 쌍성인 경우에 운모는 서로 주요 모음이 같은 ‘對轉’관계에 있거나, 어느 정도 비슷한 ‘旁轉’관계에는 있어야 한다. 또한 운모는 같고 성모가 다른 첩운 관계에 있는 글자들의 성모 또한 반드시 서로 조음 위치가 같은 ‘旁紐’나 ‘準旁紐’여야 한다. 따라서 성모와 운모 모두 다른 통가자들은 서로 완전히 같은 쌍성이나 첩운은 아니지만, 비슷한 ‘旁紐’ 또는 ‘準旁紐’, ‘對轉’ 또는 ‘旁轉’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漢書·本紀≫에 나타난 통가현상 분석

雙聲 +對轉	酈 ↔ 鄜, 亡 ↔ 無, 耳 ↔ 仍, 趨↔促↔趣
雙聲 +旁轉	飢 ↔ 饑
疊韻+ 準旁紐	飭 ↔ 飾, 棺 ↔ 綰, 適 ↔ 謫
疊韻 +旁紐	卒 ↔ 猝, 當 ↔ 堂, 伉 ↔ 犺, 進 ↔ 贐(賚) 辟 ↔ 僻, 辨 ↔ 班, 齊 ↔ 齋, 信 ↔ 申
雙聲 +疊韻	振 ↔ 賑, 胸 ↔ 匈, 阮 ↔ 原, 亞 ↔ 傍 北 ↔ 背, 罷 ↔ 疲, 傅 ↔ 敷, 竟 ↔ 境 婁 ↔ 屢, 雍 ↔ 壅
對轉 +旁紐	暴 ↔ 薄
旁轉 +旁紐	傅 ↔ 附,

이렇듯 ≪漢書·本紀≫에 보이는 다양한 통가 현상들을 미루어 볼 때 ≪漢書≫의 本紀 뿐만 아니라, 帝紀·表·志·列傳에서도 다양한 통가 현상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가 현상 용례를 찾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통가 현상을 통하여, 상고음 재구를 하거나, 상고음에 나타난 음운 현상을 예측해 보는 등 더욱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맹자 지음, 전통문화연구회 저, ≪맹자≫, 전통문화연구회, 2005
사마천 지음, 김영수·최인욱 역해, ≪사기≫, 신원문화사, 2006
사마천 지음, 김원중 옮김, ≪사기≫, 민음사, 2010
김학주 저, ≪시경≫, 명문당, 2002
염정삼, ≪≪설문해자주≫ 부수자 역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이재돈, ≪중국어 음운학≫, 학고방, 2007
이상옥 저, ≪예기 상≫, 명문당, 2003

이상옥 저, ≪예기 하≫, 명문당, 2003

董同龢,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1975
李方桂, ≪上古音研究≫, 商務印書館, 1982
民衆書林 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2007
王　輝, ≪古文字通假字典≫, 中華書局, 2008
鄭張尙方,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2003
中華書局, ≪前漢書≫, 臺灣中華書局, 1982
許愼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許愼 原著, 湯可敬撰, 周秉鈞 審訂, ≪說文解字今釋.上≫, 岳麓書社, 2009
許愼 原著, 湯可敬撰, 周秉鈞 審訂, ≪說文解字今釋.下≫, 岳麓書社, 2009

<中文提要>

本≪汉书≫同≪史记≫是中国史学史上代表性的著作，是継司马迁写到汉武帝的≪史记≫而写的正史，也称为“第二个正史”。≪史记≫为通史，是从皇帝开始到汉武帝太初年间（BC104~101）的记条，≪汉书≫为断代史，是从汉高祖元年（BC206）到王莽地黄4年（AD23）间的记条。班固编纂汉书不仅承袭了≪史记≫的体系，还通过承袭很多资料和修改等过程完成了伟大的杰作。≪汉书≫由12帝纪、8表、10志、70列传，共100卷组成，其文献性价值同史记一起，在中国文献学史上有非常重要的评价。为理解这样的≪汉书≫，需要了解多种语言现象，其中有关音，认为非常重要的现象就是通假。

通假字是想要表达意思的字虽然存在，但是写字的人写的时候想不起来，而借用意思不同但发音相同的字写出的字。古籍中有很多这种通假现象，如果不知道通假现象，就会存在不能正确理解文章意思的情况。

此论文的主要目的为，分析≪汉书≫中存在的通假现象. 其中可以找出一定的通假现象规律，可分为，第一，声母相同的字；第二，韵母相同的字；第三，声母、韵母都相同的字；第四，声母和韵母都不同的字。尤其，找出≪汉书、本纪≫中可以看见的通假字，并进行翻译，进而为了了解如何通假，想对上古音进行比较。

關鍵詞 : 古漢語研究, 古文獻整理, 通假字, 漢書, 漢字學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65~80

中國의 表音文字에 대한 深層考察

왕옥지*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中國에서의 表音文字 運動과 誕生 그리고 消失
2-1. 中國에서의 表音化
2-2. 中國에서의 表音文字 誕生과 消失
3. 中國에서 表音文字의 役割과 價値
4. 마치는 글

1. 들어가는 글

人類의 文字는 象形文字[1]·表意文字[2] 단계를 거쳐 表音文字 단계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漢字는 象形文字 단계를 거친 '表意文字'로 간주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한자는 表形과 表音의 기능을 겸유하고 있는 '音義文字'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한자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形聲文字'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단 소리를 나타내는 聲符가 글자의 音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자가 소리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江'의 字音과 聲符인 '工'의 발음이 다르고, '吃'의 字音과 聲符 '乞'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다. 중국 字音을 표기한 '反切法'에서는 漢字가 바로 表音의 역할을 했

* 동명대학교 경영대학 호텔경영학과 부교수
1) 圖畵에서 사물의 形象을 그린 六書의 象形文字인 日·月·山·水·田·人·大 등 한자를 말함.
2) 六書의 指事· 會意文字인 上·下·林·武·好 등 한자임.

다. 그러나 中國의 文字는 過去에도 漢字였고 지금도 漢字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中國文明이래, 초창기의 記事方法인 結繩[3]·圖畵·符號 단계를 거쳐 文字使用에서 지금까지, 甲骨文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국은 적어도 3,00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漢字를 '中國의 國字'로 사용해 왔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또한 漢字가 '表意文字'·'뜻글자'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表音文字'·'소리문자'란 말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의혹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漢字가 비록 소리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短點 및 기타 요인(쓰고 익히기가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漢字는 現代에 이르러, 漢字의 宗主國인 중국마저도 '漢字廢止論', 심지어 '拼音文字 採擇方案'까지 거론되어졌으며, 지금은 '漢字簡化方案'에 머물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古代文字를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어떤 이는 表音文字[4]를 文字歷史上 最高의 發展段階로 보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漢字만이 中國에 가장 適合한 文字임을 중국의 여러 文字政策 및 漢字가 겪은 역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마디로 漢字는 '漢字의 脈'을 이어왔을 뿐 아니라, 中國歷史以來 지금까지 '國字役割'을 잘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에서도 '소리문자'가 정책적으로 '國字'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리문자'는 또 韻書로 편찬되어져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소리문자가 바로 '八思巴文字'다. 러시아·중국·일본·대만 등 국가에 이어 본인의 〈≪몽고자운≫연구〉 및 기타 유관 논문들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도 '파스파 문자' 및 이와 관련된 韻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스파 소리문자에 대한 본인의 연구는 〈八思巴 母音字母의 문제점 및 書寫方式〉·〈八思巴文字의 韓中兩國에

---

3) '結繩'은 문자가 아니고 문자의 淵源이다. 蔣善國의 ≪中國文字之原始及其構造≫에는 페루 사람들이 '結子'의 記事方法을 이용하고 있음을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페루 남쪽 인디안 사람들은 아직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結子者'가 있다고 한다. 林尹저, ≪文字學概說≫(臺灣 臺北: 正中書局, 1971), 9쪽 참조.

4) ① 한글· 영어와 같은 音素文字, ② 일본의 音節文字, ③ 티베트의 子音文字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한 意義〉·〈元代 八思巴의 正統性 考察〉 등 논문이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소리문자'란 특징을 전제로 한 전반적인 연구이며, 특히 중국의 '소리문자'로 國字 역할을 한 '八思巴文字'가 중국에서 탄생된 배경과 소실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파스파 문자의 특징과 가치를 살핀 후, 한동안 중국의 '제2의 문자역할을 했던' 소리문자에 대하여 재 규명함과 아울러 중국학 및 소리문자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中國에서의 表音文字 運動과 誕生 그리고 消失

2-1. 中國에서의 表音化

魏晋南北朝時代(220년 이후)에 이르러, 중국 사람들은 漢字의 '字音表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탐구에 의하여 韻書가 세상에 출현하였고, 중국어의 특징인 4가지 '톤'을 나타내는 '平·上·去·入 四聲'과 '反切法', 즉 '雙聲疊韻'으로 漢字의 音을 나타내었다. 漢字 2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漢字 字音을 표기한 것이다. ≪廣韻≫의 "東 德紅切"의 例를 들어보면, '德'자와 '紅'자로 '東'字를 拼音하고 있는데, '東'자와 '德'자의 聲母가, '東'자와 '紅'자의 韻母가 같으며, '德'자의 聲母와 '紅'자의 운모를 연결하면 '東'자의 音이 된다. 이는 곧 漢字의 表音化 試圖이다. 그 후, ≪蒙古字韻≫(1308)에서 파스파문자, ≪洪武正韻譯訓≫(1445~1455)에서 한글, ≪西儒耳目資≫(1626)에서 로마자모 등 소리문자로 한자의 음을 표기한 表音方式도 출현하였다. 1892년에 이르러서는 盧戇章은 ≪一目了然初階·自序≫에서

> 무릇 스승이 없어도 홀로 읽을 수 있고, 글자와 말의 일치를 기초로 하고, 곧 입으로 읽으면 마음에 다다른다. 또 자형의 간략함을 기초로 하여 곧 배우고 글자를 알아보는데 용이하고, 쓰는데 용이하다. 그러므로 십여 년 세월의 허비를 방지하여, 이 긴긴 시간으로 수학, 격치, 화학 및 여러 실학을 전공하면, 환국이 어찌 부강하지 않겠는가? (凡字無師能自讀, 基于字話一律, 則讀于口, 遂卽達于心, 又基于字畫簡易, 則易于習認, 亦卽易于捉筆, 省費十餘載之光陰, 將此光陰專攻于算學,

> 格致, 化學以及種種之實學, 何患國不富强也哉[5]

라고 하였다. 盧戇章은 漢字改革을 주장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은 19세기 말부터, 한자의 拼音化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1918년에는 新青年 잡지사의 편집 담당자 錢玄同은 〈中國今後之文字問題〉[6]에서

> 공자학문을 폐하려면 먼저 한문을 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 사람들의 유치하고 야만적이며 완고한 사상을 없애려면 특히 한문을 먼저 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자는 근절되어 20세기 신시대에 적용하지 못한다. …중국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고 싶고, 중국민족을 20세기 문명의 민족으로 이루려면 반드시 공자학문을 폐하고 도교를 제거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삼아야 한다. (廢孔學不可不先廢漢文, 欲驅除一般人之幼稚的, 野蠻的, 頑固的思想, 尤不可不先廢漢文…此種文字, 斷斷不能適用於二十世紀之新時代.…欲使中國不亡, 欲使中國民族爲二十世紀文明之民族, 必以廢孔學, 滅道教爲根本之解決. 而廢記載孔門學說及道教妖言之漢文, 尤爲根本解決之根本解決.[7])

라고 하였다. 이에 陳獨秀는 ≪答書≫에서

> 중국문자는 신시대의 일과 이치를 전하고 기재하기에 어렵고 또 부패하고 해악한 사상의 소굴이다. 그 것을 폐기해도 정말 애석하지 않다. (中國文字旣難傳載新事新理, 且爲腐毒思想之巢窟, 廢之誠不足惜.)[8]

라고 하였고, 胡適은 ≪拔語≫에서

> 독수선생은 먼저 한문을 폐기하고 한어를 보존하되 로마 자모로 한어를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나는 극히 찬성한다. (獨秀先生主張: 先廢漢文, 且存漢語. 而改用羅馬字母書之的辦法. 我極

---

5) 葉蜚聲, ≪語言學綱要≫(북경: 北京大學出版社, 1997), 165쪽 인용.
6) ≪新青年≫ 제4권 제4호. 合肥論壇, 〈漢字不滅中國必亡〉(安徽: 安徽農業大學 高校區, 2009. 9. 27) 1쪽 참조.
7) 合肥論壇 上揭 글 1쪽 재인용.
8) 合肥論壇 上揭 글, 2쪽 재인용.

贊成.)[9]

고 하였으며, 魯迅은 ≪關於新文字的答問≫에서

> 한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중국은 필히 멸망한다....한자는 또한 중국이 대중들의 신상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결핵이다. (漢字不滅, 中國必亡.....方塊漢字眞是愚民政策的利器.....漢字也是中國勞苦大衆身上的一個結核, 病菌都潛伏在里面. 倘不首先除去它, 結果只有自己死...)[10]

라고 하였다. 瞿秋白은 <漢字落後論>에서 또

>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악착하고, 가장 악렬하고, 가장 머저리 같은 중세기의 뒷간이다.(眞正是世界上最,齷齪, 最惡劣, 最混蛋的中世紀的毛坑.)[11]

라고 漢字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와 같이 五四運動 기간에는 라틴체계인 新文字를 추진한 바 있다. 中華人民共和國 건립 후, 漢語拼音方案을 제정하였고, 「中國文字改革協會」를 만들어 문자개혁 및 표준말 보급에 총력을 기울였다. 1950년 漢字簡化 作業이 이루어졌고, 1951년 毛澤東은

> 문자개혁이 세계 문자와 같은 拼音의 길로 걸어가야 하나, 拼音化를 실천하기 이전 반드시 먼저 漢字를 簡化시켜야 하며, 목전의 응용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 동시에 拼音化에 대한 각종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야한다.(文字改革要走世界文字共同的拼音方向, 但在實現拼音化以前首先必須簡化漢字, 以利目前的應用, 同時進行拼音化的各項研究工作和準備工作)[12]

고 하였고, 1956년 '漢字簡化方案'을 정식으로 공포하였으며, 1964년

---

9) 合肥論壇 上揭 글, 2쪽 재인용.
10) 合肥論壇 上揭 글, 2쪽 재인용.
11) 合肥論壇 上揭 글, 2쪽 재인용.
12) 高華年, 植符蘭 편저, ≪語言學概論≫(廣西: 廣西敎育出版社. 1987) 57쪽 인용.

문자개혁위원회에서 '簡化字總表'를 공포하였다. 1958년 周恩來는 ≪當前文字改革的任務≫란 보고서에서 중국이 당면하는 문자개혁의 3가지 임무가 1. 漢字의 簡化, 2. 普通話 보급, 3. 漢語拼音方案의 제정과 추진 등을 명확히 지적하였다[13]. 文化大革命(1966~1976) 초기, 鄧拓 등은 漢字簡化를 반대, 漢字簡化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숙청하였고 言語問題 전문서적은 자취를 감추었다. 중국과학원 원장인 郭沫若(1972)은 「紅旗」 4월호에서 言語政策 관련 발언을 하였고, 이듬해 光明日報에서 「文字改革」이 다시 부활했다. 대중들이 임의로 한자를 簡化해서 사용했으며, 林彪 등은 漢語拼音教育을 파기하려고 했다. 그러자 공자는 문자개혁에 반대하는 선조고, 임표는 문자개혁에 반대하는 復古後退派다고해서 「批林批孔」이란 비난구호가 나왔다. 1987년 중국 中山大學 中文系에서 주편하고, 高華年·植符蘭 편저한 ≪語言學概論≫에서는

> 한자는 장차 세계문자 공동의 병음문자 방향으로 가야하며, 이는 완전히 문자발전의 객관적 규율에 부합하고, 또한 우리나라 각 민족 인민의 소망이기도 하다. 한자가 장차 어떠한 자모형식을 채택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 국민의 토론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한자가 장차 라틴화한 자모를 채택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긴다. (漢字將來要走世界文字共同的拼音方向, 這完全符合文字發展的客觀規律, 也符合我國各族人民的願望. 至于漢字將來要採用什么字母形式, 還有待于全國人民的討論, …… 我們認爲漢字將來採用拉丁化字母的可能性最大.)[14]

라고 하였다. 즉 한자가 장차 라틴문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88년 북경에서 열린 漢字問題學術討論會에서 漢字簡化에 대한 신중론이 급격히 대두되고, 漢字의 우월성에 대한 再評價가 이루어졌다. 결국 중국문자는 拼音化 段階를 시도 하지도 못한 채, 漢字의 簡化作業에 머물러 있다. 1997년 葉蜚聲은 ≪語言學綱要≫에서

---

13) 高華年·植符蘭, 上揭書 57쪽 참조.
14) 高華年·植符蘭, 上揭書 57~58쪽 인용.

> 한자체계가 개혁하고 병음화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지금은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소한 현재로서는 우리는 아직 한자체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병음화 개혁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漢字體系能不能改革, 實現拼音化? 現在很難作出肯定的回答. 至少在目前來說, 我們還看不到需要對漢字體系進行根本的拼音化改革的需要.)[15]

고 하면서, 한자 병음화의 필요성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언어정책 및 사회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하듯 중국사회는 甲骨文 殷商時代로부터 약 3,000년 지속해온 漢字의 사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

漢字는 孤立語인 中國語 語音體系와 매우 부합되며, 中國 수천 년 燦爛한 文化遺産의 뿌리이며, 民族統一을 보전하는 民族精神이다. 그러므로 한자에 대한 폐지와 개혁이란 逆境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대륙은 물론, 一國兩制의 특성을 지닌 중국의 행정특구 홍콩[16], 마카오[17] 그리고 中華圈國家 臺灣과 중국계가 국가전체인구에 74%이상을 차지하는 싱가포르[18] 등 지역에서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 중국대륙에서 사용하고 있는 漢字 '簡體字'는 한자 字形의 簡化일 뿐이고, 漢字歷史上 거듭 이어져온 漢字 字體에 대한 일정한 발전과정과도 같다. 현재 중국의 간체자는 비록 漢字 造字法 原則에는 어근 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는 '漢字의 變遷'이고, 한자의 변천과정은 바로 '漢字字體의 簡化過程'이다. 그러므로 '漢字의 廢止'는 과거에도 실패했듯이 그렇게 쉬

---

15) 165쪽 인용.
16) 영국의 식민지에서 1997년 중국으로 반환.
17)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1999년 중국으로 반환.
18) 싱가포르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니형 도시국가이며, 전체 인구의 74%이상을 한족이 차지하다 보니, 중국계 화인은 정치는 물론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으며, 교수·공무원·관리직· 기술직 등에 고급인력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다. 제1대 總理 華人 李光耀를 비롯해 吳作棟· 李顯龍 등 총리 역시 모두 화인 중국계 출신이며, 제4대·제5대·현재 제7대 總統인 黃金輝· 王鼎昌· ·陳慶炎 등이 모두 화인이다. 특히 이광요는 싱가포르의 아버지 '國父'로 칭할 정도로 싱가포르 개국 원로 중 한 명이며 싱가포르 政壇에 영향력이 큰 사람 중의 한명이다.

운 일 아니다. 이와 같이 持續性과 生命力을 지닌 '漢字의 脈'을 끊고, 한자의 사용을 소리문자로 대체한 정책이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2-2. 中國에서의 表音文字 誕生과 消失

13세기, 중국에서의 소리문자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異民族 支配下의 中國이라 가능했다. 몽고족이 통치한 중국, 元나라이다. 1127년 北宋은 金나라에 의해 멸망되어[19], 臨安(現 杭州)을 수도로 南宋이 세워졌다. 1206년 大蒙古帝國이 탄생하였고, 蒙古帝國은 1234년에 南宋과 동맹하여 金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南宋을 멸망(1279)시키기에 앞서 1260년 쿠빌라이는 大都(현 北京)遷都를 기점으로, 國名을 '元'으로 바꾸고, 중국식 年號使用은 물론, 中國官僚를 등용하는 등 元帝國時代가 전개 되었다. 이로부터 1368년 元의 멸망까지 몽고족은 108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게 된다.

元帝國의 탄생 후, 9년 뒤인 1269년에 쿠빌라이는 몽고의 연약한 '文治'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드디어 漢字를 대신할 蒙古文字를 창제하기에 이른다. 이 蒙古文字는 蒙古新字·蒙古字·國字·國書 등 명칭을 거쳐, 근현대 學術界에서는 八思巴(phags-pa: 파스파: 藏語 '聖者'의 音譯임)文字·八思巴蒙古字·方體字 등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 文字는 元나라의 제1임 國師이자 티베트(Tibet) 喇嘛(Lama)敎의 僧侶인 羅追堅贊(Blo-gros-rgryal-mtshan)이 表音文字인 '티베트문자', 즉 '西藏文字'를 모방하여 창제된 表音文字이며, 근현대에 이르러 라마의 尊號 '파스파'로 文字名을 命名한 것이다. 이 파스파문자는 또 여러 '한글의 기원설' 중의 하나이다. 元政府는 '自國의 文字'인 蒙古字를 보급하기 위하여, 蒙古新字의 '新'자의 사용을 금하였고[20], 各 路[21]에 蒙古字學 學堂을

19) 1126년 북송의 수도 開封은 金나라에 함락되었고, 휘종·흠종 두 황제와 3천 명 가까운 황족과 고위관리가 金으로 잡혀 가는 유례없는 사건이 일어났다.(申採湜, ≪東洋史槪論≫(서울: 삼영사, 1993) 411쪽 참조.

20) "오늘 이후 몽고자를 신자로 불러서는 안 된다.(今後不得將蒙古字道作新字.)" (≪元典章≫권31≪禮部四學校條≫에 의함. 羅常培·蔡美彪, ≪八思巴字與元代漢語≫(北京: 科學出版社, 1959) 10~15쪽 참조.

21) 路는 宋代의 地方最高行政區域으로 15路를 두고, 路에는 中央과 유사한 財

설치[22], 蒙古字學習者에게는 賦役을 면제하거나, 蒙古字試驗에 합격한 자에게는 官職을 수여하는 등 漢族에게 여러 혜택을 주어 漢人으로 하여금 蒙古字를 배우도록 유혹하였다. 首都에는 '國子學'을 설치하여 빼어난 蒙古人·漢人官吏의 자손·형제·조카를 선발해서 '國子學'에 입학시켰다. 그밖에 中書府寶·省部臺의 官印·書信·省部臺院의 行文·奏目 등에도 蒙古字를 사용하게 하였고[23], 각 處 驛과 관공서에서도 蒙古字를 사용하게 하므로, 강제적으로 統治階級者로 하여금 蒙古字를 배우게 하였다.[24]

이러한 元政府의 노력의 結果, 漢人社會 일각에서는 벼슬길에 유혹되어, 결국은 파스파자로 한자의 음을 표기하는 여러 韻書와 字書가 世間에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現存하고 있는 八思巴字漢語譯音資料는 旣存의 韻書·字書 등 文獻資料와 碑刻[25]·官印[26]·牌符[27]·花押[28]·鈔[29]·錢[30]·

政·軍事·司法 기구를 설치하였다. 元代 國家統治機構는 몽고제국의 征服國家體制에서 中國의 官僚體制로 전환했다. 그러므로 地方行政機構로 路를 두고, 路 아래 府· 州· ·縣을 두었으며, 다루가치(Dayrgachi: 達魯花赤) 직과 總官 직을 두었는데, 전자에 蒙古人을 임명하고, 후자에는 漢人을 임명했다.(신채식, 上揭書, 393쪽, 519쪽, 520쪽 참조.)

22) "지원6년……각 로에 몽고자학을 세운다.(至元 六年……立諸路蒙古字學." (宋廉 등, ≪元史≫, 卷202. <列傳> 第89. <釋老> 第15冊, 4518쪽 참조.

23) "중서부보에는 곧 몽고학을 잘 아는 闊者赤 한 명을 두고 부보사용에 합당한 지를 검사케 했다. …… 성부대에서 사용하는 관인과 서신을 전송하는 鋪馬劄子는 모두 몽고자를 병용한다. …… 성부대원에서는 오늘날 몽고인의 자손 형제 조카들로 하여 몽고자 작성자의 우두머리가 되어 무릇 行文에 몽고자를 사용하여 총 본가의 사항을 표기하고, 나아가 한인의 공사를 배우기를 명령하였다.(符寶卽設好識蒙古學闊者赤一員, 驗合使寶. …… 省府臺諸印信並'所發'鋪馬劄子並用蒙古字. …… 省府臺院今蒙古子孫弟姪作蒙古字'闊'者赤頭兒, 凡有行移並用蒙古字標寫本宗事目. 卽令習學漢兒公事.)" (≪元典章≫권31≪禮部四學校條≫, 羅常培·蔡美彪 上揭書 10~15쪽 참조)

24) "지원21년 5월……오늘 이후 각 처의 대소 관공서에서는 헌납하거나 표창하거나 모두 몽고자를 병용하여 서사하기를 헤아려 명령한다.(至元二十一年五月, ……今後擬令各處大小衙門將應係貢進表章並用蒙古字書寫.)"(≪元典章≫권31 ≪禮部四學校條≫, 羅常培·蔡美彪 上揭書 10~15쪽 참조)

25) 北京大學所藏 八思巴字漢語譯音碑托에 의하면, 파스파자의 흔적은 섬서· 산동· ·하북· ·하남· 강소· 산서· 내몽고 등 여러 지역에 널리 산재해 있고, 총 27종,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①廟堂· 別宮을 공포한 聖旨碑, ②孔廟 保護 聖旨碑 및 孟子· 顔子 그리고 그들의 부모· 처를 封하는 制詔, ③漢人에게 내린 天子의 詔勅 등이다.(羅常培·蔡美彪上揭書 33~37쪽 참조)

權[31] 등 文物資料가 있는데,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며 數量도 매우 많다. 그밖에 典籍의 기록을 통해 八思巴字나 八思巴字 漢語譯音 資料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元의 멸망과 함께 八思巴字 또한 '죽은 문자(死文字)', 無用之物이 되어, 중국에서는 물론 蒙古에서도 八思巴字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후인들은 八思巴字를 周秦의 篆書와 古字로 오인하였다.

元·明 兩代의 교체는 종래 반복되어 온 왕조교체와는 달리 역사적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된다. 이는 元朝인 異民族王朝를 타도하고 明朝인 漢民族王朝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元朝 통치하에 중국은 중국역사상 처음으로 전 중국이 이민족의 통치를 받았고, 중국문화는 역시 변질되고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明朝의 건립은 중국문화를 되찾고 부흥시키는데 한 층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유목민족의 문화를 소탕하고 한민

---

26) 현재 보존하고 있는 元代官印은 대부분이 八思巴文字 官印이다. 1915년 浙江永嘉에서 발견된 '八思巴字 總把之印' 등 文物 및 淸代 ≪西淸續鑑≫, ≪隋唐以來官人集存≫, ≪東北古印鉤沈≫등 문헌에서 살펴 볼 수 있다.(羅常培·蔡美彪 上揭書 18쪽 참조)

27) 현재는 시베리아의 Tomsk(托木斯克) 부근에서 출토한 圓形牌와 시베리아 Minusinsk(米奴新斯克)에서 출토한 長銀牌 및 羅振玉 歷代符牌圖錄에 수록한 牌符(패부 위쪽에 호랑이 머리를 각인한 장방형 패부) 등이 있다.(羅常培·蔡美彪 上揭書 21~23쪽 참조, 왕옥지, 〈八思巴字로 拼音한 韻書의 出現背景考察〉 80쪽 참조)

28) 官印이외 개인의 花押에도 파스파자를 사용해서 각인한 것이 있다.(羅常培·蔡美彪 上揭書 20~21쪽.

29) 元代에 유통된 中統元寶鈔와 至元通行寶鈔 등 화폐 중 단 至元通行寶鈔에만 파스파자가 쓰여져 있으며,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所藏의 至元通行寶鈔殘鈔와 蔡美彪 所藏 至元通行寶鈔抄版拓本 등이 있다.(羅常培·蔡美彪 上揭書 23~25쪽 참조,

30) 元武宗至大年間에 銅錢으로 鈔法을 대신하였다. 大元通寶錢과 至元通寶錢이 있는데, 동전 표면에는 각각 八思巴字 大元通寶와 至元通寶 4글자가 새겨져 있다.(羅常培· 蔡美彪 上揭書 25, 27쪽 참조)

31) 현재 元銅權 拓本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 면에 漢字로 至治元年大都路造가 새겨져 있고 한 면에는 漢字 二十五斤秤이 새겨져 있다. 다른 하나는 한 면에 漢字 大德四年大都路造, 한 면에는 漢字 二十五斤秤이 새겨져 있다. 이들 銅錢 二十五斤秤 옆에는 八思巴字 一行이 있다.(羅常培·蔡美彪 上揭書 28쪽 참조)

족문화를 부흥시키는 것이 명 건국 후 직면한 큰 과제다. 明太祖 朱元章은 즉위 이듬해에 몽고풍을 없애고, 元帝國 100여년 동안(1260~1368) 사용해온 蒙古의 언어·풍습·관습 등을 금지시키고, 漢文化를 복원시켰다. 중국형법을 정비하는 科擧制度를 부흥시키고, 儒學을 세웠다. 그러므로 몽고족이 만든 元나라 國字 八思巴字는 중국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렇게 八思巴字가 562년 동안 소실되었다가, 1930년 구소련의 龍果夫(A.A.Dragunov: 1900~1955)교수가 碑刻의 蒙古字 資料로 〈八思巴字與古官話〉란 글을 쓴 후, 파스파자의 존재가 세상에 비로소 출현하게 이르렀다. 8년 후인 1938년 중국인 于道泉이 런던 大英博物館에서 파스파자 한어 역음 운서인 ≪蒙古字韻≫의 抄本을 발견하므로, 중국학자들은 ≪蒙古字韻≫이 보존되어 있음을 알았다. 大英博物館 所藏寫本이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蒙古字韻≫의 傳本이자, 여러 파스파자 한어 역음 운서[32] 가운데서 유일하게≪蒙古字百家姓≫이란 字書와 함께 오늘 날까지 보전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예컨대, 파스파자는 몽고족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하여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 漢字를 대신할 國字로서 창제·반포되었다. 蒙古族이 세운 元왕조 때 만든 文字라 해서 '蒙古族의 文字'로 간주하므로 中國에 있어서는 다만 注音의 역할만 하였고, 漢族들의 文字生活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착각 할 수도 있으나 파스파자는 분명 한자에 대한 표음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문자, 蒙古文字가 아닌 중국 元왕조의 國字로 창제·반포·사용되었다. 파스파자 관련 각종 韻書·字書의 출현을 통해 파스파자는 한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中國歷史에서 몽고족이 세운 元왕조를 인정하듯이 당시 國字 역할을 하였던 파스파문자 역시 '중국의 문자', 즉 '중국의 표음문자'로 간주해야 한다. 만일 파스파문자가 중국의 표음문자로 간주할 수 없다면, 중국의 元왕조 역시 중국의 역사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중국영토 내의 內蒙古가 중국 땅이고, 중국 내의 소수민족이 중국국적을 소유하고 있고, 元代文學과 ≪蒙古字韻≫ 관련 韻書가 中國文學과 中國韻書로 간주하고 있

32) ≪蒙古韻略≫·≪蒙古韻編≫·≪華夏同音≫ 등이 있으나, 모두 실전되어, 각종 史料에 의하여 개괄적인 面貌만을 살필 수 있다.

듯이 元왕조의 國字로 창제된 파스파문자는 중국의 표음문자이다.

3. 中國에서 表音文字의 役割과 價値

盧戇章(1892년)이 처음으로 漢字改革을 주장한 이래, 중국은 19세기 말부터, 漢字의 拼音化를 주장하기 시작하여 모택동·주은래를 거쳐 葉蜚聲(1997년)은 한자의 병음화 개혁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같이 긴 세월 동안 정책적으로 논의해 왔던 여러 한자표음화의 가치를 논의할 성격은 아니다. 100년 가까이 國字로서 보급된 八思巴文字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의 소리문자였던 八思巴字의 창제목적은 1차적으로는 漢字를 대신하여 중국의 '國字' 역할을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몽고어는 물론, 漢語 · 티베트어 · 위구르어 · 梵語 등 중국 多民族의 말을 표음하는 것이다. 즉, 八思巴字는 文字와 拼音의 성격을 두루 지니고 있다.

사실, 八思巴字는, 自國의 문자가 없었던 몽고족[33], 元나라 시대 蒙古語에 있어서만 '文字의 기능'을 가질 뿐, '統一된 文字'는 아니었다. 1차적인 목적에는 절대적인 성공을 하지 못하였으나, 元의 官方文字로서 表音文字는 물론, 『모든 文字를 音譯(譯寫一切文字)」하는 기능, 일종의 「표음부호」 역할을 하였다. 각 民族의 語音體系에 따라 파스파자를 더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는 多民族 言語들을 譯音한 古今以來 희귀하고 特殊性을 지닌 文字임에 틀림없다.

93%~95%를 차지하는 形聲字는 形符와 聲符에 의해 소리와 뜻을 모두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字音의 分化 變遷 현상, 그리고 한자 자체의 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이해 형성자의 聲符偏旁의 음은 오래 전 이미 正確性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므로 일찍이 讀若法·讀如法·譬況法·直音法 및 反切法 등으로 漢字의 音을 표기하는 試圖가 있었다. 이 중 反切法은 널리 사용 되었다. 反切法은 表音原理가 없는 병음방식에 불과하고 音素分析이 가능한 소리문자로 漢字의 音을 최

33) 파스파자 창제 이전에는 위구르문자를 사용하였으며, 원나라가 멸망한 이후는 러시아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초로 표기한 것이 바로 八思巴文字이며, 중국 언어체계와는 부합되지 않는 音素文字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官方文字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이 소리문자가 중국 최초의 拼音方案이란 사실 그리고 중국의 최초이자 마지막 表音文字란 사실에 그 가치를 둘 수 있다. 그밖에 이 소리문자로 표음된≪蒙古字韻≫(1308년)은≪切韻≫系 운서인≪廣韻≫에서 ≪中原音韻≫(1324년)에 이르기까지의 어음변천을 나타내는 운서로 한 · 중 양국의 음운사상 중대한 가치를 지니며, 한글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 파스파문자의 자형을 가지고 실질적 표음의 예를 들면 더욱 좋았으나, ≪蒙古字韻≫·≪事林廣記蒙古字百家姓≫ 및 八思巴文字 관련 硏究資料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루어져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며, 향후 八思巴文字의 表音文字로서의 價値나 優越性을 논하는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4. 마치는 글

중국은 魏晋南北朝 時代에 이르러 漢字의 '字音表記'에 대한 끊임없는 는 관심과 탐구에 의하여 韻書가 세상에 출현하였고, 운서에서 사용된 反切法은 漢字의 表音化 試圖라 할 수 있다. 그 후, ≪蒙古字韻≫(1308)의 八思巴文字, ≪洪武正韻譯訓≫(1445~1455)의 한글, ≪西儒耳目資≫(1626)의 로마자 등 소리문자로 한자의 음을 표기한 表音方式이 출현하였다. 1892년 盧戇章이 처음으로 漢字改革을 주장한 후, 19세기에는 錢玄同·陳獨秀·胡適·魯迅·瞿秋白 등이 漢字改革과 漢字의 拼音化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毛澤東이 "세계 문자와 같은 拼音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한 이후, 중국에서는 한자의 병음화 실천을 외치는 자가 많았으나, 90년대에 이르러 중국은 한자 병음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중국대륙은 물론, 一國兩制의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및 세계 각지의 화교들은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문자인 漢字의 拼音化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격렬한 생명력을 지닌 漢字도 중국역사상 약 100년 동안 소리문자에게 관방문자의 자리를 내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中國 관방문자의 역할을 한 이 소리문자, 즉 八思巴文字의 중국에서의 정통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파스파자는 蒙古文字가 아닌 중국 元왕조의 國字로 창제·반포·사용되었고, 中國歷史에서 몽고족이 세운 元왕조를 인정하듯이 당시 國字 역할을 하였던 파스파문자 역시 '중국의 문자', 즉 '중국의 표음문자'인 것이다. 만일 파스파문자가 중국의 표음문자로 간주할 수 없다면, 중국의 元왕조 역시 중국의 역사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중국영토 내의 內蒙古가 중국 땅이고, 중국 내의 소수민족이 중국국적을 소유하고 있고, 元代文學과 ≪蒙古字韻≫ 관련 韻書가 中國文學과 中國韻書로 간주하고 있듯이 元왕조의 國字로 창제된 파스파문자는 중국의 표음문자이다.

첫째: 중국 언어체계와는 부합되지 않는 音素文字인 八思巴字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官方文字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이 소리문자가 중국 최초의 拼音方案이란 사실 그리고 중국의 최초이자 마지막 表音文字란 사실에 그 가치를 둘 수 있다.

둘째: 이 소리문자는 또 文字와 拼音의 성격을 두루 지니고 있으며, 일찍이 몽고어는 물론, 漢語 · 티베트어 · 위구르어 · 梵語 등 중국 여러 民族의 말을 표음한 바 있는 古今以來 희귀한 特殊文字라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이 소리문자로 표음된 ≪蒙古字韻≫(1308년)은≪切韻≫系 韻書인 ≪廣韻≫에서≪中原音韻≫(1324년)에 이르기까지의 어음변천을 나타내는 운서로 중국음운사상 중대한 자료이다.

넷째: 이 소리문자는 100여 년 동안 中國에서 일종의 官文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 끼친 영향은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다섯째: 元의 멸망에 이어 明太祖 朱元章은 元帝國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온 蒙古의 언어·풍습·관습 등을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한문화를 복원시키므로, 몽고족에게 國字역할을 한 元나라 八思巴字는 중국에서 흔적 없이 562년 동안 소실되었다가, 1930년 구소련에서 八思巴字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세상에 다시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의 詔書·官印·牌符·兵符·碑刻·印章·錢鈔 등 元代의 官方文件과 文物, 그리고 ≪蒙古字韻≫·≪百家姓蒙古字≫·≪薩迦格言蒙譯本≫殘頁 등 풍부한 문헌은 中國史研究는 물론 蒙古史研究와 元代 民族關係·언어·사회·정치·경제·문화 그리

고 韓國의 韻書와 한글연구 등 모든 방면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參考文獻>

羅常培·蔡美彪 저, ≪八思巴字與元代漢語≫, 北京: 科學出版社, 1959
宋 濂 等著, ≪元史≫, 北京: 中華書局, 1976
신채식 저, ≪동양사개론≫, 서울: 삼영사, 1993
林 尹 저, ≪文字學概說≫, 臺灣 臺北: 正中書局, 1971
中山大學 中文系 주편/ 高華年, 植符蘭 편저, ≪語言學概論≫, 西: 廣西教育出版社, 1987
홍인표 저, ≪중국의 언어정책≫, 서울: 고려원, 1994
葉蜚聲 저, ≪語言學綱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오시마 쇼지 지음, 장원철 옮김, ≪한자에 도전한 중국≫, 서울: 산처럼, 2002
최영애 저, ≪漢字學講義≫, 서울: 통나무, 1995
合肥論壇, 〈漢字不滅中國必亡〉, 安徽農業大學 高校區, 2009.9
왕옥지, 〈元代韻書의 價値 및 出現背景 考察〉, ≪중국어문학논집≫ 38, 2006.6
왕옥지, 〈元代 八思巴字의 正統性考察〉, ≪중국문화연구≫9, 2006.12
왕옥지, 〈八思巴文字의 韓中兩國에 대한 意義〉, ≪중국학≫15, 2000.12.
왕옥지, 〈八思巴字로 拼音한 韻書의 出現背景 考察〉, ≪중국어문논역총간≫ 3, 1999.6

<中文提要>

汉字, 一般认为是经过象形文字阶段的'表意文字', 但严格来说, 汉字是'意音文字'。'形声字'(占有汉字总数的90%以上)可以证实这点。只不过, 形声字缺乏表音技能。魏晋南北朝时代不断地探究汉字字音表记法的结果, 韵书出现於世上。汉字在'反切法'里就作出表音文字技能。无论如何, 中国自有文字以来, 至今几千年, '中国的国字'就是汉字。

十九世纪末, 不断地有人主张'改革文字', '废弃汉字' '实现拼音化', 1892年, 卢戇章初次主张'汉字改革'以来, 钱玄同・陈独秀・胡适・鲁迅・瞿秋白等人也开始发出了'汉字改革', '汉字拼音化'的唤呼声。 解放以後, 毛泽东说: "文字改革要走世界文字共同的拼音方向", 周恩来在≪当前文字改革的任务≫的报告里也指摘了"汉字简化, 普及普通话, 汉语拼音方案的制定和实现"等中国面对的文字改革3项任务。此後, 中国一直是坚持文字拼音化, 可是, 九十年代以後, 对汉字拼音化改革却有了消极的看法。无论如此, 不仅是中国大陆, 一国两制的香港和澳门, 台湾, 新加坡以及分布於世界各地的华侨, 他们使用的文字仍然还是汉字。一句话, '汉字拼音化'至今还是没能实现到。但拼音文字却在中国以官文使用了约100年之久。这就是所谓的八思巴文字。

八思巴字在中国制造使用於官方文字。八思巴字可以说是中国的最初'拼音方案', 也是中国最後的'表音文字'。元朝灭亡, 明太祖朱元章下令加强禁止使用元帝国100馀年所使用的蒙古语言・风习, 加强复原汉文化, 在这种政策之下, 元朝官文八思巴字一下子消失了有562年, 直到1930年, 苏联龙果夫教授以碑刻的蒙古字资料作为研究, 传於人世之後, 才被人们所重视, 元朝诏书・官印・牌符・兵符・碑刻・印章・钱钞等元代官方文件和文物, 以及≪蒙古字韵≫・≪百家姓蒙古字≫・≪薩迦格言蒙译本≫残页等丰富的拼音文字文献, 对於中国历史・蒙古历史・元代民族关系・语言・社会・政治・经济・文化・韩国韵书各方面都成为珍贵的资料。

關鍵詞 : 表音文字, 拼音文字, 소리문자, 漢字, 中國文字改革, 八思巴字, 元朝, 官廳文字, ≪蒙古字韻≫, ≪百家姓蒙古字≫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81～99

上古“往”语义场研究

肖 潇*

〈目　录〉

一. 序　言
二. 上古“往” 类动词语义结构分析
三. 上古“往”语义场的演变
四. 上古“往”语义场历史演变的特点

一. 序　言

“去往某地”这一概念与人们日常生活密切相关，早在甲骨文时代就有表示这一概念的词。 虽然这个概念从诞生之初至今没有大的变化，但是表示这个概念的词在不同的时期却发生了这样或那样的变化，即同一义位在不同的历史时期可以用不同的词语表示，形成一种历时的聚合关系。除了这种聚合关系，在不同历史时期的变化，很多词项的组合关系也发生了变化。也就是说，虽然在某一共时平面中，出现在这个义场中的各词项的主要语义特征相同，使这些词项共同存在于某义场；但是这些词项的或非主要义素特征，或语法意义，或语体特征，或感情色彩等方面有各自的区别特征，否则就会逐渐被语义场淘汰。某个具体词项在语义场的去留命运取决于多方面的因素，既有自身因素的影响，也有义场其他因素的影响，是内因、外因综合作用的结果。江蓝生先生认为：“最近20年的词汇研究侧重于对疑难词语的考释，而对常用词、对某一历史时期词汇系统的研究则很少着力。” 这种缺憾直接导致汉语历史词汇学和汉语词汇发展史至今难以建立。近年来，加强对常用词以及对某一历史时期词汇系统的研究，改变过去词义研究中倚轻倚重

* 中国北华大学文学院 xiaoxiao0511@sina.com

的局面，已成为学界的共识。[1)]

在我们还无法描写一个时期的词汇系统的时候，只能从局部做起，即除了对单个的词语进行考释之外，还要把某一时期的某些相关的词语（包括不常用的和常用的）放在一起，作综合的或比较的研究。[2)]我们将上古汉语中含有“去往某地”这一语义特征的动词归纳为一个语义场，称为“往”语义场。这个语义场主要包含“出、发、之、适、如、往、徂、赴、逝、造、诣”这11个词项，我们将依据上古文献，在现代语义学理论的指导下，从共时和历时两个角度对“往”语义场进行研究。

二. 上古“往”类动词语义结构分析

我们选取上古这一时期的古汉语文献，包括传世书面文献和出土材料。主要是这一时期的经史子集传世文.献。我们以传世文献为主，出土材料为辅。本文所说的上古指秦汉以前，分三个时期[3)]：

本文又把上古汉语分为前后两期，因为战国晚期是语言剧烈变化时期，所以此前称为上古前期，此后（包括战国晚期）称为上古后期。

（一）共同语义特征

“出、发、之、适、如、赴、逝、往、徂、造、诣”这些词项在上古汉语中具有共同的语义特征“向外”、“移动”、“趋向某地”。 它们在上古这一共时平面里共存于同一语义场，表示“去往某地”这个义位。下面我们来具体分析一下。

表一、义位表述以及传世文献最早用例

1） 参考江蓝生≪东汉-隋常用词研究·序≫，汪维辉≪东汉-隋常用词研究≫，南京大学出版社2000年版。；张永言、汪维辉≪关于汉语词汇史研究的一点思考≫，载≪中国语文≫，1995年6期。

2） 参考蒋绍愚北京大学出版社1989年版，第255页“近代汉语词汇研究的方法”。

3） 参考赵振铎≪论上古两汉汉语≫，载≪古汉语研究≫1994年第3期。

项 词	义位表述及 义素标记	最早用例
出	从里面往外面	初六，师出以律，否臧凶。≪周易·上经≫
发	到远处去	行发乎迩，见乎远。≪周易·系辞≫
之	到某地去	百尔所思，不如我所之。≪诗经·风·载驰≫
適	到某地去	古我先王将多于前功，　　適于山。≪尚书·商书·盘庚下≫
如	到某地去	厚从州吁如陈≪左传·隐公四年≫
往	趋向某地的动作	≪坤≫：元亨。利牝马之贞。君子有攸往，先迷，后得主，利。≪周易·上经≫
徂	到某人那里去	自我徂尔，三岁食贫。≪诗经·卫风·氓≫
赴	急切地奔向某地	二十五年春，卫人伐邢，二礼从国子巡城，掖以赴外，杀之。≪左传·僖公十八年≫
逝	到远处去	王曰：“若昔朕其逝，朕言艰日思。≪尚书·周书·大诰≫
造	到某地去拜访某人	其有众咸造，勿亵在王庭，盘庚乃登进厥民。≪尚书·商书·盘庚中≫
诣	到某地去拜访尊贵的人	符传疑若无符，皆诣县廷言，请问其所使。≪墨子·卷十五≫

（二）区别语义特征

这些词项相互之间还存在细微的或语义、或语法、或语用上的差别，这也是它们共存于同一语义场的必要条件。

1.“出”

≪说文≫：出，进也，象草木益滋，上出达也。≪说文≫关于“出”本义的解说有误，“出”的甲骨文为  ，我们依据甲骨文可知，“出”上面像人脚形，下面像坎穴形，表示人从居住处走出来，去往某地。“出”强调始发，不表示远行；不强调目的地，一般不带处所宾语。如：

(1)　谁能出不由户，何莫由斯道也？≪论语·雍也≫

(2)　三子者出，曾晳后。≪论语·先进≫

(3)　出不入兮往不反。≪楚辞·九歌·国殇≫

从例（1）和（2）我们可以看出，“出”不直接带宾语，所以语义上一般没有明确的目的地。此外，从其字形及本义可以判定，“出”是以住处为标准向某地进发，所以表示远行少用“出”，但也有特例。例（3）“出”与“入”并举，表明战士到远方去了，只是这种用例很少见。

在上古时期的文献中，除了“入”，“出”有时也与“奔”、“走”、“游”、“亡”等动词连用，共同表义，进一步表明“出”的状态和目的，增强了语义的表达效果和精确性。这种词组后有时不能带宾语，和“出”保持了一致的用法；有时受词组中另一个词的影响，可以直接带宾语，或借助于介词来带宾语。如：

（4） 五月辛丑，大叔出奔共。≪左传・隐公元年≫

（5）晋骊姬作乱，太子申生死新城，重耳、夷吾出奔。≪史记・秦本纪≫

（6）厉王出奔於彘。≪史记・周本纪≫

（7）文信侯出走，与司空马之赵，赵以为守相，秦下甲而攻赵。≪战国策・秦策≫

（8）伐京，京人畔段，段出走鄢。≪史记・郑世家≫

（9）我思肥泉，兹之永叹。思须与漕，我心悠悠。驾言出游，以写我忧。≪诗经・邶风・泉水≫

（10）吕禄信郦寄，时与出游猎。≪史记・吕太后本纪≫

（11）使治官府则盗窃，守城则倍畔，君有难则不死，出亡则不从，使断狱则不中，分财则不均，与谋事不得，举事不成，入守不固，出诛不强。≪墨子・卷二≫

（12）十三年，向寿伐韩，取武始。左更白起攻新城。五大夫礼出亡奔魏。≪史记・秦本纪≫

从例（4）－（6）可见，“出奔”连用做谓语，进一步强调“出”的状态。例（5）不带宾语，例（4）直接带处所宾语“共”，例（6）借助于介词“於”带介宾短语，引出动作行为的目的地。例（7）－（8）中“出走”连用，可以带处所宾语，也可以不带宾语。从例（9）－（12）可见，“出游”、“出亡”也沿袭了“出”的语法特征，一般不带宾语，但有时后面可以跟表示目的性的词，如例（10）中，“出游猎”，出游的目的是为了打猎。

2.“发”

“发” 的小篆字形为  ， 本义为“箭射向某地” 。≪说文≫：发，射发也。“发”的“往”义是从本义引申而来的，一般也不直接带处所宾语，且多表示往远处去。相比于“出”，“发”更侧重在往的目的地，有时可直接带处所宾语， 。如：

(13) 雏发于南海而飞于北海，非梧桐不止，非练实不食，非礼泉不饮。≪庄子·秋水≫

(14) 发郢都而去闾兮，荒忽其焉极？≪楚辞·九章·哀郢≫

(15) 後之发，先之至，此用兵之要术也。≪荀子·议兵≫

例 (14) 、 (15) 中“发”和“去”、“至”对举，通过“离开”和“到达”义衬托“发”的“去往某地”的意思。

“发”和“出” 在“从所在之处出发到别的地方去。”的语义特征上相近，但由于二者语义来源不同，语义、语法的侧重点也不同。“发”也没有象“出”那样和其它动词连用的情况。

3.“之”

≪说文≫：之，出也。象草过中，枝茎益大有所之，一者，地也。按照≪说文≫的解说，“之”的本义是生出，滋长。我们在来看“之 ”的甲骨文字形  ，表示人的脚离开所在地，去往某地，≪说文≫的解说有误。无特殊情况，“之”后一定带宾语，表示往的目的地。 如：

(16) 子之武城。≪论语·阳货≫

(17) 晏子之晋，至中牟，睹弊冠反裘负刍，息于涂侧者，以为君子也，使人问焉曰：“子何为者也？”≪晏子春秋·内篇杂上≫

(18) 自伯之东。≪诗·卫风·伯兮≫

(19) 项伯乃夜弛之沛公军。≪史记·项羽本纪≫

例 (16) ー (18) “之”带的都是处所宾语。例 (19) 中“沛公军”为与事宾语，实际上指的也是沛公军所在的处所。例 (17) 中“之”、“至”并用反映了古人“去往某地”和“到达某地”的差别。

4.“適”

≪说文≫：适，之也　　。适，宋鲁语。“适”产生较晚，小篆字形为  。≪广雅≫：之，适也。≪广韵≫往也。≪正韵≫如也，至也。“适”是方言词，属于齐鲁地区的用语，用法与“之”相同，表示“去往某地”。

(20) 適子之馆兮。≪詩・鄭風≫

(21) 公与夫人每日必適华氏，食公子而后归。≪左传・昭公二十年≫

(22) 子曰：“赤之適齐也，乘肥马，衣轻裘。≪论语・雍也≫

(23) 故能小而事大，辟之是犹力之少而任重也，舍粹折无適也。≪荀子・儒效≫

另外还要注意一点，上古“适”跟“适”是两个词，本文所研究的这个义位跟“适”无关。古代“适”又写作“  ”，读如“阔”，只见于人名；“适”是现代简化字。

5.“如”

≪说文≫：如，从随也。甲骨文字形为  ，本义是遵从，依照。≪尔雅≫如，往也。“如”后一般都要带表示去往目的的词，作宾语。

(24) 文公如齐，惠公如秦。≪左传・成公十三年≫

(25) 公父文伯之母如季氏。≪国语・鲁语≫

(26) 坐须臾，沛公起如厕。≪史记・项羽本纪≫

(27) 迷不知所如。≪楚辞・九章・涉江≫。

“如”有时和“所”组成所字结构，例 (27) “所如”，指所要求去的地方，实际上还是一种变向的带处所宾语。

“之”、“适”、“如”三个词在“去往某地”的意义上几乎没什么区别。有时可以互换，可能只是方言词的不同。除了倒装句外，“之”、“适”、“如”后一律跟宾语。如：

(28) 臣请为君之楚。≪战国策・齐策≫

(29) 荀卿乃適楚。≪史记・孟子荀卿列传≫

(30) 许灵公如楚。≪左传・襄公二十六年≫

(31) 芒乎何之，忽乎何適合？≪庄子·天下≫

(32) 颜回见仲尼请行，曰：“奚之？”≪庄子·人世间≫

(33) 彼且奚適也？≪庄子·逍遥游≫

(34) 淼南渡之焉如！≪楚辞·九章·哀郢≫

例(28)－(30)“之”、“适”、“如”都是表示到(楚国)去。例(31)－(34)中“之”、“适”、“如”都用于疑问句，带倒置宾语。例(31)“之”、“适”还可以对举使用，而“如”没有这种用法。

6.“往”

≪说文≫：往，之也。 甲骨文字形  象人脚离开地面去往某地的样子。“往”的本义就是“去往某地”。上古“往”一般不带宾语，如果要带宾语，必须在后面加上“之”或“如”等词，因为这些词在上古都是及物动词，可以带宾语。如：

(35) 昔我往矣，杨柳依依。≪诗经·小雅·采薇≫

(36) 臣请往也。≪左传·襄公二十六年≫

(37) 往之女家。≪孟子·滕文公下≫

(38) 臣请往如楚。≪史记·屈原列传≫

“往”后面虽然不带表示处所的宾语，但可以有表示目的的动词或动词性词组，“之、適、如”没有这种用法。如：

(39) 子往矣，无乏吾事！”≪庄子·外篇·天地≫

(40) 孟献伯拜上卿，叔向往贺。≪韩非子·外储说左下≫

(41) 伯牛有疾，孔子往问之。≪史记·仲尼弟子列传≫

中古以后“往”可以直接带宾语。如：

(42) 逆夷又往三元里及萧岗各乡。≪广东军务记三元里抗英≫

7.“徂”

≪说文≫：“徂，往也。徂，齐语。小篆字形为  。≪尔雅·释诂≫：徂，往也。≪方言≫卷一的说法也与≪说文≫相同。“徂”是“往”的方言词，为齐地表示去往某地的意思，但用法与“往”不尽相同。“徂”可直接带宾语，表示去往的目的地，还可以带表示去往目的的其它动词。

(43) 自河徂亳。≪尚书・说命下≫
(44) 胤后承王命徂征。≪书・胤征≫
(45) 我征徂西。≪诗・小雅・小明≫
(46) 不殄禋祀，自郊徂宫。≪诗经・大雅・云汉≫
(47) 自我徂尔，三岁食贫。≪诗经・卫风・氓≫

“之、适、如、徂”是就所到达的地方而说的，兼表行进的方向和去处，所以后面宾语多是去往的处所，即使字面意义上是表示人，但内在意义仍是表示人所在的处所。

8.“赴”

≪说文≫：赴，趋也。金文字形为  “赴”有不同于其它词项的的区别性语义特征“急切”、“到危险的地方去”。不是简单的“去往某地”，而是有紧迫、焦急的意味在内，急急忙忙地奔向某处，更强调“去”的状态。“赴”是及物动词，后面一般都带有宾语，宾语可以是处所宾语，也可以是与事宾语，“赴”可用于连动句。在“去”的目的地上，虽然不全是“到危险的地方去”，但绝大部分宾语是“汤火”、“深渊”等词，泛指危险的境况。如：

(48) 管燕得罪齐王，谓其左右曰：“子孰而与我赴诸侯乎？” 左右嘿然莫对。≪战国策・齐策≫
(49) 天下之欲疾其君者皆欲赴诉王。≪孟子・梁惠王上≫
(50) 彼则肆然而为帝，过而遂正于天下，则连有赴东海而死矣，吾不忍为之民也！≪战国策・赵策≫
(51) 若赴水火，入焉焦没耳！≪荀子・议兵≫

例（48）宾语为“诸侯”，翻译为现代汉语就是管燕得罪了齐王，便对他的左右亲近说：“你们有谁能为我到诸侯中去奔走一番呢？”左右亲近没有一个人回答。从句子的语用环境可以看出当时的情况是非常紧急的，齐王作为霸主，管燕得罪了齐王，要到诸侯去游说，这个“赴”的行为非常急切。例（49）“赴”也反映了世人急切地想要投奔到梁王这里。例（50）－（51）宾语“东海”、“水火”直接表明是危险的地方。

“赴”可以引申为奔告丧事，后来写作“讣”。表示这个意义，“赴”后一般不带宾语。

9.“逝”

≪说文≫：逝，往也。小篆字形为  。在表示“趋向某地”、“远行”的语义特征上，“逝”、“发”、“往”相近，“逝“后一般不带宾语。“往”有时也可以指远去、消逝，作用同“逝”，但这种用法出现得少，比较特殊，因为它的目的地虽然不直接表达出来却是暗含其中的。如：

(52) 谷旦于逝。≪诗·陈风·东门之枌≫

(53) 子在川上曰：逝者如斯夫，不舍昼夜。≪论语·子罕≫

例 (52) 、 (53) 就是对一去不返的时间的感慨。正因为“逝” 含有一去不夏返的语义特征，人们常用“逝去”、“长逝”来称说受尊敬者的死亡，用“时光飞逝”表示时间过得太快。

10.“造”、“诣”

在“往”的目的上，“造”和“诣”有共同的语义特征。“去往某地”只是其外在形式，去某处见所要见的人才是目的。尤其是“诣”更强调“到尊贵的人那里去”。二者都可以带处所宾语，“诣”更经常的是以所要见的人为宾语，其所见者重在人，一目了然。如：

(54) 既登乃依，乃造其曹。≪诗经·大雅·公刘≫

(55) 今大国越录，而造于弊邑之军垒，敢请乱故。”≪国语·吴语≫

(56) 王乃命有司大令于国曰：“苟任戎者，皆造于国门之外。”≪国语·吴语≫

(57) 不幸有疾，不能造朝≪孟子·公孙丑下≫

(58) 鞠武曰：“敬诺。”出见田光，道：“太子曰愿图国事于先生。”田光曰：“敬奉教。”乃造焉。≪战国策·燕策≫

(59) 符传疑若（或）无符，皆诣廷言，请问其所使。≪墨子·号令≫

(60) 晏子至，楚王赐晏子酒，酒酣，吏二缚一人诣王。≪晏子春秋·内篇杂下第六≫

“造”最初并不特指“到某地去谒见尊贵者”，没有什么感情色彩，到哪里

去都可以用。比如例（54）中的“造”是派人去猪群去。有时甚至表示“到敌对方去”，如例（55）中“造”是到敌军那里去。后来多用于拜访尊者。现在“造”的这种用法已经固定下来。造” 有上下文语境时，有时可以省略宾语，比如例（58），通过上下文我们可以知道“造”的目的地是太子的住所。≪说文≫：“诣，候至也。”≪说文解字注≫：“凡谨畏精微深造以道而至曰诣。”“诣”是古代到朝廷或上级、尊长处去的说法。例（59）－（60）中的宾语都是尊者。

表二、“往”义场各词项语义结构分析

项 词	移动	向外	趋向某地	始发	远行	急切	明确的目的地	危险	某人
出	+	+	+	+	−	−	−	−	−
发	+	+	+	+	+	−	+	−	−
之	+	+	+	−	−	−	+	−	+
適	+	+	+	−	−	−	+	−	+
如	+	+	+	−	−	−	+	−	+
往	+	+	+	−	+	−	−	−	−
徂	+	+	+	−	−	−	+	−	+
赴	+	+	+	−	−	+	+	+	+
逝	+	+	+	−	+	−	−	−	−
造	+	+	+	−	−	−	+	−	+
诣	+	+	+	−	−	−	+	−	+

＋表示有某个语义特征；+表示不一定，有时具有某特征、有时不具有某特征；－表示不具有某特征。

三. 上古“往”语义场的演变

词不是孤立存在的，在语言的历史发展中，同一语义场中词的分布是会产生变化的。从频率调查表中可以看出，同为“往”义场的中的词项，它们在历史上的出现是有一定的顺序的，而且这个语义场中各成员也是处于不断变化中的；有时在某一部文献中，由于作者的写作习惯等因素，还会发生特殊的变化。

表三、词项频率调查表

项词	周易	尚书	诗经	左传	仪礼	周礼	论语	国语	楚辞	老子	礼记
出	6/45	2/25	8/50	35/498	1/301	1/83	1/32	6/143	2/19	1/7	12/213
发	1/12	1/9	1/33	1/44	0/16	0/8	0/4	0/21	0/37	0/2	0/98
之	0/494	0/351	3/1095	3/5226	0/1005	0/2102	6/596	2/3254	2/748	0/225	8/3835
適	0/1	1/10	15/20	56/93	84/118	6/8	6/12	4/6	0	0	28/66
如	0/52	0/22	0/247	373/850	0/500	0/215	0/111	22/142	3/20	0/7	2/347
赴	0	0	0	3/23	1/6	0	0	0/1	11/11	0	1/7
逝	0	1/1	11/22	1/1	0	0	3/3	0	7/25	2/2	0
往	94/108	16/36	14/16	52/110	2/3	4/9	6/11	27/37	10/33	1/3	28/49
徂	0	0/10	23/26	1/1	0	0	0	1/1	0	0	0
造	0/2	1/11	2/7	6/12	1/4	3/19	0/1	2/4	1/8	0	2/18
诣	0	0	0	0	0	0	0	0	0	0	0

项词	墨子	商君书	孟子	庄子	荀子	韩 非子	战国策	晏子春秋	吕氏春秋	淮南子	史记
出	15/131	4/50	3/40	5/111	9/81	9/138	23/276	9/97	13/80	37/301	138/1259
发	0/57	1/5	0/14	0/36	1/26	0/76	0/68	0/21	0/49	0/140	0/629
之	5/3868	0/784	0/1901	17/3085	4/3930	17/5353	107/6077	10/1958	23/4789	7/5730	66/13115
適	1/26	0/4	0	25/90	3/12	0/37	1/24	3/13	4/67	0/68	36/176
如	0/54	0/29	0/151	0/80	0/71	0/743	2/377	3/108	17/87	0/157	50/1075
往	15/32	1/1	36/35	43/71	8/17	30/49	49/67	13/20	58/81	31/51	242/495
徂	0	0	1/2	0/2	0	0	0	0	0	0	3/8
赴	0	0	1/1	1/3	4/4	4/8	3/6	0	1/5	2/8	5/30
逝	1/1	0	2/2	4/5	0	0	1/1	0/1	2/2	1/1	9/9
造	0/4	0/1	4/6	0/25	0/14	0/3	5/17	2/2	2/17	0/31	10/61
诣	1/1	0	0	0	0	0	1/1	1/1	0	0	38/38

（一）上古前期

“之”、“适”、“往”三个词项出现得最早，在甲骨文和金文中已经存在，“去往某地”是其本义。甲骨文中虽然有“出”、“发”、“如”的词形，但此时它们并没有进入“往”语义场，不表示这个义位。

在上古前期的传世文献中，表达“去往某地”这个义位时，“出、发、之、适、往、徂、赴、逝、造”这10个词项都出现了，使用频率最高的是表示趋向某处的“往”，是此义场的主导词。

“徂”是齐地方言，与“往“有相近的语义特征，是“往”的方言词；同时又与“往”有不同处，可以直接带宾语，它多用于春秋以前。在上古前期的文献

中，≪诗经≫中用例最多，有23例，此后“徂”在≪国语≫中有1例，以及在≪左传≫、≪孟子≫各中出现1处引用≪诗经≫原文的用例。如：

(61) 白公又谏，王如史老之言。对曰：“昔殷武丁能耸其德，至于神明，

(62) 以入于河，自河徂亳，于是乎三年，默以思道。≪国语·楚语≫

(63) 王请大之！“≪诗≫云：‘王赫斯怒，爰整其旅，以遏徂莒，以笃周祜，以对于天下。’此文王之勇也。≪孟子·梁惠王下≫

“发”相对于它的其它义位，在“去往某地”这个义位上使用的频率很低，且主要用于春秋前期。可能因为与“出”都强调“始发去某地”的语义特征，在表示“远行”的语义特征上又与“往”和“逝”同，所以虽然与其它词项共存于该语义场，但却在竞争中处于劣势。

“之、适、如”在语义特征上没有什么区别，主要是一些语法和语用上的差别。（在语义结构分析中已经详细阐述了差别，这里不再累赘）春秋时期，“适”的用例很多，使用频率在50%以上。而“之”表示“到某地去”这个义位，只是偶见于文献中，相对于自身的其它义位，使用的频率极低，还不到1%。“如”除了在≪左传≫中用了373例，远远超过了其它词项外，在同时期的其它文献中主要表示“好象”这个义位。

“赴”在上古前期主要是表示“讣告”义，在“到某地去”这个义位上使用的频率极低，只是偶见于这一时期的文献，只在≪左传≫中用了3例，在≪仪礼≫中用了1例。此时其语义特征还没有固定下来，有时指”到危险的地方去“，有时只是泛指“到某地去”。

“造”具有“到某人那里去”的区别性语义特征，与其它词项共存于上古前期的文献中。“诣”用例极少，只有≪墨子≫中一例，表示“到尊贵的人那里去”。由于测查的材料有限，在这一时期，我门还无发判定“诣”是否已经加入到这一语义场。

有两点值得注意：≪诗经≫中大量使用了“适、徂”这2个词表示“去往某地”这个义位，使用比例超过了“往”；“逝”在≪诗经≫和≪楚辞≫中的用例最多，大大超过同时期的其它文献。我们推测，可能与两方面原因有关：

一是与语体和地域有关。通过上文的分析，我们知道这3个词都是方言词，最初并没有进入通用语，也就不可能进入书面语系统。≪周易≫和≪尚

书≫等文献是上层统治阶级奉为经典的，是以书面语为基础的，因而不可能更多地包含这些方言口语词，而≪诗经≫、≪楚辞≫是诗歌体，侧重口语，更贫民化，吸收了各个地区的语言特点，这些方言口语词才有可能大量出现。“逝”是秦晋语，而≪楚辞≫是楚地作品，楚地与秦地交界，可能由于语言的融合，使秦地方言进入到楚语中。

二是与人们的思维和语言的发展有关。“往”包含 “趋向某地”的特征，不直接表明去的具体地点，而在日常生活中为了增强语言表达的准确和精密，有时需要表达出来，“适”和“徂”符合这一需求。“逝”因为具有“一去不复返”的语义特征，是其它词项所没有的，在口语中也更能满足表达的需求。

（二）上古后期

“出、之、适、如、往、赴、造、诣”保存下来，但是使用频率差别很大，“往”更常用一些，仍是该语义场的主导词。

这一时期“发”在竞争中失败，退出了该语义场。“出”分化了“发”的“始发去某地”的特征，在该语义场中保存下来；“往”以自己的主导词地位分化了它的“趋向远处”的特征；人们的表达需求已经得到了满足，因此不再需要“发”表示这个义位了。

“徂”也退出了“往”语义场。到了西汉初，“徂”只是在引经据典时使用此义，不再具有生命力。这可能与共同语的发展有关，随着统一步伐的加快，一些方言词由于区别性语义特征不明显，在使用过程中频率不断降低，最终被其它词所代替。≪史记≫中的3个用例都是引≪诗经≫的原文。如：

（64）周德衰，宋之社亡，鼎乃沦没，伏而不见。颂云‘自堂徂基，自羊徂牛；鼐鼎及鼒，不吴不扬，胡考之休’。≪史记・封禅书≫

“之”、“适、”“如”三个词项，虽然有相同的语义特征，但由于在语法和语用上还有差别，在上古后期仍共存于该语义场。值得注意的是在≪战国策≫中，“之”使用了107次，大大高于其它词项，成为该语义场在这部书中出现频率最高的词。和前一时期相比，“之”在其它文献中的使用数量也是在增加的。≪战国策≫是记录战国游说之士言行的书，很多内容都是口语中相互

的对话，我们推测“之”在上古后期口语中可能更为常见。战国中晚期，尤其是汉代，“之”泛指义逐渐从口语进入到书面语中来。但尽管汉代“之”使用范围有所扩大，丝毫不能动摇“往”主导词的霸主之位。

此外，词语的限制性语义特征决定它的发展方向。词项“赴”、“逝”、“造”、“诣”由于不同的语义特征和独具的语法、语用功能使得这些词项一直保持着一定的使用频率，没有被其他词所代替。“诣”在上古后期已经确定进入到该语义场中，并且用例有所增加，≪战国策≫和≪晏子春秋≫各出现1例，≪史记≫中出现9例。特指“到尊贵的人那里去”，但也有特殊情况。如：

(65) 至荥阳，诸败军皆会，萧何亦发关中老弱未傅悉诣荥阳，复大振。≪史记·项羽本纪≫

(66) 九月，葬始皇郦山。始皇初即位，穿治郦山，及并天下，天下徒送诣七十馀万人，穿三泉，下铜而致椁，宫观百官奇器珍怪徙臧满之。≪史记·秦始皇本纪≫

(67) 於是秦王大怒，益发兵诣赵，诏王翦军以伐燕。≪史记·刺客列传≫

这3例中“诣”的对象就不是“尊贵的人”了，尤其是最后一例甚至表示到敌军那里去。

“造诣”表达到某种境界、在某方面有成就的意思是后起的，是从在某一方面已登堂入室的意思引申来的。现代汉语中“诣”不再单用，成为一个构词语素。

综上所述，上古“往”语义场中的各个词项产生的时代不同，随着语言的发展，词项逐渐丰富。在使用过程中，具有相同语义特征的词项经过竞争各有输赢，比如“发”、“徂”在竞争中失败；有的则自始至终地专为这一义场服务，一直是核心词，如“往”；还有的词以自己独特的语义特点，应合了人们的表达需要，虽然很少使用，但一直在这个义场中占有一席之位，如“赴”、“逝”、“造”。

四. 上古“往”语义场历史演变的特点

语言是不断变化的，而人类“去往某地”的动作是不变的，表示这一动作

的词语在不同历史阶段会发生一些变化，其组合关系和聚合关系都在发生变化。通过对上古“往”语义场的研究，我们可以总结出汉语词义发展变化的一些特点。

词义的演变是内外因共同作用的结果，社会原因一般都是通过语言内因起作用的。

1.词义的演变与社会历史的发展密切联系。

历史的演进、社会的发展，必然在某些词的意义上有所反映。随着国家趋向统一，有些方言词融入到词义中，如“适”；有些则被历史所淘汰，如“徂”。而人们思想观念的转变对词义系统影响更是不可估量的，如：“诣”是最后进入“到某地去”这个语义场的，战国晚期才产生，专指“到尊贵的人那里去”。它反映了人们思想观念的变化，为了强化尊者的地位，特别用“诣”来与用“造”表示的普通的“到某地去拜访某人”相区别。

2.汉语词义系统受自身的影响，不断完善、渐进发展。

随着时代的发展，词汇数量不断增多，出现了能够比较细致表现、区分事物和概念的新词，词汇系统会吸收一些方言词、新产生的词语与原有的旧词一起使用，促使词义系统趋于完善，丰富了汉语的表现能力。因为任何一个词，在使用时总是和别的词相互联系着，词语之间组合和聚合关系的变化，都会同词汇中已有的相关的词或词义相互影响，从而引后词义的演变。在新词不断产生，词汇日益丰富的同时，有些旧词消亡，它们所表示的事物或概念由与其有相同意义的词来表示，一般只是出于修辞的需要，才会出现在后代的书面语中，变成偶尔出现的古语词。当然这种演变是渐进的，即使在某一部典籍中出现了特殊的变异，但整体趋势没有改变。

3.汉语词汇发展过程中常用词的稳固性、继承性很强。

处于同一语义场中的各词项，由于所处的地位不同，使用频率和构词能力以及词义的演变等在历史发展过程中都会发生不同的变化。

殷商时代社会生活的很多方面在甲骨词汇中都有所反映，有的“去类”动词在甲骨刻辞时代就已经产生，基本意义从殷商直到现代都没有大的变化。“往”作为上古汉语中“到某地去”语义场的主导词，从产生之初到现代汉语其

语义特征基本没有发生变化。词的古义保存在现代汉语词汇里，或者含有古义的单音词作为语素保存在现代汉语复音词里，是词汇継承与发展的一个重要方面。如：“赴”保存了下来，今天我们还常说“赴宴”、“赴会”等，此外在成语中也保存了“赴”的这种用法，如“赴汤蹈火”。语素的固有意义全部保存的复音词，只有词语的重新组合，意义没有发生质的变化，更体现了古义和今义之间的継承关系。象现代汉语中“出”在这个义位上已经变成一个语素，不再单用。

＜参考文獻＞

[1]陆宗达、王宁，≪古汉语词义研究≫.[J]，≪辞书研究≫1981年第2期.
[2]李运富，汉语词汇研究中的几个问题≫.[J]，≪湖湘论坛≫1989年第3期.
[3]张庆云、张志毅，　≪义位的系统性≫.[J].≪词汇学新研究≫北京语文出版社1995.
[4]张永言、汪维辉，　≪关于汉语词汇史研究的一点思考≫.[J],≪中国语文≫ 1995年第6期.
[5]蒋绍愚，≪关于汉语词汇系统及其发展演变的几点想法≫，同上
[6]姚锡远，　≪上古时期词汇学研究说略≫.[J],≪河南教育学院学报≫1996年第3期.
[7]王宁，≪汉语词汇语义学的重建与完善≫.[J]，宁夏大学学报 2004年第4期.
[8]许慎，≪说文解字≫.[M]，北京：中华书局.1963.
[9]张永言，≪词汇学简论≫.[M]，武汉：华中工学院出版社. 1982.
[10]任学良，≪〈古代汉语常用词〉订正≫.[M]V，杭州：浙江大学出版社. 1987.
[11]苏宝荣、宋永培，≪古汉语词义简论≫.[M]，石家庄：河北教育出版社. 1987.
[12]蒋绍愚，≪古汉语词汇纲要≫.[M]，北京：北京大学出版社. 1989.
[13]王凤阳，≪古辞辨≫.[M]，长春：吉林文史出版.1993.
[14]陆宗达、王宁，≪训诂与训诂学≫.[M]，太原：山西教育出版社. 1994.
[15]高守钢，≪古代汉语词义通论≫.[M]，北京：语文出版社. 1994.

[16]王宁, ≪训诂学原理≫.[M], 北京：中国国际广播出版社. 1996.
[17]符淮青, ≪词义的分析和描写≫.[M], 北京：语文出版社. 1996.
[18]贾彦德, ≪汉语语义学≫.[M], 北京：北京大学出版社. 1999.
[19]宋永培, ≪古汉语词义系统研究≫.[M], 包头：内蒙古教育出版社. 2000.
[20]汪维辉, ≪东汉-隋常用词研究≫.[M], 南京：南京大学出版社.2000.
[21]徐朝华, ≪上古汉语词汇史≫.[M], 北京：商务印书馆. 2003.
[22]王 军, ≪汉语词义系统研究≫.[M], 济南：山东人民出版社, 2005年.

附录 语料主要来源

1. 电子语料:
国学宝典, 北京国学时代文化传播有限公司, 尹小林研发
2. 语料核对参考文献:
[1]≪十三经注疏≫, 中华书局,1980年版
[2]≪诸子集成≫, 上海书店, 1991年
[3]≪论语译注≫, 杨伯峻, 中华书局, 1980年
[4]≪孟子译注≫, 杨伯峻, 中华书局, 2003年
[5]≪孟子正义≫, 中华书局, 1998年
[6]≪荀子新注≫, 北京大学≪荀子≫注释组, 中华书局, 1979年
[7]≪墨子校注≫(上、下), 吴毓江撰、孙启治点校, 中华书局, 1993年
[8]≪庄子≫, 庄周著 郭象注, 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9]≪国语≫, 上海师范大学古籍整理组, 上海古籍出版社, 1978年
[10]≪楚辞集注≫, 朱熹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年
[11]≪韩非子集释≫, 陈奇猷, 上海人出版社, 1974年
[12]≪韩非子新校注≫, 陈奇猷, 上海古籍出版社, 2000年
[13]≪吕氏春秋≫, 吕不韦辑 (清)毕沅辑校, 中华书局, 1991年
[14]≪吕氏春秋校释≫, 陈奇猷校释, 学林出版社, 1984年
[15]≪管子≫, (唐)房玄龄注, 上海古籍出版社, 1989年
[16]≪战国策≫, (西汉)刘向集录, 上海古籍出版社, 1978年
[17]≪论衡≫, (汉)王充撰,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18]≪史记≫, (汉)司马迁, 中华书局, 1959年
[19]≪世说新语≫, (南朝宋)刘义庆, 中华书局, 1962年影印本
[20]≪汉书≫, (汉)班固撰 (唐)颜师古注, 中华书局, 2000年

<ABSTRACT>

A class of verbs contain the semantic features of “to go to a place” in the ancient Chinese, we can build a semantic field, including these words. There are eleven words in it, “chu fa zhi shi ru wang cu shi fu zao yi”. This article will do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search about the semantic field, according to ancient literature. The research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synchronic semantic system and the studying of semantic evolution in history. Then summarizes evolving features of Chinese Vocabulary.

Keywords : Ancient, went, Semantic, Sememes, Terms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101～120

중국어 ‘PP+NP’의 부사적 용법과 인지격

김정필*

〈목 차〉

1. 들어가며
2. ‘PP+NP’구조의 의미역할과 인지격
3. 개사구조의 인지격 분석과 공간성
  1) 구상격과 영역공간
  2) 근원격과 정신공간
  3) 대상격과 위상공간
4. 특수구문의 인지격 분석과 논항성
  1) ‘把字句’와 ‘受事’
  2) ‘被字句’와 ‘施事’
  3) ‘使字句’와 ‘兼事’
  4) ‘比字句’와 ‘与事’
5. 나오며

1. 들어가며

중국어에서 ‘PP+NP’구조는 술어를 중심으로 앞(부사어)와 뒤(보어)에 이중적 분포가 존재함으로써, 최근까지의 연구 또한 이들의 분포차이에 따른 어법기능의 대비(부사어와 보어)가 중심을 이루었다.[1] 하지만, 중국어 PP+NP’구조의 분포위치에 따라 구분되는 기능차이 이외에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PP+NP’(개사구)의 분포에 따른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대개 ‘VP 앞에 등장할 경우 동작의 발생하거나 어떠한 상태가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내며, VP 뒤에 등장할 경우 동작이 발생에 따른 도달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도, 동일한 분포위치와 어법기능(부사어)을 가진 'PP+NP'구조가 '개사구식'과 '특수구식'로 나뉘어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사구조'는 다양한 의미역할이 하나의 통사범주로 귀납되는 반면에, '특수구식'은 다시 '把字句', '被字句', '使字句', '比较句' 등 서로 다른 각각의 구문유형으로 재분류되고 있다.

물론 통사적 측면에서의 상세한 하위분류가 개별구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이러한 비체계성을 가진 형식과 내용의 차별성이 오히려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학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실제적인 교학과정에서는 단순히 수학공식처럼 구분되어진 '개사구조'와 '특수구문'의 열거와 그 하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식의 구문들의 종류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중국인들이 왜 동일한 부사적 기능의 PP+NP'구조를 '개사구조'와 '특수구문'으로 구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처럼 동일한 어법기능과 어법구조를 가진 'PP+NP'구조가 왜 서로 다른 구문유형으로 이해되고, 분류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미격의 관점에서 좀 더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격'은 종속적 명사가 동사와 가지는 관련성의 유형을 그 명사에 표시하는 체계를 의미하며,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격은 절 층위에서 명사의 동사에 대한 관련성을, 또 구 층위에서 명사의 전치사, 후치사나 다른 명사에 대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2] 특히 격문법에서 나타내는 '격'은 서술어를 통해 드러나는 사건 속에서 행위주체나 객체 등의 특정한 의미역할을 담당하는 명사구가 서술어와 기능적 의미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공통성을 추출한 것으로, 대체로 굴절어에서 나타나는 굴절의 형태표지를 중심으로 파악되어 왔다.[3] 하지만,

---

2) Barry J. Blake저, 고석주 옮김 ≪격≫, p.3. 참조. 필자가 내용을 참조하여 문장을 수정 정리하였다.

3) 지금까지 격의 분석은 대체로 표층격에서 드러나는 격표지(case mark)가 격관계를 파악하는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격(case)의 분류는 격문법(case grammar)의 심층격 등에서 나타내는 술어와 그 논항이 되는 명사의 의미관계를 통해 표시되며, 대체로 '행위자(agent), 반행위자(countagent), 대상(object), 결과(result), 도구(instrument), 근원(source), 목적(goal), 경험자(experienc

최근의 인지문법에서 주장되고 있는 인지격은 '전통적인 심층격(deep case)이 공통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의미관계의 다양성에 따른 가능성을 인정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4)]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분류자의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더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인지격(congnitive case)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PP+NP'구조의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관계를 고찰한다. 둘째, 인지격의 분석에서 드러난 다양한 격관계를 재분석함으로써, '개사구조'와 '특수구문'의 구별성 특징을 공간구조와 논항의 특징을 통해 재구명하고자 한다.

2. 'PP+NP'구조의 의미역할과 인지격

전통적인 격문법에서 심층격은 진리조건적인 의미관계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동일한 의미관계를 나타낼 때는 공통의 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인지격의 기준이 되는 '도상성'은 '자의성'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언어구조의 형태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규정[5)]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문법에서는 동일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시하는 격표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하게 된다.

물론 인지격 또한 여전히 구문의 기저구조에서 나타나는 명사구와 격표지(case marker)의 구조적 틀을 격관계 해석의 지표로 삼기 때문에, 중국어처럼 격표지나 어형변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언어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언어에서는 어순 이외에도,

---

er), 장소(locativ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특히 도상성에 근거한 인지문법의 "인지격은 전통적인 의미의 심층격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며), 문맥이나 시점을 고려한 인지 층위에서 복합적·상대적으로 규정되는 의미역할을 말한다."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2004)≫ p.171 참조.

5) 자의성은 형태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 관계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기호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간에 필연성을 찾을 수 없다는 Saussure(1916)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자의성은 구조 언어학에서부터 변형생성 언어학까지 부동의 원리로 간주되었다. 임지룡(2004:175) 참조.

개사나 조사 등을 인지격 해석을 위한 다양한 형식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 'PP+ NP'의 부사적 용법에서 장소·시간·대상·도구·근원(원인) 등 다양한 의미영역을 결정하는 주요한 형식표지로서 개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6] 우선 인지격 분석의 예를 살펴보자.

(1)The police took him away in the police car.
(2)Everyone is supposed to wear a seat belt in the car.

즉, 예문(1)에서 밑줄 친 부분의 'in the police car.'의 전치사 'in'의 인지격은 '도구격'과 '처소격'의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데[7], 이것은 '경찰차'를 보는 관점에 따라 사용의 '도구'와 타는 '장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문(2)의 전치사구 'in the car'는 예문(1)에 비해 처소성이 훨씬 강하여, 한국어에서는 '차에서는'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차 내에서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행위자 'Everyone'은 차 내부의 공간에서 'to wear a seat belt'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in the car'의 격분석은 단일의 '처소격'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지격의 의미역할은 여전히 처소격과 도구격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3)인부들은 목재로 용마루를 올리고 있다.
(4)工人用木材盖着屋脊。

예문(3)의 한국어 구문의 부사어 '목재로'의 인지격 분석은 '재료격'과 '도구격'의 두 가지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예문(4)의 중국어 '用木

6) 물론 개사구가 명사어 앞에서 오는 경우에는 한정어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술어 앞에 존재하는 개사구는 동작행위의 발생 배경으로 작용하는 부사어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문두에 오는 장소의 명사어가 단독으로 올 경우와 개사구로 나타날 경우에 대한 의론(议论)이 존재한 것을 보더라고 개사의 형태표지로서의 기능은 긍정적이다. 아래의 예문과 설명은 예문 또한 주2)의 p.171에서 그대로 인용 및 참조하였다.

7) 예문(1)은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2004)≫ p.171에서 참조했으며, 예문(2)는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다.

材' 또한 '재료격'과 '도구격'의 두 가지 각도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다시 한국어의 세 가지 격표지 상황을 통해 좀 더 세밀한 차이점을 분석해 보자.

(5)철수는 학교에 갔다.
(6)철수는 학교로 갔다.
(7)철수는 학교를 갔다.

예문(5), 예문(6), 예문(7)은 동일한 통사구조와 의미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격문법에서는 밑줄 친 부사어 '학교에/로/을' 모두 동일한 '처소격(장소격)'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인지문법에서는 격표지(에/로/을)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도상성'과 관련된 해석을 하게 된다. 먼저 예문(5)의 격표지 '~에'는 단순히 도착점만을 나타내며, 예문(6)의 '~(으)로'는 이동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문(7)은 '을/를'은 도착한 이후의 어떤 행위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

중국어 또한 개사의 차이를 통해, 한국어 격표지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의미역할의 차이를 해석에 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8)哲洙在图书馆见朋友。
(9)哲洙到图书馆见朋友。
(10)哲洙去图书馆见朋友。

예문(8)와 예문(9)는 개사 '到'와 '在' 이외에 모두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중성적 의미는 한국어에서는 '철수는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난다.'로 동일한 의미정보를 가진다. 하지만, 개사 차이에 따른 인지적 해석은 예문(8) 이미 도서관에 도착한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는 '已然'의 상황이 되고, 예문(9)에서는 '철수는 도서관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로 아직 도서관에 도착하지 않은 '未然'의 상황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어법교과서에서 예문(10)은 개사구조가 아닌 '연동문(连动文)'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단순히 기능적 측면만을 고려해 보면, 예문(10)의 'V1(去)' 또한 문법화를 통한 '개사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일관

성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연동문'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도상성'의 '동형성' 원칙을 통해 '去(가서)'에 '이동'의 인지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도서관에서 가서 친구를 만난다.'처럼 '去'에 술어성을 부여하게 되고 개사구조와의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다시 중국어의 'PP+NP'구조가 '개사구조'와 '특수구문'에서 갖게 되는 인지격은 과연 어떠한 의미역할로 구별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1)他在桌子上放了几本书。
(12)他把几本书放在了桌子上。

위의 예문(11)의 '在桌子上'과 예문(12)의 '把几本书'는 모두 통사적으로는 부사적 용법이며, '그 사람이 몇 권의 책을 탁자위에 놓았다'라는 동일한 의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우선 인지격 분석은 예문(11)의 '桌子'는 '처소'와 '도구'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으나, 방위사 '上'의 부가로 인해 '공간성'이 두드러짐으로써, '처소격'으로 치중되어 나타난다. 예문(12) '几本书'는 '대상'과 '도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으나, '대상성'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인지격의 차이를 통해 把자문(把字句)과 개사구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공통적 의미특징인 '도구격'를 배제하고, '처소격'과 '대상격'으로 구분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풀어야 할 문제가 존재하는데, 즉 '개사구조' 내부에도 '대상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은 '대상격'으로 분류되는 개사들이다.

(13)他替我买来了那本书。
(14)他为我买来了那本书。
(15)他给我买来了那本书。

예문(13), 예문(14), 예문(15)의 개사구 '替我', '为我', '给我'의 'NP'는 '我'는 모두 행위주체인 '施事'의 '수여대상'인 '与事'로 '대상격'으로 귀납할 수 있지만, 특수구문으로 귀납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개사구조'

의 'PP+ NP'가 나타내는 대상은 논항으로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술어행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써, 화자의 인지영역에 속하는 '정신공간'으로서 배경적 지위를 형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분석방법에서 보는 것처럼, 'PP+ NP'구조의 의미관계를 통한 인지적 분석은 'NP'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격의 범주를 포괄함으로써, 기능의 일관성이나 범주의 개괄성에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인지격 분석의 장점은 각각의 격표지가 가지는 정확한 의미내용을 구별하여 인지함으로써,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세밀성이나 청자가 의미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개사구조의 인지격 분석과 공간성

지금까지 개사나 개사구조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개사와 개사구, 그리고 개사구를 포함한 문형 등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되어 왔다. 개사에 대한 연구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개사의 문법화 과정과 어휘적 특징, 그리고 개사구의 통사적, 의미적 격관계 등을 통해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것들의 통합이나 분석과정에서 드러나는 일관성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개사와 명사의 의미관계, 그리고 개사구와 술어의 의미관계에서 드러난 인지적 차이를 분석하고, 아울러 개사구조가 개별적인 유형분류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에서 전치사구(개사구)는 구문에서 사건도식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핵심역할이 아닌, 사건발생의 배경을 명시하는 주변적 역할로 파악한다.[8] 이러한 배경영역 중에서 사건도식의 공간배경은 대개 전치사를 통해 구현되며,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경험영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공간개념을 4차원의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8) 중국어와 같이 '주술목'구조의 영어 등 서구어에서는 사건구도가 '결과-원인'의 구조를 가져, 배경의 전치사구가 문미에 나타난다. 따라서 전치사구가 전치(前直)하는 목적어 상승구문에서 전치사구는 전경화가 일어난다. 반대로, 중국어에서는 배경의 전치사구(개사구)는 술어 앞에 위치하며, 보어의 위치로 후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초점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데, 여기에는 시간영역이나 추상영역들 또한 공간범주를 표시하는 개사(전치사)의 은유적 확장을 통한 공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9] 이에 근거하여, 중국어 개사구조의 'PP+ NP'구조가 표시하는 의미내용 또한 동작행위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파악한다면, 이들을 통해 표현하는 '시간', 환경(도구, 수단 등), 근원(원인/이유), 목적 등의 의미 또한 은유적 확장을 거친 배경공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10]

1) 구상격과 영역공간

인간에게 공간과 시간은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으로, 인간의 신체적 활동이나 심리적 행위 등 인간이 경험하는 사건은 모두 특정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대개 언어표현에서의 시공간은 시간명사나 공간명사를 통해 표현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공간개사로 구성된 부사어를 중심으로 시간, 장소, 방향, 범위 등 다양한 시공간을 망라하는 범주를 포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러한 공간개사가 이끄는 포괄적 영역범주는 구체적인 장소를 비롯하여, 시간, 방향, 범위 또한 일정한 공간화의 각도에서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역을 구상화(具象化)된 공간으로 규정하여 '구상격'을 설정하고자 한다.

중국어의 공간개사 '在, 到, 从, 离……' 등 또한 시간, 공간, 범위, 방향 등 단순한 구체공간이 아니라, 주체나 대상이 존재하는 장소, 동작행위가 발생 혹은 출발하는 기점, 탄도체가 이동하는 범위와 종착점 등 다양한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4)a.他在教室里学习。
b.火车在六点钟通过这座桥。
(15)a.他从南非回来了。

---

9) 인지언어학의 4차원의 공간개념은 1)점을 표시하는 영차원성 공간과 2)선을 나타내는 2차원성 공간, 3)면을 나타내는 3차원성 공간, 그리고 4)용기(그릇)를 나타내는 4차원성 공간으로 구분한다. ≪인지문법론≫(2009) p.466. 참조.

10) 일반적으로 영어 등 서구어의 전치사구(개사구)는 목적어 뒤나 문미에서 배경화가 일어나나, 중국어에서는 부사어가 술어 앞에 오기 때문에 배경 공간 또한 술어 앞의 개사구는 중국어의 공간형성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b.暑假从六月二十二号开始。
(16)a.他们到中国去旅行。
b.新建的宿舍到月底可以竣工。
(17)a.我家离学校很远。
b.离出发不到十分钟了。

인지격의 공간범주를 통해 살펴보면, 위의 각 예문에서 a는 처소격의 배경공간을 나타내며, 대개 일정한 경계를 지닌 4차원의 그릇공간으로 귀납할 수 있다. 또 각 예문의 b는 시점으로서 시간을 나타내지만, 흐르는 시간이 아닌 영차원의 점의 공간을 나타낸다.

2) 근원격과 정신공간

'근원격(source case)'은 가장 복잡한 공간구조를 구성하며, 개사가 표현하는 원인, 이유, 근거, 조건, 방식 등을 포함하는 정신공간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근원(source)'이란 술어의 동작행위를 유발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는 대상이나 조건을 포함한다. 즉 화자가 개사가 이끄는 공간구조를 화자가 주절의 사건발생에 대한 근원으로 판단 혹은 추론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신공간을 의미한다. 특히 '근원격'으로 파악하는 개사의 종류가 많은 것은 화자의 사건발생에 대한 심리적 판단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들은 대개 원인, 근거, 예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일정한 범주설정이 모호한 예들이다.

(18)我们为共同目标奔斗。
(19)按高矮个儿排队。
(20)据天气预报说，明天有大风。
(21)下午的会议由他主持。
(22)这儿除了咱们俩，没有别人。

예문(18)에서 사태의 흐름의 객관적 추이를 볼 때는 개사목적어인 '共同目标'가 술어동사 '奔斗'의 최종목적지인 목적대상으로 처리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의 개사구조에서는 '共同目标'는 동작행위 이후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대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계획된 추상의 목표가 동작행위보다 앞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사 '为'는 '~을 위하여, ~때문에'로 해석되게 되는 것이다. 예문(19)는 '高矮个儿'이 '排队'의 기준으로서 척도공간이 되며, 예문(20)에서는 '天气预报'는 '有大风'의 판단근거를 제공한다. 예문(21)과 예문(22)에서는 개사목적어가 사람이 됨으로써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모두 그러한 '조건'하에서 이루지는 동작에 선행되는 조건으로서 사태를 발생시킨 근원으로 귀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대상격과 위상공간

'개사구조' 속의 대상은 동작행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동작행위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근원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주어와 일정한 물리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대상격의 'NP'가 가지는 인지공간은 주어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관계공간으로 근원격과는 달리 정신공간과는 다른 위상공간(topological space)을 형성하고 있다. 즉 위상공간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라고 정의되는데, '개사구조' 속의 대상은 동작행위를 일으키는 출발점으로서, 여전히 배경공간으로 작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23)明天我要跟你一起去。
(24)这个问题呢，我和张老师商量了。
(25)我对这件事儿有意见。
(26)我为民族作出了重大贡献。
(27)他给我介绍那个城市的情况。
(28)我替你找到了这份材料。
(29)对于村里的情形，我不大明白。
(30)关于这个问题，我要研究一下。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사구조'에서 대상으로 해석되는 '대상격'은 단순히 의미관계만을 고려하여 인지적 분석을 하게 되면, 특

수구문의 대상격과 기본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다. 하지만, 개사구가 이끄는 대상은 후행하는 술어의 행위동작이 일어나기 위한 선행조건이며, 'NP' 또한 술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受事'가 아니라 'PP'에 의해 주어와 공간관계를 통한 추상적 은유공간을 형성한다고 보볼 수 있다.

4. 특수구문의 인지격 분석과 논항성

지금까지 중국어 'PP+NP'구조에 대한 분석은 '특수구문'에 치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PP'의 의미적 특징이 가미되어 개별적인 구문특징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특수구문'의 분류 또한 '처치문(把字句)', '피동문(被字句)', '사동문(使字句)', '비교문' 이외에, '겸어문', '연동문' 등 여러 기준이 섞여 있어, 일정한 기준으로 구문유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특수구문'에서는 'PP+NP'가 개사구조와 달리 논항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지격의 다양한 해석을 통한 각 '특수구문'의 논항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把字句'와 '受事'

'把字句'에서 'PP+NP'는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지만, 'NP'는 술어의 논항으로 대상격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개사구조'에서와는 달리 배경공간이 아닌 술어의 행위동작의 종착점으로 작용하며, 'PP+NP' 중의 'NP'는 '이동체(theme)'로서 여전히 술어와 '受事'의 의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처치문'으로 불리는 '把字句'가 개사구조가 아닌 '특수구문'으로 귀납되는 이유를 바로 'NP'의 논항성의 존재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개 '把字句'의 형성이 반드시 진술문의 구문전환으로 파악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드러난 환원이 되지 않는 예문들의 존재는, 오히려 인지격 분석에서 나타나는 '주관성' 분석이 보다 더 실제적인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술목구조'에서 객관적으로 완성된 사태로 이해되는 상황이 '把字句'에서는 개사 '把'의 목적어인 'NP'가 단순히 완성

된 것이 아니라 술어의 행위동작에 의해 처치된 것이라는 화자의 '의지'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31)a.他关上窗户了。
b.他把窗户关上了。
(32)a.她做完作业了。
b.她把作业做完了。

생성문법의 각도에서 보면, 동일한 심층구조를 가진 예문(31)a, b구문과 예문(32)의 a, b구문은 상호간의 변형규칙이 적용되었으며, 두 구문이 표현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다. 즉 예문(31)에서 a와 b의 기본의미는 '그 사람이 열려 있는 창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예문(32)에서는 '그녀는 숙제를 다 했다.'라는 기본의미를 표현한다. 물론 예문(31)a에서도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혹은 먼지가 들어와 식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전제조건을 포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예문(31)b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조건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화자가 추위를 느낀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을 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 등의 화자가 느끼는 주관적 태도가 강조된다. 또 예문(32)b의 경우에는 단순히 '숙제가 완성'된 상황을 표시하기보다는, 숙제를 다 하고 안도하는 혹은 하기 어려운 숙제를 해냈다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33)我把药吃完了。
(34)他把椅子拿到楼上去了。
(35)我把这个消息告诉他。
(36)你把照相机带来了吗?
(37)他把脸喝红了。

예문(33)에서 예문(36)의 개사목적어 'NP'는 '吃药', '拿椅子', '告诉他这个消息', '带来照相机'등 모두 직접목적어의 상승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受事'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예문(37)은 형용사가 서술어가 됨으로써 처치성에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는 '그는 얼굴을

붉혔다'라고 표현되는 '他红了脸'에 '喝'라는 수단이 제공됨으로써, 화자의 의도는 '그가 술을 많이 마심으로 인해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脸'을 '把'의 목적어인 처치대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NP'의 '受事'적 특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2) '被字句'와 '施事'

일반적으로 피동문은 동작행위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주어가 되어, 주체적 행위자가 아닌 행위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된다. 즉 주어인 '受事'는 '施事'인 동작주의 동작행위에 피해를 입거나 혹은 동작의 영향을 받게 되며, 반대로, 개사의 목적어인 'NP'가 동작의 행위자로서 '施事'가 된다. 따라서 '被字句'의 개사 '被'는 피동을 표시하는 주요한 형식표지가 되며, '무표지피동문'과는 달리, 피동적 행위가 'NP'에 의해 일어났음을 강조하게 된다.

(38)那本书被他拿走了。
(39)玻璃被小王打碎了。
(40)我的钱包被小偷儿头走了。
(41)马英九被选为台湾总统了。
(42)我的衣服让树枝挂破了。
(43)我的话叫他听见了。

변형생성문법의 각도에서 보면, 예문(38)은 진술문인 '他拿走了那本书。'을 '被字句'으로 전환한 구문이라 할 수 있다. '他拿走了那本书。'와 '被字句'의 차이점은 '주어(他)'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의도가 드러나느냐의 여부로, '被'에 의해서 인도된 '他'는 주어에게 피해를 준 주체라는 화자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낸다. 대체로 '주어(施事)+ 술어+ 목적어'의 긍정문과 대응되어 나타낼 수 있고, '受事'인 주어가 '施事'인 '被' 뒤에 오는 목적어의 주체적 동작행위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된다.

피동문은 '被字句' 이외에도 '给', '叫', '让' 등의 개사를 통한 '유표지' 피동문을 구성하기도 한다. 특히 '给'의 의미역할은 '被字句'와 거의 동

일한 '피동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4)门被风吹开了。
(45)门给风吹开了。
(46)我的话给他听见了。
(47)我的话叫他听见了。
(48)衣服让树枝破坏了。
(49)剩下的东西给拿走了。

우선 예문(44)와 예문(45)는 동이란 사건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被'와 '给'라는 서로 다른 개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과연 이 두 구문이 동일한 의미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지격의 관점을 통한 의미역할의 차이를 살펴보면, '被'와 '给'가 구문에서 드러내는 차이점은 화자가 느끼는 주어가 '당한' 정도의 강약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被'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주어의 의지와 반하여 행해진 사태를 설명하고 있으며, '给'자의 의미역할은 비록 영향을 받았지만 주어의 의지가 약하며, '叫'와 '让'으로 갈수록 강도는 점점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给'자가 '被'자와 동일시되어 해석되는 것은 '给' 또한 예문(49)과 같이 '被'처럼 동사와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使字句'와 '兼事'

'使字句'는 사역 혹은 사동의미를 표현하는 구문으로, 'PP+NP'의 'NP'가 이중적 어법기능을 가짐으로 인해 '겸어문'으로도 분석된다. 즉 '使字句'의 'NP1'는 주어가 시도하는 동작행위(VP1)를 받는 受事(NP)로서 작용하며, 다시 후행하는 동작(VP2)의 施事(NP)가 되어 행위를 하는' 'NP'가 이중의 의미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使字句'의 'NP'는 'VP2'의 동작주체가 되지만, 자체의 의지가 아닌 주어의 영향을 받아 행하는 행위로 단순 '시행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8)这个消息使我们很高兴。
(49)虚心使人进步，骄傲使人落后。

(50)妈妈叫弟弟去买酱油。
(51)爸爸不让我去看电影。

예문(48)에서 예문(51)까지는 비록 서로 다른 사역동사로 'PP+ NP'구조를 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NP'를 담당하는 명사는 동사의 논항인 대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구문의 'PP+ NP'에서 'NP'의 가장 중요한 의미역할은 실제 행위동작의 주체이지만, 그 행위가 자신의 의지로 행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따라서 '使字句'의 'PP+ NP'구조에서 'NP'는 사역동사 让、叫、使 등으로 구성되는 'PP'의 '受事'로, 또 후행하는 'VP'의 주체인 '施事'로의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施事'적 특징은 아래의 예문을 피동문으로 해석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47')a.我的话叫他听见了。
b.?我叫他听见了我的话。
(48')a.衣服让树枝破坏了。
b.?我让树枝破坏了衣服。

위의 두 예문(47')a와 예문(48')a는 위의 3)절 예문(47)과 예문(48)에서 '피동문'으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예문이다. 그러면 왜 '사동의미'의 개사 '叫'나 '让'으로 구성된 구문이 사동문으로 귀납되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사동의미'로 해석한 예문(47')b와 예문(48')b는 비록 그럴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색한 문장으로 파악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이 두 구문의 개사구가 나타내는 의미역할은 '피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바로 주어와 목적어 상호 간의 의미관계에서 드러나는 의미역할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문(47)a를 주어의 의지성을 추가하여 목적어를 (47)b로 해석하면 '사역의미'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진술문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의미표현이 어색하다. 또 예문(48)a의 비의지성 목적어를 (48)b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개사구'가 표현하는 의미는 '사동격'보다는 '근원격'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사의 의미역할에 근거한 인지격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다만 '叫'나 '让'이 가지는 의미역할의 통일성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比字句'와 '与事'

중국어 '비교문'의 가장 대표적인 구문인 '比字句'은 '比'를 개사로 비교대상인 목적어를 유도하여 '수혜자'의 의미역할을 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형용사술어문은 근원적으로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논항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개사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比字句' 단독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특수구문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면 '比较句'의 'NP'는 어떠한 논항의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형용사술어문은 지배대상의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자'로서의 '与事'로 해석하는 것이 비교적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어와 화자, 그리고 개사목적어의 상호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양한 인지격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52)弟弟比哥哥高。
(53)他比我跑得快。
(54)哥哥比我大三岁。
(55)这个甜瓜比那个重一斤。
(56)首儿的人口比釜山更多。
(57)今天比昨天还冷。

우선 위의 비교구문에서 'PP+NP'를 생략하면, 형용사 술어에 수식어가 없기 때문에 비어법적인 문장이 된다. 즉 'NP'인 '我'가 비교대상으로서 술어의 논항이 되어 형용사의 윤곽을 설정하는 수식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예문(52)의 인지격 분석은 단순히 주어인 '弟弟', 즉 '동생이 키가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与事'인 '형(哥哥)'을 대비시킴으로서 '동생이 키가 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화자가 개사목적어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는 '哥哥'를 '受事'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또 예문(53)는 동사 '跑'가 와서 동사술어문처럼 보이나, 여전히 정보전달의 초점은 형용사 '快'있으며, 기타 예문 또한 유사한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比较句'의 'NP'가 가지는 인지격은 '반행위자' 및 '대상' 등으로서, '与事'로 귀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비교구문은 '比字句'이외에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 '跟……一样', '有자문'이 있으며, 세 가지 이상을 비교하는 '最'와 '比+ 의문대사+都'의 구조방식을 통한 비교격 표현이 있다.

(58)我的毛衣跟你的(毛衣)一样。
(59)读跟写一样重要。
(60)你来跟他来一样。
(61)这种西瓜有那种(那么)甜。
(62)今天没有昨天(那么)冷。
(63)这座楼没有那座楼高。

위의 예문(58)에서 예문(60)은 동등비교의 '跟……一样'구문으로, 차례로 명사, 동사, 절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다. 예문(61)에서 예문(63)까지는 '有자문'을 통한 유사비교를 하고 있다. 개사 '跟'과 연계된 성분은 'PP+ NP'의 기능적 특징으로 의미역할의 분석이 가능하며, 하나의 사건 혹은 사태로서 정태적으로 분석된다. 특히 '有자문'을 통한 유사비교에서는 '有'자의 어법기능에 대한 복잡성이 나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5. 나오면서

지금까지 개사의 연구는 개사의 성질을 통한 품사의 특징과 '개사구조'의 활용을 통한 구문유형의 분류 등에 대해, 단순히 통사적 동일성이나 의미적 차별성 등의 편향성으로 접근하였다. 물론 이러한 편향성은 우리가 어법분석을 위해서는 공통성을 지향할 것인가 혹은 차이점을 통해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생성어법이나 인지어법에서는 심층구조와 표층구조 사이의 관계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형규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서로 다

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즉 생성어법이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사이의 의미가 같음을 증명하기 위해 변형규칙을 적용한다면, 인지어법의 도상성 원리는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중국어에서 '부사적' 기능 'PP+NP'구조를 가진 구문이 '개사구조'와 '특수구문'으로 분석되는 현상을 'NP'의 논항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즉 '개사구조'로 분석되는 'PP+NP'는 구문 전체 사건구도의 배경으로 작용하여 술어의 논항이 되지 못하지만, 특수구문에 등장하는 'PP+NP'에서 'NP'가 술어의 논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대비시켜 보았다. 그리하여 개사구조의 'NP'가 논항을 벗어난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에 비해, '특수구문'에서 개사들이 이끄는 'NP'는 모두 동사의 논항으로 전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였다.[11]

제2절에서는 개사의 격관계를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먼저 개사의 다양성을 통해 그 의미상의 차별성으로 접근하였으며, 다시 상위범주를 통해 귀납하는 방식을 논하였다. 제3절에서는 '개사구조'에서 나타나는 배경성을 술어의 행위동작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파악하였으며, 시간 또한 공간의 모습으로 파악한다는 각도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대체로 구체적인 윤곽으로 드러나는 시공간은 구상격의 영역공간으로 파악하였으며, 원인, 조건, 이유 등 화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공간은 정신공간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주어와 목적어의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된 공간은 위상공간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제4절에서는 '특수구문'에서 나타나는 각 구문에서 나타나는 개사의 논항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把字句에서 'NP'는 처치의 대상으로 '受事'에 해당하며, '被字句'에서의 'NP'는 동작의 영향을 받는 피동의 대상으로 '施事'로 드러남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使字句'에서는 '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 사역의 대상'으로서는 '受事'에 속하지만, 후행하는 술어의 '施事'로도 작용하고 있어 '兼事'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比

11) 중국어에서 부사어는 대개 시공간이나 원인, 조건 등의 술어의 동작행위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비록 특수구문의 'PP+NP'구조가 부사어로 기능하지만, 'NP'는 여전히 동사의 논항으로 환원하면 직접목적어로서 전경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较句'에서는 비교의 대상으로서 '与事'로 해석되며, 다만 술어동사의 의미역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受事'로 귀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김동환 지음, ≪인지언어학과 의미≫(서울:태학사, 2005)
石毓智, ≪语法的形式和理据≫(南昌:江西教育出版社, 1990)
李英哲 등, ≪实用汉语参考语法≫(北京: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0)
陈振宇, ≪时间系统的认知模型与运算≫(上海: 学林出版社, 2007)
刘丹青 지음, 김기혁 등 옮김, ≪어순유형론과 개사이론≫(서울: 보고사, 2011)
Y. Tsuji 편, 임지룡 등 옮김, ≪인지언어학키워드사전≫(서울:한국문화사, 2004)
Günter Radden·René Dirven 지음, 임지룡 등 옮김, ≪인지문법론≫(서울:박이정, 2009)
Barry J. Blake 지음, 고석준 옮김, ≪격≫(서울: 한신문화사, 1998)
Palmer F. R. 지음, 이영민 역,≪문법역과 문법관계≫(서울: 역락, 2000)
Ronald W. Langacker 지음, 김종도·나익주 옮김, ≪문법과 개념화≫(서울: 박이정, 2001)

<ABSTRACT>

For analysis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PP + NP' structure (prepositional phrase) in Chinese syntax, we have approached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adverbial phrase and complement. Until recently, analysis of grammatical function of adverbial phrase and complement has been conducted. In addition, analysis of 'PP + NP' structure of 'adverbial case' which has the same grammatical function and position is divided into 'prepositional phrase' and 'special structure'. It is probably result

from the conflict between ‘function’ and ‘meanings’.

Therefore, we are going to approach this topic ‘why ‘PP + NP’ structure is differently divided into ‘prepositional phrase’ and ‘special structur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Zeitlichkeit’ and ‘congnitive case’.

Keywords : 인지격(congnitive case), 인지어법(congnitive grammar), 논항(argument), 부사격(adverbial case), 개사구조(prepositional phrase), 특수구문(special structure)

투 고 일	2012.6.30
심 사 일	2012.7.2~8.20
게재확정일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121～142

≪周易≫ 八卦와 文字*

김세환**

〈목 차〉

1. 序 言
2. ≪周易≫八卦와 '象數'
 1) 象數의 由來와 傳承
 2) 作卦의 動機와 기능
 3) 陰陽의 변화와 八卦
 4) '易簡'과 吉凶
3. 문자와 '象形'
 1) 文字와 '依類象形'
 2) 六書와 '孳乳'
4. ≪周易≫과 ≪說文解字≫
5. 結 語

1. 序 言

> 옛적 蒼頡이 글자를 만드니, 하늘에서는 곡식을 쏟아 내리고 귀신은 밤새 울었다.(昔者蒼頡作書, 而天雨粟, 鬼夜哭.)[1]

蒼頡이 書契(文字)를 만들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속이는 일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근본을 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따랐으니, 곧 耕作의 본업을 버리고 사소한 이익에 매달렸다. 이에 하늘이 사람들이 굶을 것을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劉文典 撰, ≪淮南子鴻烈集解·本經訓≫(北京, 中華書局, 1989), 252쪽. (번역과 설명은 同書의 註釋을 참조함)

걱정하여 곡식의 비를 내려 주었다. 또한 귀신은 生前의 일이 기록으로 남아 추궁을 당할까 하여 밤새 울었다 한다.

문자는 이미 그 태생 때부터 이처럼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인간의 지능이나 경험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것은 바로 문자에 의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문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문명과 문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창힐은 中國에서 '文化之祖', '文字始祖', '人文始祖', 또는 '中華文明의 象徵' 등으로 불린다. 인간이 짐승과 확연하게 다른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발달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문명은 때로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했으며,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한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무한한 희생을 담보로 문명이 발달하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淮南子≫의 글은 문자로 인해 사람들이 본업을 소홀히 하고 지엽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을 우려한 내용이다. 문자의 발명으로부터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우려는 우리의 문명을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우리 문명의 역기능 가령 자연환경의 파괴나 오염 등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이렇듯 문자라는 문명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일은 없었던 듯하다.

문자로 축적된 지식은 바로 문명의 팽창을 가능하게 했다. 문명의 시각에서 본다면 人智나 문화가 갈수록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인류는 팽창의 역사를 지속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팽창은 이제 다른 시대가 올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간하는 ≪Time≫ 잡지는 "2045년이 사람이 不死身이 되는 해(2045 The Year Man Becomes Immortal)"라는 표지 기사를 실었다.[2] 이는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1948년 출생)의 주장을 소개한 것으로, 곧 기계(컴퓨터)와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 인간의 시대(Human era)가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사람을 죽지 않는 超人(transcendent man)으로

2) ≪Time≫ February 21, 2011.

만들 수 있다는 가설인데, 즉 사람의 老化는 치유될 수 있는 질병에 불과하며, 몸은 과학 문명(주로 컴퓨터)의 인공부품으로 상당부분이 교체되면서 생물의 한계인 죽음을 치유 또는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기술에 의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은 곧 인간의 시대가 끝나고 기계와 사람의 합작품 시대가 도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로부터 시작된 문명의 극대화된 팽창이 결국은 인간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을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명의 발달이 과연 인간 가치의 구현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기계와 인간의 합작품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 가치의 구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타임지의 기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그러나 현대의 문명은 어떠한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문명이 발달하기 전의 인간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단지 자신의 후손을 갖는 일이 인생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이와는 관련 없는 일에 보낸다. 그러한 일들이 인간의 본질과 과연 얼마나 관련이 있는 일인가? ≪淮南子≫에서의 우려는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中國에는 倉頡의 문자 발명에 앞서 또 다른 형태의 부호체계가 먼저 있었다.

> 옛날 庖犧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 위로는 천문현상을 살피고 아래로는 地理를 살폈다. 鳥獸들의 모양과 땅의 형상을 보면서 가까이는 자신의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로부터 취하여 처음으로 ≪易≫의 팔괘를 만들어 이의 象을 후세에 전하였다. 神農氏에 이르러 結繩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행정을 보았으나 일이 많아지면서 假飾과 僞善이 생겨나지 시작했다. 黃帝의 史官이었던 창힐이 짐승들의 발자국을 보고서 그 문양의 차이에 따라 짐승을 구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書契(문자)를 만들었다. (古者庖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易八卦, 以垂憲象. 及神農氏結繩為治而統其事, 庶業其繁, 飾偽萌生. 黃帝史官倉頡, 見鳥獸蹏迒之迹, 知分理可相別異也, 初造書契.)[3]

許愼(約58~約147)의 이 글은 ≪周易·繫辭傳下≫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즉, 창힐이 문자를 발명하기 전에 이미 팔괘와 結繩이 있었다는 것을 ≪周易≫을 인용하여 밝힌 것이다. 원문과 직접 비교를 하면 허신의 의도가 드러난다.

> 옛날 包犧氏가 천하를 다스릴 때, 위로는 천문현상을 살피고 아래로는 地理를 살폈다. 鳥獸들의 모양과 땅의 형상을 보면서 가까이는 자신의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로부터 취하여 처음으로 팔괘를 만들어 신명의 덕에 통하고 만물의 情狀을 나누었다. …… 옛날에 結繩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나 후세의 성인이 이를 서계(문자)로 바꾸었다. (古者庖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于天, 俯則觀法于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于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 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易之以書契.)[4]

許愼은 팔괘나 결승이 '書契'의 기원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書契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팔괘와 결승 같은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문자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다만 허신은 팔괘의 특이한 기능에 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은 문자의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즉, 팔괘나 서계는 만들어진 과정이 유사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인용은 했지만, 팔괘의 특이한 기능이 문자와는 다른 것이어서 서계의 前身이나 기원으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생략한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은 분명 문자의 기능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으로부터 그 형상과 이치를 취하고 다시 멀리로는 천지만물의 형상과 이치를 따라 팔괘를 만들어 그 象을 나타내었다. 천문지리와 만물의 이치를 팔괘로 집약하였으니 이를 신명의 덕에 통했다 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만물의 情狀(陰陽이나 剛柔 등)에 따라 팔괘의 象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다는 뜻이다.

八卦와 書契는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그

---

3) 許愼 著,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敍≫(臺北, 蘭臺書局 影印, 1977), 761쪽.
4) ≪周易正義·繫辭傳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350~356쪽.

러나 팔괘는 천지만물의 이치를 집약하여 상징하는 부호로 만들어진 것임에 비해, 서계는 짐승들의 足跡이 하나하나가 다르듯이 사물의 형상을 따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팔괘와 문자는 기본적으로 '象'의 원리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팔괘와 문자는 萬事萬物의 象에 의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표현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두 가지의 動機로 시작하였다. 첫째는 우리의 문명이나 학문이 문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想起하고자 한다. 문자는 늘어나는 인식대상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왔다. 즉 통합적이 조화나 방향의 기준이 없이 단지 양적 팽창을 추구해온 문명이나 학문의 역사가 바로 문자의 발달 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을 상기하자는 의도이다.

둘째로는 ≪周易≫팔괘의 시각에서 문명과 학문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보자는 의도이다. 특히 인문학이 인간 본연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周易≫을 통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자의 양적인 증가는 과학문명의 지속적인 발전과 팽창으로 이어졌지만, 팔괘는 모든 자연현상과 인간의 활동을 집약하여 이에 관통하는 질서의 원리와 의미를 찾는 방법을 제시해 왔다고 본다. 따라서 문자와 팔괘의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 우리의 문명과 학문을 되돌아본다는 의도이다.

2. ≪周易≫八卦와 '象數'

1) 象數의 由來와 傳承

≪周易≫은 한때 ≪易象≫으로 불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左傳≫에 "≪易象≫과 ≪魯春秋≫를 보고"[5]라는 구절이 있다. ≪周易≫은 萬事萬物을 象으로 파악하고 상으로 나타낸다.

≪周易·繫辭傳下≫에 "≪易≫이란 象이며, 象이란 像이다."라 했다.

---

5) ≪春秋左傳正義·卷第四十二≫(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1348쪽.

이를 孔穎達은 “괘란 만물의 象으로 즉 만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乾卦의 象이 하늘(天)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라 풀이했다.[6]

여기에서 인식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물은 인간과의 의미 속에서 파악된다. 가령 하늘의 천문현상은 단순한 별들의 운행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역법을 만들어 사용했다.

> (堯帝가) 羲氏와 和氏에게 “경건하게 위대한 하늘을 따라 日月星辰의 법칙을 推算하여 백성들에게 天時(曆法)을 알게 하라” 명하였다.(乃命羲和, 欽若昊天, 歷象日月星辰, 敬授人時.)[7]

사람은 하늘로부터 천문의 象을 보았고 다시 역법의 象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시계나 역법은 하늘 천문현상의 상징인 것이다. 이로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 모두가 하늘과 시간을 함께하는 한 몸이다. 존재의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시간을 결정하는 하늘의 뜻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춘하추동이 바뀌어 감에 따라 생물은 生長收藏의 주기가 진행된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생물은 없다. 하늘의 象은 이러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이렇듯 만사만물의 상이 모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가령 吉凶禍福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분야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의 象을 보는 독특한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했다. 龜卜과 筮數의 방식이 대표적인 것이며 이 두 가지가 곧 ≪周易≫의 淵源이 되었다.

殷墟의 갑골문은 대체로 殷代 龜卜의 기록이다. 도구로는 주로 龜腹甲이나 牛胛骨을 사용했는데, 약간의 가공을 거친 후 뼈에 균열이 생길 만큼 불덩이로 지지는 방식이었다. 이때 나타난 균열을 ‘兆’라 하며, 龜

---

6) “(是故)易者, 象也. 象也者, 像也.” 이에 대한 疏: “謂卦爲萬物象者, 法像萬物, 猶若乾卦之象, 法像於天也.” ≪周易·繫辭傳下≫, 356쪽.

7) ≪尙書正義·堯典≫(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33쪽.

卜은 곧 이 兆文을 통하여 물음에 대한 응답의 象을 보는 것이다. 占辭는 바로 占人이 占兆로부터 읽은 象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殷代의 갑골문이 龜卜의 기록이었다면 ≪周易≫은 周代의 筮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귀복과 서점은 시대에 따라 달리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은 竝用된 것으로 보인다. ≪尙書·洪範≫에서 '卜筮'가 竝稱되었으며,[8] ≪周禮·春官宗伯·筮人≫에서도 筮卜이 함께 쓰였음이 나타나 있다.[9] 귀복과 筮占은 사용 도구가 다르고 아울러 시대에 따라 비중이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筮占은 蓍草를 사용한다. 龜卜이 兆文을 통하여 드러난 '象'을 읽는 것이라면, 筮占은 '大衍之數'[10]를 바탕으로 하여 揲蓍를 통해 괘를 얻고 卦象에 나타난 길흉을 보는 방식이다.

> 성인이 천하의 현묘한 이치를 보아 그 형용을 나타내었으니, 다만 그 사물에 알맞은 것으로 상징을 하였음이라. 고로 이를 일러 상(괘상)이라 하였다. (聖人有以見天下之賾,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謂之象.)[11]

≪周易≫은 천지와 만사만물의 현상을 괘로 상징을 하는 체계이다. 즉 괘는 ≪周易≫의 내용이며 표현 방식이다. 아울러 이의 淵源은 龜卜의 '兆象'이며 이어 '筮數'의 방식으로 계승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作卦의 動機와 기능

卦란 萬象을 드러내는 부호로 만들어졌다.

> 괘라고 하는 것은 ≪易緯≫에 "괘란 건다는 뜻이다. 物象을 드러내어

8) "擇建立卜筮人, 乃命卜筮." ≪尙書正義·洪範≫, 371쪽.
9) "凡國之大事, 先筮而後卜" ≪周禮注疏≫(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765쪽.
10) ≪周易正義·繫辭傳上≫, 328쪽.
11) ≪周易正義·繫辭傳上≫, 323쪽.

>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어서 괘라 일렀다."라 했다. 그러나 두 획의 體로는 비록 음양의 기운을 상징할 수는 있어도 만물의 상징은 이루지 못하니 괘를 얻지 못한다. 반드시 三畫으로 삼재를 상징하여 天地, 雷風, 水火, 山澤의 상징을 표현해야 괘라 이를 수 있다. 고로 ≪繫辭≫에서 "팔괘가 배열되었으니 상징이 그 안에 있다"라 했다. 그러나 처음에 삼획은 만물의 상징이 되었으나 만물의 변통의 이치에 있어서는 아직 미진하였다. 고로 이를 겹쳐서 육획으로 하였으니 만물의 형상을 구비하였고 천하의 能事를 다하여 이를 육획으로 괘를 이루었다 한 것이다. (謂之卦者, ≪易緯≫云: "卦者掛也, 言縣掛物象, 以示於人, 故謂之卦." 但二畫之體, 雖象陰陽之氣, 未成萬物之象, 未得成卦, 必三畫以象三才, 寫天地, 雷風, 水火, 山澤之象, 乃謂之卦也. 故≪繫辭≫云 "八卦成列, 象在其中矣"是也. 但初有三畫, 雖有萬物之象, 於萬物變通之理, 猶有未盡, 故更重之而有六畫, 備萬物之形象, 窮天下之能事, 故六畫成卦也.)[12]

陽의 상징인 '⚊'의 부호가 있고 陰의 상징인 '⚋'의 부호가 있어 이로써 음양을 나타낼 수는 있다. 그러나 萬象을 나타낼 수는 없으니, 天地人 三才를 상징하는 삼획으로 구성할 때 비로소 만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만물이 서로 얽혀 변화하는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를 다시 중첩하여 六畫卦로 만들어야 했다. 즉, 음양의 단순한 두 가지의 부호를 여섯 자리로 演繹하여 64괘를 만들었고 이로써 만물과 만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모두 함축하였다는 의미이다.

陽爻와 陰爻라는 추상적인 부호로 천지의 음양을 나타내고 이 음양의 두 爻를 여섯 자리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합하여 천지만물의 象과 그 역학관계의 변화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것이 곧 作卦의 동기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괘는 글이나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設卦에 의해 변화의 이치를 모두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이었다.

> 孔子께서 말씀하시길: "書冊으로는 말을 다하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한다."하였는데 그렇다면 성인의 뜻도 드러날 수 없었던 것인가? 孔子 曰: 성인은 象을 세워 뜻을 다하고, 괘를 陳設하여 情僞를

12) ≪周易正義·乾卦下·孔穎達疏≫, 1쪽.

> 다하며, 繫辭로 말을 다하였으니, 이로써 변화에 두루 통하면서 利를 도모함으로 鼓舞하여 그 神命을 다한 것이다.(子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然則聖人之意, 其不可見乎? 子曰: 聖人立象以盡意, 設卦以盡情僞, 繫辭焉以盡其言, 變而通之以盡利, 鼓之舞之以盡神.)[13]

書冊이란 말을 기록한 것인데, 말이란 본시 번잡하여, 남북의 音이 다르거나 또는 말만 있고 글자가 없거나 해서 글로는 그 뜻을 다할 수 없다 한 것이다. 말은 또한 뜻을 다하지 못하는데 이는 뜻이 심오하여 말로써 나타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성인은 괘로 상을 나타내어 뜻을 다하였고, 繫辭로 말을 다하였다고 하였다.[14]

괘는 간단한 부호로 복잡한 언어가 달성할 수 없는 ‘盡意’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든 것이었다. 이것은 특히 괘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사물의 개체가 아니고 천지만물 변화하는 이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 의한 설명이 본래 어려웠던 것이다.

3) 陰陽의 변화와 八卦

복잡해 보이는 삼라만상의 변화는 사실상 음양의 두 기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이 된다. 팔괘는 음양의 작용에 의한 변화의 이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 하늘에서는 現象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형체를 이루니 이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고로 剛柔가 서로 마찰하면서 八卦가 이와 함께 움직인다.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니, 風雨로 윤택하게 되며, 日月이 운행하니 한 차례 춥고 한 차례 덥다. 乾道는 남자를 이루고 坤道는 여자를 이룬다. 乾은 大始를 주관하고 坤은 형체를 만든다.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 是故剛柔相摩, 八卦相盪. 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日月運行, 一寒一暑. 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作成物.)[15]

太極으로부터 음양의 기운에 의해 天地가 이루어지고, 다시 하늘의

---

13) ≪周易正義·繫辭傳上≫, 342~343쪽.
14) ≪周易正義·繫辭傳上·疏≫, 342~343쪽.
15) ≪周易正義·繫辭傳上≫, 303~304쪽.

현상과 땅의 만물이 이루어졌으니, 팔괘는 “仰則觀象于天, 俯則觀法于地”의 과정을 거쳐 작괘한 것이다. 하늘에는 日月星辰의 천문현상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바뀌는 寒暑의 변화나 바람이나 우뢰 같은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아울러 땅에는 사람을 포함한 만물이 이러한 하늘의 현상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음양의 剛柔가 서로 마찰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니 이를 음양의 효를 쌓아 64괘로 드러낸 것이다. 남녀는 서로 다른 陰陽의 기운으로 생겨난다. 乾道는 만물의 시작을 이루고 坤道는 만물을 키운다.

만사만물의 현상과 변화가 단지 음양 이 두 가지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단순한 두 爻의 변화로 이를 나타낸 것이다.

> 易에 태극이 있어 양의를 내고 양의가 다시 四象을 내었으며, 사상이 팔괘를 낸 것이다. 팔괘가 길흉을 정하니 길흉이 대업을 이룬다.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16]

≪易≫의 팔괘는 자연의 이치를 나타내었다. 태극으로부터 음양의 작용이 일어나 천지가 이루어지고 다시 만물이 생기는 과정을 따라 兩儀와 四象 그리고 팔괘로 나타낸 것이다. 즉 팔괘는 자연현상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이로부터 萬事의 길흉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 ≪易≫의 글은 (음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道를 나타냄에 있어서 수시로 바뀌니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여섯의 빈자리를 두루 돈다. 상하의 자리가 일정하지 않으며 剛柔가 서로 바뀌어 일정한 법도를 내세울 수 없으니 오직 변화를 따라 갈 뿐이다. (易之爲書也不可遠, 道也屢遷, 變動不居, 周流六虛, 上下无常,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適.)[17]

만물은 어찌 보면 개별적인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만물은 천지의 운행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과 공간의 조건과 함께 변화한다. 모든 사물이

16) ≪周易正義·繫辭傳上≫, 340쪽.
17) ≪周易正義·繫辭傳下≫, 370~371쪽.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변화하는 것이다. 팔괘는 단지 사물의 유형을 나눈 듯하다. 그러나 64괘로 演繹되면서 모든 존재의 변화와 함께 변화한다. 즉 64괘는 사람도 음양의 이치에 따라 자연의 변화와 실시간으로 함께 변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4) '易簡'과 吉凶

삼라만상의 현상을 모두 음양의 작용으로 비롯된다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변화의 근원이 단순하고도 명료하다.

> 乾은 쉽게 알 수 있고 坤은 簡約하여 만물을 이룰 수 있다. 쉬운 즉 쉽게 알 수 있고, 간약한 즉 쉽게 따를 수 있다. 쉽게 아니 가까움이 있고 쉽게 따르니 功業이 있다. 가까움이 있으니 오래 갈 수 있고, 功業이 있으니 클 수가 있다. 오래 갈 수 있음은 賢人의 德이며, 클 수 있음은 현인의 功業이다. 쉽고 간약하니 천하의 이치를 얻을 수 있고, 천하의 이치를 얻으니 그 안에 位相을 함께 한다. (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知則有親, 易從則有功. 有親則可久, 有功則可大.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易簡而天下之理得矣. 天下之理得, 而成位乎其中矣.)[18]

乾의 이치는 매우 쉬운 것이다. 晝夜나 四時는 자연스럽게 바뀌니 모든 생물이 쉽게 이 변화를 알고 있다. 坤의 이치 또한 매우 간략하다. 하늘의 四時에 따라 만물에게 生長收藏의 터를 제공한다. 乾德을 따름으로서 만물을 키워내는 것이 坤德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가까이 하게 되고, 간단하여 쉽게 따르니 功業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듯 성인은 '易簡'의 이치를 터득하여 천하의 이치를 얻고 이로 괘에서 천지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늘의 이치는 단지 자연스럽고 쉬울 뿐이다. 땅의 이치도 단지 하늘을 따라 만물을 내는 것이니 매우 간단하다. ≪周易≫은 이러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周易≫을 통해서 보는 사람의 이치는 어떠한가?

---

18) ≪周易正義·繫辭傳上≫, 304~305쪽.

> 聖人이 卦를 陳設하여 그 象을 보고 卦辭와 爻辭를 지어 길흉을 드러내었다. 剛柔가 서로 밀어 변화가 생기니, '吉凶'이란 得失을 나타내는 象이며, '悔吝'이란 걱정과 憂慮를 나타내는 象이고, '變化'란 進退를 나타내는 象이며, '剛柔'란 晝夜를 나타내는 상이다. 이렇듯 六爻의 움직임은 三極(三才)의 道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君子가 머물러 편안한 곳은 易의 次序(卦爻의 순서)이며, 즐거움으로 玩味(玩索)하는 것은 爻辭이다. 때문에 군자는 조용히 卦象을 보면서 爻辭를 玩味하고, 움직일 때는 卦의 변화를 보면서 爻의 占辭를 玩味하니, 하늘이 그를 도와 길하여 불리함이 없다. (聖人設卦觀象, 繫辭焉而明吉凶, 剛柔相推而生變化. 是故吉凶者, 失得之象也. 悔吝者, 憂虞之象也. 變化者, 進退之象也. 剛柔者, 晝夜之象也. 六爻之動, 三極之道也. 是故君子所居而安者, 易之序也. 所樂而玩者, 爻之辭也. 是故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是以自天祐之, 吉無不利.)[19]

≪周易≫은 괘상을 통해서 길흉을 밝힌 것이다.[20] 강유가 서로 밀어 변화하니 이것이 사람에게는 得失로 나타난다. 이러한 人事 득실의 결과에 따르는 네 가지 현상을 吉, 凶, 悔, 吝으로 나타냈다. 사람의 人生歷程에서 끊임없이 뒤바뀌며 나타나는 변화의 현상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進退의 상을 드러낸 것이다. 剛柔는 晝夜의 象과 같이 단지 음양의 상이다. 64괘에서 6爻는 天地人 三才의 변화의 道理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사람도 천지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吉하지 않음이 없는 경지에 오르게 됨을 말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천지의 뜻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乾坤(자연)의 이치는 단지 음양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매우 簡易한 것이며, 사람의 人事 또한 단지 길흉으로 짜이는 단순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3. 문자와 '象形'

許愼은 ≪說文解字≫ 敍文에서 팔괘와 문자의 창제 원리가 같은 것임을 말하였다. 팔괘는 '天象'과 '地法'을 살피고 鳥獸의 모양과 땅의 형상

19) ≪周易正義·繫辭傳上≫, 306~310쪽.
20) "易只是說箇卦象, 以明吉凶而已, 更無他說." 黎靖德 編, ≪朱子語類四≫(北京, 中華書局, 1986), 1629쪽.

을 보면서 가까이는 자신의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로부터 취하여 만들었다 했다. 이는 天象으로부터 鳥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치와 사물을 여덟 가지의 부호로 나타냈음을 의미한다. 문자의 造字原理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었다.

1) 文字와 '依類象形'

짐승들의 발자국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문자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 倉頡이 처음 글자를 만들 때, 대체로 종류에 따라 象形을 하였으니 이를 '文'이라 했다. 그런 후에 상형자에 聲符를 더하였으니 이를 '字'라 한 것이다. '文'이란 사물 본래의 형상이며, '字'란 파생되어 점차로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倉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其後形聲相益, 即謂之字. 文者, 物象之本; 字者, 言孳乳而浸多也.)

허신은 '象形'을 造字의 기본 원리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첫 단계에서 사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 '文'이며, 다음으로 이미 만들어진 '文'을 합하여 또 다른 글자를 만든 것이 '字'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모든 문자는 상형자 즉 '文'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依類象形'에서 '象形'의 대상은 모든 만사만물이다. '鳥獸의 足迹'은 단지 상형의 방법에 대한 契機가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허신이 서문에서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의 ≪繫辭傳≫句를 인용한 것은 이러한 원리가 문자의 상형에도 적용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近取諸身, 遠取諸物,"의 원리는 ≪說文解字≫에서 部首를 세운 방식과도 일치한다. 허신은 9353字의 한자 형태를 540자의 部首로 나누어 설명을 했다. 이 540자의 部首는 바로 사람의 몸으로부터 사물에 이르기까지의 유형에 따라 나눈 것이다. 王蘊芳은 이를 몇 가지의 細目으로 나누어 보았다.

> 1) 人體를 내용으로 한 부수가 197개이다. 이에는 사람의 형상과 관련된 것 83개, '頁'과 관련된 부수 18개, '目'과 관련된 부수 10개, '口'와 관련된 부수 31개, '手'와 관련된 부수 29개, 그리고 '足'과 관련된 부수 26개가 있다.
> 2) '器用'을 내용으로 한 부수가 180개이다. 祭祀와 관련된 부수 28개, 전쟁과 관련된 부수 19개, '衣'와 관련된 부수 24개, '食'관 관련된 부수 24개, '住'와 관련된 부수 20개, '用'과 관련된 부수 36개, 그리고 '器用'과 관련된 기타 부수 29개가 있다.
> 3) 동물을 내용으로 한 부수가 61개이다. 飛禽과 관련된 부수 20개, 家禽과 관련된 부수 13개, 走獸와 관련된 부수 17개, 그리고 爬蟲類와 鱗甲動物과 관련된 부수 11개가 있다.
> 4) 식물을 내용으로 한 부수가 31개 있다. 초목과 관련괸 부수 9개와 그리고 식물과 관련된 기타 부수 22개가 있다.
> 5) 자연계를 내용으로 한 부수가 37개 있다. 天象과 관련된 부수 9개와 그리고 地輿와 관련된 부수 28개가 있다.
> 6) 數字를 내용으로 한 부수가 12개이다.
> 7) 干支字를 내용으로 한 부수가 12개이다.[21]

허신이 ≪說文解字≫에서 말하는 '文字'는 기본적으로 "近取諸身, 遠取諸物,"에서의 '身·物'에 대한 인식과정을 거쳐 '象形'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六書와 '孳乳'

허신은 다시 이러한 상형을 포함한 여섯 가지의 造字原理, 즉 '六書'를 내세웠다. 이것은 상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자의 효용성을 넓히고자 하는 '孳乳'의 방식이었다.

> ≪周禮≫에 여덟 살이면 소학에 들어가는데 保氏는 먼저 六書로 國子들을 가르쳤다 했다. 첫 번째가 指事다. 지사란 보아서 알 수 있고 살펴 뜻이 보이는 것으로 '上' '下'와 같은 것이다. 둘째로는 象形이다. 상형이란 사물을 그림으로 그렸으니 형체를 따라 구불구불한 것으로,

---

21) 王蘊芳 著, 〈漢字造字的哲學宇宙觀之我見〉≪吉林師範學院學報·1994年第3期≫(吉林, 1994), 53쪽.

> '日' '月'과 같은 것이다. 셋째로는 形聲이다. 형성이란 事物을 이름 하되 가까운 사물로 비유를 한 것으로 '江' '河' 같은 것이다. 넷째로는 會意이다. 회의란 여러 종류를 함께 묶어 뜻을 합한 것으로 보아서 그 의도하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한 것으로, '武' '信'과 같은 것이다. 다섯째로 轉注이다. 전주란 같은 部首를 세워 서로 같은 뜻으로 수용하는 것이니 '考' '老'와 같은 것이다. 여섯 번째로 假借이다. 가차란 본래 그 글자가 없지만 소리를 따라 事物의 뜻을 나타내었으니 '令' '長'과 같은 것이다. (≪周禮≫八歲入小學, 保氏教國子先以六書. 一曰指事. 指事者, 視而可識, 察而見意, 上下是也. 二曰象形.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詘, 日月是也. 三曰形聲. 形聲者, 以事爲名, 取譬相成, 江河是也. 四曰會意.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撝, 武信是也, 五曰轉注. 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 六曰假借.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托事, 令長是也.)[22]

여기 六書의 설명에서는 몇 가지의 理論이 제기되었다. 첫째 '四體二用'의 주장으로 指事, 象形, 形聲 그리고 會意가 造字의 원리에 속하며, 轉注와 假借는 이의 운용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주와 가차는 글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글자를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文'과 '字'에 대한 것이다. 文을 '獨體文'으로 보아 象形과 指事의 글자가 여기에 속한다 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獨體文만 있다가 후에 合體字가 만들어졌다. 즉 '形'과 '形'이 합해진 會意字나 '形'과 '聲'이 합해진 形聲字가 이에 속한다. 이로써 '依類象形'으로 이루어진 '文'과 '形聲相益'으로 이루어진 '字'를 구별하였다.

셋째로는 '實'과 '虛'의 구분이다. 우주 안에는 '事'와 '物'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그림으로 실물의 형상을 나타내어 象形이라 했고, 부호로 '事情'의 상황을 나타내어 指事라 하였다. 때문에 象形의 글자는 대부분 實體的인 名詞이며, 指事의 글자는 대부분 추상적인 동사나 형용사이다.[23]

≪說文解字≫의 문자는 처음 사물 하나에 글자 하나라는 일대일의 대응관계로 시작하였으나, 후에는 사물 하나에 여러 글자를 합하는 방식으로 상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글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

---

22) ≪說文解字注·敍≫, 762~763쪽.
23) 林尹 著, ≪文字學概說≫(臺北, 正中書局, 1971), 56~57쪽.

다.

가령, ≪說文解字≫에서의 象形 글자는 364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수한 상형글자는 242자이며, 다시 중복되거나 한 개의 형체로부터 演化된 것을 제외하면 단지 110자가 남는다.[24] 이는 당시 ≪說文解字≫표제자 9353의 1%를 약간 넘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국의 문자가 상형으로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문자는 다양한 운용에 의한 '孳乳'의 방식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孳乳 방식은 문자를 끊임없이 증가시켰다. 1716년에 발간된 淸代의 ≪康熙字典≫은 47,035자를 수록하였다. 현대에는 1994년 中華書局에서 발행한 ≪中華字海≫는 85,568자를 수록하였고, 다시 臺灣에서 2004년에 발행한 ≪異體字字典≫에는 106,230자가 수록되었다. 즉 문자는 거의 무한하게 팽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周易≫과 ≪說文解字≫

≪說文解字≫는 中國 최초의 形, 音, 義를 함께 나타낸 완벽한 字典이었으며, 아울러 중국 문자의 造字 및 구성 원리에 대해 매우 명료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허신은 서문에서 말하였듯이 문자의 창제원리가 기본적으로 팔괘와 같음을 주시하였다. 이것은 ≪說文解字≫의 전체 구성과 내용에도 반영되었다.

≪說文解字≫는 전체적으로 ≪周易≫의 체계를 따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周易≫의 64괘는 모든 존재와 존재의 변화를 하나의 체계로 포괄하는 것이다. 문자도 상형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서의 원리에 따라 만사만물을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9353자의 표제자를 540개의 部首로 나누어 이를 순서에 따라 조직하였다. 이는 〈繫辭傳〉의 "方所에 따라 部類를 모으고 사물에 따라 무리를 이룬다.(方以類聚, 物以群分.)"와 상통한다. 즉 부수는 類似한 形象들을 같은 부수로 모은 것이다.

540이라는 숫자는 ≪周易≫의 6과 9를 곱한 숫자와 관련이 있어 보

24) 위의 책, 65쪽.

인다. 6은 地數이며 陰의 極數이다. 9는 天數이며 陽의 極數이다. 540개의 部首는 陰陽의 極數를 곱하여 음양의 두 기운으로부터 생겨나는 萬象을 표현하는 문자의 기능을 상징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540개의 부수는 '一'로 시작하여 '亥'로 끝난다. ≪說文解字≫에서 '一'은 "처음에는 太極이며 道는 하나에서 일어나 천지로 나뉜다. 이로부터 만물이 생겨난다.(惟初太極, 道立於一, 造分天地, 化成萬物.)"[25]라 했다. 천지만물이 太極으로 시작되었듯이 문자도 태극에 비유하여 '一'로부터 순서를 정한 것이다.

또한 部首에서 '亥'를 맨 뒤에 두었는데, "시월은 微陽이 일어나니 盛陰을 맞는다.(十月微陽起, 接盛陰.)"[26]라 해석했다. 당시의 曆法에서 '亥'는 시월을 의미한다. 시월은 陰의 기운이 왕성한 때여서 陰極陽生의 이치에 따라 땅속에서 양의 기운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때다. 아울러 '亥'의 小篆體에 대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다. 乙에서 땃고, 웃고 있는 아이를 품은 것을 상형하였다. (一人男, 一人女也. 從乙, 象懷子咳咳之形也.)"[27]고 했다. 어린 아이의 형상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나타낸 글자로 부수의 끝을 맺었다.[28]

이는 ≪周易≫ 64괘의 끝 괘인 〈未濟卦〉와 공통점이 있다. 즉 이 괘는 각 음양의 효가 不正位의 위치에 있지만 음양이 正應하는 위치에 있어 남녀가 상응하는 의미가 있다. 〈未濟卦〉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說文解字≫는 ≪周易≫의 '生生不息'의 사상으로 문자의 전체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허신은 '象'을 바탕으로 하는 문자의 造字原理 자체가 이미 ≪周易≫의 팔괘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六書의 이론을 정리하였다. 즉 팔괘가 64괘로 중첩되어 모든 변화를 드러낼 수 있듯이 문자도 '象形'의 중첩을 통하여 늘어나는 만사만물을 나타낼 수 있게 한 것이다.

---

25) ≪說文解字注≫, 1쪽.
26) ≪說文解字注≫, 759쪽.
27) ≪說文解字注≫, 759쪽.
28) 참조. ≪辞书研究2001年05期≫(上海, 上海辞书出版社, 2001), 姚淦铭 著, 〈说文编纂的易哲学视界〉, 76~78쪽.

이렇듯 허신은 ≪周易≫의 체계를 본떠 통합적인 시각으로 ≪說文解字≫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사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지칭하면서 만들어진 문자지만 이를 삼라만상의 유기적인 통합구조 속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자는 근본적으로 ≪周易≫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즉, 문자는 주로 대상의 외재적 表象이나 대상의 개별적 특징 또는 그 다양성에 중점을 둔다. 또한 문자는 글자의 형태로 사물을 지칭하고 대상을 定義하며, 無形의 대상에 대해서도 글자의 형태로 나타낸다. 다시 말해 문자는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며 따라서 통합적인 체계로 조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대의 字書는 점차 ≪說文解字≫의 이러한 구성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허신은 ≪說文解字≫를 통해 이러한 사상을 담아내는 표현 수단으로서의 문자적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문자가 본래 개별적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문자는 갈수록 煩多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괘는 대상의 내재적 본질이나 보편성 또는 전체적인 유기적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파악한다.

팔괘는 삼라만상을 부호로 總括하고, 부호의 변화를 통해 사물의 존재와 변화의 '道理'를 상징한다. '以通神明之德'은 추상적인 세계의 본질과 規律에 대한 깨달음이며, '以類萬物之情'은 구체적인 물질세계의 본질과 규율에 대한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周易≫은 사람이 자연과 하나임을 보여준다. 占卜 자체가 天人合一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팔괘와 문자는 만상의 象을 보고(觀象) 이에 대해 다시 상(取象)으로 상징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상통하는 표현 체계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반영의 방식과 목적이 있다.

5. 結　語

팔괘와 문자는 '象'으로 뜻을 나타낸다는 공통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

다. 그러나 문자는 '象形'의 '初文'을 '形聲相益'하는 '孳乳'의 방법에 의해 거의 무한대로 불어날 수 있다. 현재 100,000字가 넘는 문자의 數가 이를 입증한다. 문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문자 본래의 기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문자나 글의 간결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許愼은 이제까지 한 번도 정리를 거친 적이 없어 산만하게 불어난 문자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하나의 체계를 세워 편집하였다. ≪說文解字≫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허신이 채용한 체계는 ≪周易≫을 본뜬 것이었다.

첫째로, 모든 문자를 통합적인 체계로 정리하였다. ≪周易≫은 만물을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人事의 吉凶禍福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해 문자는 본래 사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상형하여 만들어졌지만 허신은 이를 유기적인 통합체로 묶고자 하였다. 문자의 개별적인 한계를 벗어나 천지만물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는 체계를 세우고자 한 의도라 할 수 있다.

둘째로, 팔괘의 연역방식으로 문자의 造字原理를 규명하였다. 즉, 팔괘를 64괘로 演繹한 원리에서 '形聲相益'의 방법으로 造字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즉 하나의 部首 안에서의 글자 모두는 상호 유기적인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 部首는 다시 '一'로부터 시작하여 '亥'로 끝나는 통합적인 구성으로 조직되었다. 이렇게 하여 모든 문자는 540개의 부수로부터 '孳乳'되었고, 540개의 부수 또한 陰陽의 極數인 6과 9를 근거로 한 것임을 나타냈다.

≪說文解字≫는 이렇듯 문자 하나하나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여 문자 본래의 기능이 단지 사물 하나를 대표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사물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삼라만상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문자의 체계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문자가 사물의 표상을 나타낼 뿐 사물 사이의 역학관계나 사람과 천지만물의 관계 등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을 ≪周易≫의 사상과 형식을 援用하여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女'字는 단지 아이를 낳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고,[29] '男'字는 경작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30] 그러나 ≪周易≫은 천지와 남녀, 그리고 남녀와 사회의 人事

를 집약한다.

> 천지가 있고나서 만물이 있으며, 만물이 있고서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고서 부부가 있으며, 부부가 있고서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서 군신이 있으며, 군신이 있고서 상하가 있고 상하가 있은 후에 예의가 확립된다.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禮義有所錯.[31])

≪周易≫에서는 人事가 천지만물로부터 비롯된다. 인간사회의 규범인 禮義도 이로부터 확립된다. 이렇듯 ≪周易≫은 사물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모두를 하나의 총체적인 유기체로 파악한다.

허신은 ≪說文解字≫의 구성에서 ≪周易≫의 이러한 의미를 살려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점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 후의 字書는 점차 이러한 의미가 사라졌고 이제는 단지 글자나 어휘의 설명에 머물면서 숫자만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문명도 조각난 형태로 팽창을 할 뿐이며, 인간의 가치와 조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 특히 문명을 善導해야 할 학문이 오히려 문명에 편승해서 팽창위주로 발달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參考文獻>

許愼 著,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敍≫(臺北, 蘭臺書局 影印, 1977)
李學勤 主編, ≪周易正義≫(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李學勤 主編, ≪尙書正義≫(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李學勤 主編, ≪春秋左傳正義≫(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李學勤 主編, ≪周禮注疏≫(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29) '女'字가 무엇을 상형했는가에 대해 ≪說文解字≫의 說解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김용옥 교수가 이를 '애기를 낳고 있는 모습'을 상형한 것이라고 본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김용옥 저, ≪여자란 무엇인가≫(서울, 통나무, 2002), 118쪽.

30) "从田力, 言男子力於田也" ≪說文解字注·男部≫, 705쪽.

31) ≪周易正義·序卦傳≫, 396쪽.

劉文典 撰, ≪淮南子鴻烈集解≫(北京, 中華書局, 1989)
黎靖德 編, ≪朱子語類四≫(北京, 中華書局, 1986)
林尹 著, ≪文字學概說≫(臺北, 正中書局, 1971)
王蘊芳 著, 〈漢字造字的哲學宇宙觀之我見〉, ≪吉林師範學院學報·1994年第3期≫(吉林, 1994)
姚淦铭 著, 〈说文编纂的易哲学视界〉, ≪辞书研究2001年05期≫(上海, 上海辞书出版社, 2001)
≪Time≫February 21, 2011

<中文提要>

≪周易≫八卦与文字

中国除了文字以外还有特别的符号系统，功能有时超出文字，这就是≪周易≫六十四卦。许慎在≪说文解字≫序文里提到“近取诸身，远取诸物；於是始作易八卦，以垂宪象”，以暗示文字之前先有八卦，文字也许始源于八卦。

在所谓六书中，有两种造字法是基本的，此即‘依类象形’以造文，‘形声相益’而成字，如此孳乳浸多而表达万事万物。不过文字始终难免有“书不尽言，言不尽意”的缺点。

八卦演绎成六十四卦，最简单的阴阳两爻象征人事吉凶的各变化，就发挥了“立象以尽意，设卦以尽情伪”的功效。

≪说文解字≫一书就是仿≪周易≫而编纂的第一部中国文字字典。≪周易≫以象为本，许慎认为文字也以象为本。≪周易≫的六十四卦具备完整的系统，不过文字的孳乳则日益增多而过于繁杂。许慎引≪周易≫“知天下之至啧而不可乱也”，以表示≪说文解字≫也是仿≪周易≫的系统结构而编的。≪说文解字≫的9353字都按照540个部首来排列，部首又从‘一’部开始，以‘亥’部结束。540的数字显然是从≪周易≫阴阳的极数六、九乘来的。许慎以前的文字未曾整理过，夏杂纷乱，经过许慎，文字才有了系统的结构。不过后来的字典都失去了这种系统，也忘却了文字本身‘象物’、‘象事’的本质。

文字因为只有照‘形声相益’的无限增值，并没有整体的配合规律，因此现在的文字成了无条理而杂乱的堆积。

传说初造文字的时候，“天雨粟，鬼也哭”，神灵以此表示了忧虑，文明随着文字发达，并没有整体的调和，使用文字只重其工具性，没有想到它与自然协和的本意，以至招来“诈伪萌生，去本趋末”的世俗风情。

文字要保持整体的系统，不能杂乱。文明也不能离开‘人本’的原则，若只求发达而失去方向，就必定变成对人类的灾害。我们可以窥测许慎模仿≪周易≫而编书的用意所在。

關鍵詞 ： ≪说文解字≫, ≪周易≫, 象物, 八卦, 六十四卦, 人本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143~160

高丽李穡基于≪春秋≫的理解探讨其历史意识和经世思想

金荣奇*

〈目　录〉

1. 绪　言
2. 李穡对≪春秋≫的理解
3. 李穡的历史意识
4. 李穡的经世思想
5. 结　论

1. 緒　言

李穡，号牧隐，生于高丽忠肃王十五年(公元1328)，正处于元帝国一统天下已有一百多年之际。家学熏陶，行年十四，及第于高丽成均试，早有初名。后至年二十，由于其父李谷之劝导[1)]，始赴元都燕京，成为国子监的学生。李穡在国子监留学三年期间，精心研读国子监的教学课程，犹如"玩易诗三绝，观书日百回。"[2)]而且他亲自求学于当时名望声高的中华学者，如宇文公谅[3)]、胡仲渊[4)]、余廷心[5)]、成遵[6)]等人，从此学问上受到了莫大的启发和影

* 东西大学校 中国语科 教授

1) 参见李谷≪稼亭集≫卷十八，〈用家兄诗韵寄示儿子讷怀〉云："男儿需宦帝王都，若欲致身均是劳。汝识宣尼小天下，只缘身在泰山高。三十年前懒读书，虚名却叹白头余。汝今当惜分阴学，富贵可求缘木鱼。"

2) 语见≪牧隐诗稿≫卷二，〈崇德寺旧寓僧房杂咏〉中。≪牧隐诗稿≫以下简称≪诗稿≫。

3) 李穡≪牧隐文稿≫卷四，〈朴子虚贞斋记〉可见李穡向宇文公谅求≪周易≫的详细过程，则如："易，家学也。未得师，会先君同年，宇文子贞先生以学官召至。予即上谒，进而自请曰：'穡高丽李稼亭牛马走也。愿从先生受易。'先生曰：'中甫明易者也。吾所畏也。汝年少，汝父未必授。同年之子犹子也。无患吾不汝授

响。

他年二十四岁时，因父亲去世而暂回高丽。翌年，及第于证东行省所主管的乡试。同年秋再赴元，先后及第于会试殿试，拜官为应奉翰林文字兼翰林院编修官。在此须加注意，当时殿试的读卷官翰林承旨欧阳玄，称许李穡的学问，是以李穡后来述怀欧阳玄的指点，如其诗云："衣钵谁知海外传，圭斋一语琅然。"[7]李穡自观当今的理学，其"渊源出两程"[8]，又"程朱道学穷天命"[9]，又"老来学易慕伊川"。[10]宋代的理学，逮至二程为确定成立，[11]朱熹乃传承周邵张程等前儒，贯串合一，使之为集大成，而作理学一派之完成。[12]宋学北流，传至元朝许衡，遂为官方哲学。[13]李穡尤重程朱二氏，亦受到元朝官方哲学的影响，不难推知他专治理学的对象和方向。

至于李穡对理学的成就而言，他自有根本性的界限。他虽对'太极'[14]、

也。'数日有所求正，先生曰：'可教也。然易非少年所可学，吾且训汝句读。'既踰诗，进易义一篇。先生欣然曰：'义理其殆庶几矣。措辞失其序尔。'"≪牧隐文稿≫以下简称≪文稿≫。

4) 见≪文稿≫卷十九，〈唐城府院君洪康敬公墓志铭〉中云："公之教提举也，浙东胡仲渊先生馆于公。予先君稼亭公佐幕。东省于公为同寮，又相善也。是以予得同受业焉。日且晚将归，公辄留之。动踰旬月，公之食我馆我，其恩又深矣。"

5) 见≪诗稿≫卷二， 见一句标语，如："成侍郎宅，见余廷心，先生退而志之。"可推知李穡与余廷心或有学问上的交流。

6) 同上书，卷二， 又见一句标语，如："谒成谊叔侍郎"。成遵与李穡之父同年，李穡亲自寻访，以求学成遵。

7) 见同上书，卷十三，〈纪事〉。

8) 同上书，卷二十三，〈中场日〉。

9) 语见同上书，卷八，〈忆梅花〉。

10) 语见同上书，卷十五，〈忆郑散骑〉。

11) 见冯友兰≪中国哲学史≫下册，页237。华东师范大学出版社，上海，2009。

12) 见同上书，页254。

13) 参见≪文稿≫卷九，〈选粹集序〉中云："至于讲明邹鲁之学，出二氏诏万世，周程之功也。宋社既屋，其说北流，鲁斋许先生，用其学，相世祖，中统至元之治，胥此焉出。"

14) 见≪文稿≫卷十，〈可明说〉中云："天之身体，本于太极，散于万物，脉经整齐，其明大矣。然人之虚灵不味，虽在方寸之间，然与天也，断然无毫发之异。谓天与人，不相属者，非知斯道者也。"卷三，〈养真斋记〉又云："故周子作太极图，亦曰无极而太极。盖所以赞太极之一无极耳。在天则浑然而已，发风动雷之前也。在人则寂然而已，应事接物之前也。发风动雷而浑然者，无小变则应事接物而寂然者，当如何譬之镜妍媸在乎物而镜则无述，曷尝以照物之故，为物所汗哉？"

'理'[15]、'气'[16]等理学的主要概念有相当深刻的认识和理解，但尚未言及这些概念之间的相互关系。换言之，他只能了解到周邵张程所言的断片性的概念，而并未认识到如上所提的概念之间具有统一性和有机性的朱子理学。[17]后至朝鲜性理学者李退溪批评李穑的原因莫不在此。[18]但若退一步评估李穑在理学上的成就，正如"前有先驱人后有接班人"，就开辟了朝鲜性理学的先河。李穑得后代学者和历史的肯定，[19]亦称为东方理学的鼻祖，[20]其理由就在于此。

李穑在元朝官至翰林知制诰，而当年二十九（1357）回高丽。他亲眼目睹元朝国运衰弱，别无前途可求。当时高丽，恭愍王即位不久，全面实施改革政策，国政焕然一新，趁着元政混乱之隙，废止征东行省，挣扎脱离元帝国的支配。李穑积极参与恭愍王的改革政策，[21]受任为礼部侍郎兼兵部郎中，掌握文武铨选。后至恭愍王八年和十年遇红巾贼之侵袭，国政喘息于战乱。而至恭愍王十四年恢复元气，李穑又重任国家铨选，展开教育和科举制

15) 参见同上书，卷三，〈养真斋记〉云："夫理无形也，寓于物，物之象也，理之着也。"

16) 参见同上书，卷一，〈西京风月楼记〉云："虽道之在太虚，本无形也，而能形之者，惟气为然。是以大而为天地，明而为日月，散而为风雨霜露，峙而为山岳，流而为江河，秩然而为君臣父子之伦，粲然而为礼乐刑政之具。其于世道也，清明而为理，秽浊而为乱，皆气之所形也。"

17) 参见韩国都贤哲〈牧隐李穑的政治思想研究〉，页30。延世大学史学研究院博士论文，1999。

18) 见李晃≪退溪全书≫卷二，〈闲居次〉第十首自注云："牧隐每自谓不学佛，然其称述释教，不啻多且详。而于吾学，殊孟浪无的确说到处。"

19) 后人与史书对李穑的评估，如朝鲜郑道传≪三峰集≫卷三，〈陶隐文集序〉中云："今牧隐先生早承家庭之训，北学中原，得师友渊源之正，穷性命道德之说。既东还，见而兴起者。"又≪圃隐集≫附录，续卷九，〈圃隐奉使稿序〉云："牧隐先生，以宰相领成均，倡性理之说，斥浮华之习。"河崙为其师李穑作〈神道碑铭〉云："义理精微，上接程张，文辞高古，下视苏黄，道积阙躬，处事安详。"≪世宗实录≫卷七十二，世宗18年5月丁辛条云："牧隐文靖公李穑，北学中国，学问精博，讲明道学，阐发幽秘。岁在辛丑，经兵之后，学校废弛，惟李穑间成均，讨论经籍之蕴妙，契程朱之志，使学者祛口耳词利。于是东方性理大兴，而儒风学术，焕然一新。"

20) 朝鲜权近≪阳村集≫卷十六，〈郑三峰道传文集序〉云："吾座主牧隐先生早承家训，得齿辟雍，以极正大精微之学，既还，儒士皆宗之。"

21) 参见≪高丽史≫卷115，列传28，李穑传云："上书言时政八事。其一，罢政房，复吏兵部选也。王嘉纳。"

度的改革。十六年重营成均馆，他完全掌握国家教育，官至大司成，倡导性理之学，契合程朱之志，高丽之儒风和学术由此而兴起。[22]

高丽恭愍王十四年（1368），明世祖君临天下，要求高丽断元事明，再遇恭愍王之被弑明使之被杀事件，明朝对高丽之压迫，日益加剧，高丽国政竟分为亲元亲明两派，争论不已。结果亲明派动兵掌握政权，亲明派之领首李成桂篡夺王位，时至明建国后二十四年，建立朝鲜（1392）。李穡虽站在亲明的路线，而反对李成桂动武强夺高丽社稷，终不与政变。李穡早与李成桂交为莫逆之友，是故以故友之情而得赦免，又受赐封爵，而终不仕于朝鲜。李穡，赴元求得性理之学，学问精博，亦精通经史诸子，开辟朝鲜性理学之先河。其平生作诗六千余首，作文二百二十四篇，现收集于≪牧隐集≫。其文名闻于海内外，其所著评为东方文府，[23]亦得称为东国文章之首。[24]

2. 李穡对≪春秋≫的理解

李穡专研性理之书，其学虽以≪周易≫以及≪四书≫为主，而依然倾心于≪春秋≫等其他经书。国子监的上两斋，即以≪周易≫、≪诗≫、≪书≫、≪春秋≫为主要课程，李穡成功通过国子监三年的全部课程，[25]由此可得而知，他已经对≪春秋≫可能打下了稳固的基础。值至他年二十五岁时，先后及第于元朝的会试、殿试。当时的科举，以≪春秋≫为必备科目之一。[26]因此，李穡对≪春秋≫一书，若无一定程度的研究与心得，则无法得到其第二甲二名的成绩。

22）参见注19。≪世宗实录≫卷七十二，世宗十八年五月丁丑条所云。

23） 语见朝鲜成俔≪慵斋丛话≫卷八十云："牧隐诗文几十卷，韩山伯李穡所著，为东方文府。"

24） 见朝鲜李德迥≪竹窗闲话≫云："近观牧隐文集碑铭墓志，冠绝古今，东国文章，当以牧隐为首。"

25）关于国子监的教学课程，详见于≪元史≫卷八十一，选举一，学校条

26） 同上书，〈选举一〉科目条云："第一场明经经疑二问，大学论语孟子中庸内出题，并用朱氏章句集注，复以己意结之，限三百字以上。经义一道，各治一经，诗以朱氏为主，尚书以蔡氏为主，周易以程氏朱氏为主，以上三经，兼用古注疏。春秋许容三传及胡氏传，礼记用古注疏，限五百字以上，不拘格律。"

李穡对≪春秋≫和他被此书所触发的历史精神，并非凭空而出，即在元明交替的历史转变的边缘中摸索历史演变的规律，而且与他自己本身学以致用的求学目标，溶为一炉，由中华至高丽，他的经世意志积极表露在他所处的现实当中。换言之，他所处的现实环境和内心的经世要求提供他对历史认识的心理空间。

李穡关于≪春秋≫，至今不见其专作，而他对≪春秋≫的见解和论说，或作诗以咏之，亦或作文以论之。今皆散见于≪牧隐诗稿≫与≪牧隐文稿≫中。李穡自述“春秋开卷读桓庄”27)，可知他何等重视≪春秋≫。他亦云“吾志在春秋”28)，又“辞严义正春秋法”29) ，从上又可窥知他以≪春秋≫为其平生志向之所在，且使之为其认识历史的根据。如前所述，他咏史论古，以意寓于诗中，将现实上的追求衬托于≪春秋≫精神。今兹举李穡〈读春秋〉二首，试论他如何认识≪春秋≫，并将摸索其诗中所涵的思路。如下：

其一：
获麟当日涕沾襟，借鲁明王笔力深。
三传异同吾已废，伊川心是圣人心。30)

其二：
龂龂春秋传，精微笔削心。
百王模范在，一字再三寻。
麟也表吾道，凤号歌德音。
悠悠千载下，有客泪沾襟。31)

诗以言志，咏物写景皆已然，何况咏史以寓己心乎？咏史并非指叙述历史，而其所以为文学作品，则借古喻今，寄托己心于作品中32)，诗中应具有

27) 语见≪诗稿≫卷十四，〈自咏〉，如“兀坐书床岁月长，春秋开卷读桓庄。”
28) 见≪文稿≫卷四，〈朴子虚贞斋记〉，如“予曰：‘吾志在春秋，读者不之察耳。’雨露风霜，天时之春秋也。华衮斧钺，王法之春秋也。春秋奉天时明王法，一出于正而已，非春秋而何？”
29)语见同上书，卷十六，〈书筵，进讲君子所贵乎道者三，至有司，退而志之〉。
30) 诗见≪诗稿≫卷二。
31) 见同上书，卷七。

作者的想象力.象征性和美的形象化等因素。[33]在李穡的≪诗稿≫中，其有关咏史的作品，今可见四十首。[34]其中有标题为咏史.读史.怀古等的作品，亦有标题为管仲.齐桓等历史人物的作品。观史伤感，托情于古代的历史事实与人物，一读一叹，而无法与现实低昂，反求诸己，只吟诗以寓无奈之情怨而已。

如上二首诗，一为七言，一为五言。体制不同，而题材皆源于≪春秋≫，而且其所表现出的情怀，大致相同。若纵观二首诗，不难发现诗中所贯通的同一个情节，即"获麟当日涕沾襟"、"悠悠千载下，有客泪沾襟"，感世有别，伤时有类。流转千载，古今同情。孔子当日获麟涕沾襟，而至悠悠千载之后，高丽之老客，当时世而感通孔子之心，亦不禁泪流沾襟。李穡身处高丽末，国运既衰，其对王朝嬗变之时局，岂无自所感怀？麟之出，必有圣人在乎位，惟圣人能知麟。[35]孔子亲自目睹鲁之衰微，王道不夏行，哀公十四年，麟非时而出，故感麟之出而作≪春秋≫。[36]李穡通感此情，故云："春秋，圣人之志也。麟，阳物也而见获，圣人伤心之甚，故作春秋。" 可知上诗中所云"麟也表吾道"，麟为伤世的象征，麟不至于今，而道无所不在。李穡借麟表道，由道传情，通往圣人。

≪春秋≫本为天子之事，而孔子因鲁史而修≪春秋≫，加以笔削四百多年之事，有笔有削以行其权，有笔无削以存其实，孔子擅其南面之权，其用心在"借鲁明王"，以寓万世百王之法；是故李穡其诗中自咏"借鲁明王笔力深" 、"精微笔削心"、"百王模范在"。其实，"百王模范"此语，源于程伊川，则程伊川≪春秋传序≫曾云："父子当周之末，以圣人不夏作也，顺天应时之治不夏有也，于是作春秋为百王不易之大法。"又云："制事之权衡，揆道之模范也。"孔子之用心，明于伊川。故李穡用诗阐明 "伊川心是圣人心"，由此，孔子传至伊川，今至李穡，其心得以重现。李穡当佞臣擅政，以蔽圣明，王道不行，国运岌岌可危，感时而对≪春秋≫，百王之模范，依旧在圣人之书，而见诸高丽，麟道凤音，往何处寻？

---

32) 见王力≪古汉语文选≫，页154。中外出版社，香港，1976。
33) 见李汉馥〈牧隐李穡的咏史诗研究〉，页5。硕士论文，高丽大学教育大学院，韩国，1993。
34) 见同上书，整理出李穡≪诗稿≫中有关咏史的作品，共为四十首。
35) 见韩愈≪韩昌黎文集≫(台北: 华正书局, 1986)卷一，〈获麟解〉一文，页23。
36) 见≪文稿≫卷三，〈杨村记〉。

李穡将程朱道学传于后代为己任，[37]私塾孔子为己师，而欲以圣人的学问积极展现于当今时代。他所谓的圣人的学问，乃指“孔氏祖述尧舜，宪章文武，删诗书，定礼乐，出政治，正性情，以一风俗，以立万世太平之本”之本领。[38]由此可知，李穡欲经程朱道学上达于圣人之学问，进而使之体现于他所处的社会中。李穡立足于高丽末急变的政治环境中，自负为孔孟，拨乱反正，挽回孔子所向往的周道，最终使之升为唐虞之治。[39]因此，李穡曾云：“仲尼盖尝曰：‘如有用我者，吾其为东周乎！’兴周道于东方，不在今日乎？”[40]

3. 李穡的历史意识

至于李穡解释历史的态度，〈读春秋〉二首诗中可窥见其线索，犹如“借鲁明王笔力深”、“精微笔削心”等语。李穡深信≪春秋≫为孔子加以笔削四百多年鲁史而成，而其志晦而不明，后人难以揭晓圣人之用意。故李穡亦不得不投入“一字再三寻”的功夫，最终才领悟孔子所笔削之意深奥而精微。他又提到“雨露风霜，天时之春秋也。华衮斧钺，王法之春秋也。春秋奉天时明法，日出于正而已，非春秋而何？”[41]又“春秋圣笔大书求，汲之所以进之也。”[42]李穡深切认识到≪春秋≫谨严于褒贬，一辞一句，绝无空言，善善恶恶，明辨是非。≪春秋≫乃孔子用心立大意之所在，笔削与褒贬，皆为后代万王而立法。

李穡以为≪春秋≫所表现出来的历史精神，则以笔削与褒贬为概括的春秋笔法，无不寄托在≪史记≫、≪汉书≫、≪资治通鉴≫、≪资治通鉴纲目≫等历代史书中。他对史书的关注和理解，即在他的≪诗稿≫和≪文稿≫中处处可见。其虽为短言片语，而实足以推知李穡所理解历史的程度。李穡曾受命而撰述≪千秋金镜录≫一书，[43]又承命而参加实录的编撰工作。[44]其屡言太

37）见≪诗稿≫卷十四，〈即事〉中云：“魏晋清谈虽自绝，程朱道学经谁传。”
38）见≪文稿≫卷九，〈选粹集序〉。
39）见≪诗稿≫卷二十四，〈晓吟〉中云：“自负此心如孔孟，谁回世道夏唐尧。”
40）见≪文稿≫卷十，〈孟周说〉。
41）见同上书，卷四，〈朴子虚贞斋记〉。
42）见≪诗稿≫卷二十一，〈代李六宰茂芳〉。

史之意，可取证于此。[45]

李穡主要通过春秋笔法而追求孔子的历史精神，　其心路历程乃从当时高丽知识分子的集体心态而演绎出来。元帝国对高丽的长期支配，使得高丽知识分子，　在表面上接受元帝国的统治秩序，而在深层意识里摸索自我独立的历史观。此种历史自我意识的萌芽，通过著述古代历史而更加显而易见。至高丽末，对朱熹≪资治通鉴纲目≫展开有深度的研究和阐释，闵渍受命而撰述≪本朝篇年纲目≫。其后有李齐贤等人，使之增修为≪增修篇年纲目≫。如此，当时知识分子根据以≪纲目≫为代表的性理学的历史观，企以理解历史，又进一步而解释当代的历史。逮至李承休著作≪帝王韵纪≫一书，以具体整理出具有体系的高丽以前的历史，而初开与中华相不同轨的独自历史观的先河。

李穡的历史意识，就历史环境而言，即在中华和高丽的两个历史空间中磨练而形成；另就其学术性格而言，即在强调义理和名分的性理学架构中得以呈现。无论如何，凡此皆受其师李齐贤的影响为极大，则李齐贤彻底收容朱子的历史认识为唯一的根据，故李穡曾在其师的墓志铭云："初公读史，笔削大义必春秋。至则天纪曰：'那将周余分续我唐日月。'后得朱子纲目，自验其学之正。"[46]李穡比对≪资治通鉴≫和≪资治通鉴纲目≫，虽以为其二者的笔法显然各异，[47]而李穡偏趋于朱子的笔法。故其云："公羊清映春秋传，司马豪留史记篇。笔削作经麟自出，考亭纲目日行天。"[48]如此，李穡认定朱子和≪纲目≫的态度，亦可见于其诗所吟朱子笔削陶渊明的纪事中，则如："直书处士仍书晋，纲目明明书法新。"[49]

43）见同上书，卷九，〈七夕〉中云："拟进千秋金镜录，却惭老笔不成章。"≪高丽史≫卷43，世家43，恭愍王二十年五月癸酉条云："命监春秋馆事李仁夏、知春秋馆事李穡增修本朝金镜录。"

44）见≪高丽史≫卷117，列传30，郑梦周传。

45）参见≪诗稿≫卷十六，〈自咏〉云："太史传家唯父子，老年多病少朋俦。"≪文稿≫卷六，〈清州牧济用财记〉云："予，太史也。闻善必书，故书为记。"卷十三，〈书上扎补正雪庵大字卷后〉又云："予，太史也。敢告。"

46）见≪文稿≫卷十六，〈鸡林府院君谥文中李公墓志铭〉。

47）参见≪诗稿≫卷六，〈即事〉。如："涞水考亭书法在，未知天意定谁优。"

48）见同上书，卷七，〈咏史有感〉。

49）见同上书，卷八，〈读归去来词〉。

4. 李穑的经世思想

至于李穑的经世思想， 自幼锻炼而成。[50]他曾云："士君子，幼也学，壮也行。始于家而终于天下。致君泽民，移风易俗。必曰尧舜其人，唐虞其时。"[51]李穑曾在元朝国子监求学时，曾表达其所怀的雄心壮志，充满信心为"自视雄豪鼎可扛"[52]，又"再造乾坤岂是劳"[53]，他的心志只为实现尧舜之治而无惧任何考验。[54]在李穑的心目中，元帝国不仅是他唯一的世界，同时也是他平生依托之所在。其身虽生于高丽，而愿可改变气质，希以为中华的养子。[55]他年二十八，当职于翰林院时，由于元帝国称霸天下，万国称臣拜元，他作为元朝的小官感到无比的激动，"编取中和乐职颂，小臣当使播无穷。"[56]他年轻有为的感慨，自称中华小臣，乐以守职，永为中华献身。他希望在元帝国的繁荣下摸索其政治前途。李穑曾云："元有天下，四海既一。三光五岳之气，浑论磅礴。"[57]在他心目中，唯元能统领天下而归于一统。是故其政治抱负，只在此种政治环境之下可得而言的，如"士生斯世，不遇则已。遇则佐天子大一统，布四海阳春焉而已。"[58]"大一统"乃春秋公羊学的理论枢纽，亦为春秋笔法的首义。[59]可知李穑诠释春秋笔法，则取于公羊说法，以为"公羊清映春秋传"[60]，反而批评左氏笔法所未妥之处。[61]公

---

50) 参见韩国权正颜〈丽末鲜初朱子学导入期的经典理解〉，页11。东洋哲学研究第22辑，1997。

51) 见≪文稿≫卷十，〈孟周说〉。

52) 语见≪诗稿≫卷十，〈廉东亭冒雪携酒见访〉。

53) 语见同上书，卷二，〈夜坐有感〉。

54) 见同上书，卷十二，〈晚岁〉中云："天生我辈必有用，拯屯济否须英贤。周孔文章频梦想，唐虞德业或思成。"

55) 参见≪诗稿≫卷二，〈出凤城〉中云："天教小臣生东坱，变化气质希螟蛉。负笈来游壁水下，数年听莹弦诵声。"

56) 同上书，卷三，〈皇都夏日〉其诗如："燕云佳气郁葱葱，虎居龙盘面势雄。宫殿倚空辉日月，旌旗到处振雷风。干戈倒载三军凯，玉帛来趋万国同。编取中和乐职颂，小臣当使播无穷。"

57) 见≪文稿≫卷七，〈益斋先生乱稿序〉。

58) 见同上书，卷三，〈杨村记〉。

59) 春秋隐公"元年春王正月"，公羊传曰："何言乎王正月？大一统也。"

60) ≪诗稿≫卷七，〈咏史有感〉云："三坟五典久无传，删定功夫远胜前。缅想唐

羊大一统，后有汉儒所阐明，而成为其所涉道德伦理最高形上学原理。[62]元帝国本非华夏族，而今称霸天下，威临四海。其提倡春秋公羊大一统思想，以欲统领众民，巩固政权，乃为历史的要求所急需。李穡处于此种政治环境之下，其别无政治选择的余地，而且其政治前途和经世意志亦在此所附，竟主张公羊大一统思想，极为自然的态度而已。

其实，李穡的经世意志竟未及如愿，年二十九回高丽。其回高丽的具体原因，虽无法考证，而不难推知元帝国之命运，正如"病鹤栖松形惨淡"[63]，竟至不可妄苏的地步，使他感到绝望至极，受到天崩地裂的冲击，平生志愿，至此已绝，别无出路可言。因此，他当时的心情，正如自咏"百年心迹付讥平"[64]，可说明他面对着历史急变的漩涡，感到错综夏杂，矛盾层出不穷。他曾在当官得意时，则引公羊主张大一统，而如今天象微变，元衰明盛，却以为"五运相承"、"天运循环"所致。[65]李穡云："如今庙算无遗策，自古人心即时天。南望舆图归凤历，北瞻沙漠狼烟。"[66]又"谁云北牖风，我爱南窗日。天道循环，人情亦因物。"[67]李穡认为：若得人心则天命在焉；若得天命则天道亦在焉。天命固非留一朝，天道亦依人道所移。　元如病鹤般的惨淡，而明似长鲸般的纵横，[68]李穡虽暂时保留元明正统的历史判断，[69]而云："时当天子巡海西，帝眷南土开文明。"[70]其至后终于受容明的存在，

虞舞于羽，更寻汤武事戈鋋。公羊清映春秋传，司马豪留史记篇，考亭纲目日行天。"

61) 见≪诗稿≫卷十，〈有感〉云："未信邱明是素臣，须参王上更书春。获麟一反宣尼袂，方册山堆网素尘。"

62) 汉儒董仲舒≪春秋繁露 • 玉英≫云："是以春秋变一谓之元。元犹原也，其义义随天地终始也。……故元者为万物之本。而人之元安在焉，乃在乎天地之前。"≪春秋公羊传≫隐公'元年春王正月'何休注又云："变一为元，元者，气也。无形以起，有形以分，造起天地，天地之始也。"

63) 语见≪诗稿≫卷二十二，〈夜雨〉。

64) 同上。

65) 见同上书，卷十，〈有感自咏〉中云："五运相承吾已言，帝王历数等乾坤。"卷十三，〈奉怀金陵〉又："天运循环出彗星，金陵王气畅皇灵。"

66) 见≪诗稿≫卷三十四，〈闻朝论将从海路入贡金陵〉。

67) 见同上书，卷二十七，〈南窗〉。

68) 见同注63。

69) 见≪诗稿≫卷八，〈二十七日〉云："自古相承几天子，炎天朔雪自南北。正统他年付良史，得人之心非偶尔。"

70) 同上书，卷十，〈歌行〉。

是故李穑云：“修文偃革，敷德舞干，天地平成。継五帝三王而立极，朔南声教，奄九州四海以为家。”[71]李穑的历史态度，则立于春秋笔法，而今直之于天命。李穑亦本非华夏族，对于元明相承，或如黄鹤楼上看翻船，能保持极为冷静的心态，然而历史重演加于己身，当初安知哉！

李穑年二十九回高丽，当时高丽的情况，则恭愍王即位二年，始振国政，犹如李穑抒怀：“干戈蔽日云气腥，归与老龙蟠九渊。山中魍魉自远避，斗间白气常缠绵。”[72]恭愍王极力推行改革政策，李穑及时上奏时政要务，由恭愍王所采纳而得到信任，拜为吏部侍郎兼兵部侍郎，掌握文武铨选。李穑对于当时的心情，如“寂寞独归谁见慰，苍茫孤咏自相煎。如今最喜成真乐，鹤发慈颜政老年。”[73]李穑曾少年得意，主张“佐天子大一统”为其经世目标，而如今回高丽参与国政，重新恢复重要的政治地位，开始自觉高丽的文化和历史。如其云：“磅礴二千里，宗社无穷基。上天生太祖，密封书出时。”[74]又：“箕封遗业山河壮，松岳明堂历数长。”[75]又：“吾东方文学之盛，见称中国。盖自崔文昌始，今由鹿鸣对策帝廷者多矣。”[76]如此，李穑对高丽历史的关注和自豪，进一步而使之推演至于古朝鲜以来的全体历史，如其云：“予惟朝鲜氏立国，实唐尧之戊辰岁也。虽世通中国，而中国未尝臣之，是以武王封殷太师而不之臣。其后新罗百济高句丽鼎峙相雄长，或通或绝，我始祖以宏才远略，起于唐季，遂并三国而王其地，自五代以迄于今，盖将五百年矣。”[77]由此可知，元衰明盛的王朝交替，使李穑重新认识和反思高丽以及古代的历史，其历史以为中华文明所传，至今发扬于高丽。因此，高丽之文化和文明，绝不亚于中华，其于≪诗稿≫卷十二自注云：“东国礼俗，近于春秋战国，杂之，所以进之也。”李穑亲自目睹元明交替的历史巨变，企以认识自己的历史，而强调其历史的自主性和独立姓。李穑此种华夷观取自春秋公羊，兹不必赘言。

71）见≪文稿≫卷十一，〈谢恩表〉。
72）见同上书，卷四，〈赤猴行〉。
73）见≪诗稿≫卷四，〈忆燕都〉。
74）见同上书，卷十，〈古风一首〉。
75）见同上书，卷十八，〈十六日顺正王太后韩氏忌旦也设斋于王轮寺奉都评议使公緘助以加供吟成一首〉。
76）见≪文稿≫卷八，〈默轩先生文集序〉。
77）见同上书，卷九，〈颂偰符宝使还诗序〉。

对李穡而言，宛如所谓眼前无路想回头，高丽可以说是他的第二个出路，也是他前途的最后一个靠山。[78]他以为其平生的志愿能转寓于自己的祖国高丽而得到实现。但元明嬗变的激流，冲击到高丽，使得高丽混乱不已，一无宁日。国运既衰，病入膏肓，莫能恢夏元气。大势所趋，无法阻挡。朝鲜的建国给李穡带来了最后一个考验。他如何应对此历史的必然？身为高丽之遗臣，终不事朝鲜，李穡面对元明.丽鲜的历史扭转此二环节，是否保持同样的态度？

李穡在恭愍王的大力支持下，积极展开了教育和科举制度的改革。他曾经先后两次掌握高丽铨选，重营成均馆，承担大司成，培养出众多人才，打下了国家夏兴的奠基。而恭愍王的被试，给李穡带来了巨大的打击，竟失去了其极有影响力的政治地位。当初，由元衰明兴的国际政变所造成的亲元亲明二派的对立，日益激烈，禑王虽継承恭愍王而即位，而亲明派废禑王而立昌王，由此完全掌握了高丽政权，昌王在位未久而让于恭让王。李穡因主张禑王的正统性而反对亲明派的垄断国政。李穡支持恭愍王之子禑継承王位。他以为“禑虽盹子，玄陵称为己子，封江宁大君，又受天子诰命，其为君成矣。”[79]而郑道传等激烈批评李穡为废王氏而灭宗社的乱臣贼子，甚至于主张其罪应法春秋大义讨贼之法，不可不诛绝。[80]李穡如此受到反对派的激烈批评，而他坚持自己的主张，实为考虑高丽社稷的安危而不得已而为之，如其云：“昔晋元帝入継大统，致堂胡氏以为元帝姓牛，而冒续晋宗。东晋君臣，何以安之，而不革也。必以胡羯交侵，江左微弱，若不凭依旧业，安能系属人心？舍而创造难易绝矣。此亦乘势就事，不得已而为之者也。”[81] 后至恭让王即位，李穡遂被削夺官爵，又由佞臣的嫉忌而受到弹劾。[82]李穡自咏当时自己的心情，如“悻悻虽惭小丈夫，那将矩步便群趋。从容退让诚非

78) 参见≪诗稿≫卷四，〈忆燕都〉中云：“如今最喜成真乐，鹤发慈颜政老年。”
79) 见≪高丽史≫卷119，列传32，郑道传传。
80) 同上，如“或曰：其谋迎辛禑者，正子昌在位之时，虽无辛禑之迎，王氏安得夏兴乎？其曰迎辛禑而绝王氏，以罪加之之辞也。… … 谓子昌幼弱，谋立其父，以济其私，此非谋迎辛禑而绝王氏乎？ … … 今党异姓，而废王氏之宗社者，实胡氏可谓，移其宗庙，而灭同姓也。其罪亦不止于弑也。”又：“安敢畏奸党之祸，默然无言，以苟免乎？伏望法春秋讨贼之法，以孔子.石碏之心，则宗社幸甚。”
81) 见≪高丽史≫卷118，列传28，李穡传。
82) 参见同上书，卷119，列传32，郑道传传。

易，宛转营求断所无。”[83]恭让王在位三年，李成桂篡夺高丽，自立为朝鲜。

李穑本以孔子的春秋笔法为其理解历史的理论根据，故其在春秋诗特言‘精微笔削心’，其对春秋大义，曾言‘一字再三寻’等语，尤其以欲效法朱子的≪纲目≫所表现的历史认识。而至今其未求得自孔子以来的春秋正统历史观，却引取宋代学者胡寅的历史观，[84]使之为己见，以强调高丽当今的处境与晋元帝时相似，则其重视高丽的非常情况，只好乘着当今的形势而判断历史的趋向。李穑平生所追求，时势所趋，志向亦随之而变。

李穑在此一连串的政治激变过程中，虽未能与权臣对立而进行武力斗争，却不与其同流合污，一直坚持对高丽的忠诚。然而他平生的壮志和抱负，至此自觉衰退，如他曾自述“谩负平生养浩然，未衰身已抱沉绵。新诗欲就吟仍啸，壮志全销坐即眠。”[85]他晚年的处境，自叹为“白发衰翁”[86]，即巧合上诗中所描写“有客泪沾襟”的心境。

李穑曾云：“少年谁不立名声，晚境须养性情。”[87]大势已定，莫能扭转。与其斗山，宁愿离世情而保全性命。[88]李穑知止而知足，顺应天理，使得高丽的命运归顺为天命所定。[89]由此可知，李穑对丽鲜的交替，则如元明，皆认为天命所在。然而他在高丽，官至教育核心的成均馆大司成，屡知贡举，无论在政治或学术上，不仅发挥了相当大的影响力，而且被崇为儒宗的地位。而他应对历史，则在历史关键的时刻所采取的历史选择和表现，如此进退自如、乐保己身的态度，或有批评其为消极的一面。[90]但若详细考察李穑平生所修炼的内心功夫，他的最终选择亦有可令人充分理解的一面。李穑曾云：“贪生畏死两堪怜，有命在天元自然。只得身心安处善，便于事物

83）见≪诗稿≫卷八，〈即事〉。

84） 参见宋胡寅≪致堂读史管见≫（续修四库全书）卷七，晋纪，〈元帝条〉云：“元帝姓牛，而冒续晋宗。虽曰帝胄可荣而伪姓之辱，亦大矣。然则 东晋君臣，何以安之，而不革也。必以胡羯交侵，江左微弱，若不凭依旧业，安能系属人心？舍而创造难易绝矣。此亦乘势就事，不得已而为之者也。”

85）见≪诗稿≫卷二十七，〈遣兴〉。

86）语见同上书，卷九，〈咏菊〉，如“薄云斜日漏疏篱，白发衰翁独立时。”

87）见同上书，卷十六，〈即事〉。

88）见同上书，卷六，〈即事三首〉中云：“事机相激最难平，守道年来遣世情。”

89）同上书，同卷，〈晨兴三首〉中云：“乐哉保永贞，事帝顺吾生。”

90）参见韩国马宗乐〈牧隐李穑的生涯与历史意识〉，页274。震檀学报 第102集。

可行权。”[91]他本非贪生怕死之辈，只有命在天，为人不可逆天而已。心安处善，即可符合天道；按照顺应与否天道所赋予人的政治和伦理秩序，人与王朝的命运亦被决定。若人体现天道，则能参与宇宙天地万物的运行。李穡以为天地万物的运行，有中和能保持秩序。治理人事和天地万物的规则，皆在于天道。若得中和，才能化育万物，亦能治理人事。因此，他强调“养得中和”，如“人物纷纷共一途，谩将门户斗崔卢。……眼前物象森成列，养得中和自浹肤。”[92]李穡曾在元朝国子监求性理之学，即以≪周易≫和≪中庸≫等书为其主要管道。通过此等书，先存养中和之气，然后将内外之气调和而顺畅，以欲应对万物。他平时读≪中庸≫检点性情，[93]其平生的处世观亦出于≪中庸≫。是故他曾云：“蒙养无非作圣功，终身所得一中庸。”[94]如此，他存养天地万物中内在的中和，而使人道上达于天道，以恢复天道所赋予的本然之善。若真正实践存养的功夫，即能便于天命，而不拘于人事的是非。是故李穡自述其晚年的心境，如“从来遇事又从违，老去无心管是非。择里处仁须自重，乐天知命与谁归？”[95]遇事接物，处仁自重，保持乐天知命的态度。李穡能脱离世情的变化，熔化目中所观照的世界与宇宙秩序同进，竟达到“相形固同气，同体各相容”[96]的境界。总之，李穡的经世思想则坯胎于性理学。因此，他对现实的认识亦不离于此圈套中。他立足于王朝嬗变的历史现场中，便以所谓修心存性乐知天命的人生观与处世观为其应对历史的最后选择。

5. 结　论

综上而观之，若客观评估李穡在学问、政治上的成就和经世思想所表现出的历史认识，可谓其功过参半。其实，程朱性理学已在忠烈王二十四年（1298）由白頤正最初传入高丽。[97]逮至李穡在国子监全面研读性理学而回

91）见≪诗稿≫卷二十九，〈有感〉。
92）见同上书，卷七，〈自咏〉。
93）见同上书，卷二十四，〈晓雨〉中云：“怪来遇兴轻狂甚，坐读中庸检性情。”
94）见同上书，卷十六，〈进讲三年学不志于谷不易得也一章〉。
95）参见同上书，卷十一，〈即事〉。
96）见同上书，卷七，〈独夜八首〉。

高丽，公愍王十六年（1367），与其传入相距约七十年后，李穑辅助公愍王，重营成均馆，兼任成均馆大司成，甄拔郑梦周等经术之士，以讲论经学，倡导性理之学。自此性理学全面普及于高丽的学术界。[98]李穑本身对性理学虽有未尽之处，而他致力于性理学的普及和教育的夏兴，其对高丽学术界起了深远的作用和影响。由此李穑被推崇为高丽性理学的鼻祖，自有李穑的门人郑梦周，甚至有与李穑政治上敌对的郑道传皆认可李穑在学问上的成就。[99]此外，李穑一人平生的著作，莫与等伦，其数多于后代学者的作品。他的文学活动和作品使得高丽文学更丰富多彩，充分表露出他文学才能的天赋。

李穑一生先后经历元明交替、高丽和朝鲜嬗变的两大政治性、历史性的转变期。元衰明盛，其保持天命所变、天道所移的循环历史观；高丽和朝鲜嬗变，亦保持同样的态度，他自觉无能改变时局，只好致力存养中和，保全性命，以归天命。李穑内在的个人意志，表现在现实政治上遭到失败，则用天命以自慰和自解，要合理满足其个人的心理。[100]李穑把其诗中“获麟当日沾襟”和“有客泪沾襟”二句有默契地对比起来，他的内在心理投射到孔子的身上。

至于李穑的 经世思想和世界观，他在元当官时，便主张‘佐天子大一统’，透露出他强烈的经世意志。然而元衰而回高丽，则脱离大一统以中华文化为中心的世界秩序，自己认识到高丽的历史传统，以主张高丽为自古独立的文明国。前后如此相反，乃为当时天下之势所致。元衰而明未立，天下一时无霸，李穑自无投靠的对象，故只好迁移于高丽，摸索他的政治出路，

97）见≪高丽史≫卷106，列传19，白文节附白颐正传。

98）见同上书，卷115，列传28，李穑条云：“重营成均馆，以穑判开城府事兼成均馆大司成，增置生员，择经术之士金九容.郑梦周.朴尚衷.朴宜中.李崇仁，皆以他官，兼教官。先是，馆生不过数十。穑更定学式，每日坐明伦堂，分经授业，讲毕相与论难忘卷。于是学者坌集，相与观感，程朱性理之学始兴。”

99） 见≪圃隐文集≫卷三。如云: “牧隐先生以宰相领成均，倡性理之说，斥浮华之习，举先生讲论经学。 … … 吾东方五百年臻至斯理者，几何人哉？”郑道传又：“道传闻牧隐先生之称誉，间往听之，不意孤陋所得，往往默契焉。…… 皇明有天下，四海同文，先生三奉使至京师，盖其所见益广，所造益深，而所发益以高远。”

100） 参见李泽厚・刘网纪主编≪中国美学史≫第一卷，上册，页128~129。谷风出版社，台湾，1987。

継续经营他的经世意志。李穡此种选择，看来是合理而不容一言以批评。当时高丽已陷入元帝国的长期统治状况，高丽有志之士企图脱离元帝国的武力统治，寻回高丽自古以来的独立历史和文化的自尊。李穡转变思路，正吻合高丽社会的历史要求。

大抵历史意识体现于经世思想的具体实践当中。李穡私塾孔子，以春秋笔法为历史意识的理论根据，特表程朱性理学的历史观念。李穡曾“屡言太史之意”，使他撰述≪千秋金镜录≫一书；又曰“吾志在春秋”，其意则效法‘辞严义正’的春秋笔法，拨乱反正，终归孔子向往的东周。李穡在〈读春秋〉二诗中明确表示，≪春秋≫并不只为一王而立，而使之为后代百王的模范。如此，李穡自负为孔孟，平生致力坚持春秋笔法和大义，然至高丽末其拥立禑王，蒙受反对派的挑战和批评为否定春春秋大义。李穡自辩其事，云“乘势就事，不得已而为之”。其身为高丽的老臣，为国效忠的用心良苦，而可惜其平生所坚持历史精神，时势所趋，志亦从而屈。至朝鲜建立，其自认为天命不可逆转，不愿同流合污；顺应天命，亦无能抗敌，只能存养中和，保全性命，而终不仕朝鲜。今推定其晚年写作〈读春秋〉二首，从中所吟“悠悠千载下，有客泪沾襟”二句，逼真描写其晚年的心情。逝者斯水，回望往事，岂无余恨？故其低吟：“人情那似物无情，触境年来渐不平。偶向东篱羞汉面，真黄花对伪渊明。”101)

总之，李穡一生经考两大历史转变期，他认为世局的变迁，终归天命。若考李穡经世思想所表现过程中的细节，本以春秋笔法和大义为历史理解的准据，而其中或有乘势就事的变相，竟难以避免功过相覆的相对评估。

<参考文献>

이　곡(李穀), ≪가정집(稼亭集)≫(한국문집총간본)
이　색(李穡), ≪목은시고(牧隱詩稿)≫(한국문집총간본)
　　, ≪목은문고(牧隱文稿)≫(한국문집총간본)
정몽주(鄭夢周), ≪포은문집(圃隱文集)≫(한국문집총간본)
권　근(權近), ≪양촌집(楊村集)≫(한국문집총간본)

101) 见≪高丽史≫卷115，列传28，李穡传。

김남일, ≪고려말 조선초기의 세계관과 역사의식≫(서울: 경인문화사, 2005)
박용운, ≪고려시대사≫(서울: 일지사, 1988)
김충렬, ≪고려유학사≫(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84)
韓 愈, ≪韓昌黎文集≫(臺北: 華正書局, 1986)
李澤厚, 劉綱紀 主編, ≪中國美學史≫(臺灣: 谷風出版社, 1987)
이한복(李漢馥), 〈목은 이색의 영사시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도현철(都賢哲), 〈목은 이색의 정치사상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색의 성리학적 역사관과 공양춘추론〉, ≪역사학보≫85(2005)
, 〈이색의 경학관과 그 지향〉, ≪진단학보≫102
마종락(馬宗樂), 〈목은 이색의 생애와 역사의식〉, ≪진단학보≫102
정재철(鄭載喆), 〈목은 이색의 세계인식〉, ≪한문학론집≫11(1993)
신천식(申千湜), 〈목은의 생애와 사상〉, ≪명지사론≫11, 12
이병혁(李炳赫), 〈목은시의 후인평설고〉, ≪詩話學≫3, 4
권정안(權正顔), 〈여말선초 주자학 도입기의 경전이해-목은 이색의 경전이해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22(2000)
張永儁, 〈春秋大一統述義〉, ≪哲學與文化≫3:7

<국문요약>

이색의 ≪춘추≫이해를 통한 역사의식과 경세사상의 고찰

김영기

이색(李穡 1328~1396)은 원제국(元帝國)이 고려를 지배한지 100여년이 지난 고려 말에 태어났다. 14살 되던 해, 원(元)의 국자감(國子監)에 입학하여 성리학을 접함으로써 그의 평생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 이는 훗날 귀국 후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이 되어 후학들을 선발

하여 성리학을 강독, 토론함으로써 고려 성리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색은 원(元)과 명(明), 고려와 조선이라는 왕조의 교체기에 따른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자신의 경세사상과 역사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본고는 이색의 ≪춘추(春秋)≫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역사의식과 경세사상을 고찰함으로써 역사적 전환기에 나타난 한 인간의 행동 양식과 정신세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색은 전 생애를 통해 6,200여 편의 시문(詩文)을 남겨 동국 문장의 으뜸으로 불린다. 그의 시문집인 ≪목은시고(牧隱詩稿)≫와 ≪목은문고(牧隱文稿)≫는 모두 ≪목은집(牧隱集)≫에 수록되어있다.

關鍵詞 : 이색, 고려, 성리학, ≪춘추≫, 역사의식, 경세사상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161~190

<清苦先生傳>으로 본 楊維楨의 茶文化觀*

오창화**

<목 차>

1. 들어가기
2. '淸'과 '苦'
3. 茶의 異名과 産地
4. 차와 茶人
5. 茶와 典故
6. 茶의 文化地圖
7. 맺는 말
부록 : <淸苦先生傳> 全文 試譯

1. 들어가기

차문화는 자연과 환경, 사회와 산업, 인문과 예술의 만남이 어우러진 고도의 정신문명이다. 중국의 차문화는 그 무엇보다도 인문학적 사유공간을 가능케 하는 각종 장르의 문학이 개입하면서 한층 수준 높은 정신활동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차를 소재로 한 詩文은 말할 나위 없고, 詞賦나 소설, 희곡 등에도 차에 관한 언급이 빈번하고, 차를 인물과 故事情節의 전환적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楊維楨(1296~1370)의 <淸苦先生傳>이라는 '茶傳'[1]도 문학에 수용된 중국 차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중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1) '茶傳'이란 차를 의인화하여 차 자체의 속성, 차와 관련한 일화나 사건을 傳記體의 허구적인 서사구조로 엮은 산문을 가리킨다. 蘇軾의 <葉嘉傳>이나 楊維楨의 <淸苦先生傳>이 바로 이런 부류의 傳記體 散文이다. 다시 말해서, '茶傳'

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清苦先生傳>은 북송 때 蘇軾(1037~1101)의 <葉嘉傳> 이후 '茶傳'의 맥을 이은 첫 작품이다. <清苦先生傳> 이후로는 明代 徐爌의 <茶居士傳>, 동시대 支中夫의 <味苦居士傳> 등이 '茶傳'문학의 존재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茶傳'의 원조인 <葉嘉傳>과 '茶傳'의 불씨를 살린 <清苦先生傳>의 연관성이다. 두 작품은 200여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있긴 했지만 공히 茶라는 공통적인 소재를 취했고, 사물을 의인화하여 가상적인 전기 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차와 차문화에 대한 두 작가의 인식범주와 문장풍격은 사뭇 다르다. <清苦先生傳>은 <葉嘉傳>에 비해 1/3 정도의 편폭에 불과이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구성과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차문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강도면에서 <葉嘉傳>보다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葉嘉傳>이 가벼운 필치의 차의 출세적 연대기라면, <清苦先生傳>은 비교적 무거운 필치로 차의 문학적, 문화적, 사회적, 사상적 경계를 두루 드러내고자 한 일종의 '茶德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차이는 시대의 격절과 환경변화라는 변수가 작용한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은 공히 평생 차를 즐기면서 차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차와 연관된 주변의 문화마저 포용하고 자기화하여 독자적인 문학형상을 생산하였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현대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화적 가치로 그들의 지혜와 명철, 풍부하고 정겨운 감성을 맛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전통문화로서의 중국의 차문화를 맵핑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葉嘉傳>과 <清苦先生傳>에 담긴 문화코드를 해체, 조명해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會稽(지금의 浙江 諸暨) 楓橋全堂 출신의 楊維楨은 陸居仁·錢惟善 등과 더불어 '元末三高士'로 불릴 정도로 聲望이 높았고 그의 많은 號만큼이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2] 詩書畵를 두루 통했고, 특히 '鐵崖體'로

은 문체상 散文에 속하고, 유형상 傳記文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다만 실제 인물의 傳記를 다룬 것이 아니라 사물을 의인화하여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여 주제를 부각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우리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를 '假傳體 散文', 줄여서 '假傳文'이라 명명하여 따로 분류하고 있다.

2) 楊維楨의 號로 알려진 것만 鐵崖, 鐵笛道人, 鐵心道人, 鐵冠道人, 鐵龍道人, 梅花道人 등이 있고, 晩年의 自號로 老鐵, 抱遺老人, 東維子 등이 있다. 주요

소문난 詩로 인해 원대 詩壇의 領袖로 추앙되었다. 楊維楨은 특히 차를 즐기는 취향이 있었다. 차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고, 차를 통해 정신수양의 묘체를 터득할 정도로 차문화에 탐닉하였다. <煮茶夢記>라는 수필이나 <淸苦先生傳>에서 그런 심미경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중국이나 우리 학계에서는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이에 필자는 우선적으로 <淸苦先生傳>의 전문을 試譯함과 아울러 逐字的인 작품분석을 통해 楊維楨이 추구하던 차문화의 심미경계가 어떤 인문학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2. '淸'과 '苦'

2.1 '假傳文'은 실존 인물을 다룬 전기문과 달리 어떤 사물의 특성적인 부분을 부각하여 유희적인 필치로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 일견 정통문학보다는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풍부한 상상력과 풍자성, 해학성이 강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가령, 唐宋八大家의 하나인 柳宗元의 <種樹郭橐駝傳>·<梓人傳> 등은 眞人眞事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인 색채를 가미한 우언적인 성격의 '假傳文'으로서 그 문학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韓愈의 <毛穎傳> 역시 그러한 성격의 '假傳文'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나 차도구를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수법은 당송대 차문화가 본격화되면서 차를 즐기는 많은 시인묵객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가령, 酪奴[5]·滌煩子[6]·苦口師·餘甘氏·不夜侯·森伯·酪蒼頭[7]·晩甘侯[8]·渲老[9] 등등은 차의

저작인 ≪東維子文集≫·≪鐵崖先生古樂府≫ 등에 그의 호가 반영되었다.

3) 대만 학자 粘振和교수의 <元末楊維楨[淸苦先生傳]的茶文化意蘊>(成功大學歷史學系, ≪成大歷史學報≫第三十七號, 2009.12, pp.61~88)가 <淸苦先生傳>을 중심으로 楊維楨의 차문화관을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4) 安秉卨 저, ≪中國寓言傳記硏究≫(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1988.3), pp.164~168 참조.

5) 北魏 楊衒의 ≪洛陽伽藍記≫에 보임. 陳宗懋 主編, ≪中國茶業大辭典≫(北京: 中國輕工業出版社, 2000.12), p.2에서 재인용.

여러 가지 특성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명칭이다. 다구를 의인화하여 용어로 표현한 경우는 南宋 審安老人의 ≪茶具圖贊≫에서 차와 관련된 12가지 연장에 姓·官名·名·字·號를 부여하는 치밀한 설계를 한 것이 가장 돋보인다. 가령, 연고차와 草茶를 보관하는 갈대 바구니를 韋씨 성에 鴻臚[10] 벼슬을 붙여 韋鴻臚라 명명하고, 그의 본명은 文鼎, 字는 景暘, 號는 四窓閒叟라고 부기한 것이나, 연고차를 부수는 절구와 방망이를 木씨 성에 待制[11]로 벼슬을 붙여 木待制라 명명하고, 이름은 利濟, 字는 忘機, 號는 隔竹居人이라 부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12]

2.2 <淸苦先生傳>에서 허구적인 인물로 설정한 '淸苦先生' 역시 바로 茶의 특성을 살려 의인화한 것이다. 따라서 '淸苦'가 바로 차의 본색과 심미경계를 상징하는 키워드인 셈이다. '淸苦'의 본의는 淸貧과 통한다. 楊維楨은 '淸苦'를 '淸風苦節'의 경지를 개념화한 말로 사용하였다. '淸苦先生'은 바로 맑은 바람과도 같이 순수하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선비정신의 소유자를 빗댄 것이다. 예로부터 차는 淸貧樂道하며 욕심을 버린 질박한 행동규범으로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에게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淸苦先生'은 바로 차가 지닌 淸雅한 품격을 생활 속에 구현하면서 좀 더 형이상학적인 品茶의 길을 모색했던 楊維楨의 茶人精神이 형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淸苦'는 심미경계의 이상향이자 篤志的인 군자의 미덕 그 자체로 볼 수 있을 것

---

6) 唐代 施肩吾의 시에 보임. 상게서 같은 페이지에서 재인용.
7) 苦口師·餘甘氏·不夜侯·森伯·酪蒼頭 등등의 차를 의인화한 別號는 모두 宋代 陶穀의 ≪淸異錄≫에 보임. 상게서 pp.3~4에서 재인용.
8) '더디 단 제후'라는 별명의 '晩甘侯'는 상술한 宋代 陶穀의 ≪荈茗錄≫에 보임. 이와 관련한 내용은 金明培 譯著, ≪中國의 茶道≫(서울:명문당, 2007.7), pp.118~138을 참고.
9) 중원지역의 방언으로 차의 별칭으로 쓰임. 淸代 陸廷燦의 ≪續茶經≫에 보임. 주5)의 전게서 p.4에서 재인용.
10) 당나라 때 벼슬 이름인 鴻臚寺를 가리킨다. 鴻臚寺는 주로 외국과 관련된 업무, 朝貢, 來聘 등을 담당하였다.
11) 당송 때의 벼슬 이름. 唐代에는 文6品 이상의 고관이 윤번으로 대기하였다가 조서를 받아 되쓰거나 정치에 관한 고문에 응하였고, 宋代에는 龍圖閣, 天章閣과 같은 전각에서 근무하였다.
12) 이하, 의인화된 다구의 명칭과 관련 역주는 주8)의 전게서, pp.236~257을 참고.

이다. 煎茶燒香하며 차 마시기에 몰두하는 일은 '淸事'에 해당한다.[13] 따라서 茶席을 주도하는 자가 손수 잡념을 버린 상태에서 정갈스럽게 준비해야 마땅하다. 淸代 학자이자 문학가로 유명한 厲鶚(1692~1752)은 한 題詩에서 "소림선생은 매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차를 좋아하기도 한다. 차를 마시면서 날마다 매화를 그린다. 가슴 속의 청고한 맛을 토해 내어 종이 위에 서릿발 내린 매화 가지를 그리곤 한다."[14]라고 토로하여 차를 마시는 경계와 그림을 그리는 경계를 交融시키는 심미층차를 보여준다. 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淸苦'한 맛을 승화하여 화선지 위에 서릿발이 내린 나뭇가지에 핀 매화를 그려내는 화가의 솜씨는 '以茶化工'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차의 '淸'과 '苦'의 심미경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문에서 운위되고 분석된 바 있지만[15] <淸苦先生傳>의 주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심미경계를 더 천착해보자.

2.3 '淸'은 차나무의 심미경계를 가장 明澄하게 나타내는 문자이다. 北宋 陶穀은 차나무를 일러 '淸人樹'[16]라 하였다. 이 '淸人樹'는 '맑은 사람의 나무' 또는 '맑은 차를 마시는 사람의 나무'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淸茶淡話', 즉 맑은 차를 마시면서 담백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말이나 '淸茶淡飯', 즉 조촐한 식사에 맑은 차 한 잔을 마신다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淸'은 '淸淡', '淸雅', '淸貧', '淸淨', '淸純', '淸潔'로 이어지는 오염되지 않은 고결한 품성을 상징하는 문자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明代 朱權(1378~1448)은 그의 저서에서 유난히 '淸'의 품성을 많이 언급하였다.

> "泠然而淸, 鏘然而聲, 涓然而流者, 南澗之水也(싸늘하게 맑고, 퐁당퐁당 소리 내며, 졸졸 흐느끼듯이 흐르는 것은 남간의 물이다)."(序文)

---

13) 明 許次紓, ≪茶疏·童子≫ : "煎茶燒香, 總是淸事, 不妨躬自執勞(차를 다리고 향을 피우는 일은 모두 정갈한 일로서, 몸소 품을 팔아 힘을 들여도 무방하다)."

14) 淸 厲鶚, <왕근인의 전차도에 붙여(題汪近人煎茶圖)> : "巢林先生愛梅兼愛茶, 啜茶日日寫梅花. 要將胸中淸苦味, 吐作紙上冰霜楖."

15) 가령, 王欣星의 <茶與宋人尙"淸"的美學觀>(≪荊楚理工學院學報≫ 第25卷第10期, 2010.10, pp.46~48)에서 송대 茶人들의 심미의식을 '淸'이라는 문화코드로 분석한 것이 바로 그런 유형의 논문이다.

16) 주8)의 전게서 pp.122~123 참조.

"予嘗擧白眼而望靑天, 汲淸泉而烹活火, 自謂與天語以擴心志之大(내가 일찍이 눈을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맑은 물을 길러 이글거리는 불로 차를 달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늘과 더불어 이야기하며 마음을 넓히고 뜻을 크게 하겠노라고)."(序文)

"又將有裨於修養之道矣, 其惟淸哉(이 또한 내가 장차 수양하는 길에 보탬이 되고 한 것이다. 바로 그 차의 맑고 깨끗함을 말이다)."(序文)

"可以伏睡魔而天地忘形, 可以倍淸談而萬象驚寒, 茶之功大矣(수마를 쫓아서 천지의 모든 사물에서 초연해지고, 청담을 배가시켜 삼라만상이 추위에 놀라 깨어나듯 정신을 차리게 하니, 차의 공은 크도다)."(論茶)

"或對皓月淸風, 或坐明窓靜牖, 乃與客淸談款話, 探虛玄而參造化, 淸心神而出塵表(밝은 달빛 아래에서 맑은 바람을 쏘이기도 하고, 고요한 방 밝은 창가에 앉기도 한다. 이에 손님과 고상한 이야기를 터놓고 나누며, 현허한 세계를 탐구하고 대자연의 이치에 몰입하기도 하며,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여 세속을 벗어난다)."(論茶)

"大抵味淸甘而香, 久而回味, 能爽神者爲上(대체로 차는 맛이 맑고 달며 향기로워 오랫동안 맛이 남아서 능히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상품이다)."(品茶)

"茶架, 今人多用木, 雕鏤藻飾, 尙於華麗, 予制以斑竹紫竹, 最淸(차시렁은 오늘날 대부분 나무를 사용하는데, 쇠붙이에 새겨서 장식하여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다. 나는 거죽에 얼룩무늬가 있는 반죽과 자죽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청아한 느낌을 준다)."(茶架)[17]

이 '淸'이야말로 화려함을 피하고 소탈한 것을 추구하는 심미경계이자 혼탁한 맛보다는 깔끔하고 상쾌한 맛을 추구하던 고대 茶人들의 고상하고 현허한 세계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맑고 그윽한 차를 대하면서 淸淨無爲한 수양의 도리를 터득하는 길은 굳이 禪茶를 유의하지 않더라도

17) 이상, 朱權, ≪茶譜≫ 참조. 류건집 주해, ≪宋代茶書의 註解≫下(서울:이른아침, 2012.2), pp.196~260에서 원문 재인용 및 번역 참고함.

생활 속에서, 자연과 벗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친화적인 현상이다. 이는 당시 양유정이나 그 주변의 차를 즐기던 많은 다인들의 공통적으로 체득한 현실적인 인식층차였을 것이다. 宋 徽宗(1100~1125 在位)의 ≪大觀茶論≫에 보이는 '淸' 역시 이런 심미경계를 바탕에 깔고 있다.

> "天下之士, 勵志淸白, 競爲閑暇, 修索之玩(천하의 선비는 맑고 깨끗한 뜻에 힘쓰고, 다투어 한가로운 여가에 놀거리를 찾는다)."(序)
>
> "雖否士于此時, 不以畜茶爲羞, 可謂盛世之淸尙也(비록 소박한 선비일지라도 요즘엔 차를 비축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이니, 태평성세의 청아하고 고상한 기풍이라 하겠다)."(序)
>
> "蒸太生則芽滑, 故色淸而味烈(찻잎을 찔 때 지나치게 설익으면 찻싹이 미끈거리고 색깔은 맑으나 맛은 강렬해진다)."(蒸壓)
>
> "水以淸輕甘潔爲美, 輕甘乃水之自然, 獨爲難得, 古人品水, 雖曰中泠惠山爲上, 然人相去之遠近, 似不常得, 但當取山泉之淸潔者, 其次則井水之常汲者可用(물은 맑고 가볍고 달고 깨끗한 것이 좋다. 가볍고 단 것이 물의 자연스러움이지만 유독 얻기가 어렵다. 옛사람들은 물을 품평하기를 중령과 혜산의 물이 좋다고 했으나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어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듯하다. 그러니 산의 깨끗하고 맑은 샘물을 취하거나 노상 길어 마시는 우물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水)[18]

陸羽와 忘年之交를 맺었던 皎然스님은 한 茶詩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 혼미한 졸음을 몰아내어 상쾌한 기분이 온 천지에 가득하네. 또 한 잔을 마시니 나의 정신이 맑아져서 홀연 빗방울이 먼지를 씻어내는 듯하네. 차를 마시다가 이내 득도를 하니 고심하며 번뇌에 시달릴 필요가 없네. 이 사물의 청초하고 고상함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술을 마시면서 자기기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네."[19]라고 노래하며 '청초하고

---

18) 이상, 宋 徽宗, ≪大觀茶論≫ 참조. 류건집 주해, ≪宋代茶書의 註解≫上, (서울:이른아침, 2012.2), pp.84~179에서 원문 재인용 및 번역 참고함.

19) 釋 皎然, <차 마시는 노래로 최석현감을 꾸짖다(飮茶歌誚崔石使君)> : "……, 一飮滌昏寐, 情來朗爽滿天地. 再飮淸我神, 忽如飛雨灑輕塵. 飮便得道,

고상한' 경계가 바로 茶道의 핵심이 됨을 확신한 바 있다.

2.4 '苦'는 일차적으로 차의 '苦味', '苦口', '苦澁', 즉 입 안에 막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떫고 쓴 맛을 상징한다. 찻잎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차나무의 종류에 따라 탄닌 성분의 강도가 다르고, 일찍 딴 찻잎보다는 늦게 딴 찻잎일수록 탄닌 성분이 강해지기도 한다. 찻잎을 다리거나 우릴 때 뜨거운 물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두게 되면 역시 탄닌 성분이 너무 많이 우러나와 떫고 쓴 맛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당나라 때 시인 皮日休(834에서 839 사이~902 이후)의 아들인 皮光業이 남긴 題詩에 "아직 감심씨(술을 가리킴)를 보기도 전인데, 먼저 고구사를 맞이하는구나(未見甘心氏, 先迎苦口師)."라는 시구가 있는데, 여기서 '苦口師'는 바로 차의 쓴맛을 부각시켜 의인화한 표현이다.

北宋 초 王禹偁(954~1001)은 직접 貢茶 관리를 하면서 揚州의 茶園을 시찰한 후 쓴 시에서 "마음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직간을 하는 것 같고, 입에 씁쓸한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네(沃心同直諫, 苦口類嘉言)."[20]라고 '沃心', '苦口'의 찻잎을 '直諫'과 '嘉言'으로 비유하여 차의 품성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동시대의 梅堯臣(1002~1060)은 "입속에 맴도는 차의 감칠 맛은 하루 종일 가지만, 혀를 오물이게 만드는 씁쓸한 맛에 비길 바가 못되네(味甘回甘竟日在, 不比苦硬令舌窒)."[21]라고 차의 '苦味'가 '甘味'를 압도하는 인상을 준다고 노래하였다. 南宋 때 岳珂(1183~1243)는 <茶花>라는 시에서 "입안의 씁쓸한 맛은 결국 몸에 유익하다고 하니, 겉모습으로 즐겁게 하는 차꽃일랑 비교하지 마소(苦口味言終有益, 莫將容悅比浮葩)."라고 차의 맛은 '苦口'가 제 격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눈요기 감에 불과한 차의 꽃과 찻잎으로 우려낸 차탕의 맛은 사실 서로 미적 지향점이 다른 만큼 동성비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긴 하지만 악가의 말대로 '容悅'보다는 '苦口'가 지닌 형이상학적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경지는 한 차원 높은 品格이라

何須苦心破煩惱. 此物淸高世莫知, 世人飮酒多自欺. ……" 이 시에서 교연은 茶道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중국 차문화에서 茶道를 심미적인 철학의 경지로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 王禹偁, <다원십이운양주작(茶園十二韻揚州作)>詩의 부분.

21) 梅堯臣, <구양영숙의 [햇차를 맛보고 매성유에게 보내는 시]>의 운을 빌려 화답하는 잡시(次韻和永叔嘗新茶雜言)>의 부분.

할 것이다. 차의 '苦味'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 중에 빠트릴 수 없는 인물은 바로 淸 乾隆帝(1711~1799)이다. 乾隆帝는 그가 지은 <味甘書屋口號>詩[22]에서 "벽봉사 뒤 우물물을 길어 좋은 차를 우려 보아야 경치 그대로 쓴 맛이 단 맛이 되는 경지를 알게 될 터라(底須汲試佳茗, 卽景應知苦作甘)."라고 노래하였으며, 이 시의 말미에 그 스스로 "茶之美, 以苦也."라고 주를 달아 자기 자신의 품차에 관한 심미의식을 표출하였다. 차 마시는 환경의 문화적 분위기를 중시하고, '苦盡甘來'의 인생철학, 예술경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乾隆帝는 이미 品茶三昧境을 깊이 체득하고 있었다. 그가 말한 차의 '苦味'는 '茶禪一味'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차의 '苦味'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송대 江西詩派의 一人인 晁冲之(생졸년 미상)는 그의 <육재가 일주차를 보내오다(陸元鈞宰寄日注茶)>에서 "비루하구나, 차가 씁쓸하다는 서현의 설이란 것이, 기원의 대나무와 같은 부류로 간주하려들다니(陋哉徐鉉說茶苦, 欲與淇園竹同種)."라고 하였다. 그러나 차의 속성상 대부분 처음 맛은 씁쓸하지만 나중에는 단 맛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차의 맛이 감람나무 열매와 같아 오랫동안 입안에서 맴도는데, 처음에는 씁쓸하나 나중에는 달달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味與橄欖久方回, 初苦終甘要得知)."(<수인차(修仁茶)>)라고 노래한 鄒浩(1060~1111)의 시는 비록 廣西路 桂州 修仁縣[23]에서 나던 修仁茶의 맛을 두고 말한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나는 차 역시 대체로 이와 같은 맛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

22) 이 시는 재위시 여섯 차례나 南巡을 했던 乾隆帝가 江南의 竹爐山房을 모방해서 承德의 碧峰寺 뒤에 건축한 味甘書屋을 소재로 한 일련의 題詩 중 하나. 乾隆帝는 황제로서 200수나 되는 茶詩를 지어 중국 차문화사상 가장 많은 茶詩를 지은 인물로 기록되고 있으며, 그가 강남의 竹爐를 배경으로 지은 茶詩만 해도 30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아 竹爐가 乾隆帝의 차문화의식의 형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 蔡鎭楚·施兆鵬의 <乾隆皇帝茶詩與中國茶文化>(≪湖南大學學報≫ 社會科學版 제16권 제1기, 2002.1, pp.12~19) 참조.

23) 지금의 廣西 荔浦 서남쪽에 위치함.

3. 茶의 異名과 産地

고금의 각종 문헌에 기재된 茶의 명칭은 실로 다양하다. 여기서 '名', '字', '姓', '別號'로 제시된 것들은 모두 문헌에 보이는 茶의 異稱들이다. 우선 淸苦先生의 이름으로 제시한 '木荼 '자는 ≪茶經≫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벽자이다.[24] '木荼 '자는 '木茶'자와 일맥상통하는 글자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두 글자 모두 차나무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차나무의 현신으로 형상화한 淸苦先生의 이름으로 표방한 것이다. 楊維楨은 차가 바로 품종상 본질적으로 나무에 속함을 먼저 거론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淸苦先生의 字로 제시한 '荄'은 주로 찻잎 가운데 비교적 늦게 딴 잎사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으나[25] '茶'의 일반화된 대용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賈'는 '檟'의 通字로서 차의 일종을 가리킨다.[26] '茗仙'의 '茗'은 앞서 언급한 '荄'과 더불어 비교적 늦게 딴 찻잎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27], '茗仙'은 그런 찻잎 가운데 매우 질

---

24) ≪茶經·一之源≫에 보면, "其名, 一曰茶, 二曰檟, 三曰蔎, 四曰茗, 五曰荄(차의 명칭으로 첫째 다, 둘째 가, 셋째 설, 넷째 명, 다섯째 천이라 한다)." <淸苦先生傳>은 이 가운데 '檟', '茗', '荄'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25) 원서는 失傳되고 일부 조목만 전하는 佚名氏의 ≪魏王花木志≫(약 515년경)에 "차나무 잎은 치자나무 잎처럼 생겼는데, 달여서 마실 수 있다. 그 채엽 시기가 늦은 잎은 천이라 한다. 그 채엽 시기가 이른 어린잎은 명이라 한다(茶, 葉似梔子, 可煮爲飮, 其老葉謂之荄, 嫩葉謂之茗)."라고 하였다. [≪香艶叢書≫第五集] 明代 陳繼儒(1558~1639)의 ≪枕譚≫에는 "차나무의 잎은 갓 채취한 것은 차, 좀 더 늦게 채취한 것은 명, 아주 늦게 채취한 것은 천이라 한다(茶樹初採爲茶, 老爲茗, 再老爲荄)."라고 하였다. '荄'은 상대적으로 채엽 시기가 늦은 老葉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말임을 알 수 있다. [王雲五主編, ≪叢書集成≫初編, 商務印書館, 民國二十五年六月.]

26) '檟'자는 陸羽의 ≪茶經≫ '一之源'과 '五之煮' 등에 보인다. '一之源'에서는 ≪爾雅·釋木≫의 "檟, 苦荼"를 인용하고 있으며, '五之煮'에서는 "其味甘檟也, 不甘而苦荄也, 啜苦咽甘荼也(그 맛이 단 것은 가이고, 달지 않고 쓴 것은 천이며, 처음 맛볼 때는 쓰다가 삼키면 단 맛이 나는 것은 차이다)."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서는 "檟, 楸也. 從木, 賈聲."이라고 하여 개오동나무와 같은 부류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

27) '茗'자는 학자에 따라 '茶芽', '늦게 채적한 차', '茶와 荄 사이의 차' 등 세 가지로 해석되는데, '茶'의 대용어로 쓰이면서부터 주로 갓 자란 잎보다는 많이 자란 차, 즉 늦게 채취한 잎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착된 것 같다.

이 좋은 명품의 차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楊維楨이 주목한 찻잎은 '陽羨' 지역에서 나는 차였다. '陽羨'은 오늘날 江蘇省 宜興縣 남쪽에 위치한 차의 명산지였다. 陽羨茶는 綠茶와 紅茶가 모두 유명한데, 唐代에 貢茶가 되면서 그 성가를 높였다. ≪茶疏≫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許次紓(1549~1604)는 "강남의 차로는 당나라 사람들은 양선의 것을 으뜸으로 중시했다(江南之茶, 唐人首重陽羨)."[28]고 기록하고 있다. 녹차는 宜興 남부에서 나는 '陽羨雪芽茶'가 독보적이다. 차탕은 매우 맑고 고운 색깔이며, 향내음과 순한 맛으로 유명하다. 홍차는 '宜興紅茶'로 널리 알려졌는데, 차탕이 선염하면서도 진한 홍색에 밤과 같은 독특한 향을 내면서 녹차처럼 뒷맛이 매우 달다고 한다. 楊維楨은 '陽羨'을 본산으로 한 차가 中原 전역으로 전파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차의 원산지를 '陽羨'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양질의 차로 소문난 '양선차'가 중국 전역에 두루 퍼져나갔음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淸苦先生傳>에서 淸苦先生이 어려서부터 빼어난 자질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지금의 蘇州인 姑蘇의 虎丘에 은거하였다는 표현은 바로 陸羽와 盧仝(약795~835)의 생애와 관련이 있다. 陸羽는 '茶聖'으로, 盧仝은 '茶仙'으로 불릴 만큼 唐代 茶에 관한 한 최고의 문화지성이었다. 虎丘에는 陸羽井이 있는데, 이는 虎丘에 장기간 기거하면서 차 연구에 몰두하면서 득의의 대표작 ≪茶經≫을 집필한 陸羽가 일찍이 虎丘山의 샘물이 감칠맛이 난다고 '天下第三泉'이라 부른데서 유래하였다.[29] 그러나 정작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다가 젊은 나이에 은거한 장본인은 바로 盧仝이었다. 陸羽 못지않게 차의 매력에 흠뻑 빠져 茶人同和의 경지에 접근한 盧仝은 ≪茶譜≫와 <七碗茶詩>라는 명작을 남겨 차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宋代에는 徽宗을 위시하여 역대 황제들은 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宋 太宗 太平興國2년(977)에는 轉運使를 파견, 北苑의 貢茶를 감독케 하면서 團茶의 질이 더욱 향상되었다. 특히 建安지역에서 생산되는 龍鳳團은 극상품에 속하였다. 丁謂(966~1037)와 蔡襄(1012~1067)의 감독하에 만들어진 大團龍鳳餠과 小龍團은 차의 상품가치를 현저하게 격상시키

28) 주5)의 전게서 참조.
29) ≪蘇州府志≫ 참조.

는 명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송대의 귀족, 문사들은 바로 이런 뛰어난 명차를 향유하면서 차문화의 흥성에 동참하였다. 비록 이들이 일군 차문화는 상류층의 계급문화로 자리매김을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차문화의 다양성과 심미경계를 闡發하는 소중한 정신자산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旗槍'은 예리한 금속봉이 달린 기를 가리키는데, 잎눈이 창처럼 뾰족하고 잎이 깃발처럼 펴진 찻잎을 뜻하는 代喩語로 사용되었다. 楊維楨은 바로 찻잎의 형상성과 唐, 宋代에 귀족화 경향을 보인 차문화의 일부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을 '僭擬(참람하게…에 빗대어)', '疏逖之屬(소원한 무리들)', '驕貴夸侈(부티를 내고 교만스럽다)' 등 부정적인 이미지의 어휘를 동원하여 차의 참뜻이 왜곡되지 아니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蒙山[30]에 은거하거나 建溪[31]에 은둔하였다는 것은 화려함과 외양적인 형식을 추구하던 차문화가 원래의 질박하고 淸苦한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蒙山에서 나는 최고급 차를 '蒙頂茶'라고 부른다. 建溪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建溪龍鳳團'이라는 황실에 진상되던 貢茶가 생산되던 곳이다. '龍鳳團'은 일명 '龍團鳳餠'이라고도 하는데, 宋代 建安에서 만든 중청단차이다. 둥근 모양의 표면에 龍과 鳳의 금무늬를 새겼기 때문에 龍紋이 있는 것은 '龍團', 鳳紋이 있는 것은 '鳳團'이라 했다. 훗날 '龍鳳團'의 사이즈를 작게 만든 것을 '小龍團', '小鳳團'이라 했는데, 이는 眞宗 때 丁謂가 福建 轉運使로 있으면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나 정작 貢茶의 반열에 들 정도로 정제된 小團茶를 만든 것은 仁宗 때 蔡襄이었다. 小團茶가 나오자 龍鳳茶는 품수에서 밀려날 정도로 小團茶의 완성도가 높았다.[32]

4. 茶와 茶人

4.1 楊維楨은 작품 속에서 淸苦先生이 陸羽·盧仝 등과 절친한 사이여

30) 지금의 四川省 名山縣 소재.
31) 지금의 福建省 閩江 北源을 가리킴.
32) 이상, 주18) 전게서, pp.196~202에 실려 있는 ≪宣和北苑貢茶錄≫의 본문 및 역주를 참고.

서 '吳三隽'으로 불린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陸羽와 盧仝이 茶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빗댄 것이다. 陸羽(733?~804)[33]는 精行儉德을 이상으로 삼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반생을 은거하며 지냈는데, 평소 차를 즐기면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담아 중국 최초의 茶道 전문서인 ≪茶經≫을 저술하였다. 茶道의 시조, 茶聖으로 추앙받고 있는 陸羽는 ≪茶經≫을 완성하는데 무려 14년을 투자하였다. 至德 원년(756), 安史의 난을 피하기 위해 江南으로 피신한 陸羽는 上元年間에 吳興[34]에 암자를 만들고 은거하면서 저술에 전념하였다. 그곳에서 陸羽는 詩僧이자 茶道大師로 일컬어지고 있는 皎然과 친분을 쌓고, 차의 산지를 두루 돌아다니며 연구에 몰두하였다. 皎然은 陸羽가 茶道를 완성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陸羽는 皎然의 지도와 협조가 없었더라면 중국 최초의 茶道書인 ≪茶經≫을 완성하는 쾌거를 이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35] 그가 은거하는 동안 조정에서 그를 太子文學, 太常寺太祝 등에 임명하였으나 벼슬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研鑽에 집중한 결과 建中 원년(780)에 이르러 ≪茶經≫ 3권을 완성하였다. 집필을 시작한 지 14년만의 결실이었다. 陸羽는 御史大夫 李季卿(?~767)과의 일화로 <毁茶論>을 쓰기도 했으나[36] 실제 그가 이룩한 차도 자체를 부정하고

---

33) 陸羽의 自傳으로 알려진 <陸文學自傳>(≪文苑英華≫권793 외 여러 典籍에 실려 있음)에서는 "陸子名羽, 字鴻漸, 不知何許人也. 或云字羽, 名鴻漸, 未知孰是(육자의 이름은 우이고, 자는 홍점인데, 어느 곳 사람인지 모른다. 혹자는 자가 우이고, 이름이 홍점이라고도 하는데, 어는 쪽이 옳은 지 알 수 없다)." 라고 본인의 이름, 자, 본관 등에 대해 불가지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그가 출생한 가계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닐까 추정된다.

34) 지금의 浙江省 湖州市.

35) 세간에서 皎然을 茶道의 아버지 또는 始祖, 陸羽를 茶道의 神으로 보는 것은 皎然이 막역한 친구이자 스승으로 陸羽에게 그가 체득한 茶道, 茶理, 茶事의 모든 것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생긴 호칭이라고 생각된다.

36) 唐代 封演의 ≪封氏見聞記≫ 卷六 <飮茶>에 陸羽와 李季卿이 茶道를 둘러싸고 시비가 생긴 일화가 전한다. "楚人陸鴻漸爲≪茶論≫, 說茶之功效并煎茶、炙茶之法. 造茶具二十四事, 以都統籠貯之, 遠近傾慕, 好事者家藏一副. 有常伯熊者, 又因鴻漸之論廣潤色之, 于是茶道大行, 王公朝士無不飮者. 御史大夫李季卿宣慰江南, 至臨淮縣館, 或言伯熊善茶者, 李公請爲之. 伯熊著黃被衫、烏紗帽, 手執茶器, 口通茶名, 區分指點, 左右刮目. 茶熟, 李公爲啜兩杯而止. 既到江外, 又言鴻漸能茶者, 李公復請爲之. 鴻漸身衣野服, 隨茶具而入. 既坐, 教攤如伯熊

배척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盧仝은 젊어서부터 재주가 뛰어나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20살이 채 되기 전에 崇山 少室山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盧仝은 조정의 부름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초지일관 은거하였으나 甘露之變 당시에 宰相이자 領江南榷茶使를 겸하고 있던 王涯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가 王涯와 함께 宦官들에게 잡혀 살해당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淸 乾隆年間에 蕭應植 등이 撰한 ≪濟源縣志≫는 濟源縣의 서북방에 있는 武山 꼭대기에 盧仝의 묘가 있고, 이 산에 盧仝 자신이 직접 물을 길어 茶를 달이던 '玉川泉'이 있다고 전한다.[37] 盧仝體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독특한 풍격의 시를 많이 지었는데, 茶를 유난히 좋아했던 노동은 茶를 소재로 한 여러 首의 시 속에서 그의 심미적 경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 중 <走筆謝孟諫議寄新茶(붓을 갈겨 간의대부 맹간이 햇차를 보내 준 데에 대하여 감사함)>[38]시에 담긴 이른바 '七碗茶歌'는 차의 심미적 효능에 대해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어 오늘날까지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故事, 李公心鄙之. 茶畢, 命奴子取錢三十文, 酬煎茶博士. 鴻漸游江介, 通狎勝流, 及此羞愧, 復著≪毁茶論≫(초지방 출신 육홍점이 ≪다론≫을 지어 차의 효능과 잎차를 다루는 전다, 차를 굽는 자다 등의 방법을 서술하였고, 24가지 다구를 만들고, 도통롱에다가 차를 저장하였다. 원근 각지의 사람들이 이를 부러워하였고, 호사가들은 집안에 하나씩 장만을 하였다. 상백웅이라는 분이 육우의 다론을 확대 윤색하자 다도가 크게 성행하게 되어 왕족이나 귀족, 선비들이 차를 마시지 않는 이가 없었다. 어사대부 이계경이 강남을 선무, 위로차 내려갔다가 임회현의 관영에 이르렀는데, 어떤 이가 백웅이 차를 잘 안다고 추천하자 이공은 그를 초청하였다. 백웅은 누런 적삼에 오사모를 쓰고 손이 다기를 들고 입으로 차의 이름을 외면서 이리저리 구분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괄목하며 지켜보았다. 차가 다 다려지자 이공이 두 잔을 맛보고 나서 기왕에 강남에 왔는데 육우라는 차에 능한 사람이 있다는 말에 이공은 다시 그를 청하였다. 육우는 거친 옷을 입고 다구를 들고 입장하였다. 좌정을 하고 백웅이 했던 것처럼 판을 늘어놓았다. 이공은 그런 그를 속으로 무시하였다. 이공은 차를 다 마시고나서 하인에게 30냥을 꺼내 차박사에게 수고비로 주라고 명하였다. 육우는 평소 장강 일대의 뛰어난 인물들과 절친하게 사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자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훼다론≫을 지었다고 한다)."(唐 封演 撰, 趙貞信校注, ≪歷代史料筆記叢刊·唐宋史料筆記·封氏聞見記校注≫, 中華書局, 2005.11, pp.51~52)

37) 玉川子는 盧仝의 號이다.

38) 이 시는 黃堅의 ≪古文眞寶·前集≫에 [歌類]로 분류되어 있으며, 제목도 <茶歌(차를 노래함)>로 대체하였다.

茶詩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一碗喉吻潤	첫 잔엔 목구멍과 입술 적시고
二碗破孤悶	두 잔째엔 외로운 시름 사라지며
三碗搜枯腸	석 잔째엔 텅 빈 창자를 헤집고 다니나
惟有文字五千卷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오천 권의 문자뿐이네
四碗發輕汗	넉 잔째엔 가벼운 땀이 솟아
平生不平事	평소의 불만이
盡向毛孔散	땀구멍 통해 모두 사라져 없어진다네.
五碗肌骨淸	닷 잔째엔 살과 뼈가 맑아지며
六碗通仙靈	엿 잔째엔 신선의 경지에 이르니
七碗喫不得也	일곱 잔까지 마실 것도 없이
唯覺兩腋習習淸風生	두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 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네.
蓬萊山在何處	신선이 논다는 봉래산은 어디에 있느뇨?
玉川子乘此風欲歸去	이 몸도 맑은 바람 타고 그 곳에 가고자 하네.

盧仝은 가정이 빈한하였고, 출세가도를 달리지 못한 채 각박한 삶을 살았지만 오로지 차를 즐기면서 낭만적이고 탈속적인 仙境을 꿈꾸는 마음의 여유만큼은 잃지 않았다. 이 시에서 갈구한 것과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음미하는 한 잔 한 잔에 인생의 철리를 담고, 자연의 진리를 담을 줄 알았던 盧仝은 평생 체득한 차문화를 담은 ≪茶譜≫를 남겼다. 이 ≪茶譜≫는 陸羽의 ≪茶經≫과 더불어 중국 차문화의 격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陸羽가 '茶聖'이라면, 盧仝은 '茶仙'이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차 한 잔의 의미, 한 잔씩 차를 더해가면서 생기는 미묘한 느낌의 변화를 잘 묘사한 '七碗茶歌'는 禪茶의 뿌리를 형성하였으며, 일본에 널리 전해져서 이른바 '喉吻潤--破孤悶--搜枯腸--發輕汗--肌骨淸--通仙靈--淸風生'을 바탕으로 한 日本 茶道가 흥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河南省 濟源市의 九里溝에는 玉川泉과 品茗延壽臺, 盧仝茶社 등의 名勝이 남아있어 차를 즐기던 唐人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4.2 楊維楨은 淸苦先生의 생애를 다루면서 伯夷, 黃魯直, 蔡君謨 등 3인의 경우를 빗대어 전기문으로서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고 자화자찬의 美言을 구사하였는데, 이 속에는 나름대로 역사인물

로서의 3인이 갖는 대유적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淸苦先生의 인품과 경륜이 商나라 말 孤竹君의 아들로서 商나라가 망하자 首陽山에 들어가 商나라에 대한 충절을 고수하다가 餓死하고만 '伯夷'에 버금갈 정도로 마음이 맑고 곧은 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 이 傳記文의 標格, 즉 品格이 北宋 때 詩書畵에 능했던 黃庭堅(1045~1105)의 賦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말은 山谷道人이라는 黃庭堅의 雅號에서 시사 받을 수 있듯이 그가 차를 즐기며 그것을 섬세한 시문으로 남긴 것을 상기시켜준다. 차의 품격에 대한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楊維楨은 이에 대한 논급을 절제하는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이다. 차의 標格을 잘 묘사했다고 지목된 黃庭堅의 賦는 바로 <煎茶賦>이다. 洪州 分寧(지금의 江西省 修水縣) 출신인 黃庭堅은 고향에서 나는 雙井茶에 매료되어[39] <煎茶賦>를 지어 이 차의 烹茶 과정, 品茶 격조, 飮茶 효과 등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 "산골짝의 소나무에서 맑은 바람 세차게 부는 것 같고, 봄날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떠가는 것 같네. 주인과 손님이 졸리더라도 차맛은 한 가지라, 찻물과 찻잎이 서로 투합하나 흐려지지 않네. 입맛에 씁쓰름하지만 병치레에 이롭고, 용액상태로 정신의 혼미함을 씻어내니 하루도 그냥 보내는 날이 없는 것은 찻그릇을 부지런히 움직인 공훈이리라. 나는 일찍이 찐 차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 차의 번뇌를 씻고 잠을 쫓는 공로를 기록하여 그것의 서열을 매겼다. 건계의 차는 베어내는 것 같고, 쌍정의 차는 채찍을 때리는 것 같고, 일주의 차는 끊어내는 것 같다. 그 나머지 차들은 씁쓸하기가 독충에 쏘인 것 같고, 달기는 뭔가 꽉 막힌 듯하다. 신물이 나게 하고, 위장을 차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니 함께 논의할 가치가 없다. 혹자가 '별로 수준 높은 의론이 아니니 감히 그 다음가는 차를 묻는다.'고 하였다. 나는 말했다. '미강의 나산, 엄도의 몽정, 검양의 도유고주, 노천의 납계매령, 이릉의 압전, 임공의 화정 등이 있다. 부득이하게 앞의 세 가지 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여섯 가지 차 역시 황갈색의 잔에 마실만하고, 어안과 같은

39) 黃庭堅의 <雙井茶送子瞻> 등의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雙井茶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었는지 짐작이 간다. 雙井茶는 결국 黃庭堅과 같은 식견 있는 대가들의 적극적인 소개와 보급에 힘입어 황제에게 납품되는 貢茶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南宋 葉夢得의 ≪避暑錄話≫卷下 참조.

솥에 데쳐 먹을 수 있다.' 혹자는 또 말한다. '속을 차게 하고 기운을 빠지게 하는데 차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혹자는 소금을 가미하기도 하는데, 구천이 패가망신하듯, 구멍이 뚫려 물이 새듯하고, 더군다나 들깨를 참깨에 견주려하는 것 같다.' 나는 이에 기뢰의 요례를 참작하고, 이성의 탕액을 참작하며, 부자를 도박판의 패를 던지듯이 잘라 넣고, 갈선의 나쁜 기운을 태워버렸다. 오수유를 없애고 소금을 사용하였으며, 귤껍질을 없애고 생강을 사용하였다. 찻잎의 맛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질이 좋은 풀과 돌로 맛을 돋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양식창고를 견고하게 하고 나도 튼실해졌다. 그래서 호도, 잣, 암마라 열매, 은행 열매, 바라 열매, 궁궁이(천궁), 석삼풀, 감국(들국화) 등이 특유의 맛을 더하여 손님들의 구미를 돋운다. 앞의 네 가지와 뒤의 네 가지 중에 각기 하나씩을 사용한다. 양이 적당하면 맛을 내지만 양이 많아지면 맛을 버린다. 마시는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고, 씹는 맛이 있어 유익하다. 무릇 훌륭한 장인에게는 버리는 재목이 없는 법이다. 천하태평은 일개 선비의 지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의 처음 맛은 빼어난 맛에 탐닉하게 되어 있지만 떡차는 소화를 촉진한다. 밤이 지새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 자주 마시게 된다. 마치 육경으로 삼척의 몸을 구제하는 법과 같아 치료하여 제거함이 있더라도 남들과 더불어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달이기 시작하고, 손님이 떠나가면 잠자리에 든다. 꿈속에서는 헌원씨의 후예인 화서씨와 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자의 나비가 되기도 한다."40)

아울러 楊維楨은 이 전기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淸苦先生의 생애에 관한

40) 宋 黃庭堅, <煎茶賦> : "洶洶乎如澗松之發淸吹, 皓皓乎如春空之行白雲. 賓主欲眠而同味, 水茗相投而不渾. 苦口利病, 解膠滌昏, 未嘗一日不放箸, 而策茗椀之勳者也. 余嘗爲嗣直瀹茗, 因錄其滌煩破睡之功, 爲之甲乙. 建溪如割, 雙井如撻, 日鑄如劈, 其餘苦則辛螫, 甘則底滯, 嘔酸寒胃, 令人失睡, 亦未足與議. 或曰:「無甚高論, 敢問其次.」涪翁曰 :「味江之羅山, 嚴道之蒙頂. 黔陽之都濡高株, 瀘川之納溪梅嶺, 夷陵之壓磚, 臨邛之火井. 不得已而去于三, 則六者亦可以酌兎褐之甌, 瀹魚眼之鼎者也.」或者又曰 :「寒中瘠氣, 莫甚于茶. 或濟之鹽, 勺賤破家, 滑瘵走水, 又況鷄蘇之與胡麻.」涪翁于是酌岐雷之醪醴, 參伊聖之湯液, 斮附子如博投, 以熬葛仙之堊. 去薤而用鹽, 去橘而用薑. 不奪茗味, 而佐以草石之良, 所以固太倉而堅作强. 于是有胡桃、松實、庵摩、鴨脚、勃賀、薝蔔、水蘇、甘菊, 旣加臭味, 亦厚賓客. 前四後四, 各用其一, 少則美, 多則惡. 發揮其精神, 又益于咀嚼. 蓋大匠無可棄之材, 太平非一士之略. 厥初貪味隽永, 速化湯餅; 乃至終夜, 不眠耿耿. 旣作温齊, 殊可屢欷; 如以六經, 濟三尺法, 雖有除治, 與人安樂. 賓至則煎, 去則就榻. 不游軒後之華胥, 則化莊周之蝴蝶."

내용이 이미 蔡襄(1012~1067)의 연보에 워낙 상세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미주알고주알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 형상이미지만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쪽에서 절충하고 있다. 蔡襄의 연보란 바로 그의 ≪茶錄≫을 지칭하는 것이다. 蔡襄은 蘇東坡·米市·黃庭堅과 더불어 宋代 4대 서예가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그가 當代에 뛰어난 茶葉 감별가였으며, 宋 仁宗 慶歷연간(1041~1048)에 福建轉運使를 맡아 北苑貢茶를 監制하면서 이른바 '小團茶'를 창제하여 이름을 날렸던 장본인이라는 점이다.[41] ≪茶錄≫은 송대 차문화의 형성과 보급에 많은 영향을 미쳐 陸羽의 ≪茶經≫과 병칭될 정도로 중시되고 있다. 楊維楨이 굳이 이 대목에서 謙辭의 형식으로 사족과 같은 어구를 배치한 이유는 바로 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차의 문화적 위상을 인식시키는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저의가 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3 <淸苦先生傳>은 일반적인 傳記文과 달리 司馬遷이 ≪史記列傳≫에서 독창적으로 사용한 贊語의 수법을 원용하였다. 이 글에서 '太史公曰'로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보충, 보완적 의미를 지닌 贊語이다. 이 대목에서 언급된 주요인물은 狐射姑와 賈誼(BC201~169)이다. 狐射姑는 晉文公의 장인인 狐偃(일명, 子犯 또는 管犯이라고도 함)의 아들이다. 狐射姑(일명, 狐射)는 字가 季인데, 賈地에 식읍을 받아 나중에는 賈季로 불리고, 賈氏 姓의 시조가 된 인물이다. 차의 역사적 계보를 멀리 춘추시대로까지 끌어올리는 절묘한 人選인 셈이다. 차의 속자 중 하나인 檟와 賈는 서로 발음이 같아 通借字로 사용되던 문자이다. 가계는 일족의 시조로 부상하긴 했지만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국외로 망명하여 떠돌다가 객사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이는 차의 생산과 보급, 문화적 위상정립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대대적인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님을 시사해

41) 歐陽脩, ≪歸田錄≫卷二: "茶之品莫貴于龍鳳, 謂之團茶. 凡八餠重一斤. 慶歷中蔡君謨爲福建轉運使, 始造小片龍茶以進, 其品絶精, 謂之小團. 凡二十餠重一斤, 其價値金二兩(차의 품질로는 용봉차만한 것이 없다. 이를 단차라고 한다. 떡차로 된 여덟 개가 한 근의 무게가 나간다. 경력 연간에 채군모가 복건전운사로 부임하여 소형의 용봉차를 제조하여 진상하였는데, 그 품질이 아주 정교하였다. 이를 일러 소단이라 한다. 떡차로 된 스무 개가 한 근의 무게가 나간다. 그 가치는 황금 두 냥에 해당한다)." 歐陽脩는 원래 蔡襄의 貢茶 제조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그가 제조한 차가 흠 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고 말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

준다. 한나라 文帝 때 洛陽 출신의 賈誼는 젊어서부터 뛰어난 재주를 인정받아 파격적으로 등용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지만 <治安策>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정치개혁을 주창하다가 중신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결국 조정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요절하고 마는 비운의 인물이다. 시인으로서 그가 지은 <鵩鳥賦>는 BC174년에 조정에서 쫓겨나 長沙王의 太傅로 임명되어 떠날 때 지은 작품으로 그가 최초로 쓴 賦로 알려져 있다. <悼屈原賦> 역시 쫓겨 가던 도중에 자신을 초나라 대부 屈原에 비유하고 <離騷>를 모방하여 지은 부이다. 그의 고단한 삶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굴원보다 더욱 괴로운 상황이었다. 그가 남긴 ≪新書≫에서 그의 정치적 이상과 야심의 일단을 읽어볼 수 있다. 이런 賈誼의 생애에서 힌트를 얻은 楊維楨은 그가 결국 웅지를 펼치지 못하고 좌절한 것이라든지, 그의 후손이 번성하기 했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여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설화로 차문화의 답보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5. 茶와 典故

<清苦先生傳>은 전체가 차와 관련된 典故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典故 몇 가지를 중심으로 비유적 의미의 내면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莊子≫ 外篇의 <胠篋篇>에 나오는 "將爲胠篋探囊發匱之盜而爲守備, 則必攝緘縢固扃鐍, 此世俗之所謂知也(상자를 열고, 푸대 주머니를 뒤지고, 궤짝을 들추는 도둑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끈으로 잡아매거나 빗장이나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야 하는데, 이것이 세상의 이른바 지혜이다)"에서 취한 "攝緘縢固扃鐍"이다. 이 문구는 흔히 좀도둑과 대도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아무리 지혜로운 일을 하더라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남의 선의를 악의로 역이용하는 무리가 없지 않다는 점을 경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清苦先生傳>에서는 이런 철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차가 귀중한 물품 중의 하나로 인식되던 시절에 제대로 잘 포장하여 휴대하거나 이동해야 했음을 시사한 것이다.[42]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차는 절대적으로 습기나 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밀봉하는 것이

예삿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전통적인 차의 포장방법은 화선지와 같은 질기고 고은 낱장의 종이로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테이크아웃 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었다. 그밖에 대나무나 통나무, 호로병 등을 이용한 찻통이나 茶盒 등의 형태로 된 것들이 많았고, 습기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꺼운 종이나 주석으로 만든 특제 찻통도 선보인 바 있다. 도자기나 사기 등을 활용하기도 했으나 이는 휴대시 깨어지기가 쉬워 실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둘째, 차를 우려내는 물의 중요성은 새삼 운위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고금의 차를 다루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물의 맛이 차의 맛을 좌우한다고 믿었음을 여러 문헌자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唐나라 때 蘇廙는 차탕은 차의 맛을 좌우하므로 만약 좋은 차임에도 탕을 함부로 쓴다면 평범한 차나 다름이 없게 될 것[43]이라고 하였다. 明代 許次紓는 훌륭한 차의 그윽한 향은 물의 맛에 따라 좌우되므로 물을 차치하고 차를 함께 논할 수 없다[44]고 차와 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였다. 陸羽 역시 차를 우리는 물은 산에서 나는 물이 상품이고, 강에서 퍼온 물은 중품, 우물에서 길은 물은 하품이다. 그 산에서 나는 물 가운데에서도 유천이나 석지에서 천천히 흘러가는 물을 퍼온 것이 상품[45]이라고 하여 어느 곳에서 나는 물이냐에 따라서 우려내는 차의 맛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陸羽와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張又新은 그의 ≪煎茶水記≫에서 비록 960여자의 짧은 글이긴 하지만 陸羽의 ≪茶經·五之煮≫의 내용에 근거하여 水品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煎茶水記≫를 ≪茶經≫에 비유하여 ≪煎茶

42) 明 許次紓, ≪茶疏·權宜≫ : “出游遠地, 茶不可少. 恐地産不佳, 而人鮮好事, 不得不隨身自將(먼 곳으로 출타하거나 놀러나갈 때 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이다. 다만 그 지역에서 나는 차가 질이 별로이거나 차를 즐기는 사람이 드문 경우를 대비해서 부득이 몸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스스로 차를 타마시지 않을 수 없다).”

43) 唐 蘇廙, ≪十六湯品≫ : “湯者, 茶之司命. 若名茶而濫湯, 則與凡末同調矣.”

44) 明 許次紓, ≪茶疏·擇水≫ : “精茗蘊香, 借水而發, 無水不可與論茶也.”

45) 陸羽, ≪茶經·五之煮≫ : “其水, 用山水上, 江水中, 井水下. 其山水, 揀乳泉石池漫流者上.”

水經≫이라고도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작고하신 형부시랑 유공은 휘자를 백추라고 하시는데, 나 장우신에게는 친족의 어른 되신다. 학문이 정교하고 해박하시어 본보기로 삼을 점이 제법 많다. 그 분께서 물이 차와 맞는 것을 비교하여 모두 일곱 등급으로 나누어 칭하시기를, 양자강 남령의 물이 첫째이고, 무석현 혜산사의 석수는 둘째, 소주 호구사의 샘물은 셋째, 단양현 관음사의 물은 넷째, 양주 대명사의 물은 다섯째, 오송강의 물은 여섯째, 회수는 최하로서 일곱째라고 하셨다."[46]

張又新의 "夫茶烹于所産處無不佳也(차는 모름지기 그 차가 나는 산지의 물로 달이는 것이 좋다)"는 주장, 즉 '本處水泡茶(차는 그 차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나는 물로 우려야 한다)'설은 후대에 미친 영향이 크다. 가령, 明代 許次紓이 명산에서 좋은 차가 생산되고, 그 명산에는 좋은 샘물이 있기 마련이라 그 샘물로 차를 달이면 맛이 훌륭하게 된다고 차와 찻물의 관계를 분명히 지적한 것[47]이 바로 그것이다. 明代 朱權(1378~1448) 역시 ≪茶譜≫를 저술하면서 맨 마지막 항목으로 <品水>를 두어 당시 다인들의 공통적인 과제로 부상한 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고대의 저명한 茶人들은 한결같이 차의 향기,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그 차를 달이거나 우려내는 수질의 여하에 달려 있음을 경험학적인 체득을 통해 익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楊維楨 역시 차와 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淸苦先生傳>에서 潤州(지금의 鎭江市) 金山寺 中泠泉의 물이 천하제일의 샘물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中泠泉의 샘물은 상술한 ≪煎茶水記≫에서 1등급의 물로 손꼽은 南零水이다. 이런 소문난 샘물을 구하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茶人들이 모여드는 진풍경이

---

46) 張又新, ≪煎茶水記≫ : "……故刑部侍郎劉公諱伯芻, 於又新丈人行也, 爲學精博, 頗有風鑒, 稱較水之與茶宜者, 凡七等, 揚子江南零水第一, 無錫惠山寺石水第二, 無錫惠山泉水 第二, 蘇州虎丘寺泉水第三, 丹陽縣觀音寺水第四, 揚州大明寺水第五, 吳松江水第六, 淮水最下第七.……"

47) 주44) 전게서 : "余嘗言有名山則有佳茶, 玆又言有名山必有佳泉. 相提而論, 恐非臆說(나는 일찍이 명산에서 좋은 차가 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또 다시 명산에는 반드시 좋은 샘물이 있기 마련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두 가지 것을 같이 거론하는 것이 아마도 결코 억측은 아닐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이어졌다. 수질이 차의 맛을 좌우하는데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생활환경의 주변에서 쉽게 양질의 물을 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차 맛을 위해 불원천리 이른바 1등급 물을 구하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 교통이나 경제여건상 일부 계층의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이었다. 양질의 물을 찾고, 그 물에 등급을 매기고 호불호를 따지는 현상은 일견 고상한 취미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淡白'과 '淸苦'라는 소박한 이미지로 시작된 차의 본질을 갈수록 퇴색시키고, 일상과 지나치게 구별짓는 계급문화의 성격을 띠게 했다는 점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문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楊維楨 역시 이러한 차문화의 변이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이 작품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唐·宋代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차 자체를 아무리 군자로 포장하고 칭송했더라도 그 시대의 문화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차를 대하는 의식과 행동양상이 사대부 계층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대목이 적지 않아 엘리트주의의 또 다른 출구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반문해볼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셋째, <淸苦先生傳>에서는 상술한 ≪莊子≫의 "攝緘縢固扃鐍" 이외에 諸子書 가운데 ≪論語≫의 一文을 전고로 활용하고 있다. ≪論語·憲問≫에 나오는 "没齒無怨言"이란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아무런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차의 경계를 '淸風苦節'과 '没齒無怨言'을 연계하여 군자의 풍모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차에는 바로 고결하고 청아한 품성, 그윽한 인품의 향기를 오래도록 풍기는 듯한 독특한 맛과 향기가 있음을 새삼 과장된 어조로 칭송하면서 대미를 장식한 것은 차의 문화적 가치와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작자 나름의 치밀한 수사장치로 해석된다.

6. 茶의 문화지도

상술했듯이 唐·宋代에 차는 이미 일반 서민들의 일상적인 음료로 널리 보급됨과 동시에 사대부 계층의 출구문화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몇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차가 있기 마련이었고, 멀리 여행을 할 때에도 반드시 휴대하여 즐겨 마시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楊維楨은 이를 '生死交(생사를 함께 나눌 정도로 돈독한 교제)'라는 표현

으로 반영하였다. 차의 그윽한 향내음과 상쾌한 뒷맛, 정신을 맑게 하고 속을 풀어주는 기능은 가까이 할수록 더욱 그 매력에 빠져들게 만드는데, 楊維楨은 이를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不媚于世, 不阿于俗(세속에 미혹되거나 아부하지 않는다)'는 말로 극찬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무엇보다도 차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대체할만한 다른 음료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의 생태학적 문화기능은 당시 중국적 상황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상이었고, 그런 환경이 차문화의 극성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으로든지 휴대하여 갈 수 있는 간편성과 이동성, 누구라도 반기고 즐기는 문화환경, 아무리 허름하고 누추한 집이라도 반드시 비치해두기 마련이었던 차이지만 사원이나 도관으로 전파되어 수도하는 사람들의 애호물이 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차원의 격조를 요구하는 문화로 탈바꿈을 하게 된다. 차의 문화지도는 여기에서 한 차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일상과는 수준을 달리하는 고급의 차문화, 즉 茶道가 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茶道는 고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까지 전파되어 동북아 차문화지도의 광역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차는 사대부의 품에서 雅趣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수많은 시인묵객의 詩書畵의 주제나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다. 바둑이나 음악이 연주되는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차였고, '以茶代酒'의 역할을 하거나 解酲을 위한 보약의 기능도 하는 등 차의 문화적 가치소재는 갈수록 광범하면서도 실제적인 사회현장에서 유용하게 인정받는 품목이 되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차의 각성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은 이미 차를 즐기던 故人들이 익히 몸소 터득하고 있었다. 차의 이런 변함없는 기능을 楊維楨은 '甘露', '醍醐', '淸苦狷介之操(고결하면서도 불의에 전혀 굽히지 않는 지조)'라는 美語로 형상화하였다. 차의 이런 뛰어난 점에 대해서 일부 극찬을 하거나 정반대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楊維楨의 생각이다. 차는 차로서의 본질이 중요하지, 외형적인 포장이나 가식으로 차를 대하는 것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楊維楨은 한 걸음 나아가서 사대부계층의 인사들이 독

서를 하고, 학문을 연찬하면서 차를 늘 가까이에 두고 즐겨마시던 배경에서 차의 본질처럼 지조를 갖춘 진정한 선비가 요구되는 시대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차나무는 재배환경이 무척 까다롭다. 문명의 개발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취락지나 척박한 야산 등에서는 차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는다. 고산지대나 공기 좋고 물 좋은 심산유곡에서 자생하는 차나무가 명품의 찻잎을 제공해준다. 차, 또는 차나무를 군자에 비유하여 은둔의 기풍이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차나무의 이런 까다로운 생태환경에 기인한다. 차의 제조 공정 역시 절차도 복잡하고, 세심한 공을 많이 기울여야 양질의 찻잎을 생산할 수 있다. 차의 생장은 자연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차의 제조 공정은 인공적 기술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자연에서 발원한 차를 가장 비자연적인 공정, 다시 말해서 가장 과학적인 공정을 통해 우리가 즐기는 명차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楊維楨은 이런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淸苦先生傳>에서 차의 생태환경과 찻잎의 제조공정이 이율배반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희화적인 표현을 빌려 설파하였다. 찻잎 제조를 위해 덖고 찌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몽산에 은거하거나 건계에 은둔하는 등 깊은 산골로 도망쳐 은거를 하였다[48]는 표현은 실제와는 본말이 전도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지적을 통해 찻잎의 제조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차의 재배환경은 도회지에서 먼 벽지가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7. 맺는 말

楊維楨은 <淸苦先生傳>의 말미에서 '淸風苦節', '沒齒而無言', '篤志君子'라는 文化語를 병렬하면서 자신이 지향하던 다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元末明初를 살다간 楊維楨은 亡國의 遺臣으로서 절개와 지조의 필요성을 이미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그런 의식이 '차'의 여러 가지 특이한 속성과 절묘

48) <淸苦先生傳> : "宗人咸相戒曰: 彼稔恶不悛, 懼就烹于鼎鑊, 盍逃之. 或隱于蒙山, 或遁于建溪, 居無何而禍作, 後竟泯泯無聞."(번역은 본고의 부록 참조)

하게 맞아 떨어졌고, 그 자신이 평생 주업으로 삼은 '詩·書·畵'와 더불어 '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차'의 세계에 매료되었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淸苦先生傳>은 차를 소재로 한 가전체 산문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필치와 수사기법을 운용하여 蘇軾의 <葉嘉傳> 이후 맥이 끊어진 채 詩詞賦에만 의존하던 茶文學에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차에 대한 식자층과 대중의 인식범주를 확장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명, 청대 차를 의인화한 假傳文, 즉 '茶傳'이 줄줄이 창작되어 차의 본색과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부각하는데 나름대로 충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楊維楨이 추구한 차의 진정한 모습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묵묵히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군자의 모습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다. '淸風苦節'에서 취한 「淸苦先生」의 참모습이라 하겠다. 군자와 같은 품위를 지니고 있다는 뜻에서 '梅蘭菊竹'을 四君子라고 하듯이 '차' 역시 그윽하고 깊이 있는 향기와 정취를 발산하고 있기에 군자의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차'는 원천적으로 어떻게 마시고 먹든지 간에 인간의 정신을 정화시키고, 안정되게 만들며, 고도의 집중력과 明澄性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굳이 '차'를 '道'나 '法', '藝'의 형이상학적 구조나 방법으로 품격을 높여 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의 여러 사물들을 군자에 비유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군자를 군자답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인심이 각박하고 야속한 것이 원인이다. '차'를 군자로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나 그 '차'를 즐기는 사람을 '군자'로 여길 수 있느냐는 별개의 일이다. '차'를 군자로 여길 만큼 정신적인 여유와 명민함이 있는 자라면 그 '차'를 즐기면서 스스로 군자와 같은 고결한 기상과 강단 있는 기품을 함양할 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茶人一德'의 경계인 셈이다.

附錄 : <淸苦先生傳> 全文 試譯[49]

先生名楙 , 字舜之, 姓贾氏, 别號茗仙, 其先陽羡人也, 世系錦遠散處之中州者不一.
(선생의 이름은 楙, 자는 舜之, 성은 가씨이고, 별호는 명선인데, 그의 선조는 양선사람이다. 대대로 계보를 이어오면서 중원 땅 곳곳에 이리저리 흩어져 살고 있다.)
先生幼而穎異, 于諸眷族中, 最其風致.
(선생은 어려서부터 영리하여 여러 권속 가운데 가장 기풍이 당당하였다.)
卜居隱于姑蘇之虎丘, 與陸羽、盧仝輩相友善, 號勾吳三隽."
(젊어서부터 고소의 호구에 은거하면서 육우·노동 등과 더불어 절친한 벗이 되어 사귀니,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吳三隽'이라 불렀다.)
每二人游, 必挾先生随之. 以故情謐日殷, 衆咸目之爲生死交.
(두 사람이 놀러 나갈 때마다 반드시 선생을 옆에 끼고 따르게 했다. 그들 사이에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나없이 그들을 두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사이라고 여겼다.)
然先生之爲人芬馥而爽朗, 磊落而疏豁, 不媚于世, 不阿于俗.
(그러나 선생의 사람됨은 향내음이 가득하고 상쾌하고 명랑하며, 사소한 것에 구애받지 않는 대범함과 활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 알랑거리지도 않고, 천박하게 아부하지도 않았다.)
凡有請求, 則必攝緘縢固扃鐍, 假人提携而往, 四方之士, 多親炙之. 雖窮檐蓽屋, 足迹未嘗少絶. 偶乘月大江泛舟, 取金山中泠瀹之, 因品爲第一泉, 遂遨游不綴. 尤喜僧室道院, 貪愛其花竹繁茂, 水石清奇, 徜徉容之, 迪然不忍去.
(부탁을 받을 때는 의례히 꼭꼭 잘 포장한 다음에 사람 손에 휴대케 하여 일일이 찾아가니, 사방의 선비들이 손수 달여 마시느라 여념이 없다. 비록 다 쓰러져 가는 가난한 집이나 초가집이라도 그의 족적이 조금이라도 끊어진 적이 없다. 간혹 가다가 달밤에 장강을 배로 건너 금산 중령에서 물을 길어 찻탕 끓이는 물로 삼기도 한다. 이 물은 천하제일의

49) 이하, 열람의 편의를 위해 원문을 필자 임의로 分段, 分節을 하였으나 이는 원전의 내용이나 본고의 논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샘물이라는 품평을 받는 터라 그 곳을 찾아오는 길손이 끊이지 않는다. 그는 더욱이 스님이나 도사들이 도를 닦는 곳을 좋아하고, 사원이나 도관의 대나무와 화초가 우거진 곳이면 유난히 마음에 품고 정갈한 물과 기묘한 바위가 있는 그 곳에서 고즈넉이 자리 잡아 느긋한 마음으로 차마 떠나려 하지 않는다.)

構小軒一所, 匾曰松風深出. 中設鼎彝玩好之物, 墟燒榾柮, 煨芋栗而啜之. 因賦詩, 有"松風乍响匙翻雪, 梅影初横月到窗"之句. 或琴弈之間, 樽俎之上, 先生無不价焉. 又性惡旨酒, 每對醉客, 必攘袂而剖析之. 客醉亦因之而少解.

(소담한 집 한 채 마련하여 '송풍심출[소나무 숲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편액을 걸어놓고, 실내 가운데 가마솥과 화로, 다구들을 늘어놓고, 장작불을 지펴서 고구마, 밤도 구워서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문득 삽으로 눈을 푸는 듯 가을바람 소리가 나는 달밤, 창가엔 금방 매화나무 그림자지네"라는 시구를 읊기도 하였다. 거문고 연주가 있는 곳이나 바둑을 두는 곳, 술판이 벌어지는 곳, 부엌에서도 선생은 제 값어치를 충분히 했다. 그리고 성질이 고약하고 술을 끊게 만들어서 취객들을 대할 때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를 타작하였다. 손님이 아무리 취해도 그 때문에 조금은 술기운이 해소되었다.)

少嗜詩書百家之學, 誦至夜分, 終不告倦. 所至高其風味, 樂其直率, 而無詆訾之者. 而世之枯吻者, 仰之如甘露; 昏瞑者, 飫之若醍醐. 或譽之以嘉名, 而先生亦不以爲華. 或咈之非義, 而先生亦不與之較. 其淸苦狷介之操類如此.

(젊어서 시와 서 등 온갖 학문을 즐겨 섭렵하여 한밤중이 되도록 낭송을 그치지 않았는데, 아무리해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풍모를 높이 사고, 그의 솔직함을 반기는 등 비평을 일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세상의 목마른 사람이 그를 바라보기를 마치 감로를 보는 듯하였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은 그를 마치 신선이 마시는 우유처럼 실컷 마셨다. 혹자는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어 영예롭게 하고자 했으나 선생은 역시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의롭지 못하다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은 그런 사람과는 함께 관계 맺기를 원치 않았다. 그의 청결하고 고매한 절개가 이와 같은 수준이었다.)

"或者比倫之, 以伯夷之亞, 其標格具于黃太史魯直之賦, 其顚末詳諸蔡司

諫君謨之譜, 玆故弗及贅也."
(혹자는 그가 백이와 버금간다고 비교하기도 하지만, 그의 품격은 황산곡의 부에 상세히 언급되었고, 그의 평생의 전말은 채양의 계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굳이 장황하게 언급하지 않겠다.)
"太史公曰: 賈氏有二出, 其一晉文公舅子犯之子狐射姑食采于賈, 後世因以爲姓. 至漢文時, 洛陽少年誼, 挾經濟之才, 上治安之策, 帝以其深達國體, 欲位之以卿相. 絳灌之徒扼之, 遂疏出之, 爲梁王太傅, 弗伸厥志. 雖其子孫蕃衍, 終亦不振."
(사마천은 말했다. 가씨 가문에는 두 명의 출중한 인물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진문공의 장인인 자범의 아들 호야고가 '가'라는 지역을 식읍으로 하사받아 훗날 이 '가'를 성으로 삼게 되었다. 한나라 문제 때 이르러 낙양의 소년 가의가 세상을 경영할 재주를 타고나 치안책을 상소하였는데, 황제가 보고 나랏일에 깊이 통달하였다고 여겨 승상의 자리까지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강남 토호세력의 무리들이 그를 배척하여 결국 가의를 내칠 것을 상소하니 가의는 낙향하여 양왕의 태부를 지냈으나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다. 훗날 비록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했으나 끝내 부진을 면치 못했다.)
"有僭擬龍鳳團爲號者, 乂其疏逖之屬, 各以驕貴夸侈, 日思竞以旗槍."
(후손 중에 용봉단을 참칭하는 자가 있어 자기와 소원한 관계에 있는 족속은 멀리하고, 부티를 내고 교만스럽게 행동하면서 날마다 투차에만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宗人咸相戒曰: 彼稔恶不悛, 懼就烹于鼎镬, 盍逃之. 或隱于蒙山, 或遁于建溪, 居無何而禍作, 後竟泯泯無聞.
(종친들이 모두 훈계하기를, 저들은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고치려들지 않고 가마솥에 팽 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몽땅 달아나 혹자는 몽산에 은거하고, 혹자는 건계에 은둔하면서 아무 까탈을 잡히지 않고 살긴 했으나 결국에는 전해지는 것이 전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惟先生以清風苦節高之. 故没齒而無怨言, 其亦庶幾乎篤志君子矣.
(오로지 선생만이 청아하고 고결한 기풍과 절개로 스스로를 드높여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런 원망의 말을 한 마디도 내뱉지 않으니 그야말로 돈독한 의지를 가진 군자와 거의 닮았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李修生 主編, ≪全元文≫ 第四十二冊, 卷一三一五~卷一三三七, 南京: 鳳凰出版社(구 江蘇古籍出版社), 2004.12.
孫小力, ≪楊維禎年譜≫,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7.4.
明 南昌 喻政選輯, 日本 和泉 源靖 重訂, ≪茶集≫, 출판연도 미상.
≪古今圖書集成≫, 北京: 中華書局, 1988.
安秉卨 著, ≪中國寓言傳記研究≫, 서울: 국민대학 출판부, 1988.3.
김창룡 편역, ≪중국 假傳 30選≫, 서울: 태학사, 2000.2.
가와이 코오조오 지음, 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2.7.
서정선, <中國 假傳文學 研究>,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동아시아선학연구소·명원문화재단 편저, ≪茶禪一味≫, 서울: 차의 세계, 2005.7.
정영선 지음, ≪다도철학≫-개정증보판, 서울: 너럭바위, 2010.1.
치우지핑 지음, 김봉건 옮김, ≪그림으로 읽는 육우의『다경』-다경도설≫, 서울: 도서출판 이른아침, 2008.4.
吳覺農 主編, ≪茶經述評≫,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2005.3.
裘紀平 著, ≪宋茶圖典≫, 杭州: 浙江撮影出版社, 2004.9.
陳宗懋 主編, ≪中國茶經≫上中下,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1997.3.
陸羽 原著, 紫圖 編繪, ≪圖解茶經-認識中國茶道≫, 海口: 南海出版公司, 2007.6.
金明培 譯著, ≪中國의 茶道≫, 서울: 明文堂, 2007.7.
김진숙 지음, ≪중국 차문화-茶經≫, 서울: 국학자료원, 2009.8.
류건집 주해, ≪宋代 茶書의 註解≫上下, 서울: 이른아침, 2012.2.
黃志根 主編, ≪中華茶文化≫,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00.9.
龔建華 著, ≪茶文化博覽-中國茶典≫,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2.12.
徐玉杰 著, ≪中國茶文化今古大觀≫, 北京: 北京出版社, 1996.4.
陳宗懋 主編, ≪中國茶業大辭典≫, 北京: 中國輕工業出版社, 2000.12.
王建榮·郭丹英 著, ≪中國茶文化圖典≫, 杭州: 浙江撮影出版社, 2006.8.
賴功歐 著, ≪茶哲睿智+中國茶文化與儒釋道≫,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99.8
劉勤晉 主編, ≪茶文化學≫,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2000.5.
宋平生 等 著譯, ≪歷代茶經酒經論選譯≫,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8.1.
蔡鎭楚·施兆鵬 編著, <中國名家茶詩>,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2003.9.
王樹林, <楊維楨的散文評價、文集版本及輯佚問題>,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学社會科學版) 第35卷 第5期, 2008.9, pp.154~158.
王欣星, <茶與宋人尙"淸"的美學觀>, ≪荊楚理工學院學報≫ 第25卷 第10期, 2010.10, pp.46~48.
蔡鎭楚·施兆鵬, <乾隆皇帝茶詩與中國茶文化>,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16권 제1기, 2002.1, pp.12~19.

<中文提要>

本论文以先译後释的方法探讨了元代著名文学家杨维桢所写的<清苦先生传>, 对中国传统茶文学及茶文化有何影响, 其价值所在何处? 以茶为题材的传记文, 通常叫做'茶传', 其主要特色是, 化茶为人来敍述其模拟生平所历, 始自苏轼<叶嘉传>, 而二百年来从无踏讯, 无人写出化茶为人的传记散文, 直到元杨维桢才苦心刻划出一篇宏动茗茶雅坛的<清高先生传>。其文章内容发挥了古代茶人的文化风格与风雅高节, 涉及各地所产的茶有何特色, 注重茗茶之自然应物, 卢仝·陆羽·蔡襄等自发其才, 各显其能, 以'清'与'苦'的审美境界来悟明茶道, 留下万邦名香, 杨维桢特别重视茶诗同行, 闻茗斗茶, 以茶为君子相对, 其文化谈论的严格态度前人无以可比, 故能欣起茶尚文学的气风来踏之者续出, 终而由此肯定传统茶文化的雅致升华。

关键词 : 先译後释, 拟人化, 化茶为人, '清', '苦', 茶传, 茶文化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191~224

한국 내 郁達夫 연구Ⅰ*

--소설과 비교연구

정헌철**·천대진***

<목 차>

1. 들어가며
2. 소설 작품연구
3. 비교문학
4. 맺음말

1. 들어가며

郁達夫는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산문가이자 문학이론가이기도 하다. 또한 그의 소설적 경향이 갖는 파격적 형식과 서술기법은 중국 현대소설사에 큰 획을 그은 작가로서 익히 알려져 있다. 한국 학계에서도 郁達夫의 작품세계에 대한 관심이 여느 작가들보다도 높고, 특히 그의 소설에 대한 관심은 특별하다. 현재까지 연구된 논문의 편수를 감안해보아도 거의 80% 이상의 글들이 그의 소설에 대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그의 대표작인 〈沈淪〉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郁達夫의 소설작품과 한국의 현대문학 작가와의 비교문학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그동안 郁達夫의 소설작품에 대한 국내의 여러 연구와 평

* 이 논문은 2011-2012년도 경상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한국 내 중국 현대작가연구'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chunghch@gnu.ac.kr)
*** 경상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wangcang@hanmail.net)

가에 대한 객관적 고찰과 더불어 郁達夫의 소설작품과 관련한 한·중 비교문학의 추이를 보다 상세하게 고찰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와 향후 연구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 내 郁達夫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야	저자	제목
學位論文	사 근	郁達夫 문학과 李箱 문학의 비교 연구
	김정림	민국시대의 여인들 : 그 정은 세월이 지나 추억이 되었네
	장 혜	郁達夫와 李箱 소설의 비교연구
	곽명주	郁達夫의 「沈淪」에 나타난 자아의식 연구
	김용복	郁達夫 소설 연구 :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최경환	郁達夫 〈沈淪〉 연구
	정혜영	郁達夫 산문 선역 : 자전을 중심으로
	백운상	郁達夫 사회소설의 연구 : 〈春風沈醉的晚上〉·〈薄尊〉을 중심으로
	엄익근	郁達夫 前期小說의 낭만성 연구
	윤지현	郁達夫의 소설분류 및 〈春風沈醉的晚上〉·〈薄尊〉 작품시역
	이광석	郁達夫 소설 연구
	남기성	郁達夫 紀行散文 연구
	임대근	郁達夫 소설의 갈등구조 연구
	권민호	郁達夫의 〈沈論〉集 연구
	이정길	郁達夫의 문학사상 소고
	강선묵	郁達夫의 산문 연구
	김은옥	郁達夫의 "沈淪" 연구
	박안수	郁達夫 소설 연구
	정은진	郁達夫에 소설에 나타난 에로스와 죽음
	진미수	創造社 前,後期 文學思想의 繼承과 轉變
	김남리	郁達夫의 내면의식 연구 : 소설을 중심으로
	방 각	1920~1930年代 韓·中 인력거꾼 모티프 비교연구:「운수 좋은 날」과 「薄奠」·「駱駝祥子」를 중심으로
	강지애	郁達夫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 양상연구 : 정신분석학설을 중심으로
	이종민	근대 중국의 시대인식과 문학적 思惟 : 梁啓超, 王國維, 魯迅, 郁達夫를 중심으로

	안재연	The Gendering of Eroticism : Modern Subject and Narrative of Yu Dafu and Zhang Ailing
	이태복	郁達夫와 廉想涉 소설의 비교 연구
	서의영	郁達夫 소설 연구
	강경구	郁達夫小說의 주제의식 연구
	이신동	郁達夫與玄鎭健小說的比較研究
學術紙論文	강경구	郁達夫의 일본체험
	서의영	郁達夫初期小說研究
	서의영	1920년대 郁達夫 산문의 특징
	강경구	郁達夫〈沈淪〉 탐색
	서의영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
	유영하	郁達夫 문예사상의 형성배경
	박자영	국가의 경계선, 욕망의 임계점 - 郁達夫 초기 소설에서 민족 / 국가와 리비도의 문제
	백영길	郁達夫 소설의 낭만적 종교성 - 頹廢와 懺悔의 갈등 구조
	임대근	郁達夫의 「春風沈醉的晩上」과 李箱의 「날개」: 소설 쓰기의 두 가지 방식
	강경구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자연과 고향
	임계재	郁達夫 초기작품중의 청년심리 고찰
	강경구	郁達夫와 佐藤春夫의 私小說 비교연구
	박재범	郭沫若 郁達夫의 身邊小說과 日本의 私小說
	이종민	郁達夫의 소설세계
	정범진	郁達夫 연구
	강경구	郁達夫 와 李箱 소설의 비교연구
	서의영	郁達夫 소설의 시기적 특징(初期의 소설을 중심으로)
	임대근	郁達夫의 처녀작, 「銀灰色的死」에 관한 小考
	成大文學	薄奠
	이주노	郁達夫의 《沈淪》과 아이덴티티 위기
	송현호	郁達夫와 金東仁의 소설 비교연구
	서의영	郁達夫 문예의 시대 배경과 이론
	김경석	자전소설의 자아와 서사 : 개체적 자유의지의 창작실천
	심경리	“日本體驗”과 “性政治”
	中國小說論	논평과 반론 - 제20권

	叢編輯部	
	송현호	關于魯迅與憑虛的短篇小說 :《故鄕》을 중심으로
	위복강	郁達夫小說藝術論
	이주노	중국의 향토소설과 한국의 농민소설 비교연구
	강경구	세 명의 광인 :郁達夫 , 魯迅 , 沈從文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시활	중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고향과 자연
	임대근	回顧與瞻望濟韓國的都達夫研究
	이태복	郁達夫소설의 자연주의적 특성
	김은희	중국 신시기 소설의 문학적 공간 연구
單行本	이석호	郁達夫 단편집
	이광석	郁達夫 소설 연구
	전인초	大學語文選 . 6 , 郁達夫와 王映霞
	강계철	타락 : 위다푸의 소설세계
	전중제 외	인물로 보는 중국현대소설의 이해
	강경구	위다푸 · 선충원 소설의 연구
	강경구	중국현대소설의 탐색적 연구
	김시준	故鄕/沈淪(等)
	전인초	中國小說研究論集

위의 표[1]와 같이 현재까지 郁達夫에 대해 연구된 학위논문은 모두 29편으로 그 중 박사학위 논문 6편, 석사학위 논문 23편이 있다. 그리고 각종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총 33편이 있고, 단행본으로는 9종의 책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단행본은 郁達夫에 대한 한국작가들의 평가나 비평이 담겨있는 글 위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에서는 郁達夫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라 할 수 있는 小說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郁達夫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고, 아울러 1900년대 당시 한국작가와의 비교연구 또한 일부 진행된 바가 있다. 이를 통해 韓·中 작가의 창작경향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분석의 의의가 커 보인다.

---

1) 이 자료는 RISS(韓國學術研究情報서비스)와 國會圖書館, 金惠俊의 〈한글판 중국현대문학 작품 목록(2010, 2)〉·〈한국의 중국현대문학 학위논문 및 이론서 목록(2010, 1)〉에 수록되어 있는 郁達夫와 관련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및 단행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한 것이다.

2. 소설 작품연구

郁達夫의 소설이 갖는 중국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소설 작품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개별 작품 연구와 작품 성향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타연구로 다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로는 9편의 글[2]이 있고, 작품 성향에 대한 연구는 19편의 글이 있으며, 기타 연구에 4편의 글이 있다. 그러나 기타 연구는 본고의 분석내용과의 연관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

1) 개별 작품연구

먼저 개별 작품연구에서는 〈沈淪〉에 대한 논문이 5편, 〈春風沈醉的晚上〉과 〈薄奠〉에 대한 글이 2편, 〈薄奠〉만을 대상으로 한 글이 1편, 〈銀灰色的死〉에 대한 글이 1편이 있다. 본고는 소설 작품연구를 1)〈沈淪〉, 2)〈春風沈醉的晚上〉과 〈薄奠〉, 3)〈銀灰色的死〉로 나누어 그 연구 성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沈淪〉

〈沈淪〉이 郁達夫의 대표작이라는 것에 한국 작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글도 5편으로 작품연구

2) 이광석,〈郁達夫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최경환, 〈郁達夫 〈沈淪〉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 권민호, 〈郁達夫의 〈沈淪〉집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 강경구, 〈郁達夫 〈沈淪〉 탐색〉, ≪중국어문학≫ 19(1991) / 백운상, 〈郁達夫 사회소설의 연구 : 〈春風沈醉的晚上〉·〈薄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주노, 〈郁達夫의 〈沈淪〉과 아이덴티티 위기〉, ≪중국문학≫ 23(1995) / 임대근, 〈郁達夫의 처녀작 〈銀灰色的死〉에 관한 小考〉, ≪이문논총≫ 18(1998) / 김은옥, 〈郁達夫의 〈沈淪〉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곽명주, 〈郁達夫의 〈沈淪〉에 나타난 자아의식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작품성향 연구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5편의 글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세 가지 내용－1)주제 분류, 2)구성의 특징, 3)사상적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는 주제 분류이다. 곽명주(2009)는 〈沈淪〉에 나타난 주제를 '자아의식의 표출'이라는 관점에서 네 가지 주제－1)性과 도덕의 대립, 2)자연을 통한 심리적 안정, 3)소외의식과 죽음, 4)우울한 지식인의 조국애－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최경환(1988)은 세 가지 주제 즉, 1)性, 2)소외, 3)조국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강경구(1991)는 1)소외, 2)性, 3)자연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沈淪〉을 분석하였다. 이주노(1995)는 〈沈淪〉이 갖고 있는 'Identity 위기'라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곽명주는 郁達夫의 〈沈淪〉에 나타난 자아의식에 대해 고찰하면서 郁達夫 작품이 갖는 특성에 대한 평가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였다. 즉 "〈沈淪〉이 퇴폐적이라고 평가되었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현대문학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재평가 되고 있음[3]"을 하나의 경향으로 보았고, 작품에 개성적인 미학을 더함으로써 중국현대문학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하였다.

최경환은 〈沈淪〉에 나타난 내용전개의 맥락을 "유약한 성격→사랑의 갈구→자아소외→변태성→대타소외→자연도피→성적타락→죽음[4]"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제를 性, 소외, 조국애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았는데, 그 중 조국애에 대해서는 "〈沈淪〉에서 보이는 조국애의 문제가 비애 혹은 탄식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것[5]"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경구의 주제 분류에서는 자연에 대한 분석이 뛰어나다.

---

3) 곽명주, 〈郁達夫의 「沈淪」에 나타난 自我意識 硏究〉,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49쪽.
4) 최경환, 〈郁達夫 〈沈淪〉 硏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50쪽.
5) 주석4)의 논문, 49쪽.

> 郁達夫 〈沈淪〉의 자연관이 전통적인 物我一體, 혹은 天人合一적 자연관과 무관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는데, 그 상이한 점으로 物我一體, 혹은 天人合一적 자연관에는 자연의 발현과 수용이라는 것이 전일적으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반면, 〈沈淪〉의 주인공에게서는 그 수용의 측면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자연의 수용에서 생기는 느낌 내지 깨달음을 대 사회적으로 발휘하는 발현의 측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결국 郁達夫의 〈沈淪〉에 나타나는 사회나 집단으로부터 겪는 소외의식, 性愛에 대해 갖는 모순적 태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주인공의 불행하다는 느낌, 혹은 소모되어가는 자아가 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연 속에서조차 온전한 휴식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沈淪〉의 결말부분에서 주인공이 죽음을 결심하는 심경묘사는 상당히 돌발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없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와 같은 갈등의 증폭으로 인한 필연적 귀결이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6]

이주노는 郁達夫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성적 고민 및 욕망이라는 현상의 이면에 Identity의 위기가 놓여 있다는 기본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沈淪〉을 중심으로 Identity의 위기 및 그 병리적 현상의 작품 내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서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그의 분석을 소개한다.

> '그'가 겪는 아이덴티티의 위기 및 혼란은 새로운 역사적 현실과 상이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내면적인 연속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불일치는 작품속의 '그'에게서 열등콤플렉스와 자아의 우월의식의 충돌로 나타나 '그'의 삶을 불안과 우울, 무목적적 행위로 이끈다. 이에 따른 개인 및 집단 아이덴티티의 붕괴로 말미암아, '그'는 '……로서의 자기'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기존재를 확인시켜줄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방황한다.[7]

둘째는 구성의 특징이다. 崔景煥은 〈沈淪〉을 plot의 5단계 구분법[8]

---

6) 강경구, 〈郁達夫 〈沈淪〉 探索〉, ≪중국어문학≫ 19(1991), 213-214쪽.
7) 이주노, 〈郁達夫의 〈沈淪〉과 아이덴티티 위기〉, ≪중국문학≫ 23(1995), 217쪽.
8) 주석4)의 논문, 23쪽의 표를 인용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파국
〈제1장〉 주인공의 성격묘사 심약하고 현실도피적인 성격의 주인공	〈제2장〉 하교도중 여고생과 마주침 현실에서 부적응심화성, 소외, 조국애 문제로 확대	〈제3・4장〉 주인공의 성격형성에 당위성 부여 성장과정부터 일본N시로 오기까지 과거에 대한 회상	〈제5장〉 성도착의 발생 하숙집 딸의 목욕장면을 엿봄으로써 죄의식 증대	〈제6장〉 자연으로 도피, 성극복 좌절 정사 장면을 엿듣게 됨으로써 이성의 상실	〈제7장〉 타락의 절정 조국애로 수렴됨

또한 〈沈淪〉의 구성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沈淪〉의 작품이 드러난 plot의 가장 특이한 성격은 작품이 작가의 자서전이라는 문학관에 따라 작품 중간 중간에 주인공의 갈등을 토로하는 직설적 독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백이 구성의 단계마다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독백이 다른 소설에 비해, 또는 소설의 분량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沈淪〉이 사건중심의 소설이기 보다는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인물중심, 또는 심리적 면에 치중한 소설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구성상에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구성에 있어 과거에 대한 회상이 지루하게 나열되어 소설의 흐름을 끊어놓았을 뿐 아니라, 너무 일방적으로 사건의 전환을 야기 시켜, 시제의 혼돈, story 전개의 모호성을 노출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9]

셋째는 사상적 배경이다. 권민호(1990)는 〈沈淪〉集을 대상으로 그

9) 주석4)의 논문, 28쪽.

사상을 1)낭만주의사상, 2)반봉건주의 사상, 3)애국주의 사상으로 분석하였다.[10]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 내 郁達夫연구Ⅱ : 문학사상과 산문연구>에서 다루게 될 문학사상에서 보다 자세한 연구경향과 분석을 다루기로하고 세부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② 〈春風沈醉的晚上〉과 〈薄奠〉

두 작품과 관련된 글은 모두 3편의 글이 있다. 그러나 이 중 한 편은 〈薄奠〉을 번역 소개한 성격의 글이고, 다른 한 편도 〈春風沈醉的晚上〉과 〈薄奠〉을 試譯한 논문이어서 독자적인 작가의 의견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작품에 대한 번역본이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작가들이 郁達夫 소설에서 두 작품이 갖는 비중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머지 한 편인 백운상(1992)의 논문은 두 작품에서 1)작중인물의 분석, 2)창작기법에 주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작중인물의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백운상은 두 작품에서 작중 인물이 가질 수 있는 소설적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를 도표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역 할	형 상
주인공	지식인, 감상주의자, 영여자
부주인공	도시빈민, 노동자
단역	전형성을 띠는 단역

그리고 이러한 작중 인물들이 갖는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분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주인공은 지식인으로서 사회의 냉엄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생활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1920년대 중국사회에 깨어 있는 지식인의 번뇌·방황·고민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의 번민에 대한 동정은

10) 권민호, 〈郁達夫의 〈沈淪〉集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 작가의 실질적인 생활에의 이해로부터 기인하며,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주인공은 작가가 경험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조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작가의 현실사회를 반영하려는 현실적인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부주인공은 모두 사회의 압박 속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다. 단역 역시 현실사회를 바탕으로 조각되었으며, 전형성이 짙게 나타나 있다.[11]

③ 〈銀灰色的死〉

〈沈淪〉이 郁達夫의 대표작이라면 〈銀灰色的死〉는 그의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이 작품만을 모티브로 하여 나온 글로는 단 한 편만이 있다. 임대근(1998)은 현대 중국의 문단과 사회에 하나의 충격이었던 "郁達夫의 처녀작 〈銀灰色的死〉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郁達夫의 소설 세계에서 보이는 모티브들의 원형이 고스란히 그 최초의 작품 속에 잉태되고 있음을 보이고자[12]" 하였다. 〈沈淪〉이 '私小說'적 창작 기법을 본격적으로 창작한 작품인 반면에, 〈銀灰色的死〉는 이러한 창작기법을 원용하기 이전 단계인 것으로 볼 때, 〈銀灰色的死〉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郁達夫 소설의 원형과 추형을 찾고 그와 연결된 작가의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임대근은 〈銀灰色的死〉가 갖는 이러한 의의에 주목하였고, 이를 통해 1)내적 자아의 의식세계, 2)작품의 상징체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郁達夫의 처녀작 〈銀灰色的死〉은 "그가 문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면서 동시에 자신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의 변형된 고백적 양태로 드러나 그 이후의 문제작 〈沈淪〉의 출현을 예고했음[13]"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근은 바로 여기에 〈銀灰色的死〉가 갖는 功過가 있음을 지적한다.

---

11) 백운상, 〈郁達夫 사회소설의 연구 : 〈春風沈醉的晚上〉·〈薄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75~76쪽.
12) 임대근, 〈郁達夫의 처녀작 〈銀灰色的死〉에 관한 小考〉, ≪이문논총≫ 18(1998), 233쪽.
13) 주석12)의 논문, 246쪽.

2) 작품 성향연구

작품 성향에 대한 연구는 모두 19편의 글이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해 보면 1)내용과 체재에 대한 연구, 2)초기 소설 성향에 대한 연구, 3)소설이 갖는 서술적 특성과 성향에 대한 연구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내용과 체재에 대한 연구와 초기 소설성향에 대한 연구는 상기 개별 작품 연구에서 일부 다루어진 분야인 관계로 지면상 구체적 거론을 피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소설이 갖는 서술적 특성과 성향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는 8편[14]의 글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8편의 글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주제는 '자연'이다. 이에 관한 글로는 모두 3편의 글이 있는데, 강경구(1993)의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자연과 고향〉과 이시활(2001)의 〈중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고향과 자연: 魯迅과 郁達夫를 중심으로〉, 이태복(2008)의 〈郁達夫소설의 자연주의적 특성: 서술학적 특성을 중심으로〉가 있다. 3편의 글은 모두 郁達夫 소설에서 자연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시활은 중국 현대소설 중 魯迅과 郁達夫의 작품 속에 나타난 자연주의적 특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의 논지를 바탕으로 魯迅의 소설에서의 고향과 자연, 郁達夫의 소설에서의 고향과 자연에 대한 분석을 각각 대조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4) 강경구,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자연과 고향〉, ≪중국학≫ 8(1993) / 이주노, 〈郁達夫의 〈沈淪〉과 아이덴티티 위기〉, ≪중국문학≫ 23(1995) / 임대근, 〈郁達夫 소설의 갈등구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국어과 석사학위논문, 1995) / 강지애,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 양상 연구 : 정신분석학설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시활, 〈중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고향과 자연 : 魯迅과 郁達夫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21(2001) / 박자영, 〈국가의 경계선, 욕망의 임계점 : 위다푸 초기 소설에서 민족/국가와 리비도의 문제〉, ≪중국소설논총≫ 20(2004) / 이태복, 〈郁達夫소설의 자연주의적 특징 : 서술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2008) / 백영길, 〈郁達夫 소설의 낭만적 종교성 : 퇴폐와 참회의 갈등 구조〉, ≪중국어문논총≫ 47(2010).

작가	고향과 자연
魯迅	○ 현실의 물리적 고향:전근대적 공간, 사라져야 할 퇴보의 대상물 ○ 심리적 고향:인간과 자연, 자아와 세계와의 주객합일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이 넘치는 화합의 공간 ○ 전망 없는 현실에서는 부재하지만 그래도 지향해야 할 미래의 희망의 존재
郁達夫	○ 타지의 근대적 공간의 자연 : 소외된 자아를 확인하는 관념의 대상 ○ 고향의 자연 : 인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살아있는 대상 ○ 郁達夫의 고향으로 가는 길 : 근대화된 인물의 인간소외와 자연과의 분리가 사멸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

동시대를 살아간 두 작가 모두 공통적으로 자연을 특정한 문학적 의미로 활용함에 있어서 “근대를 이해하는 시선이 달랐지만, 각자가 처해진 상황과 조건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영원한 길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15]” 이시활의 이러한 연구는 한 작가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서술경향을 중심으로 작가군을 재배열하고 연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태복은 郁達夫 소설과 일본자연주의 문학,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적 작가 및 작품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郁達夫의 문학은 중국의 전통적 소설과는 완전히 판이하므로 일본의 私小說, 프랑스의 자연주의, 러시아의 사실주의, 루소적 낭만주의 등 다양한 영향관계가 혼재해 있지만, 이태복은 “그의 소설문학의 형태 및 구조적 측면만을 살펴볼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일본 私小說의 영향과 프랑스 자연주의의 영향이다.[16]”고 보고 있다.

---

15) 이시활, 〈중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고향과 자연 : 魯迅과 郁達夫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21(2001), 227쪽.

16) 이태복, 〈郁達夫소설의 자연주의적 특성 : 서술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강경구는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자연과 고향의 의미를 세 가지 상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즉 郁達夫에게 있어서 고향(고향은 곧 자연과 같은 상등관계로 봄)은 1)시간이 사라진 공간, 2)桃花苑的 彼岸, 3)비극의식의 해소와 병의 치유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강경구가 말하는 郁達夫의 고향과 자연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자.

> 사실 郁達夫의 인물들에게 자연과 고향은 달팽이의 집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현실의 삶이 如意롭지 않거나 위기의식을 가져다주는 것일 때, 즉시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으로의 은거 내지 귀향을 기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郁達夫의 소설에서 끝없는 은거와 귀향의 시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17]

자연을 주제로 한 것 이외에는 다양한 주제들의 글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 몇 가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지애(1999)는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양상 연구 : 정신분석학설을 중심으로〉에서 郁達夫 소설에서 낭만주의와 함께 나타나는 모더니즘적 측면을 고찰하였고, 아울러 제재와 내용상의 정신분석학설의 영향, 예술 표현상의 '의식의 흐름 기법'의 영향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하였다. 이는 낭만주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인식해오던 郁達夫의 소설에 대해 변화되고 있는 학계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 郁達夫 소설은 모더니즘 정서, 정신분석학설의 영향과 예술표현상의 의식의 흐름기법을 더했으니, 이들이 조합되어 郁達夫 소설의 모더니즘 요소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사상적 의미에서 본다면 郁達夫의 이러한 모더니즘 양상이 주류로서의 낭만주의적 색채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면에서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상당히 의의가 있는 새로운 탐색이었다 여겨진다.[18]

≪중국어문학논집≫(2008), 281쪽.

17) 강경구,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자연과 고향〉, ≪중국학≫ 8(1993), 281쪽.

18) 강지애, 〈郁達夫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 양상 연구 : 정신분석학설을 중심으로〉(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69쪽.

백영길(2010)은 郁達夫의 소설 중에서 기독교 관련 제재의 작품들－〈南遷〉·≪迷羊≫·≪蜃樓≫·〈馬纓花開的時候〉－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郁達夫의 1920~30년대 낭만주의 문학이 갖고 있는 종교적 본질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郁達夫 소설의 갈등구조와 낭만주의 및 리얼리즘 등 문학사조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郁達夫의 소설은 낭만적 자전소설이건 리얼리즘적 객관성을 추구한 사회소설이건, 그 문학사조의 창작방법 혹은 사회인식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의 정욕을 축으로 한 인물 형상화의 특징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 묘사의 바탕에 깃들인 것은 참회에 의한 퇴폐성의 구제와 구원에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실은 작가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삶에 대한 허무의식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1920년대와 1930년대 전반기까지의 郁達夫의 소설에는 낭만주의와 유미-퇴폐주의적 근대성 및 상징주의, 모더니즘적 문학사조의 요소가 리얼리즘과 혼재되어 있었다고도 보인다.[19]

박자영(2004)은 최근 들어 郁達夫 소설에서 두드러진 리비도의 문제를 민족적인 것의 하위범주로 귀속시키는 주류적인 해석에 반대하여 이 의미를 다시 해독하는 작업들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면서 "郁達夫 텍스트에서 욕망과 자아, 민족과 국가, 고향 등이 서사의 지배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배소의 특수한 존재양태와 구도가 소설서사의 중심축을 하나로 결정짓기 어렵게 만들면서도 이와 동시에 이것이 바로 풍성한 의미를 구현케 하는 원천이라는 점[20]"을 논거를 통해 밝히고 있다. 특히 〈沈淪〉과 〈南遷〉에서 나타나는 양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소설에서는 기존의 평가와는 달리 민족과 국가가 절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하지 않고 자아의 욕망과 맞서며 경계를 새롭게 형성하면서 긴장

---

19) 백영길, 〈郁達夫 소설의 낭만적 종교성 : 퇴폐와 참회의 갈등 구조〉, ≪중국어문논총≫ 47(2010), 415쪽.
20) 박자영, 〈국가의 경계선, 욕망의 임계점 : 위다푸 초기 소설에서 민족/국가와 리비도의 문제〉, ≪한국소설논총≫ 20(2004), 260쪽.

> 을 발하는 개념으로 자리한다는 점이 밝혀진다. 역으로 이러한 긴장은 자아의 욕망에도 힘을 불어넣은 바 불안한 자아의 욕망은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침식하며 이를 의문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아와 욕망 및 민족과 국가는 어느 한쪽이 우세한가 싶을 때 불쑥 튀어나와 상호간에 침식하고 교섭함으로써 팽팽한 긴장을 보여준다[21].

임대근(1995)은 郁達夫의 소설을 작가(작품외적 자아)나, 그것이 탄생한 정치·사회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작품 자체에 집중하여 자아와 세계라는 대립축을 설정하고 그 갈등구조를 살펴보면서 郁達夫 소설의 갈등구조를 자아우위형 갈등구조와 세계우위형 갈등구조로 나누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 내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소개한다.

	세계우위형 갈등구조	자아우위형 갈등구조
자아의 정서	우울	분노
자아의 의식	유기의식 소극적 복수의식 돈으로부터의 소외의식	참회의식 적극적 복수의식 타자의식
세계의 폭력에 대한 대응방식	도피(고향/자연/골방)	대항
소설의 결말	주인공의 자살	주인공의 방화와 살인
대표작	〈은회색의 죽음〉 〈타락〉 〈남쪽으로 가다〉 등	〈썰렁한 제사〉 〈도망자〉 등

[자아우위형 갈등구조와 세계우위형 갈등구조의 비교][22]

이 이외에도 다수의 글들이 있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필자의 주관적 잣대로 갈무리해야 함을 아쉬움으로 남긴다.

郁達夫의 작품세계 및 소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들의 출현은

---

21) 위의 논문, 271쪽.

22) 임대근, 〈郁達夫 소설의 갈등구조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국어과 석사학위논문, 1995), 107쪽의 표를 인용함.

분명 그의 작품이 현대문학사에서 갖는 위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작가들도 그의 소설이 갖는 시대적·문학적 의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1990년대 이래로 꾸준하게 다각적 해석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비교문학

郁達夫 소설과 관련하여 비교문학의 성격을 띤 글은 모두 11편[23]이 있다. 이글들도 성격상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중국작가간의 비교이고, 둘째가 일본 私小說과의 비교이며, 셋째가 韓國作家와의 비교이다. 이 중에서 중국작가간의 비교는 1편이 있고, 일본 私小說과의 비교는 2편, 한국작가와의 비교는 9편이 있다. 중국작가간의 비교에 해당하는 강경구(1996)의 〈세 명의 광인〉은 郁達夫의 〈沈淪〉, 魯迅의〈狂人日記〉, 沈從文의 〈山鬼〉를 중심으로 중국 현대소설 중에 나타나는 광인 형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는 분류상 소수에 해당하고, 본고가 지향하는 비교문학의 특성을 살려 일본 私小說과의 비교와 한국작가와의 비교에 보다 더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

23) 박재범, 〈郭沫若 郁達夫의 身邊小說과 일본의 私小說〉, ≪중국어문논총≫ 8(1995) / 송현호, 〈郁達夫와 金東仁의 소설 비교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1996) / 강경구, 〈세 명의 광인 : 郁達夫·魯迅·沈從文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28(1996) / 임대근, 〈郁達夫의 〈春風沈醉的晚上〉과 李箱의 〈날개〉 : 소설 쓰기의 두 가지 방식〉, ≪중국현대문학≫ 10(1996) / 강경구, 〈郁達夫와 李箱 소설의 비교연구〉, ≪중국어문학≫ 34(1999) / 이주노, 〈중국의 향토소설과 한국의 농민소설 비교연구〉, ≪중국인문과학≫ 26(2003) / 강경구, 〈郁達夫와 佐藤春夫의 私小說 비교연구〉, ≪중국학≫ 29(2007) / 사근, 〈郁達夫 문학과 李箱 문학의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이태복, 〈郁達夫와 廉想涉 소설의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방각, 〈1920-1930년대 한·중 인력거꾼 모티프 비교 연구 : 〈운수 좋은 날〉과 〈薄奠〉·〈駱駝祥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장혜, 〈郁達夫와 李箱 소설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신동, 〈郁達夫與玄鎭健小說的比較研究〉, (숭실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1) 일본 私小說과의 비교

일본 私小說과의 비교를 주제로 삼고 있는 논문은 2편이 있다. 박재범(1995)은 郁達夫와 郭沫若의 身邊小說과 일본의 私小說에 대한 비교를 통해 郁達夫와 郭沫若이 일본의 私小說을 어떻게 수용하였으며, 그들의 身邊小說 속에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났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강경구(2007)는 郁達夫의 〈沈淪〉과 佐藤春夫의 〈田園の憂鬱〉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박재범은 창조사 초기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창작경향인 身邊小說[24]이라는 새로운 양식에 대해 그 정의를 도출하고, 이를 일본의 私小說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자 간의 수용과정과 기본 양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私小說 또한 그 개념이 정확한 것이 아니어서 견해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서구로부터 수입된 소위 자연주의를 일본 문인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이후 大正時期를 거치며 그 발전을 이룬 것[25]"으로 보고 있다. 서구의 자연주의가 인간과 사회현실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한 데 반해, 일본에서는 특수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의 신변과 내면세계만을 깊이 파고드는 풍조만을 갖게 된 것이다.

郁達夫는 1919년 말경부터 일본문학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佐藤春夫·志賀直哉·谷崎潤一郎·芥川龍之介 등과 같은 문학가들의 작품을 대량으로 읽었으며, 특히 佐藤春夫와 葛西善藏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박재범은 그 대표적인 작품인 〈沈淪〉이 바로 佐藤春夫의 〈田園の憂鬱〉을 모방한 작품이며, 유학시절 私小說을 접하는 가운데

---

24) 身邊小說이란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鄭伯奇였다. 鄭伯奇는 ≪中國新文學大系小說三集 導言≫에서 "郭沫若의 소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옛 사람이나 다른 나라의 고사에 기탁하여 자신의 감정을 펼치는 것으로 기탁소설이라고 칭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신변에 관한 수필식의 소설이니 이것이 바로 身邊小說이다. 후자 가운데에는 제3인칭을 사용하여 비교적 객관화된 것도 있는데, 〈낙엽〉·〈만인〉 등이 있다. 그러나 역시 서정적 색채가 농후하다."라고 郭沫若의 소설을 설명하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였다. 박재범, 〈郭沫若, 郁達夫의 身邊小說과 일본의 私小說(1)〉, ≪중국어문논총≫ 8(1995), 325쪽의 주4)를 재인용함.

25) 위의 논문, 328쪽.

자신의 문학관을 탄생시켰고, 또 그 이론에 따라 소설을 남긴 것이 身邊小說이라고 보고 있다.[26]

그리고 佐藤春夫의 〈田園の憂鬱〉과 郁達夫의 〈沈淪〉 간에 존재하는 차이점과 유사점을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田園の憂鬱〉에는 병적일 정도로 예민한 신경과 권태와 우수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알알이 새겨져 있지만, 작가 佐藤春夫는 그 같은 니힐한 世紀末的인 憂愁를 바로 이 소설에 쓰고자 했다. 작가는 전원의 자연을 아름다운 색과 빛으로서 油畵風으로 묘사한 것만은 아니고 근대인의 마음 속 깊이 있는 두려움 같은 것을 그려냈던 것이다. 이에 반해 〈沈淪〉에는 그 나름대로의 줄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갈등양상도 그것이 작품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沈淪〉은 주인공이 겪게 되는 정신적 방황과 갈등, 그리고 그 갈등양상에 따른 인간의 본능적 내면세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들 두 작품은 一見 외형상으로 볼 때, 이렇다 할 유사점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작품 〈沈淪〉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 내면세계의 모습은 바로 주인공 '他'가 방황하는 가운데 민족적 열등감과 憂愁에 젖어 괴로워하며 드러낸 病態的 感情과 倦怠의 모습인 것이다. 주인공 '他'의 倦怠와 憂愁는 민족적 劣等感과 사회부적응에서 오는 갈등으로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니힐리즘적 행동과도 같은 것이었다. 작가의 내면세계와 관련해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두 작품의 유사성이 있는 것이다.[27]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그의 논문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연이은 후속 논문을 통해 계속해 나갈 것을 명시했다.

강경구 또한 두 작가와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田園の憂鬱〉과 〈沈淪〉 속에 나타난 '개인, 혹은 자아의 강조와 고립, 은거'는 표면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름을 지적한다. 타인에 대한 그의 분석을 살펴보자.

> 郁達夫 〈沈淪〉의 그에게 타인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

26) 위의 논문, 337~338쪽 참조.
27) 주24)의 논문, 346~347쪽.

> 의 대상이다. 무슨 말인가? 〈田園の憂鬱〉의 그에게 타인은 장미를 해치는 감나무, 등나무처럼, 그리고 장미를 꺾는 아내처럼 모두가 그 개인의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들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郁達夫의 그에게 있어서 타인은 그를 인정해주고 찬미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주체들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그러하다. 길가는 여학생들이나 여관집 딸 모두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沈淪〉의 그를 보라. 심지어 그는 여관집 딸의 목욕장면을 훔쳐보다 그것을 들킨 뒤에도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찾아오는 호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28]

그리고 두 작품의 주인공들이 인간사회를 피해 숨는 곳인 자연은 그것이 인간사회에서 지친 주인공들에게 휴식을 준다는 측면에서 서로 동일하나, 두 작품 간의 자연묘사는 중요한 차별성이 있다. 강경구는 이를 "자기소멸과 자기해체의 차이"로 분석하였다.[29]

이상과 같이 郁達夫의 문학작품은 그 연원과 영향에 있어서 일본문학과 그 작가들과의 상관관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고, 보다 더 다양한 연구와 접근이 가능한 분야로 생각된다.

2) 한국작가와의 비교

郁達夫와 비교연구가 진행된 한국작가는 모두 4명－李箱·玄鎭健·廉想涉·金東仁－이 있다. 그 중 李箱과의 비교는 모두 4편의 연구가 있고, 玄鎭健과의 비교가 2편, 廉想涉과의 비교가 1편, 金東仁과의 비교가 1편, 그리고 중국의 향토소설과 한국의 농민소설 간의 비교가 1편 있다. 편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郁達夫와의 비교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작가는 다름 아닌 '李箱'이다. 하지만 본고는 한국작가와 郁達夫와의 비교연구의 추이에 대한 고찰과 그 소개의 의의가 크므로 李箱 이외의 기타 작가에 대한 비교도 누락 없이 소개하고자 한다.

---

28) 강경구, 〈郁達夫와 佐藤春夫의 私小說 비교연구〉, ≪중국학≫ 29(2007), 144쪽.

29) 주28)의 논문, 148~149쪽 참조.

① 郁達夫와 李箱

한·중의 두 천재 소설가인 郁達夫와 李箱의 소설은 상당히 유사한 상황설정과 인물형상, 그리고 작품의 구조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비교방식에 있어서도 두 작가의 소설작품 전반에 대한 비교와 특정 작품 간의 비교가 모두 시도되고 있어서 연구의 편폭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 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양은 많지 않으나 지속적인 연구 분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李箱이외의 다른 작가와의 비교연구 또한 2000년대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연구 분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郁達夫와 李箱의 문학비교와 관련하여서는 모두 4편의 글이 검색된다. 먼저 강경구(1999)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私小說 작가인 李箱과 郁達夫의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임대근(1996)은 郁達夫의 〈春風沈醉的晚上〉과 李箱의 〈날개〉에 나타난 유사한 모티브를 통해서 소설적 전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비교의 가치를 두었다. 사근(2008)은 그동안 郁達夫와 李箱의 문학 연구가 여성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개별적 논의에 집중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두 작가의 소설작품을 비교·연구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장혜(2010) 또한 두 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욕망과 죽음의식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4편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특징은 세 가지이다. 그 첫째는 네 편의 글이 공통적 대상으로 삼는 분야가 모두 郁達夫와 李箱의 '小說'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이 글들은 대부분 여성(혹은 욕망)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郁達夫의 〈春風沈醉的晚上〉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임대근(1996)을 제외하면 대부분 郁達夫의 전체 작품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李箱의 작품은 대부분 〈날개〉에 집중되어 있다. 본고는 세 가지 관점 – 1)여성, 2)죽음, 3)〈날개〉와 〈春風沈醉的晚上〉에서 나타난 대칭구조 – 의 비교 속에 나타난 그 분석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는 여성이다. 강경구는 李箱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을 천상으로의 비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한다. 반면 郁達夫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을 남자의 불사약을 훔쳐 혼자 천계로 날아간 姮娥에 비유한다. 그래서 두 작가에게 있어서 여성이 부여하는 의미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의 분석을 살펴보자.

> 李箱이 소설에서 여성이 천상으로의 비상을 막는 장애물로 이해되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여성은 현실의 영역을, 나는 천상의 영역을 지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비상식적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郁達夫의 인물들은 자신이 천하에 중용될 才子이며, 대경륜가라는 시각에서 여성들을 이해한다. 그러니 여성들은 그 미모로 사람들의 시각을 끌어 그 배우자인 자신의 재능과 경륜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거나, 실망에 빠진 자신을 직접 구원해줄 수 있는 존재로 기대된다. 말하자면 郁達夫 인물들의 시각은 철저하게 자신의 현실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아가 羿를 배신하고 혼자 月宮으로 날아간 것처럼 郁達夫의 여성들은 남성을 배신하고 다른 세계로 달아난다.[30]

사근은 郁達夫의 여성관에 대해 '도덕의식과 자기파멸'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 "순수한 사랑이 소극적 성격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자 성적 유희를 통해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성에 대한 자신의 죄악감을 느끼게 되고[31]", 결국에는 이러한 죄의식으로 인한 자기파멸인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李箱의 여성관에 대해서는 '성적유희와 자아단절'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두 작가간의 차이를 말한다.

장혜는 郁達夫와 李箱에게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욕망을 각각 다음과 같이 말한다.

---

30) 강경구, 〈郁達夫와 李箱 소설의 비교연구〉, ≪중국어문학≫ 34(1999), 595쪽.

31) 사근, 〈郁達夫 문학과 李箱 문학의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34쪽.

> 郁達夫와 李箱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욕망 양상의 의미는 차이점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즉 郁達夫의 소설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은 이성과 정신적, 육체적 합일을 갈망하는 것인데 결국 당시사회에서 실현하지 못하여 정사로 억누르게 된 욕망이다. 반면에 李箱의 소설인물들이 드러낸 성적 욕망은 이성에 대한 육체적 결합을 원하면서 정신적 자유를 더 추구하는 양가적 욕망이다. 郁達夫의 소설에서 묘사된 그런 욕망으로서의 정사는 주인공을 구해줄 수 있는 수단이었고 李箱의 소설에서 드러난 그런 양가적 욕망은 李箱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문학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32]

둘째는 죽음이다. 죽음의 의미에 대한 분석은 저자마다 약간씩 분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강경구의 분석을 살펴보자.

> 李箱의 죽음이 삶의 모든 의미를 무화시키는 절대성을 갖는다면, 郁達夫의 죽음은 삶의 영역에서 평가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획득하지 못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李箱의 죽음이 벌레의 덩어리를 산호라는 보석으로 승화시키듯, 현실의 지리멸렬함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정신영역으로 들어가는 계기였다면, 郁達夫에게 있어서 죽음은 현실적 성취를 이루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3]

반면, 사근과 장혜의 죽음에 대한 분석은 거의 유사하다. 郁達夫의 소설 속 주인공들이 대부분 심한 삶의 공허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공허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죽음은 삶의 고통에서 주인공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李箱에게 죽음은 단순한 소멸에의 의지가 아니라, 삶의 의지의 변형으로서 표현되고 있음을 말한다.[34] 즉 현실 초극으로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 속에 있는 삶을 버림으로 또 다른 의미인 삶은 오랫동안 남아있게 해 주는 방식으로

---

32) 장혜, 〈郁達夫와 李箱 소설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40~41쪽.
33) 주30)의 논문, 605쪽.
34) 주31)의 논문, 69쪽 참조.

보았다.[35]

셋째는 〈날개〉와 〈春風沈醉的晩上〉에서 나타난 남녀와 안팎이 갖는 대칭구조이다. 임대근은 우선 비교의 대상으로 郁達夫의 〈春風沈醉的晩上〉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沈淪〉과 〈銀灰色的死〉에서 郁達夫가 보여준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아의 몰락이었으나, 〈春風沈醉的晩上〉은 자신만의 공간에 침잠해 있던 자아가 타인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다는 새로운 양상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계에 의해 버림받는 존재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역시 그러하다는 자아와 타자의 동일시가 공동으로 세계의 폭력에 대항하려 하는 주체의 노력이 엿보이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春風沈醉的晩上〉이라는 데에서 그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날개〉와 〈春風沈醉的晩上〉이 갖는 유사한 모티브를 '남과여, 안과 밖'이라는 대칭구조로 분석하였다. 그가 분석한 대칭구조는 다음과 같다.

나	陳二妹 혹은 아내
남	여
無錢	有錢
실직	有職
病	건강
볕이 안드는 방	볕이 드는 방
꾸지람을 듣는 자	꾸짖는 자
오해받는 자	오해하는 자
無(결핍 : 부재)	有(충족 : 존재)

〈春風沈醉的晩上〉과 〈날개〉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남/여 대칭구조[36]

임대근은 또한 두 작품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대칭구조를 바탕으로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구조가 어떻게 긴밀히 얽혀 있는지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의 본질적 의미를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

35) 주32)의 논문, 60쪽 참조.
36) 임대근, 〈郁達夫의 「春風沈醉的晩上」과 李箱의 「날개」: 소설 쓰기의 두 가지 방식〉, ≪중국현대문학≫ 10(1996), 413쪽.

이상 郁達夫와 李箱 두 작가에 대한 비교에서 특징적이라 할 만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소개하였으나, 보다 세밀한 고찰을 위해서는 全文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② 郁達夫와 玄鎭健

郁達夫와 玄鎭健에 대한 연구로는 2편의 글이 있는데, 모두 2009년에 발표된 것으로 한중 비교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이신동(2009)은 郁達夫와 玄鎭健의 비교연구에서 1)소설적 서사방식의 비교, 2)소설 속 인물형상비교, 3)주제비교, 4)미학특징 비교를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특히 미학특징 비교에서는 일본 私小說의 영향을 받은 두 작가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과 차별적인 특징에 대한 분석이 뛰어나다. 이를 표로써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작가		郁達夫	玄鎭健
공통점		1) 내용 : ① 애정 혹은 연애비극 ② 가정충돌, 빈곤과 질병생활 등 각종 위기 때의 심정과 일상적 견문과 잡감 등 2) 창작기법 : 자전적 묘사기법, 가벼운 줄거리	
차이점	심리묘사	강한 개성색채와 감성색채를 가짐 →자기고백적 소설형식	강한 사회현실성을 드러냄 →사회문제적 소설형식
	심리묘사의 채택방식	인물 내면의 독백	객관적 대화

＜일본 私小說의 영향과 관련한 郁達夫와 玄鎭健의 공통점과 차이점＞[37]

방각(2009)은 〈1920-1930년대 한·중 인력거꾼 모티프 비교연구〉

37) 이신동, 〈郁達夫與玄鎭健小說的比較研究〉, (숭실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138~151쪽 참조.

에서 郁達夫의 〈薄奠〉과 玄鎭健의 〈운수 좋은 날〉, 그리고 老舍의 〈駱駝祥子〉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세 작품은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품으로서 1920-30년대 한국과 중국의 사회가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공통적인 상황아래 나타난 문학사조의 영향으로 이해되며, 특이하게도 모두 인력거꾼을 모티프로 창작된 작품이다.

핍박받는 민중들의 곤궁한 삶을 대변해주는 인력거꾼을 통해 당시 제국주의의 지배 하라는 배경 속에서 탄생한 세 작품은, 같은 모티프를 갖고 있으나 세 작가의 각기 다른 창작풍격으로 인해 다르게 탄생했다. 방각은 세 작가의 사실주의적 창작기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운수좋은 날〉의 玄鎭健은 반어의 기법을 이용해서 인력거꾼의 모티프를 드러내어 보여준다. 그는 겨울과 비의 관계 및 비 오는 날이 행운이란 두 가지 부조화가 겹쳐 서사를 전개한다. 작가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인력거꾼 김 첨지의 비극적 삶을 잘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생각을 주고 있다. 또한 郁達夫의 경우, 그의 소설은 사상적 측면에서 보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예술품격 쪽으로 보면 주로 자아의 표현과 감상적 서정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낭만주의 작가이지만 현실주의 작품 〈薄奠〉을 쓸 때는 묘사, 서술, 서정을 결합하여 인력거꾼의 궁핍한 삶과 비극적 운명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어두운 사회에 대한 분노를 대담하게 표현했다. 〈駱駝祥子〉의 인력거꾼 시양즈는 작가 노사에 의해 생생하게 그려진다. 작가는 지방특색이 있는 언어를 이용하여 인물의 심리묘사를 자세하게 표현하며 참신한 플롯을 이용해 소설의 모티프를 부각시켰다. 특히 '삼기삼락'의 구조는 시양즈의 비극적 운명을 더욱 실감 있게 그려냄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38]

방각의 세 사실주의 작품과 세 작가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매우 참신하고 독특한 시도로 보이며 한·중 비교문학의 소재와 범위의 편폭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어 보인다.

---

38) 방각, 〈1920~1930년대 한·중 인력거꾼 모티프 비교 연구 : 〈운수 좋은 날〉과 〈薄奠〉·〈駱駝祥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72쪽.

③ 郁達夫와 廉想涉

郁達夫와 廉想涉의 소설에 대한 비교연구는 단 1편의 글만이 검색된다. 李箱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廉想涉 또한 郁達夫와의 작품 비교가 가능하다. 이는 아마도 "그 영향을 받는 상대가 서로 다른 나라일지라도 국정이 흡사하고 영향경로가 흡사하며 작가의 체험이 흡사하다면 아주 유사한 형태의 문학작품과 문학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39]"는 상관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환경이 변하고 정신적 체험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두 작가는 초기 창작과는 전혀 다른 문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태복(2009)의 郁達夫와 廉想涉의 비교연구에서는 대략 두 가지 관점－1)두 작가의 서술시점, 2)두 작가의 후기 창작경향의 전환－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그 첫째는 두 작가의 서술 시점이다. 중·한 고전소설은 전통적으로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기술되었음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이는 서술자가 작중인물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서술자는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알고 있으며 비밀, 내심세계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음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천년이 넘는 시간에 한편 예외 없이 이러한 서술시점이 사용된 것에 대해 이태복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중국의 고전소설이 삼인칭 외부 시점, 즉 '영초점'을 그 부동의 서술시점으로 사용해 온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발전 역사가 이를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고전소설은 역사서적과 시가에 밀리어 장기간 주요한 문학 장르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특히 귀신에 관한 지괴, 그리고 역사를 이야기 식으로 강연하는 강사(講史)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는 역사서적 편찬이 객관적인 서술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형식상에서 서술자가 지나간 일이나 남의 일을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이기에 불가피하게 3인칭 외부 시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40]

---

39) 이태복, 〈郁達夫와 廉想涉 소설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3쪽.
40) 위의 논문, 58쪽.

이러한 서술시점에 대한 이해는 郁達夫와 廉想涉 소설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郁達夫는 도합 44편의 소설을 창작하였는데, 그 중 삼인칭이 24편이고 일인칭이 20편이다. 삼인칭 소설 중 私小說적 특성을 띠지 않은 소설은 불과 몇 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私小說적 특성을 띠고 있다.[41] 이는 전통적 중국소설의 창작에서는 볼 수 없는 서술자(서술 음성)과 관찰자(시점 인물)가 동일한 삼인칭 내부시점(내부 초점)을 사용하였기에 참신한 서술형식의 郁達夫의 소설들은 당시 문단에 충격이었으며 대단히 환영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는 달리 廉想涉의 초기 소설들에서는 私小說의 특색을 띤 자전적 소설과 비자전적 소설이 동시에 창작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태복은 방대한 廉想涉의 작품 중 초기 24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서술시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는 두 작가의 후기 창작경향의 전환이다. 한·중 근대문학 초기에 고전문학 및 기타 작가들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이로부터 근대문학의 형성에 기여한 두 작가의 모습과는 달리 중기와 후기에 들어서면서 그 풍격과 특징은 크게 달라졌음은 주목할 만하다.

>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창작풍격은 모두 일변하는 양상을 보인다. 郁達夫는 초기의 팽팽하던 현실대응자세를 접어버리고 소극적인 낭만주의 경향을 띤 작품을 다수 창작한다. 이는 그의 신상에서 발생한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과 변화의 불씨를 찾을 수 없는 암흑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투지와 목표를 상실한 소이라 할 수 있다. 廉想涉은 이와 반대로 초기의 우울하고 협소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사실주의 경향의 장편들을 연이어 펴낸다. 이는 그의 식민지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현실변혁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작가의 이처럼 판이한 변화의 행적은 동일한 풍격을 보였던 작가일지라도 그들이 처한 현실 환경과 의식 세계의 변화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으며, 작가의 생활과 문학작품의 유기적 변증관계를 유력하게 방증해주고 있다[42].

41) 주39)의 논문, 73쪽.
42) 주39)의 논문, 142쪽.

서구문학을 일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받아들이고 동시에 일본문학의 영향을 받아들인 郁達夫와 廉想涉은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학을 체현해낸 각자의 나라의 현실과 특수성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두 작가에게서 유사한 성격의 다른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형성기를 가지고 있는 중·한 양국의 비교문학은 그래서 더 더욱 그 연구의 의의가 있는 분야로 생각된다.

④ 郁達夫와 金東仁

郁達夫와 金東仁의 소설에 대한 비교연구 역시 단 1편의 글이 있을 뿐이어서 아직까지 생소한 접근으로 보인다. 송현호(1996)는 郁達夫와 金東仁 두 작가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상황에 처한 특정한 개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43]"고 판단하고 서로간의 유사점에 주목했다. 또한 두 작가 모두 문학의 도구화를 철저히 부정하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한 예술지상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각 작품들에 드러난 여성들의 다양한 삶－1)전통적 여성의 항거와 그들의 비극적 삶, 2)훼손된 세계와 하층민 여성들의 비극적 삶, 3)지식인 여성의 삶－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전통적 여성의 항거와 그들의 비극적 삶'에서는 郁達夫의 〈蔦蘿行〉(1923)과 金東仁의 〈배따라기〉(1921)·〈무능자의 아내〉(1930)를 비교하였는데, 송현호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여인들의 삶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말한다.[44]

둘째는 '훼손된 세계와 하층민 여성들의 비극적 삶'이다. 송현호는 이에 대한 작품으로 郁達夫의 〈春風沈醉的晩上〉(1923)·〈薄奠〉(1924)과 金東仁의 〈감자〉(1925)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모두 훼손된 세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 막다른 길은 불행뿐이다.

---

43) 송현호, 〈郁達夫와 金東仁의 소설 비교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1996), 7쪽.
44) 위의 논문, 19쪽 참조.

셋째는 '지식인 여성의 삶'이다. 유학파 지식인인 두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전통적 여성과 다른 지식인 여성들도 작품에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郁達夫의 〈過去〉(1927)·〈她是一個弱女子〉(1932)와 金東仁의 〈약한 자의 슬픔〉(1919)이 있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신문화를 접한 지식인 여성들이기는 했지만 이들이 겪는 비극적 삶 또한 비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송현호는 세 작품에서 드러난 지식인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말한다.

> 郁達夫와 金東仁의 지식인 여성들은 격동기의 열악한 상황하에서 비교적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남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도 한다. 그런데 郁達夫의 지식인 여성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기도 하고 파멸해 가기도 한다. 반면에 金東仁의 지식인 여성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가다가 현실에 패배하고 만다.[45]

송현호는 郁達夫와 金東仁이 그려낸 특정한 상황에 처한 특정한 여성들의 삶을 형식적 리얼리즘 소설론의 영향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두 작가가 자국의 문학사에서 소설의 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郁達夫와 金東仁과의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초보적 접근이 이루어진 새로운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보편성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⑤ 중국의 향토소설과 한국의 농민소설

이주노(2003)는 중국의 향토소설과 한국의 농민소설을 상호 비교하여 그 차이를 낳는 문학사의 흐름과 양국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 범위는 1920년대로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한국의 농민소설과 1920년대로부터 신중국 수립 이전까지의 중국의 향토소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1980년대 다시금 향토문학과 농민문학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

45) 주43)의 논문, 27~28쪽.

중국의 향토소설은 '周作人·魯迅'의 향토소설론과 '郁達夫·茅盾'의 향토소설론을 통해서 처음 제기되고 있는데, 문예이론가로서의 郁達夫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주노는 중국의 향토소설이 형성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한국 농민문학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비교분석을 가하였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양국의 향토문학과 농민문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문학사의 흐름에 대해 세밀히 분석하였다.[46]

하나의 주제 하에 생겨난 양국의 두 용어의 개념은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역사와 문학의 요구에 맞게 변화·발전해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개별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교분석이 주는 세밀함과는 별개로 문학의 범주와 개념에 대한 비교와 분석은 한·중 양국의 비교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 글이 갖는 의의 또한 커 보인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郁達夫와 한국 작가와의 비교연구는 한국 내 郁達夫 연구에서 아직까지 두드러진 연구분야라고 할 만한 연구의 폭을 형성한 것은 아니나, 점차 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4. 맺음말

郁達夫에 대한 한국 내 연구를 종합 고찰하면서 필자는 먼저 그의 소설과 비교문학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하지만 방대한 연구편수의 종합적인 수용에 어려움을 느꼈기에, 그 중 분석의 의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글들에 보다 중점을 두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접근이 자칫 필자의 문제의식에 따라 작의적이지는 않았는지 그 미진함을 돌아본다.

본고에서 살펴본 郁達夫의 소설과 비교문학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분야별·연도별로 그 연구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6) 이주노, 〈중국의 향토소설과 한국의 농민소설 비교연구〉, ≪중국인문과학≫ 26(2003).

분야	발표논문 수	발표연대		
		~80년대	90연대	2000년대 이후
소설 작품연구	28	5	15	8
비교문학	12		5	7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郁達夫에 대한 연구는 전체 분석대상 중에서 절반 이상이 소설 작품 연구와 비교문학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소설 작품연구는 90년대에 접어들어 대폭적인 연구량의 증가가 있은 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하향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어 확인되는 뚜렷한 변화는 바로 비교문학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심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주제를 벗어나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경향과도 有關하겠지만,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교문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뚜렷한 연구 성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연구 분야의 다변화는 郁達夫의 소설연구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말할 만하다.

<參考文獻>

1. 國內 學位論文

최경환, 〈郁達夫 〈沈淪〉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권민호, 〈郁達夫의 〈沈淪〉集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백운상, 〈郁達夫 사회소설의 연구 : 〈春風沈醉的晚上〉·〈薄奠〉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임대근, 〈郁達夫 소설의 갈등구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국어과 석사학위논문, 1995)

강지애, 〈郁達夫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 양상 연구 : 정신분석학설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사근, 〈郁達夫 문학과 李箱 문학의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이태복, 〈郁達夫와 廉想涉 소설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곽명주, 〈郁達夫의 「沈淪」에 나타난 自我意識 硏究〉,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방각, 〈1920-1930년대 한·중 인력거꾼 모티프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장혜, 〈郁達夫와 李箱 소설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이신동, 〈郁達夫與玄鎭健小說的比較硏究〉, (숭실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2. 國內 學術紙論文

서의영,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 ≪중국인문과학≫ 10(1991)
강경구, 〈郁達夫 〈沈淪〉 探索〉, ≪중국어문학≫ 19(1991)
강경구, 〈郁達夫 소설에 나타난 자연과 고향〉, ≪중국학≫ 8(1993)
박재범, 〈郭沫若, 郁達夫의 身邊小說과 일본의 私小說(1)〉, ≪중국어문논총≫ 8(1995)
이주노, 〈郁達夫의 〈沈淪〉과 아이덴티티 위기〉, ≪중국문학≫ 23(1995)
임대근, 〈郁達夫의 「春風沈醉的晩上」과 李箱의 「날개」: 소설 쓰기의 두 가지 방식〉, ≪중국현대문학≫ 10(1996)
송현호, 〈郁達夫와 金東仁의 소설 비교연구〉, ≪한·중인문학연구≫ 1(1996)
임대근, 〈郁達夫의 처녀작 〈銀灰色的死〉에 관한 小考〉, ≪이문논총≫ 18(1998)
강경구, 〈郁達夫와 李箱 소설의 비교연구〉, ≪중국어문학≫ 34(1999)
이시활, 〈중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고향과 자연 : 魯迅과 郁達夫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21(2001)

이주노, 〈중국의 향토소설과 한국의 농민소설 비교연구〉, ≪중국인문과학≫ 26(2003)
박자영, 〈국가의 경계선, 욕망의 임계점 : 위다푸 초기 소설에서 민족/국가와 리비도의 문제〉, ≪한국소설논총≫ 20(2004)
강경구, 〈郁達夫와 佐藤春夫의 私小說 비교연구〉, ≪중국학≫ 29(2007)
이태복, 〈郁達夫소설의 자연주의적 특성 : 서술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2008)
백영길, 〈郁達夫 소설의 낭만적 종교성 : 퇴폐와 참회의 갈등 구조〉, ≪중국어문논총≫ 47(2010)

<中文提要>

本稿乃以在韩国国内2011年以前所发表有关郁达夫的研究为对象，加以探究了韩国学者对郁达夫所进行的各种研究面貌。为此，以在其间韩国发行的各种学位论文、学术论文和专著为主要分析对象，进行研究和探索了韩国学者对郁达夫这一方面的不同观点, 以及他们与中国学者之间的异同。

本稿由于探讨的内容篇幅较长，先就探索了郁达夫〈沈沦〉、〈银灰色的死〉、〈春风沈醉的晚上〉等小说作品研究，及比较文学方面的研究倾向进行分析。郁达夫的小说在其文学作品体裁中最具代表性。在韩国国内对郁达夫小说的研究颇受关注，与此同时，也有一部分学者郁达夫与韩国作家作品的对比正在进行研究中。本稿除郁达夫小说研究外，亦探索了国内对其对比分析的内容。

本稿在结尾部分，还将韩国国内的郁达夫研究按体裁、年度分别进行分类，以体现此项研究的发展进程，分析和总结了至2011年为止的研究趋势。希望本稿能有助于对郁达夫的正确理解，成为一个今后有关郁达夫研究的有益资料。

关键词 ： 郁达夫, 小说, 〈沈沦〉, 〈银灰色的死〉, 比较文学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225~257

중국의 경상계정 불균형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거시경제적 함의

박재진*

〈목 차〉

1. 서 론
2. 경상계정 불균형의 변화추이
3. 2000년대 중반 이전 경상계정 불균형의 원인과 문제점
4.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상계정 불균형 완화의 원인
5. 결 론

1. 서 론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문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경제정책관련 논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되어왔다. 중국의 교역상대국들이 중국의 경직적 환율체제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환율정책 그 자체보다는 중국의 대외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실질적인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Krugman(2010)과 같은 학자들은 중국경제가 막대한 경상계정 흑자를 실현하는 동안 그 교역상대국들은 심각한 실업문제를 경험해야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2000년대 후반 미국의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압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1)]

이에 대해 대부분의 중국 경제학자들과 정부는 중국의 환율정책이 미국의 자산시장거품, 고실업률, 막대한 경상계정적자 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실제로 미국 제

*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e-mail: pakjaejin@gmail.com, tel: 051-320-1643

조업부문의 실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상계정 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중국의 경상수지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04년 이후부터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중국의 대외불균형(external imbalance)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상계정 흑자는 저소득국인 중국이 고소득국에게 자본을 수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중국의 대외계정 흑자가 커질수록 교역관계가 악화되어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시장에 유동성 과잉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지나치게 축적되는 것 또한 미국 달러가치의 조정국면에서 중국경제의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Yu 2007). 따라서 중국 스스로도 대외부문의 균형을 회복해야 할 동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국의 경상계정 불균형의 변화추이(current account imbalance)를 살펴보고 그 원인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책들과 그 결과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경상계정 흑자규모는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면 2007년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룬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세계경제위기와 중국의 불균형해소정책 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초반부터 2007년까지를 불균형 심화시기로, 2008년-현재까지를 불균형 완화시기로 구분하여 그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경상계정 불균형 심화의 원인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불균형 완화의 원인들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고는 우선 2장에서 중국의 경상계정 불균형의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중국의 경상계정 불균형의 원인에 관한 그간의 주장들을 거시경제균형방정식 $S-I=X-M$에 기초하여 재검토하고 4장에서는 불균형 완화의 원인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현재 중국정부가 당면

한 대외 불균형 관련 주요 논점들을 중심으로 향후의 전개방향에 관한 전망을 제시했다.

2. 경상계정 불균형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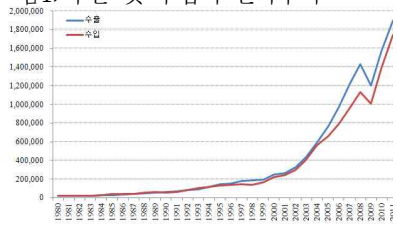
중국이 대외흑자(external surplus)를 시현한다는 것은 중국의 무역상대국이 대외적자(external deficit)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규모와 원인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본장에서는 <그림1>과 <그림2>는 1980-2011 기간의 경상계정 그 중에서도 경상계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외불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수준은 1990년대 들어서 점진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03-4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07년에는 최고치를 달성하여 GDP의 10%수준을 넘어섰으며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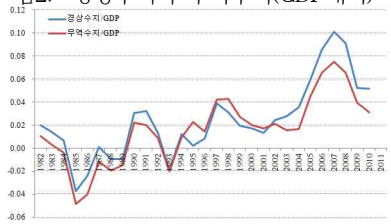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 등으로 구성되는데, 중국의 경우 경상수지의 85% 정도가 상품 및 서비스 수지로 이루어져 있고 서비스수지가 높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상품무역수지 흑자에 기인한다.

중국의 상품수출과 수입은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다 2000년대에 들어 증가세가 서서히 빨라지다가 특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수출의 증가율(연평균 29%)이 수입의 증가율(연평균 22%)을 크게 압도했으며, 무역수지는 2004년 320억 달러에서 2007년 3,150억 달러로 거의 10배 정도 증가해 그 절정을 이루었고 경상수지 흑자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2007년도 당시 상품무역수지 흑자수준만도 GDP의 7.5%에 달했다. 그 이후 전세계적 금융위기시기인 2008년에는 일시적으로 수출입 모두 급감했다가 2009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수출의 증가율보다는 수입의 증가율이 높아 무역수지 흑자폭이 위기 이전보다 완화되었으며 또한 경상수지 흑자폭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1](<그림1, 2>참고).

<그림1>수출 및 수입의 변화추이



<그림2> 경상수지와 무역수지(GDP대비)



통계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UNCTAD, UNCTADstat, ≪GDP by type of expenditure and Value Added by kind of economic activity≫annual, (1970-2010)

3. 2000년대 중반 이전 경상계정 불균형의 원인

1) 거시경제균형조건과 경상계정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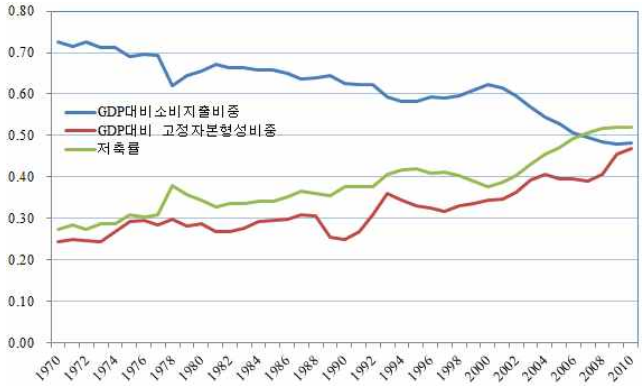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개방경제하의 국민경제균형조건은 항등식 S-I=X-M으로 표현된다(여기서 S=국내저축, I=투자, X=수출, M=수입을 의미함). S-I는 경제의 대내적 균형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X-M은 대외적 균형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S-I=X-M은 개방경제하에서의 균형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식은 경상수지 불균형은 국내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의미한다. 따라서 일국이 경상수지 불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S-I)와 (X-M)의 내생적 관계와 S, I, X, M의 변화를 야기하는 외생적 요인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대외불균형 또한 국민경제균형을 의미하는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외생적 변화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외생적 변화는 (S-I)나 (X-M)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경상계

1) 흑자비율이 낮아진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침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책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국내 경기부양정책에 기인한다. 무역수지 또는 경상수지 흑자 완화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루었다.

정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소위 구조 학파(structural school)는 이 등식의 좌변, 즉 저축과 투자와의 차이에 초점을 둔다. 이 학파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이유를 중국은 저축률이 높은 국가이고, 전적으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2]. <그림3>에 의하면 중국 지출구성요소 중 GDP대비 저축비중과 투자비중이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전체기간에 대해 저축이 투자를 압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GDP대비 저축비중은 1990년대 후반에 40%대에 접어들었고 2000년대 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했던 2007년에는 50%를 돌파했다. 2007년은 전체기간 중 저축비중과 투자비중의 격차가 가장 컸던 연도 중 하나인데다 저축비중이 소비비중의 넘어서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투자활동이 저축에 비해 저조한 데다 이러한 저축이 민간소비활동 또한 위축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림3> 중국의 지출구성의 변화추이



통계자료 : UNCTAD, UNCTADstat, ≪GDP by type of expenditure and Value Added by kind of economic activity≫annual, (1970-2010)

2) (S-I) 접근법 중 Bernanke(2005)의 과잉저축이론(saving glut theory)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주로 신흥국가)에서 투자에 비해 저축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세계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책학파(policy school)는 등식의 우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수출육성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당연히 저축이 투자를 상회한다고 설명한다.

정리하자면, 구조학파나 정책학파의 설명은 모두 논리적으로 근거를 지닌다[3]. 중국의 대외불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요인, 하나는 투자(I)대비 저축(S)의 외생적 증가라는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M)대비 수출(X)의 외생적 증가라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 두 요인의 내생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심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2) S-I의 외생적 변화요인[4]

(1) 중국의 사회복지체계의 후진성

1980년대 초반 중국이 경제체제 개혁을 실시한 후 경제·사회 방면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계획경제의 특색이 짙은 사회보장제도 즉 '단위보장제'를 벗어나 경제체제의 전환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혁 과정을 겪어왔다. 최근 30여 년간의 노력을 통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군인안치제도, 자선사업 등의 제도에서도 체제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식 사회보장체제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혁은 중국이 목표하고 있는 복지 모델에 비추어 봤을 때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주택,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고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높은 집값, 교육, 의료의 압박과 하강 및 실업의 위험에 직면하여 도시나 농촌에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생활난을 겪고 있다[5].

---

3) Yu Yongding,〈Rebalancing the Chinese Economy〉, ≪Occasional Paper Series≫11:03, (세계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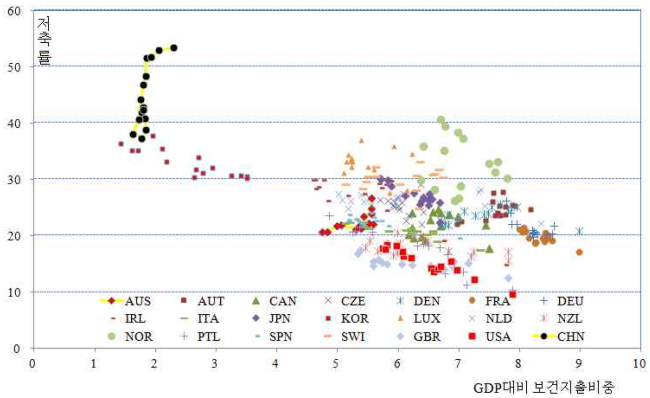
4) 중국의 저축률이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Ma Guonan과 Wang Yi는 중국의 저축률은 높기는 하지만 GDP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는 중국 기업저축은 기껏해야 일본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는 정도이고, 중국 가계저축은 인도의 가계저축보다 낮으며, 정부저축은 한국의 정부저축보다 낮다는 것이다.

5) 현재 중국은 5.5억 명에 해당하는 중국인의 45%가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죠셉왕,〈미래를 위한 투자-합리적 복지제도의 설

게다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 등 거시적 전략들이 마련된 후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업개혁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 기업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경쟁체제에 직면하고 있을 때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완화했으며 이로 인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하강(下崗) 및 실업 등 사회문제가 생산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자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가속화했다. 이처럼 사회보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구제적 조치'가 되었으며, 선진국과 같이 적극적인 예방적 성격이 여전히 미흡했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제도가 '파편화(fragmented)' 되어있다는 것이다. '파편화'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서로 다른 계층에 따라 상이한 제도가 수립되었다. 예를 들면, 수천만 명에 이르는 퇴직자가 서로 다른 양로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그 급여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양로보험금 급여 수준이 불공평에 노출되어 있었다[6].

<그림4> GDP대비 보건지출비중과 중국의 저축률



통계자료 : World Bank,≪Development Indicators & Global Development Finance≫

계〉, ≪글로벌코리아≫, (2012)

6) 김병철,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성과와 평가〉,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2월), pp.121~127.

<그림3>은 사회안전망의 대표적 지표 중 하나인 보건관련 정부지출과 저축률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중국의 GDP대비 보건지출비중과 저축률만으로는 보건지출과 저축률 사이의 부(-)의 관계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전세계의 주요국가들의 관련지표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보건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즉 사회안전망이 견고할수록 저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7]. 중국의 경우 왼쪽 상단에 좌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하여 사회전체의 저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미한 사회안전망과 취약한 복지제도가 미래에 대한 가계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높은 저축성향을 초래하게 한다는 것이다.

(2) 인구분포의 변화와 인구배당

1970년대 이후 줄곧 1가구 1자녀 가족계획정책을 유지해왔다. 그 이후 30여년에 걸쳐 유년부양비율(youth dependency ratio)[8]이 급격히 하락하여 소위 인구배당(population dividend)효과[9]가 발생했다.

인구배당기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부양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높은 저축률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림5>는 중국 저축률과 부양비율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는 부양비율이 낮아질수록 저축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구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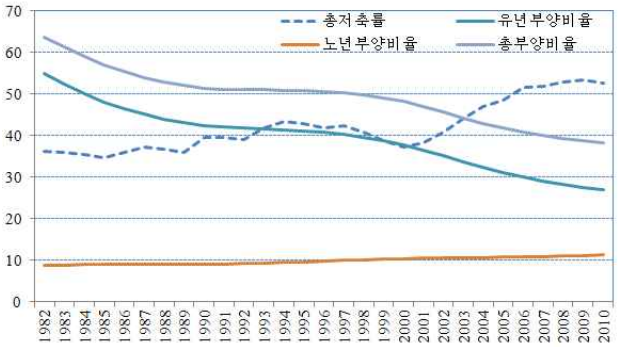
7) <그림4>는 평균적으로 고소득을 실현하는 선진 20개국과 중국의 저축률과 보거지출비중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8)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유년층인구(0~14세)와 노년층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부양비를 말한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15~64세 인구에 대한 0~14세 인구의 백분비를 유년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 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비를 노년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라고 한다.

9) 부양이 필요한 유년인구(0~14세)가 줄어들어 총부양비율, 즉 생산가능인구 대비 피부양인구(유년인구+노인인구)의 비율이 하락함으로 인한 인구구조상의 성장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인구홍리(人口紅利)라 표현한다. 유년인구가 생산가능인구로 성장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층이 차차 노인인구로 변해감에 따라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어 총부양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저출산 추세가 나타난 뒤 이처럼 상황이 역전되기까지는 보통 30~4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기간을 '인구배당시기'라고 한다. 이철용, 〈중국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시사점〉, ≪LG Business Insight≫, (2011)를 참고.

특히 부양비율이 하락추세가 가장 완만하거나 또는 정체되어 있는 시기인 90년대 중반에는 저축률 또한 정체되거나 하락했고 이후 다시 부양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저축률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구분포와 인구배당이 저축률과 의미있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5> 중국의 저축률과 부양비율(%)



통계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d Global Development Finance≫

낮은 인구부양비율은 또한 노동에 대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집약적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고속성장 시기인 1970~1995년 경제성장에 대한 인구배당의 기여율이 35~50%에 달했으며, 중국의 경우 1982~2000년에 인구배당 1인당 GDP 증가에 27% 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유년부양비율이 20%가량 하락함으로써 중국의 순대외자산이 GDP의 90% 수준까지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a and Zhou 2009).

(3) 비대칭적 시장자유화와 요소비용 왜곡

지난 30여년간의 개혁과정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시장메카니즘을 재도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장지향적 개혁과정은 비대칭적으로

전개되었다. 재화시장은 거의 완전하게 자유화되었고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노동풍부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생산 효율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Lin et al 1995).

반면 요소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노동시장에서는 호구제도가 중국내 노동이동성을 저해했다.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심각하다.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항구적으로 거주할 수 없으며 도시의 사회복지제도로부터도 배제되었다. 이러한 차별은 농민공들의 임금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본시장도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금융억압정책은 국가의 은행소유, 금리규제 및 국유기업에 대한 차별적 신용배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등의 중국 4대 국유상업은행은 은행산업에서 거의 독점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정책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다.

금리규제는 우선적 성장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가격을 왜곡시키는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가들이 흔히 직면하는 경제여건은 풍부한 노동력에 비해 부족한 자본과 이에 따른 높은 시장금리이다. 따라서 우선적 성장부문이 막대한 자본투입을 요구하는 중공업부문이라면 자본비용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위적 왜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리규제는 필연적으로 신용할당을 수반한다. 금리상한선이 시장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어 자금초과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정책당국은 제한된 금융자원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중국에서 신용배분의 우선적 대상은 주로 중공업부문을 담당하는 대·중형 국유기업들이다. 이들은 비록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도대로 투자를 실행한다. 은행의 상업적 의사결정이 배제된 채, 정부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거나 국유기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배분된 신용은 정책금융(policy-directed loans)이라 일컬어지는데, 이에 대한 규모는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10].

---

10) 박찬일, 〈중국의 내생적 금융개혁〉, ≪규제연구≫12:2, (2003)

이러한 정책들은 자본유입보다는 자본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정책와 더불어 자본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저평가된 통화가치도 자본비용을 왜곡시키는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왜곡현상들은 모두 요소비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11]. Huang and Tao(2010)의 연구에 의하면 2000-2009 기간 동안의 자본비용왜곡의 크기는 GDP의 3-4%에 달했다. 그리고 노동비용의 경우 도시노동자의 임금상승율에 비해 농민공의 임금상승률이 훨씬 낮아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정도가 심화되었으며 토지와 에너지 비용의 왜곡현상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증가추세를 보였다.

요소비용에 있어서의 이러한 왜곡은 생산자에게는 보조금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생산자들은 왜곡된 요소비용을 이용해 이윤을 증가시키고 투자수익률을 높이며 수출재의 국제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가계의 소득상승은 상대적으로 억제된다. 요소비용 왜곡은 지난 10년간 중국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포인트 이상 떨어트림으로써 GDP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을 저하시키고 저축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했으며 나아가서는 대외불균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3) X-M의 외생적 변화요인

(1) WTO가입 및 수출입의 불균형 개방과 가공무역구조

중국은 2001년 말에 WTO의 정식회원이 되었고 그 덕분에 세계시장과의 통합정도가 크게 심화되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가입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12].

---

11) 이외에도 정부소유 또는 농촌지역의 집단소유의 토지사용료, 에너지나 기타 자원가격, 용수 가스 전기사용료, 농산물 가격 등도 정부의 주요 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12) 분야별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양평섭외 1인,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07:04, (2007)을 참고.

하지만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의 수출입 양방향의 무역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중국이 WTO 주요 회원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GATT 원회원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비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대신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시장경제로 분류될 경우 기존 WTO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해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원칙의 적용을 일시 유보하거나 한시적으로 세이프가드(safeguard)조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세계시장접근성에 저해되고 나아가서는 중국 국내의 시장가격이 정상가격으로 판정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시장경제지위 획득이 세계시장접근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었지만, 결국 통상법규와 정책이행의 투명성 결여, 불공정한 무역관행, 차별적 행정규제 등을 이유로 비시장경제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중국의 WTO가입 후 12-15 년간 일정한 조건 아래 중국에 대해 MFN원칙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개도국 지위 또한 가입 이후의 무역개방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관건이었기 때문에 가입협상과정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의 회원국들이 중국의 총 GDP 규모와 對세계 교역규모,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가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통상질서의 교란 등을 우려하여 반대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999 년 11월 베이징 합의에서 중국의 개도국의 지위를 합의함으로써 무역장벽 철폐 및 통상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이행기간을 개도국 수준으로 보장 받았다[13].

정리하면 중국의 WTO가입조건으로 볼 때, 비시장경제지위에도 불구하고 가입과 더불어 세계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은 크게 높아졌음에 반해 국내시장개방은 개도국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가입 직후에는 수입증가율보다는 수출증가율이 높아 대폭적인 무역수지흑자증가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은 해외직접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제조업

13) 정인교,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분야의 일부 산업의 공급사슬을 중국으로 유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미국이나 유럽 등의 여타 선진국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가공조립형 무역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흑자를 달성하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실현하는 구조를 낳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공조립을 위한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입을 대체하여 수입성장률을 낮추면서 수출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Corden 2009).

(2) 국제시장에서의 상대적 노동비용

요소시장 특히 노동시장의 왜곡은 국내적으로는 가계소득을 낮추어 중국 소비의 GDP비중을 낮게 형성시키고 저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제조부문의 비교우위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신발, 의류, 완구, 운동용품 등의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이 중국 제조업 수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노동집약재의 수출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연평균 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다소의 구조적 차이를 수반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단순한 노동집약재가 주요 수출품목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좀 더 정교한 공산품과 기계 및 수송장비 등이 주요한 수출품목으로 등장한 것이다.

물론 기계 및 수송장비 수출의 증가는 기술이나 자본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지만, Athukorala(2009)에 의하면 중국은 단순히 기계와 수송장비의 조립중심지일 뿐이었으며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는 전체 생산과정 중에서 가장 노동집약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제특화체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노동집약적 최종조립단계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Sung(2007)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기업 자회사에 의한 저부가가치공정 또한 중국의 수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수입된 중간재를 가공처리한 최종재의 수출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에 44%에 달했다. 중국 공산품 수출의 거의 절반정도가 가공무역의 범주

에 있었고 저렴한 노동비용은 여전히 중국 무역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1> 제조업부문 시간당 임금(US$), 2002년과 2007년

	중국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동유럽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2002	0.6	2.6	2.5	0.7	3.6	0.6	0.5	0.9	1.5
2007	1.0	6.0	2.9	1.1	7.3	1.7	0.6	1.8	-

자료 : Department of Labor, United States,(2009); China NBS,(2008);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표1>는 2002년과 2007년의 중국 제조업 부문 시간당 임금을 주요 경쟁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중국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US$1로 스리랑카를 제외한다면 여타 수출경쟁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3) 초과설비

중국 기업부문은 자본의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기 특정산업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초과설비를 안고 있었다. 주로 국영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중공업부문이 이에 해당한다. <표2>에 의하면 철강, 알루미늄 등의 산업부문에서는 조업률이 75%이하에 머물고 있었다. 철강산업을 예로 든다면 2005년 철강 산출량은 3억 5천만 톤인데 당시 초과설비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은 1억 2천만톤으로 세계 제2위의 철강생산국이었던 일본의 산출량 1억 13백만톤을 웃돌고 있었다. 게다가 7천만 정도의 생산설비가 건설 중이었다.

<표2> 주요 산업별 초과생산능력, 2005(단위 : 백만톤)

	생산능력	생산량	초과 생산능력	신규건설	가동률(%)
철강	470	350	120	70	75
알루미늄	10.3	7.0	3.3	-	68
합금철	22.1	12.0	10.1	2.8	54
칼슘카바이드	10.4	6.0	4.4	12.0	58
컨테이너	4.5	2.4	2.1	1.3	53

자료 : China's overcapacity in thirteen industries〉 ,≪China Economic Weekly Journal≫2006:6, (2006)에서 인용

초과설비는 중국 순수출이 2004년 이후 급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초과설비는 중국이 세계시장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했다. 여분의 생산능력이 없었다면 중국의 수출이 국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Anderson(2007)에 따르면 순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산업은 알루미늄, 기계도구, 시멘트, 주요 화학제품, 철강 및 철강제품 등과 같은 중공업 부문이었고, 이러한 산업들은 <표2>에 제시되어 있는 초과설비가 많은 주요산업부문들이었다. 둘째, 초과생산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가생산을 통해 평균비용곡선을 하향이동시킬 수 있으며 가격인하를 통해 상대적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6년 중국의 철강수출이 급증하고 국제철강가격이 상승할 때에도 국내 가격은 2005년보다 10%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셋째, 순수출의 증가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대체부문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공업분야의 초과설비로 인해 기업들이 수출용 생산에 이용되는 중간재의 해외원천을 국내의 저렴한 공급원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4) 위안화 가치의 저평가

환율왜곡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위안화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Goldstein and Lardy 2009). 재화의 탄력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평가된 통화는 수출에 유리하고 수입에 불리하기 때문에 경상계정 흑자를 초래하는 한 이유로 충분하다.

<그림6> 중국 위안화 명목, 실질, 실질실효환율의 변화추이(2010=100)



통계자료 :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BIS effective exchange rate indices≫, (2012)

<그림 6>은 중국의 위안화의 대달러 가치와 실질실효환율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실효환율은 2002년 1월 전후쯤에 2010년과 비슷한 수준 즉 100에 도달했고 그 이후 2005년 1월경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 1월에 비해 20%가량 저평가되었다[14]. 대달러 가치 또한 90년

14) 위안화가 어느 정도 저평가되었는지는 균형환율의 측정방법이 추정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Goldstein and Lardy(2006)은 균형환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초수지접근방법(underlying balance approach)"를 이용했는데, 이 접근방법은 기본적인 경상계정(underlying current account)이 정상적인 자본흐름(normal capital flow)과 일치하도록 하는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환율, 즉 무역가중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trade-weighted exchange rate)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1992~2002 기간의 GDP대비 평균적인 자본계정흑자(RMB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를 정상적인 순자본흐름이라고 했을 때 2005년의 균형을 회복하려면 RMB가 20~40% 절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line and Williamson(2008)은 18개의 기존연구결과들을 종합검토함으로써 2000년대 중국의 균형환율을 추정했다. 18개의 연구들에 있어서 이용된 자료와 방법론에 따라서 결론에

대 후반 이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2004~2007년의 시기는 위안화의 대달러 가치와 실질실효환율이 모두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4년의 대달러 가치와 실질실효환율은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고 2007년까지 상승추이를 유지했지만 여전히 1996년 보다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달러 가치 또한 2007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가 되어서야 급격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경제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평균 9%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고 대외교역규모를 꾸준히 성장시켜 온 것을 감안한다면 위안화의 가치가 중국의 경제적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환율 덕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상계정 불균형 완화의 원인

1) S-I의 외생적 변화요인

(1)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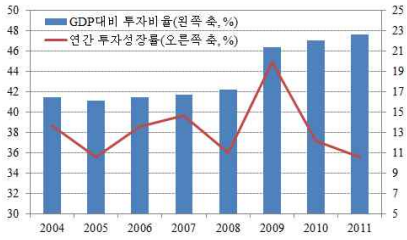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도래하자 중국은 즉각적이고도 확고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여 국내수요를 촉진하고 해외수요 급감으로 인한 충격을 상쇄하려 했다. 2008년 11월 9일에 도입된 경기부양정책은 인프라 확충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철도·도로·가스수송관 건설·사천지진 피해복구 등 주요 인프라 시설과 주택 건설에 약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지만 18개 연구의 RMB 가치상승 추정치들을 단순평균만 하더라도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19% 정도 상승해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추정결과들은 RMB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2000-4 기간 중에는 평균적으로 17%의 가치상승이 요구되었고, 2005-7년 기간 중에는 평균적으로 26%의 가치상승이 이루어져야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7%에 해당하는 약 3.5조 위안의 자금을 2008년 4분기부터 2010년까지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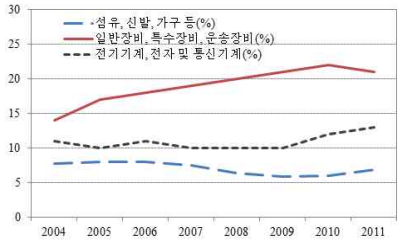
경기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중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2008년 9월 이후 2009년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7.47%→5.31%)하고 지급준비율을 네 차례 인하(17.5%→13.5%)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한 분기별 대출한도 규제 중단, 금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 기업지원확대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의 투자지출을 종전 GDP 대비 42%에서 47%로 크게 증가시켰으며(<그림7>, <그림8>), 나아가서는 주택건설,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한 원자재 수입을 유발함으로써 대외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16].

<그림7> 중국의 투자지출 변화추이



통계:IMF,≪World Economic Outlook≫, (2012)

<그림8> 주요 산업부문별 투자지출비율



통계:IMF,≪World Economic Outlook≫, (2012)

(2) 농가 구매력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조치의 일환으로 농촌구매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2월 1일부터 가전하향(家电下乡)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15) 오대원, 〈중국의 내수확대정책과 노동시장 개혁의 효과〉, ≪對外經濟硏究≫13:2, (2009)

16) 이에 대해서는 4장의 2)절 (2)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가전하향정책은 가전하향(家电下乡), 절능혜민(节能惠民), 이구환신(以旧换新)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전하향은 농촌지역의 가전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전제품 구매 시 판매가의 13%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절능혜민은 에너지등급 1등급과 2등급 이상의 10개 품목 중 고효율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이구환신은 도시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형 가전제품 교체 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17].

중국은 이러한 내수 확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외 투자 유치에 의존하던 중국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도시시장 포화로 인해 과잉공급된 가전제품이 해외시장에 지나치게 저렴하게 수출되면서 야기되는 통상마찰을 완화하며, 가전제품 소비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지방정부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발급, 주택구매 세금 감면을 실시해 소비활성화를 도모했다[18].

금융위기 발발 이후 가전하향, 이구환신, 절능혜민 등 소비확대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대책들은 직접적인 구매보조금 지급 방식이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 유인효과를 낳지는 못하지만 정책 시행 초기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정책들이 지속되는 기간동안에는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중국의 대외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

17) 이철용,〈수출에서 내수로, 이제 소비로-2012년은 중국 소비주도 성장의 원년〉, ≪LG Business Insigh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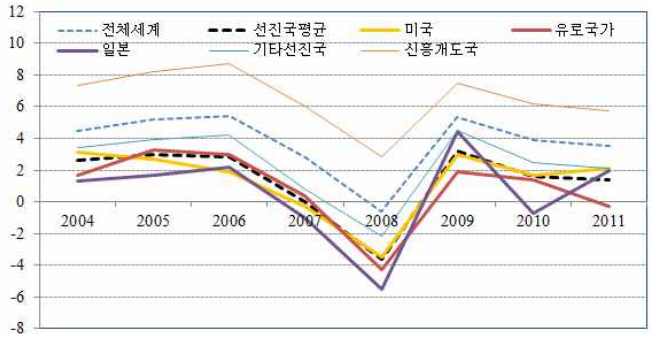
18) 항저우(杭州)시 정부는 2009년 1월 퇴직근로자, 빈곤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2억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급했으며 4월에는 6억 위안을 추가로 편성하여 소비쿠폰을 추가 발급했다. 충칭(重庆), 창샤(长沙), 하얼빈(哈尔濱)도 지방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 소비확대를 위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대대적으로 발급해 소비를 지원했으며, 선양(沈阳)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중고주택 거래시 부과되는 영업세, 인화세, 교육비부가세, 도시보수건설세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세금감면책을 통해 중고주택 거래활성화를 도모했다. KOTRA,〈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 2,3선 도시 소비 트렌드〉, ≪Global Business Report ≫09:009, (2009)참고.

2) X-M의 외생적 변화요인

(1)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

2008년 이후 세계경제침체로 인해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이전의 부채(leverage)에 기반한 과잉소비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IMF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의 GDP잠재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2001~2007년 기간의 평균 3%에서 위기 이후 2012~2017년 기간에 평균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유로지역도 이와 유사하게 1.8%에서 1%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위기발발 시기인 2008년에는 신흥개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달성했다. 즉,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수요가 위축되어 중국의 수출성과가 위기 이전보다 크게 하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림9> 주요국가의 GDP성장률 추이



통계:IMF,≪World Economic Outlook≫, (2012)

위기 직후인 2009년 수출입 증가율이 각각 -16%와 -11%를 기록한 점은 이러한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며 중국의 경우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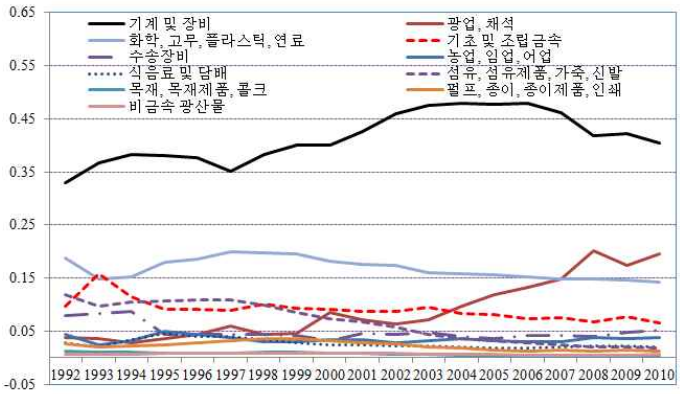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시장경쟁력은

여전히 높아 위기로부터 다소의 회복을 보이던 2010년 이후에는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급속한 회복세를 나타냈는데, 그나마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폭을 완화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 후 수입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기초재화(primary goods) 수입, 그 중에서도 원자재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당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도입한 경기부양정책과 중국무역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2) 원자재 수입증가와 가공무역구조의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자본투자증가의 부산물 중 하나는 상품시장(commodity market)에서의 기초재화나 원자재의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금융위기 당시 이를 극복하기 위해 4조 위안 규모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건설,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한 원자재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수요증가는 우선 금속부문에서 발생했고 이어 기계 및 에너지관련 제품의 수입을 증가시켰다.

<그림10> 중국 수입의 산업구성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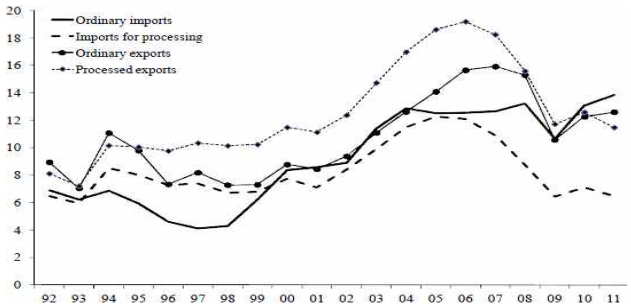


통계 : OECD, ≪STAN Bilateral Trade Database by Industry and End-use category≫, http://stats.oecd.org

한편, 가공무역은 중국의 빠른 수출증가에 도움이 되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통상마찰의 빌미가 되는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 중국정부는 산업고도화를 유도하고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가공무역 장려정책을 다시 철회함으로써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5.6%에서 2011년 45.5%로 감소했다. 즉, 중국의 가공무역구조는 수입이 유출을 유발하는 구조여서 외생적 변화요인이 무역수지 흑자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가공무역 장려정책 철회조치로 인해 가공무역의 규모가 줄어들고 따라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의해 유발되는 수출증가가 줄어들어 과거에 비해 무역수지 흑자수준 조정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그림11>은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과 가공무역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무역수지 변동은 가공무역수지가 주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의 무역수지가 실현되었던 2007년만 보더라도 가공무역수지가 일반적인 무역수지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하지만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부터는 가공무역용 수입과 가공재화 수출이 모두 급격하게 하락하여 2000년대 초반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완화에 있어 가공무역구조의 축소가 기여하는 바를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림11> 중국의 가공무역 수지(GDP비중)



자료 : Françoise Lemoine & Deniz Ünal,〈Scanning the Ups and Downs of China's Trade Imbalances〉, ≪CEPII≫WP No.2012-14, (2012)(통계: China Statistical Yearbooks and Customs Statistics)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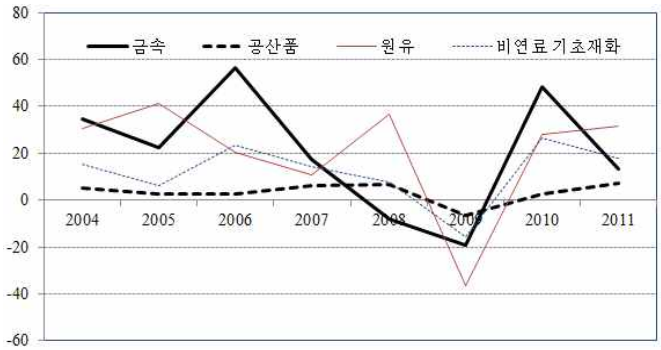
(3) 세계시장에서의 중국의 교역조건 악화

기초재화와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상품 및 원자재 시장의 변화를 초래했던 것도 중국의 대외불균형 완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중국의 상품 및 광물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시현하는데 반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어서 해당 제품의 세계시장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예를 들면, 2008년 말 평균배럴 당 40달러 수준이었던 대표 3종 원유가격은 신흥국의 수요확대와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배럴당 11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2009년도와 비교할 때 여타 기초재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률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원유와 비연료 기초재화 가격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거의 30%가량 상승했고 금속의 경우는 상승률이 50%에 육박한다.

반면 중국의 수출은 기계 및 장비사업에 편중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서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위기 직후에는 가격하락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2010년 이후에는 가격도 다소의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그 변화폭은 미미하고 특히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기초재화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2009년을 제외하면 중국의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일본이나 신흥공업국 등과 같은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을 채택한 국가들이 과거 성장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교역조건의 악화를 경험했다. 중국의 경우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이미 가격수용자적 입장을 넘어섰기 때문에 수출 및 수입시장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자신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중국의 대외흑자를 완화시키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림12> 국제 상품가격 변화추이



통계:IMF,≪World Economic Outlook≫, (2012)

(4) 위안화 가치 상승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위안화의 명목환율(대달러 위안화 환율)은 대략 15.93% 하락했고 명목실효환율은 16%, 실질실효환율은 19%가량 상승했다. 특히 명목실효환율이나 실질실효환율의 경우 대부분의 위안가치인상은 2008년도에 실현되었다.

<표3> 위안화 가치상승률

	명목환율 변화율	명목실효환율 변화율	실질실효환율 변화율
2007.12-2008.12	6.88%	17.64%	16.21%
2007.12-2011.12	15.93%	15.93%	18.98%

통계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UNCTAD, UNCTADstat, ≪GDP by type of expenditure and Value Added by kind of economic activity, annual≫, (1970~2010)

IMF의 추정에 의하면 중국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수출의 탄력성은 -0.30, 수입의 탄력성은 0.42였고, 이는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1%상승하면 수출은 0.3% 줄어들고 수입은 0.42% 증가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경상수지의 탄력성 추정계수도 -1.3과 -2.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19][20].

5. 결 론

1) 대내외 불균형의 심화 및 완화의 원인

2000년대 들어 글로벌불균형(Global Imbalance),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불안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대표적인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7년에 GDP의 10.1%까지 확대되었다가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0년도에는 5.1% 2011년도에는 2.8% 수준으로 축소되어 대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균형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균형이 심화되던 시기의 불균형 원인들과 이후 불균형이 완화되던 시기의 원인들을 S-I 변동요인과 X-M 변동요인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

19) Ashvin Ahuja, et.al., 〈An End To China's Imbalances?〉 ,≪IMF Working Paper≫, (2012)

20) 물론 위안화의 가치상승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Qiao(2007)는 중국이 대규모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RMB의 가치상승은 부(-)의 부효과(negative weath effect)를 가져오는데 이는 수입재를 포함한 국내지출을 줄이게 하여 무역수지흑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통화는 PBOC 및 비민간기업에 의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효과는 부가 감소할 때 정부의 반응정도에 결정된다. 즉 정부정책에 따라 위안화 가치상승의 무역흑자 감소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McKinnon and Schnabl(2009) 또한 경상수지 (X-M) 흑자 감소가 S와 I에 미치는 간접효과로 인해 위안화 가치상승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RMB의 가치상승은 중국을 고비용의 생산입지로 만들기 때문에 투자가 저하되고 따라서 다른 조건이 불변인 한 (S-I)가 상승하여 초기의 (X-M)의 하락효과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위안화 가치 상승의 일차적 효과는 흑자감소로 나타나고 그것이 (S-I)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상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상승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정리할 수 있다.

<표4> 대내외 불균형 요인

	S-I		X-M	
2007년 이전 불균형 심화시기	·인구배당 ·사회복지기반 ·요소시장왜곡		·불균형개방 ·가공무역구조 ·저임비교우위 ·초과설비 ·위안화저평가	
2008년 이후 불균형 완화시기	·임금상승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투자 및 소비확장	·임금상승 ·가공무역축소 ·무역구성변화 ·위안화절상	·해외수요감소 ·교역조건악화

우선 2007년 중국의 최대의 흑자를 실현했던 시기까지의 불균형 심화는 인구배당, 사회안전망의 취약, 요소시장왜곡 등의 요인들이 대내적으로 저축률을 상승시키고 소비를 억제하게 함으로써 그 원인으로 작용했고 수출입의 불균형 개방, 저임금에 기초한 비교우위구조, 가공무역구조, 초과설비, 위안화 저평가 등의 요인들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수입보다 수출의 성장률을 높임으로써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후의 불균형 완화시기에는 세계경제의 위축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도입한 즉각적이고도 확고한 경기부양책을 S-I의 외생적 변화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도입한 경기부양 수단으로는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사업, 지진 등 자연재해 복구사업, 임대형 주택 건설 등 주거안정사업, 농촌 기반시설 확대사업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증대와 농산물 수매가격 인상, 농가 소비보조금 확대 등과 같은 소득지원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X-M항의 축소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등의 경기회복이 지연된 데 해외수요의 감소, 중국의 대내적 확장정책에 기인하는 원자재 수입증가와 수출입 구성품목의 변화에 따른 세계시장에서의 중국의 교역조건 악화, 가공무역 제한 정책, 위안화 가치 상승 등이 원인들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표4>에 정리된 요인 이외에도 경상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저축과 투자를 변동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S-I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한 나라의 금융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X-M의 한 나라의 정치적 외교관계 등 비무역관련 협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 채결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등의 인접국가들과 쌍방의 통화를 달러대신에 국제결제통화로 채택하기로 하는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정들은 해당국가의 거리적 요인을 축소함으로써 무역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외불균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것들을 대내적 균형요인들과 대외적 균형요인들로 체계화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대외불균형에 관한 실증분석이 연구목적이라면 경상계정불균형과 본 연구에서 다룬 잠재적 원인들간의 타당한 관계추정을 위해서 여타의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이상의 대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중국의 대외불균형이 상당한 수준까지 완화되었다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세계경제 위기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등의 경기회복이 지연된 데 따르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중국 대외불균형 완화의 구조적 측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표4>의 불균형 심화와 완화의 원인들을 비교해보면 우선 불균형 심화의 S-I 변화요인들, 즉 사회안전망의 취약성, 인구배당, 임금상승을 제외한 여타 요소시장의 왜곡현상은 불균형 완화시기에도 여전히 경제의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불균형 완화의 주요한 동인은 정부의 단기적인 확장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소

비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2>에서와 같이 국민소득 계정 항등관계에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여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GDP성장과 대외불균형 완화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는 있지만[21] 저축률 또한 비례적으로 상승하여 여전히 저축률과 투자율간의 격차가 존재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저축률 자체의 성장은 소비지출 비중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균형 완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규모 자체의 축소만으로는 중국경제의 균형회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높은 저축성향 및 투자 중심의 내수 증대, 환율 통제 등은 장래에도 중국경제 내수활성화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것은 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해외시장에서의 성과 등의 요인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세계경제환경으로 볼 때 해외시장에서 성장견인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내수시장의 성장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높은 저축성향은 소비를 억제시키고, 환율통제는 중국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내수시장기반 성장정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경제의 대외균형회복에 있어서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저축률과 경직적 환율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그리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중국의 저축성향은 미미한 사회안전망 및 취약한 복지제도, 1자녀 가족계획 산아제한정책, 인구의 연령구조 등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거나 사회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어서 접근상의 신중성이 요구되는 정책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안화 가치인상을 통한 가계소득의 구매력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복잡한 부대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지나친 위안화 가치상승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수출부문의 직업손실을 야기하여 사회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22] 다른 조건이 불변인 한 (S-I)를 증가시킬 수

---

21) 2011년 기준 중국의 GDP대비 투자비중은 48.3%를 기록했다. 선진국들의 평균 투자비중이 18.6%, 세계 신흥국 평균 31.8%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어서 오히려 경제의 투자의존도를 완화해야 할 상황이다.

22) 물론 수입대체산업에서의 성장과 직업창출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도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경제가 외형적인 수준의 대외불균형 완화를 넘어 구조적인 차원에서 균형을 회복하려면 저축률 및 소비와 관련된 구조개혁을 지속해나가고 균형적 대외경제정책을 달성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들은 결국 중국의 대외불균형 해소방향을 현재의 투자의존적(investment-driven) 정책기조에서 소비의존형(investment-driven) 정책기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시행된 제12차 경제 5개년 계획[23]에도 이러한 점이 잘 반영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병철,〈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성과와 평가〉,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2월)

박래정,〈중국 노동시장의 변화〉, ≪Business Insight≫. (LGERI, 2008)

박찬일,〈중국의 내생적 금융개혁〉, ≪규제연구≫12:2, (2003)

양평섭외 1인,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자료≫07:04, (2007)

오대원,〈중국의 내수확대정책과 노동시장 개혁의 효과〉, ≪對外經濟研究≫13:2, (2009)

이철용,〈수출에서 내수로, 이제 소비로-2012년은 중국 소비주도 성장의 원년〉, ≪LG Business Insight≫, (2012)

이철용,〈중국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시사점〉, ≪LG Business Insight≫, (2011)

정인교,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죠셉왕, 〈미래를 위한 투자-합리적 복지제도의 설계〉, ≪글로벌코리아≫, (2012)

한국은행, 〈중국의 대규모 경기대책 추진의 영향과 문제점〉, ≪해외경

23) 12.5 규획은 내수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소득 재분배 강화 등 중국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포커스≫2009:10, (200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KOTRA, 〈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 2,3선 도시 소비 트렌드〉, ≪Global Business Report ≫09:009, (2009)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 (2000-2011)
Anderson, Jonathan, 〈Is China Export-led?〉, (UBS Investment Research, http://www.allroadsleadtochina.com/reports/prc_270907.pdf, (2007)
Ashvin Ahuja, et.al., 〈An End To China's Imbalances?〉, ≪IMF Working Paper≫, (2012)
Athukorala, P., 〈The Rise of China and East Asian Export Performance: Is the Crowding Out Fear Warranted?〉, ≪The World Economy≫32, (2009)
Aziz, Jahangir and Li Cui, 〈Explaining China's Low Consumption: The Neglected Role of Household Income〉, ≪IMF Working Papers≫07:181, (2007)
Bai, Chong-en, Chang-Tai Hsieh and Yingyi Qian, 〈The Return to Capital in China〉,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61-88, (2006)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effective exchange rate indices≫, (2012)
Bernanke, B. S., 〈The Global Saving Glut and the US Current Account Deficit〉, (Federal Reserve Board, 2005).
Chamon, Marcos and Eswan Prasad, 〈Why Are Savings Rates of Urban Households Rising?〉, ≪NBER Working Paper≫No. 14546, (2008.12)
Cline, W. R. & Williamson, J., 〈New Estimates of FEERs〉, ≪Policy Brief≫08:7,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8)
Françoise Lemoine & Deniz Ünal, 〈Scanning the Ups and Downs of China's Trade Imbalances〉, ≪CEPII≫WP No.2012-14, (2012)

Goldstein, Morris and Nicholas Lardy, 〈China's Exchange Rate Policy Dilemma〉, ≪American Economic Review≫96:2, (2006)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
Makin, Tony J., 〈Does China's Huge External Surplus Imply An Undervalued Renminbi?〉, ≪China & World Economy≫15:3, (2007)
McKinnon, Ronald and Gunther Schnabl, 〈The Case for Stabilizing China's Exchange Rate: Setting the Stage for Fiscal Expansio n〉, ≪China and the World Economy≫17:1, (2009)
Modigliani, Franco and Shi Cao, 〈The Chinese Saving Puzzle and the Life-cycle Hypothesi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2:1, (2004)
Qiao, Hong, 〈Exchange Rates and Trade Balances under the Dollar Standard〉, ≪Journal of Policy Modeling≫29:5(2007)
Rumbaugh, Thomas and Nicolas Blancher, 〈China: International Trade and WTO Accession〉, ≪IMF Working Paper≫04:3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4)
Sung, Yun-Wing, 〈Made in China: From World Sweatshop to a Global manufacturing Centre?〉, ≪Asian Economic Papers≫6:3, (2007)
Wang, Yajie, Xiaofeng Hui and Abdol S. Soofi, 〈Estimating Renminbi Equilibrium Exchange Rate〉, ≪Journal of Policy Modelling≫ 29:3, (2007)
Wang, Yongzhong, 〈Effectiveness of Capital Controls and Sterilization in China〉, ≪China and the World Economy≫18:3, (2010)
Wei, Shang-Jin and Xiaobo Zhang, 〈The Competitive Saving Motive: Evidence from Rising Sex Ratios and Savings Rates in China〉, ≪NBER Working Paper≫No.15093, (2009)
WTO, ≪WTO Anti-Dumping Statistics≫, (2012,)
Yao, Shujie, 〈On Economic Growth, FDI and Exports in China〉, ≪

Applied Economics≫38:3, (2006)
Yu Yongding, 〈Rebalancing the Chinese Economy〉, ≪Occasional Paper Series≫11:03, (세계경제연구원·한국무역협회, 2011)
Yu, Yongding, 〈The New Challenges of Inflation and External Imbalances Facing China〉, ≪Asian Economic Papers≫2:7, (2008)

<ABSTRACT>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na's Imbalances in Current Account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In recent years China has experienced two forms of extreme macroeconomic imbalance: an expenditure imbalance in the sense of very high investment and very low consumption, giving rise to rapid capital accumulation; and an imbalance between expenditure and production, producing external imbalance, i.e. a huge surplus on the current account of the balance of payments.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the external imbalance in China, and reviews the factors underlying the pre-2008 rising and the post-2008 drop in China's current account surplus.

The paper says that China's current account surplus must be modest in recent year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China's recent current account is likely to stay below its precrisis range, it is too early to conclude that "rebalancing" has been truly achieved in China.

Certainly, the policy thrust of the 12th Five Year Plan is very much focused on raising household income, boosting consumption,

and facilitating an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In the coming years, if these ongoing structural reforms are implemented, China does have the potential to hand-off from an investment-driven to a consumption-driven decline in its external imbalance.

關鍵詞 : 글로벌 불균형, 중국의 경상계정 불균형, 저축률, 투자지출, 소비지출

Keywords : global imbalances, China's current account imbalances, savings rates, investment expenditure, consumption expenditure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259~277

中國 鐵鋼産業의 對 韓國 産業內貿易 分析*

유준**·한기조***

〈목 차〉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검토
3. 산업내무역지수의 측정방법
4. 중·한 철강산업의 교역 현황
5. 중·한 산업내무역 분석
6. 결론과 시사점

1. 문제제기

1979년 말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연평균 9%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동시에 중국 철강산업은 중국 경제 도약기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중점 기간산업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해왔으며, 현재 한국 및 일본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조강 생산증가율은 5.1%, 한국과 일본이 각각 3.2%, 1.3%이며, 중국은 15.2%로 세계에서 조강 생산증가율이 가장 빠르다. 2010년 현재 중국은 조강을 6억 2,670만 톤 생산하고 6억 톤을 소비하였는데, 이는 세계 조강 생산 및 소비의 각각 44.2%와 43.3%에 해당한다. 중국 철강산업은 명실 공히 세계 철강산업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04년 말부터 중국은 처음으로 강재 순수출국으로 전환하여

---

* 본 논문은 유준(2012)의 박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재작성한 것임.
** 제1저자, 동의대학교 교육전담교수
*** 교신저자, 동의대학교 교수

세계 각국은 철강산업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 철강산업은 한국 등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으나 중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실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렇지만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등 무역경쟁력 지수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결과(한기조·김영근, 2008 등)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중국 철강산업은 한국에 대해 경쟁력이 개선되어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했다. 그러나 좀 더 품목을 세분하여 분석하면 TSI와 RCA에 의한 분석결과가 다르게 산출되는 경우도 있으며(유준, 2012), 수출부문만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등을 이용한 기존 연구방법의 문제점이 Yeats(1985), 한기조·김영근(2008) 등에 의해 지적되고 있어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이용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대 한국 수출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모두 기본적으로 비교우위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 철강산업에서의 산업내무역을 설명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세밀한 중국 철강산업의 대 한국 경쟁력을 검증하기 위해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중·한 철강산업의 무역구조 특징 및 경쟁력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제2절에서는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제3절에서는 산업내무역의 측정방법을 제시한다. 제4절에서는 중국 철강산업의 대 한국 교역현황을 확인한 후 제5절에서는 중·한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한·중·일 3국간 혹은 한·중 철강산업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한기조(2011), 한기조·최신(2011), 한기조·김영근(2008), 임혜준(2007), 김진욱·서영석(2006)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해외 연구로는 于刃剛(2009), 成宇濟(2007), 佐藤創(2007), 金相勛(2006), 川端望(2005) 등이 있다. 임혜준(2007), 김진욱·서영석(2006), 成宇濟(2007), 金相勛(2006) 등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철강산업은 2000년대 전반까지 한국에 대하여 비교열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무역특수 및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좀 더 품목을 세분하여 분석하면 TSI와 RCA에 의한 분석결과가 다르게 산출되는 경우도 있으며(유준, 2012), 수출부문만을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RCA)지수 등을 이용한 기존 연구방법의 문제점이 Yeats(1985), 한기조·김영근(2008) 등에 의해 지적되고 있어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이용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대 한국 수출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기조·김영근(2008) 및 한기조(2011a)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 및 현시비교우위지수, 특정 지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및 현시비교우위지수, 수출증가율 등을 조합한 새로운 분석 틀을 고안하여 한중 철강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측정하여 기존 연구와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중국 철강산업은 일본, 독일, 한국 등으로부터 철강관련 기술 및 자본의 유입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을 경계로 하여 한국을 추월하고 2008년 및 2009년 현재 중국이 경쟁력 우위에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한기조·최신(2011)은 한·중 철강산업에 대해 산업내무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철강산업의 對중 경쟁력이 단지 약화되었다고 만은 할 수 없으며, 여전히 중국보다 질적으로는 기술수준이 높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시계열로 보면 이러한 무역구조가 점차 붕괴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기조·김영근(2008) 및 한기조(2011) 등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으로서 대외직접투자는 우위품질 및 열위품질의 산업내무역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공교육비 지출 증대는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에는 정의 효과를 열위품질의 산업내무역에는 부의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관련연구로서 중국 철강산업에 관한 연구로는 李漢敏(2004), 謝向前·張先平(2003), 오동윤(2001)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WTO나 FTA가 중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의 변화가 철강산업의 발전 방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및 중국 철강산업의 세계에서의 위상과 현황 분석을 통해 철강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혹은 중국 철강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 철강산업 사이에서도 산업간무역 뿐만 아니라 산업내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를 제외한 기존 연구방법은 모두 기본적으로 비교우위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 철강산업에서의 산업내무역을 설명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내무역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대 한국 무역구조 및 그 특징과 경쟁력에 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업내무역분석에 있어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무역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수국과의 산업내무역(IIT) 분석과 그 결정요인을 검증하고 있다(KDI, 2003; Byun and Lee, 2005; 김태기·주경원, 2007; Hurley. 2001; Hu, 1999; 佐佐木·古賀, 2005 등).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 또한 한·중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을 HS4단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철강산업의 중·한 간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철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의 산업내무역(IIT) 분석을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과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으로 분류한 후, 다시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을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과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으로 분류하여 SITC5단위로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또한 무역량을 기준으로 한 산업내무역(IIT)의 경우 어느 특정품목의 교역액 비중이 클 경우, 산업내무역지수가 그 특정품목으로 인해 산업의 전반적인 품질 변화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내무역(IIT) 분석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3. 산업내무역지수의 측정방법

대부분의 산업내무역(IIT) 연구와 마찬가지로 Grubel-Lloyd(1975)의 측정방법을 사용한다. Grubel-Lloyd(1975)는 어느 한 산업의 수입액(수출액)과 정확하게 중복되는 동일 산업의 수출액(수입액)을 합한 무역중복을 그 산업의 산업내무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중복을 해당 산업의 총 수출입액의 비율로 다음 식(1)과 같이 산업내무역지수를 산출한다.

$$GL_i = \frac{(X_i + M_i) - |X_i - M_i|}{(X_i + M_i)} \times 100 = \left[1 - \frac{|X_i - M_i|}{(X_i + M_i)}\right] \times 100 \quad \text{.....(1)}$$

X_i와 M_i i산업의 수출액 및 수입액을 나타내며, 이 지수는 해당 산업에 대한 두 국가 간의 총 무역중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즉, 겹치는 부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한다. 산업내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며, 완전한 산업내무역이면 '100'의 값이 된다. 식(1)에서 i산업이 n개의 산업으로 구성된 전 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는 각 산업의 수출입량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평균을 취해 식(1)을 변형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 (2)을 유도할 수 있다.

$$GL = \frac{\sum_{i=1}^{n}\left[1 - \frac{|X_i - M_i|}{(X_i + M_I)}\right](X_i + M_i)}{\sum_{i=1}^{n}(X_i + M_i)} \times 100 = \left[1 - \frac{\sum_{i=1}^{n}|X_i - M_i|}{\sum_{i=1}^{n}(X_i + M_i)}\right] \times 100 \quad \text{.....(2)}$$

다음으로 Greenaway et al.(1994, 1995)에 의거해 GL지수를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과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으로 분류한다. 이때 각 품목의 수입 및 수출 단가를 이용한자. 즉 동 상품의 수출 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누어 그 비율(수출입단가지수)이 일정 범위(1-α와 1+α 사이)에 속하면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로 간주하고 일정 범위(1-α보다 작거나 1+α보다 크면)를 벗어난 경우에는 품질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여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로 간주하여 양자를 구분한다. 이 계산식은 식(3)과 같다.

$$IIT_i = HIIT_i + VIIT_i$$

$$HIIT_i : 1-\alpha \le \frac{UVX_{ij}}{UVM_{ij}} \le 1+\alpha \quad VIIT_i = \frac{UVX_{ij}}{UVM_{ij}} < 1-\alpha \text{ or } 1+\alpha < \frac{UVX_{ij}}{UVM_{ij}} \quad \text{.....(3)}$$

$HIIT_i$: i산업의 수평적 산업내무역

$VIIT_i$: i산업의 수직적 산업내무역

UVX_{ij} : i산업의 j품목의 수출단가

UVM_{ij} : i산업의 j품목의 수입단가
α : HIIT과 VIIT를 구분하는 기준인 임의의 값(0.25)

여기서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와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인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즉 수출품목의 단가와 수입품목의 단가가 거의 같고 큰 차이가 없으면 수평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수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기의 α는 연구자가 부여할 수밖에 없다. Greenaway, Hine, Milner(1994)는 α를 0.15와 0.25를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0.25를 많이 사용하므로 본고에서도 0.25를 사용한다. 그리고 수출국 입장에서 수출품목의 단가 비율이 $(1+\alpha)$이상이면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 $(1-\alpha)$이하이면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으로 간주한다.[1)]

이상의 방법은 무역액을 기준으로 산업내무역을 측정하고 있다. 이 경우 특정 품목의 무역량 비중이 크면, 이 품목에 의해 전체 산업내무역의 정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품목의 품질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10개 품목이 우위에 있었는데 몇 년 후 10개 품목은 여전히 우위에 있으나 다른 90개의 품목이 열위로 전락했다고 하자. 이 경우 열위품목의 무역비중이 증가했지만 우위에 있는 품목의 무역량이 전체 무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무역량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산업내무역지수는 여전히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특정 품목의 교역량 비중이 너무 클 경우, 무역량을 기준으로 한 산업내무역지수는 그 산업의 전반적인 품질 변화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특정 품목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우위품목 수 또는 열위품목 수의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품목 수를 기준으로 산업내무역지수도 계산한다. 산업내무역과 산업간무역은 Fontagne and Freudenberg(1997)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수출액과 수입액의 비율이 10% 이하인 품목을 산업간무역으로 그 외의 무역만을 산업내무역으로 식(4)와 같이 분류한다.

---

1) 이상의 산업내무역 측정방법은 주로 한기조·이홍배, <韓國鐵鋼産業の對日競爭力分析>, ≪한일경상논집≫, 42(2009), 147~149쪽을 참고했다.

$$IIT = \frac{Min(X_{ij} \cdot M_{ij})}{Max(X_{ij} \cdot M_{ij})} > 0.1 \quad \text{.....(4)}$$

그 다음에 앞의 식 (1)-(3)의 방법으로 수평적 우위, 열위품질의 산업내무역으로 분류한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내무역(IIT)지수는 총 무역품목 수에 차지하는 각각의 해당그룹에 속하는 품목 수의 비중을 의미하며 식(5)와 같이 계산한다.

$$IIT^G = \frac{n^G}{N} \quad \text{.....(5)}$$

여기서 N은 교역되는 총 품목 수, nG은 분류별 거래 품목수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업내무역에 속하는 품목은 수출액과 수입액의 중복비율이 10%이상인 품목이며, 이를 다시 수출단가와 수입단가에 의해 수평적 및 수직적(우위품질, 열위품질) 산업내무으로 분류한다. 즉, 산업내무역으로 분류된 품목 수는 nIIT=nHIIT+ nH+ nL이므로, IIT=HIIT+ VIITH+ VIITL이다. 총 품목 수는 SITC 5단위의 수준으로 무역되고 있는 철강산업 전체의 품목 수이다.[2]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UN COMTRADE의 DB에서 SITC5단위로 추출했으며, 연구기간은 자료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로 하였다.

4. 중·한 철강산업의 교역 현황

산업내무역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중·한 철강산업의 교역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품목의 교역규모가 매우 큰 경우 산업내무역지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한 사이의 철강품목의 교역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상의 품목수에 의한 산업내무역지수 산출에 관해서는 주로 김태기·주경원,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수평적·수직적 산업내무역과 FDI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연구≫11:1(2007), 27~58쪽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표 1> 중·한 철강산업의 품목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미국달러, ( ) 안은 합계에 대한 비중)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일차재료	369	190	173	266	623	619	322	551	944
	(18.5)	(10.4)	(8.7)	(8.5)	(12.3)	(10.1)	(5.0)	(4.8)	(5.0)
반제품	195	130	57	120	405	483	690	776	350
	(9.7)	(7.1)	(2.9)	(3.8)	(8.0)	(7.9)	(10.6)	(6.7)	(1.9)
판재류	1,088	1,083	1,195	1,881	2,788	3,157	2,836	5,751	10,708
	(54.4)	(59.1)	(60.2)	(60.2)	(55.0)	(51.5)	(43.7)	(49.6)	(56.9)
봉형강류	77	93	107	176	296	479	797	1,889	3,272
	(3.9)	(5.1)	(5.4)	(5.6)	(5.8)	(7.8)	(12.3)	(16.3)	(17.4)
강관류	57	66	95	159	235	392	502	926	1,190
	(2.8)	(3.6)	(4.8)	(5.1)	(4.6)	(6.4)	(7.7)	(8.0)	(6.3)
철강제품	215	271	360	522	725	1,006	1,341	1,701	2,354
	(10.7)	(14.8)	(18.1)	(16.7)	(14.3)	(16.4)	(20.7)	(14.7)	(12.5)
합계	2,002	1,832	1,986	3,125	5,072	6,137	6,487	11,592	18,818

자료: UN COMTRADE로부터 추출하여 필자 작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내무역 분석대상 연도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교역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판재류가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철강제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 현재 총 교역액에 판재류는 56.9%, 봉형강류는 17.4%, 철강제품이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품목이 산업내무역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으로 단순히 무역량을 기준으로 한 산업내무역분석 뿐만 아니라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내무역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5. 중·한 산업내무역 분석

중국 철강산업의 한국에 대한 산업내무역지수를 분석한 <표 2>는 무역량을 이용하여 산출한 중·한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 추세를 나타낸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이상값으로 여겨지는 2006을 제외한 중·한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는 HS4단위로 분석한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 결과(20-45)와 다르게 증가감소를 반복하면서 47-75 사이로 높게 산출되었다.

<표 2> 중·한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 추이(무역량)

	IIT	HIIT	$VIIT^{H}$	$VIIT^{L}$	강관류	반제품	봉형강류	일차재료	철강제품	판재류
2000년	71.1	26.1	17.3	27.8	2.0	6.9	2.8	13.1	7.6	38.7
2001년	50.8	11.2	13.2	26.3	1.8	3.6	2.6	5.3	7.5	30.0
2002년	51.1	20.7	11.0	19.5	2.4	1.5	2.7	4.4	9.3	30.7
2003년	47.3	24.8	7.4	15.1	2.4	1.8	2.7	4.0	7.9	28.5
2004년	63.9	21.9	5.9	36.2	3.0	5.1	3.7	7.9	9.1	35.1
2005년	74.7	42.3	2.7	29.7	4.8	5.9	5.8	7.5	12.2	38.4
2006년	93.9	44.6	5.9	43.4	7.3	10.0	11.5	4.7	19.4	41.1
2007년	65.1	28.7	4.4	32.1	5.2	4.3	10.8	3.1	9.5	32.2
2008년	47.8	16.9	4.6	26.3	3.0	0.9	8.5	2.4	6.0	27.1

주: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와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VIITH+ VIITL)지수의 크기를 보면, 2003년과 200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VIITH+ VIITL)지수가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그러나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HIIT지수가 높게 산출되어 중국 철강산업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 중에

서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지수 보다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지수가 크게 산출되어 한국 입장에서 분석한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와 같은 결과 연구를 얻었다. 이는 중·한 간에 수출입되는 철강품목의 단가 차이가 크고 중국은 기술 및 품질 수준이 낮은 저가의 철강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는 기술 및 품질 수준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고가의 철강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와 다르게 HIIT지수가 2000년 전반에 20-26대 2000년대 중반이후 17-45대로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지수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산출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판재류에서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에 해당하는 품목의 무역비중이 철강 전체 무역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대분류에 의한 품목군별 산업내무역(IIT)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기간 동안 무역량이 가장 많은 판재류의 산업내무역지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철강제품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이에 반하여 무역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제품, 강관류, 일차재료 등의 산업내무역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무역량 기준 산업내무역(IIT)지수의 큰 특징은 첫째, 대체적으로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가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보다 크게 산출되었으며,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지수 보다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이는 앞의 분석에서 중국 철강산업이 한국을 따라 잡고 비교우위에 올라섰다고는 하나 아직 중국 철강산업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은 한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평적 산업내무역지수의 경우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어 중국 철강산업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연구기간에 걸쳐서 산업내무역이 가장 활발한 품목군은 무역비중이 높은 판재류와 철강제품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동안 중한 무역에서 특히 판재류의 무역량 비중이 크고 이 품목으로 인해 전체 산업내무역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의

품질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철강제품의 전체적인 기술변화로 인한 무역추이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 산업내무역(IIT)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품목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중한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가 <표 3>이다. 연구기간 동안 품목수 기준의 산업내무역(IIT)지수(56-60)는 무역량 기준의 산업내무역(IIT)지수(47-75)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한기조·최신(2011)의 경우 품목수 기준 산업내무역지수가 무역량 기준보다 높게 산출된 것과 다른 결과이다. 또한 무역량 기준과 다르게 품목수 기준의 산업내무역지수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60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표 3> 중·한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 추이(품목수)

	IIT	HIIT	VIIT[ㅂ]	VIIT[ㄴ]	강관류	반제품	봉형강류	일차재료	철강제품	판재류
2000년	60.1	11.5	10.1	38.5	8.8	2.0	6.8	6.8	18.2	17.6
2001년	63.9	11.1	13.9	38.9	9.7	4.2	9.0	5.6	17.4	18.1
2002년	59.7	14.3	6.1	39.3	8.8	4.1	9.4	6.1	16.3	15.0
2003년	57.1	10.9	10.2	36.1	8.8	4.8	7.5	5.4	15.6	15.0
2004년	56.2	13.7	6.2	36.3	8.9	2.1	11.0	4.8	17.1	12.3
2005년	55.8	12.9	4.8	38.1	10.2	2.0	9.5	5.4	15.6	12.9
2006년	57.5	14.4	4.8	38.4	9.6	2.7	9.6	4.8	17.1	13.7
2007년	52.3	9.3	6.6	36.4	7.3	2.6	7.3	4.6	15.2	15.2
2008년	58.5	34.2	8.7	15.5	8.7	2.0	8.7	4.7	17.4	16.9

주: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무역량 기준의 경우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산출되었으나 품목수 기준에서는 2008년을 제외한 연구기간 동안 증가감소를 반복하면서 무역량 기준의 경우와 다르게 판재류로 인한 영향이 제거되어 산업내무역 중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가 9-15로 낮고,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가 43-51로 높게 산출

되었다. 또한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 중에서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지수가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지수보다 매우 높게 산출되었다.

그리고 대분류로 본 품목군별 산업내무역(IIT)지수의 추이를 보면, 무역량 기준의 결과와 다르게 압도적으로 무역량 비중이 큰 판재류의 영향이 제거되어 무역량 기준보다 강관류, 봉형강류, 철강제품의 산업내무역지수가 약간 높게 산출되었으며, 판재류의 경우는 지수가 낮게 산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판재류보다도 철강제품의 산업내무역(IIT)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즉, 특정 품목의 영향을 제거한 결과, 기존 연구(한기조·김영근, 2008 등)에서 판재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군에서 한국에 대해 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아직 경쟁력이 약한 판재류의 산업내무역(IIT)지수는 낮게 산출되었으며, 경쟁력이 개선되어 한국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른 품목군의 산업내무역(IIT)지수는 무역량 기준보다 높게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첫째, 품목수 기준 산업내무역지수는 무역량기준보다 낮게 산출되었으며,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 또한 판재류에 의한 영향이 제거되어 무역량 기준보다 낮게 산출되었다. 둘째,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보다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가 높게 산출되었으며,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 중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지수보다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지수가 훨씬 높게 산출되었다. 그리고 셋째, 품목군에서 판재류의 영향이 제거되어 판재류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무역량기준의 경우보다 매우 낮게 산출되었으나 한국에 대해 경쟁력이 개선된 철강제품 등의 품목군의 산업내무역지수는 높게 산출되었다. 이와 같이 품목수 기준 산업내무역 분석에 의하면 중국 철강산업의 기술 및 품질수준은 아직 한국에 비해 낮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표 4>은 무역량기준 품목군별 각 산업내무역지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한기조·김영근(2008) 등의 기존 연구에서 경쟁력이 아직 약한 것으로 검출된 판재류의 경우, 다른 품목과 다르게 연구기간 동안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었으며, 2004년 이후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지수보다 열위품질의 수직

적 산업내무역(VIITL)지수가 크게 산출되었다. 이 처럼 기존 연구와 다르게 동일품질의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이 증가하고 있으며, 판재류의 경쟁력이 개선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반제품의 경우,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가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보다 크고 동일 품질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성립하고 있어 반제품은 한국의 기술 및 품질수준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중한 철강산업의 품목군별 산업내무역지수 추이(무역량)

	강관류			반제품			봉형강류			일차재료			철강제품			판재류		
	HIIT	$VIIT^H$	$VIIT^L$	HIIT	$VIIT^H$	$VIIT^L$	HIIT	$VIIT^H$	$VIIT^L$	HIIT	$VIIT^H$	$VIIT^L$	HIIT	$VIIT^H$	$VIIT^L$	HIIT	$VIIT^H$	$VIIT^L$
2000년	0.0	0.6	1.4	4.4	0.6	1.9	0.0	0.8	1.9	0.0	0.5	12.6	1.4	0.0	6.2	20.2	14.7	3.7
2001년	0.0	0.6	1.3	3.5	0.0	0.1	0.5	0.5	1.6	2.8	0.0	2.5	0.2	1.2	6.1	4.3	10.9	14.8
2002년	0.2	0.6	1.7	1.3	0.0	0.1	0.5	0.6	1.7	0.8	0.0	3.7	0.2	1.7	7.4	17.7	8.1	4.9
2003년	0.1	0.7	1.6	1.3	0.0	0.5	1.6	0.1	0.9	0.0	0.3	3.7	0.0	1.2	6.6	21.7	5.0	1.7
2004년	0.2	0.7	2.1	3.7	0.6	0.9	1.9	0.3	1.5	1.8	0.6	5.4	1.9	0.0	7.2	12.3	3.6	19.1
2005년	1.3	0.6	2.9	4.4	0.3	1.2	3.1	0.1	2.6	2.7	0.2	4.6	2.4	0.0	9.8	28.4	1.4	8.6
2006년	1.1	0.3	5.9	7.3	1.6	1.2	1.8	0.2	9.6	0.2	0.0	4.4	5.7	0.0	13.7	28.5	3.9	8.7
2007년	0.8	0.1	4.3	3.7	0.2	0.4	0.3	0.3	10.2	0.1	0.0	3.0	0.3	0.1	9.2	23.5	3.7	5.0
2008년	2.0	0.0	1.0	0.1	0.5	0.3	6.1	0.1	2.2	2.1	0.0	0.3	3.6	0.0	2.3	2.9	3.9	20.3

주: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셋째, 강관류, 봉형강류, 일차재료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기존 연구에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보다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가 높게 산출되었으며,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 중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지수보다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지수가 크게 산출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기술 및 품질 수준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5>는 특정 품목의 영향을 제거한 품목수 기준 품목군별 산업내무역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특정 품목군의 영

향을 완화시켜 산출한 품목수 기준 산업내무역 결과는 무역량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품목군에서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보다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가 높게 산출되었으며,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 중에서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지수보다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무역량 기준의 경우 반제품과 판재류에서는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었으나 무역량이 큰 판재류 등의 영향이 제거되어 품목수 기준에서는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었으며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표 5> 중한 철강산업의 품목군별 산업내무역지수 추이(품목수)

	강관류			반제품			봉형강류			일차재료			철강제품			판재류		
	HIIT	$VIIT^{H}$	$VIIT^{L}$	HIIT	$VIIT^{H}$	$VIIT^{L}$	HIIT	$VIIT^{H}$	$VIIT^{L}$	HIIT	$VIIT^{H}$	$VIIT^{L}$	HIIT	$VIIT^{H}$	$VIIT^{L}$	HIIT	$VIIT^{H}$	$VIIT^{L}$
2000년	0.7	2.0	6.1	0.0	0.7	1.4	0.0	2.7	4.1	0.0	0.7	6.1	4.1	0.7	13.5	6.8	3.4	7.4
2001년	0.0	2.8	6.9	2.1	1.4	0.7	1.4	2.8	4.9	0.7	0.0	4.9	2.8	1.4	13.2	4.2	5.6	8.3
2002년	2.0	2.0	4.8	2.7	0.0	1.4	0.0	1.4	8.0	1.4	0.0	4.8	1.4	1.4	13.6	6.8	1.4	6.8
2003년	0.0	2.7	6.1	1.4	0.0	3.4	2.0	2.0	3.4	0.7	0.0	4.8	1.4	3.4	10.9	5.4	2.0	7.5
2004년	0.7	0.0	8.2	0.0	0.7	1.4	2.7	2.1	6.2	0.7	0.7	3.4	2.7	0.7	13.7	6.8	2.1	3.4
2005년	1.4	1.4	7.5	0.0	0.0	2.0	3.4	0.7	5.4	0.0	1.4	4.1	3.4	0.0	12.2	4.8	1.4	6.8
2006년	0.7	1.4	7.5	0.7	0.7	1.4	3.4	0.0	6.2	0.0	0.0	4.8	4.8	0.0	12.3	4.8	2.7	6.2
2007년	1.3	0.0	6.0	0.7	0.7	1.3	0.7	1.3	5.3	0.0	0.0	4.6	0.7	0.7	13.9	6.0	4.0	5.3
2008년	6.0	0.7	2.0	1.3	0.0	0.7	6.0	1.3	1.3	2.7	1.3	0.7	10.7	2.0	4.7	7.4	3.4	6.1

주: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이와 같이 특정 품목군의 영향을 완화한 품목수 기준으로 본 중·한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를 산출한 결과 무역량 기준의 분석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한기조·김영근(2008) 등의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르게 중국 철강산업의 기술 및 품질수준은 아직 한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무역량 기준 분석의 경우, 한국 입장에서 HS4단위로 한·중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품목수 기준 분석의 경우에는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어 산업내무역 분석에서 특정 품목의 무역량 비중이 클 경우 품목수 기준의 산업내무역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철강산업의 대 한국 경쟁력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 및 일반적인 산업내무역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역량 및 품목수 기준 산업내무역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대 한국 무역구조의 특징 및 경쟁력을 재검토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량 기준 분석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가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보다 높게 산출되기는 했으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수직적 산업내무역지수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산출되었으며, 판재류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둘째, 그러나 품목수 기준 분석의 경우 무역량 비중이 큰 판재류의 영향이 제거되어 판재류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낮게 산출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가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보다 크고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지수보다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셋째, 품목군별 분석의 경우 모든 품목군에서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보다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가 높게 산출되었으며,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 중에서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H)지수보다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L)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또한 무역량 기준의 경우 반제품과 판재류에서는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었으나 무역량이 큰 판재류 등의 영향을 제거한 품목수 기준에서는 수평적 산업내무역(HIIT)지수가 상대

적으로 낮게 산출되었으며 수직적 산업내무역(VIIT)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이는 중국 철강산업이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국을 따라 잡고 비교우위에 올라섰다고는 하나 아직 중국 철강산업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은 한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역량 기준 분석의 경우 수평적 산업내무역지수가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어 중국 철강산업의 기술 및 품질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품목군의 영향을 완화한 품목수 기준으로 본 중·한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를 산출한 결과 무역량 기준의 분석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한기조·김영근(2008) 등의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르게 중국 철강산업의 기술 및 품질수준은 아직 한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무역량 기준 분석의 경우, 한국 입장에서 HS4단위로 한·중 철강산업의 산업내무역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품목수 기준 분석의 경우에는 한기조·최신(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어 산업내무역 분석에서 특정 품목의 무역량 비중이 클 경우 한 산업의 기술 및 품질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목수 기준의 산업내무역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중국 철강산업 분석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사뭇 다른 새로운 성과이며, 중국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학계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내무역 분석에서 특정 품목의 무역 비중이 클 경우 품목수 기준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진욱·서영석, 〈한국·중국·일본의 철강산업 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11:1(한국국제통상학회, 2006)

김태기·주경원,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수평적·수직적 산업내무역과 FDI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연구≫11:1(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오동윤, 〈중국 철강산업 발달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계경제≫ 34(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유준, 〈중국 철강산업의 대 한국 및 일본 경쟁력 비교 연구〉(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임혜준, 〈한국 철강산업의 대일본 및 대중국 경쟁력분석〉, ≪무역학회지≫32:1(한국무역학회, 2007)
KDI,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한기조, 〈한중 철강산업의 비교우위 변화 분석〉, ≪한국비즈니스리뷰≫ 2(조선대학교지식경영연구원, 2011)
한기조·최신, 〈韓國鐵鋼産業の對中及び對日競爭力に關する硏究 - 對中競爭力を中心に -〉, ≪한일경상논집≫50(한일경상학회, 2011)
한기조·김영근, 〈中國 鐵鋼産業의 對韓國 및 對日本 競爭力分析〉,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10:1B(한국자료분석학회, 2008)
한기조·이홍배, 〈韓國鐵鋼産業の對日競爭力分析〉, ≪한일경상논집≫ 42(한일경상학회, 2009)
Byun, J. and S. Lee, "Horizontal and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New Evidence from Korea, 1991-1999," Global Economy Journal, 5:1(2005)
Fontagne', Lionel and Michael Freudenberg, "Intra-Industry Trade: Methodological Issues Reconsidered," CEPII document de travail no, Centre d'E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Internatioales, Paris, 97:1(1997)
Greenaway, D. R. Hine and C. Milner,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in the UK,"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0:1(1994)
Grubel, H. G. and P. J. Lloyd(1975), Intra-Industry Trade,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5)
Hu, X. and Ma, Y. "International Intra-industry Trade in China," Weltwirtschaftlihes Archiv, Band 135(1999)

Hurley, Dene T. “Horizontal and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The Case of ASEAN Trade in Manufacture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7:4(2003)

Yeats, A.J.. “On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implications of a methodology based on industry sector analysi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21:1(1985)

川端望, ≪東アジア鋼業の構造とダイナミズム≫(東京: ミネルヴァ書房, 2005)

成宇济, 〈韩中钢铁贸易关系的变化及韩国的对策方案〉(对外经济贸易大学硕士论文, 2007)

金相勋, 〈中韩钢铁贸易的比较优势研究〉(对外经济贸易大学, 国际贸易硕士论文, 2006)

李汉敏, 〈试析中日韩建立FTA对中国钢铁业的影响〉, ≪冶金经济与管理≫5(中国金属学会冶金技术经济专业委员会(东北大学), 2004)

于刃剛, 〈中韓鋼鐵産業國際競爭力比較分析〉, ≪經濟與管理≫3(2009)

刘晓砚·冷克平·姜克威, 〈我国钢铁工业发展中存在的问题及对策研究〉, ≪东北大学学报(社会科学版)≫2(2001)

谢向前·张先平, 国际钢铁贸易新发展的统计分析,” 武汉冶金管理干部学院学报, 3(2003)

佐々木仁・古賀優子, 〈機械部門の貿易パターン分析〉Working Paper, No.05-J-13(日本銀行, 2005)

佐藤創編, ≪アジアにおける鉄鋼業の発展と変容≫(東京: アジア経済研究所, 2007)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中文提要>

本研究为了补充说明中国钢铁产业对韩国竞争力现存研究的界限，利用钢铁产业的贸易量和品目数目，通过产业内贸易分析的新方法，针对中国的钢铁产业对韩国贸易构造的特征及竞争力进行再次验证。分析结果，以品目

数基准分析的板材类钢铁的产业内贸易指数较小，因此否定了贸易量比重较大的板材类钢铁的竞争力。所有品目群里垂直型产业内贸易指数比水平型产业内贸易指数高。还有，在垂直型产业贸易里劣势品质的产业内贸易指数高于优势品质的产业内贸易指数。这说明中国钢铁产业对韩国的技术及品质还处在相对较低的水准上。以上的分析结果和中国钢铁产业的研究中现存研究的结果得出了新的研究结果，并且对中国钢铁产业今后对外竞争力改善等产业政策的提出有着积极的意义。还有，提出在产业内贸易分析中特定品目的贸易量较大的情况下还需要品目数基准的分析的重要意义。

关键词： 水平型产业内贸易, 垂直型产业内贸易, 钢铁产业,
优势品质的产业内贸易, 劣势品质的产业内贸易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279～298

中·韩·日广播电视行业国际竞争力的比较分析

--以波特钻石模型为中心

贺莹* · 金昌庆***

〈目　录〉

一、问题提出
二、中·韩·日 广播电视行业发展现状
三、中·韩·日 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实证分析
四、结　论

一、问题提出

当今以信息技术为标志的现代科技革命的出现带来了新兴产业的迅猛发展，文化创意产业也成为了全球经济发展的一个新增长点。据中国最新的≪2011中国传媒产业发展报告≫数据显示，2010年中国传媒产业市场规模为5,808亿元人民币，与2005年2,460.5亿元相比增加了 2倍，比2009年增长17.7%。[1]据中国国际广播电影电视总局2011年12月统计快报显示，2010年全国广播电视行业总规模约2,238亿元，首次突破2,000亿元，比上年增长20.8%。[2]这样2010年中国广播电视业约占整个传媒产业市场规模的38.5%，显示出其重要的地位。据韩国内容产业振兴院发布的≪2011韩国内容产业统

* 釜庆大学国际地域系博士（F.A.）
** 釜庆大学国际地域系教授（C.A.）

1) 中国广告新闻网: http://www.admaimai.com/News/Detail/2/65418.htm (2012.03.06.检索).

2) 中国网: http://news.china.com.cn/2011-06/30/content_22892173_2. htm (2012.03.08.检索).

计≫报告结果，2010年韩国内容产业市场规模达72兆1,201亿韩币，出口额为32亿2,609万美元，进口额为16亿 9,720万美元。其中广播电视业市场规模达11兆1,764亿韩币，継出版业（21兆2,437亿韩币）之后排于第二位，约占整体内容产业的15.5%，也占有非常重要的地位。[3]另外据韩国内容产业振兴院发布的≪2011海外内容产业市场调查-日本市场≫报告书显示，2010年日本内容产业的市场规模达到1,740亿美元，継美国之后排于世界第二位，全世界占有率达12.3%。其中广播电视业市场规模达到330亿美元，継知识情报（660亿美元）、广告（446亿美元）、出版（404亿美元）之后排于第四位，占有率约为19.0%，同样占有重要的地位。[4]以上可以看出中·韩·日三国的文化创意产业中，广播电视行业占有较大比重、处于重要位置并且发挥着龙头行业的带头作用。加之随着知识经济一体化发展，广播电视业也逐渐显示出应有的、独特的竞争优势以及价值增长潜力，如何通过明确国际竞争力的各构成要素，快速提升产业发展，使得这种优势得以持续，变成了目前各国业界和学界的共同任务。

目前有关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的问题各国研究的时间较短，尚缺乏一定系统性的研究，因此本文将运用竞争优势理论和国际竞争力理论，从要素条件、需求条件、相关支持产业、企业的战略/结构/竞争以及政府角度出发，分析掌握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的构成要因，通过横向比较各国的国际竞争力水平来探寻其各国的竞争优势和劣势。

与中国的研究学者相比，目前韩国的一些学者对文化创意产业国际竞争力进行了较为细致的研究。例如，韩国文化产业振兴院发表的≪中日韩文化产业竞争力比较分析≫（2004）利用“9要素模型”分析了各国的文化产业竞争力，以提高韩国文化产业在亚洲市场及全球市场上的竞争力为目的，提出了产业、国家、东北亚协作等3方面的战略；三星经济研究所发表的≪韩国大众文化产业发展战略≫（1999）依据文化产业环境和竞争力两个标准分别从不同的五个构成要素对文化产业竞争力予以评价。以上文章都是对文化产业的竞争力进行实证分析，并没有具体到广播电视业，所以对于我们确实了解两国的广播电视业的国际竞争力显然不足。朴慧英学者的≪韩国电影产业

3) 韩国内容产业振兴院, ≪2011内容产业统计≫, (2011), p.46.
4) 韩国内容产业振兴院, ≪2011海外内容产业市场调查-日本≫, (2011), pp.3~4.

的国际竞争力≫（2007），虽然运用了一般化双重鉆石模型进行了实证分析但是仅限韩国的电影产业，并没有过多涉及广播电视业，不过对于我们研究广播电视业，特别是选取测量指标时提供了一定的参考借鉴作用。韩国文化体育观光部发表的≪文化产业竞争力强化对策≫（2007）针对文化产业的国际竞争力虽然进行了一定的分析，但是仅从提升竞争力政策角度进行了分析，缺少相应定量的实证分析作为其理论根据，稍有局限之处，而本文正是要弥补这一不足将此定为本研究目标之一。

中国学者彭祝斌的≪中国电视内容产业链成长研究≫（2008）从价值链的角度出发，通过价值链成长特点建立了电视内容产业链的成长模型，提出了产业链的成长策略，从而促进中国电视内容产业的长远发展。研究对象虽只侧重研究电视内容产业，但其分析方法对本文研究具有一定借鉴意义。另外喻国明等学者的≪传媒竞争力：产业价值链案例与模式≫（2005）、丁和根学者的≪传媒竞争力－－中国媒体发展核心方略≫（2005）都是以传媒的核心能力作为基础产生了竞争力战略，但并没有对传媒的国际竞争力进行全面、系统的论述。吴飞主学者的≪传媒竞争力≫（2005）虽然通过透视产业环境和竞争格局动态来分析传媒的核心竞争力，可惜缺少系统的分析也没有可参照的评价标准，过多罗列理论显得论证有些单薄。陈向东学者的≪创意产业广电行业　国际竞争力的比较分析－－基于中国和欧洲的对比≫（2010）通过对波特模型的改进建立了国际竞争力模型对比了北京、广东、西班牙、意大利、法国的广播电视业的国际竞争力水平，但是将一个国家的城市与其它国家相比较，就使得研究结果略显偏颇，需要进一步验证。综上所述，本文以波特的鉆石模型为理论依据，根据中·韩·日三国广播电视业的实际现状，在进一步改进模型的基础上对广播电视业提出综合衡量指标体系，试图比较中·韩·日广播电视业的国际竞争力水平，探寻各自的竞争优势及劣势。

二、中·韩·日广播电视业发展现状

1．中国广播电视业的发展现状

2000年中国共产党在第十五届五中全会上通过了≪中共中央关于制定国

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计划的建议≫，第一次正式提出了“文化产业”的概念,[5]要求完善相应的政策法规并加强管理。随着广播电视业改的不断深入2008年国务院办公厅及发展改革委员等部门发布了≪关于鼓励数字电视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提出“以有线电视数字化为切点”，推进三网融合的思路。2009年8月中国广电总局印发了≪关于加快广播电视有线网络发展的若干意见≫、≪关于促进高清电视发展的通知≫，随后2010年11月中国广电总局又印发了≪广播电视知识产权战略实施意见≫等文件。这些文件将广播电视产业上升到国家发展战略的高度，通过制播分离、跨行业、跨地区网络整合，推动了高清电视、数字技术在中国的应用。

首先，产业链整合加快，公共服务水平显著提高。2011年11月26日中国广电总局广播影视发展研究中心主任庞井君，在≪文化发展与传媒创新≫的论坛上发表讲话指出,到2010年底全国广播综合覆盖率为96.78%，电视综合覆盖率为97.62%。全国共有广播电视播出机构2,638个，开办广播频率2,726套，电视频道1,327套，还开办有付费广播电视174套，开播高清电视节目16套。电视剧产量达436部14,685集，电视动画22万分钟。全国拥有城市电影院线37条，拥有2,000家影院，6,500多块银幕。[6] 显示出近几年来随着国家政策的大力支持，不论从技术建设还是基础建设都得到了迅速发展，提供公共服务的水平也越来越高。

其次，战略转变提升市场格局，模式创新加强经营管理。1992年6月国务院下发了≪关于加快发展第三产业的决定≫，明确把广播电视业列为第三产业，并强调实行“做到自主经营，自负盈亏”的企业化管理机制。从2010年全国广播影视总收入达2,459.1亿元来看，其中，广告收入为939.97亿元，网络收入 为487.44亿元，在广播电视创 收收入中所占比 例分别约为47%和24%，成为广电产业的主要收入来源。[7]同时随着制播分离政策的实施和民营节目制作公司的崛起，广播电视总收入也从2008年的1,583.91亿元，2009年的1,852.85亿元，发展到2010年的2,301.87亿元。[8]

---

5) 顾江, ≪中国文化产业发展报告≫,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0), p.1.
6) 中国人民网:http://media.people.com.cn/GB/137800/235653/16400858.html, (2012.1.30.检索).
7) 庞井君, ≪中国广播电影电视发展报告≫,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1), p.1.
8) 中国国家统计局, ≪中国统计年鉴2011≫, (2011), p.894.

2. 韩国广播电视业的发展现状

1998年韩国“文化立国”战略提出之后，政府就积极扶持文化产业，1999年国会通过了≪文化产业促进法≫，2001年成立了韩国文化产业振兴院，通过一系列文化产业的中长期规划与战略部署，使得韩国核心文化产品的贸易量每年保持稳定增长，发展趋势比较乐观。

首先，广播电视业的经济贸易持续稳定增长，市场规模逐渐扩大。2010年韩国文化市场销售额增加至72.5兆韩元，出口额也上升为30亿7,000万美元，相比于2009年其增长率分别为5.1%和18.1%。其文化创意产品贸易对比2009年，音乐产业以158.9%的增长速度在飞速发展，紧随其后的是广播电视（包含独立生产商）以84.6%的速度在高速增长。[9]此外2005-2009年期间韩国广播电视业出口和进口的平均年增长率为11.0%和43.5%，2009年的出口额为1,845百万美元，进口额为1,830百万美元。[10]

其次，数字技术提升，产品销售额增加。韩国近日通过广播电视及超高速网络一体化等业务的变化，增加了信号接收费及网络连接业务收入。随着电视（家庭）购物消费者的增加，广播波段使用业的广告、产品销售等的收入也随之增加从而促进了其销售额的增加。

3. 日本广播电视业的发展现状

20世纪70、80年代，日本一跃成为仅次于美国的第二经济大国，其经济实力不断提升的同时，也逐渐开始了对文化的思考和实践。2001年12月日本公布了≪振兴文化艺术基本法≫，确定了今后振兴文化艺术的发展方向，之后2004年又推出了≪文化产品创造、保护及活用促进基本法≫，并提出“新产业创造战略”，将文化产业列入其中，标志着文化产业成为日本经济新增长点，凸显出重要的作用。2011年6月经济产业省确定了日本内容产业今后发展的方向和政策，其产业发展目标是，到2020年市场规模扩大到15万亿－

9) 韩国内容振兴院, ≪2010年第四季度文化内容产业动向分析报告书≫, (2011), p.5.
10) 韩国内容产业振兴院, ≪韩国2010年文化内容产业统计≫, (2011), p.97.

20万亿日元。[11]

首先，数字广播电视迅速发展壮大，在数字化改革中占有重要地位。日本的模拟电视已于2011年7月24日停播，全面过渡到地面数字广播时代。2010年日本的电视普及台数约为4,860万台，其中数字电视约为2,000万台。有线电视加入家庭数约为1,280万个家庭，其有线电视的普及率为26.2%。[12]

其次，三网融合推动技术升级，国际传播能力显著提升。目前日本境内以民营广播电视公司Nibon TV, TBS, Fuji TV, TV Asahi, TV Tokyo等5大核心民营公司为中心，共用127家广播电视公司。根据2010年3月末日本≪有线电视放送法≫的许可基准，现在有线电视传播公司共用535家，一般卫星广播电视公司共有92家[13]，极大地提升了广播电视业的国际传播能力。

三、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实证分析

1. 模型总体介绍

波特在其≪国家竞争优势≫中认为：一国兴败的根本原因在于能否在国际市场中取得生产力水平上的竞争优势，竞争优势形成的关键在于能否使主导产业具有竞争力。[14]波特竞争优势理论的核心是四个内生因素（要素条件、需求条件、相关及支持产业、企业的战略/结构/竞争）构成了该国产业的竞争环境，它们相互影响相互促进。同时还要两个外生因素（机会和政府）对内生因素会产生影响，对一国的产业竞争优势的形成起着间接促进作用。

本模型的建立是基于波特的鉆石模型，结合文化创意产业的相关理论和特性及中·韩·日三国的具体国情，从而构建了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的评价

11）中国经济网：http://www.ce.cn/culture/gd/201203/21/t20120321_23173994.shtml“日本文化产业战略”,（2012.3.21.检索）.

12)韩国内容产业振兴院,≪2011海外内容产业市场调查-日本≫,(2011), p.64.

13）韩国内容产业振兴院,≪2011海外内容产业市场调查-日本≫,(2011), pp.70~72.

14)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0), p.3.

指标体系。即，本文提出了要素条件、需求条件、相关产业情况、企业的战略/结构/竞争等四要素构成的广播电视产业的国际竞争力模型。

2．模型要素

瑞士洛桑国际管理开发研究院（IMD）在其≪国际竞争力年度报告≫中指出了'国际竞争力'这一个概念，是指一个国家在世界经济大环境下，与各国的竞争力相比较，其创造增加值和国民财富持续增长的能力。[15]国际竞争力的评价是一种量化的概念，由若干个指标组成通过测量指标的计算结果，来反映一个国家或地区的国际竞争力。本文基于鉆石模型理论及文化产业理论而建立了评价中·韩·日广播电视业的国际竞争力模型，其具体分类以及各个指标的诠释如下：

<表-1 中·韩·日广播电视业 要素条件测量指标>

一级指标	二级指标	三级指标	指标意义
要素条件	基础资源	广播电视业的从业人员数（占总人口数）	反映广播电视的从业人员规模
		广播电视市场总收入	反映广播电视市场销售规模
	人力资源	R&D研究人员数	反映科研界高级人力阶层数量
		高等教育机构入学率	反映高级人力资源形成水平

<表-2 中·韩·日 广播电视业 需求条件测量指标>

相关支持产业	电影业	电影业市场总收入占GDP比重	反映电影业市场状况
	广告业	广告业市场总收入占GDP比重	反映广告业市场状况
	化妆品业	化妆品业市场总收入占GDP比重	反映化妆品业发展状况

15) 廖建军，<竞争力评价模型的比较分析>，≪湖南大学学报≫，3:21 (2007), p.88.

<表-3 中·韩·日广播电视业 相关支持产业测量指标>

企业战略/结构/竞争	外部竞争	外国人直接投资FDI总额占GDP比重	反映国外投资加剧的竞争激烈程度
	市场结构	各国广播电视业的世界市场占有率	反映国家在国际市场结构方面的国际竞争力水平
	著作权保护	著作权保护水平	反映数字内容市场上对著作权保护水平

<表-4 中·韩·日广播电视业 企业战略/结构/竞争条件测量指标>

一级指标	二级指标	三级指标	指标意义
需求条件	消费规模	手机用户普及率	反映电信业用户规模
		互联网用户普及率	反映互联网业用户规模
		有线用户普及率	反映广电业用户规模
	市场需求	音像.影像产品的出口额	反映广播电视产品的出口规模及能力
		音像.影像服务的出口额	反映广播电视服务的出口规模及能力

3. 数据处理

第一，数据来源于联合国教科文组织（UNESCO）、世界银行数据库（WorldBank）、世界货币组织（IMF）、国际电信联盟(ITU)、中国统计年鉴、韩国文化体育观光部、韩国文化内容产业振兴院、韩国银行数据库等。

第二，计算竞争力指标系数的时候，因为每个测量指标与同一类别中的其它指标相比，其作用、地位和影响力不尽相同，必须根据每个指标的重要性程度赋予不同的权重，因此本文将使用熵权法，通过客观赋值法来计算各指标的权重。

第三，根据测量指标的具体数据，我们给予数值较大的指标为“100”，然后根据相对率换算出另一个数值。然后再与测量指标的权重相乘，根据模型便可得到各个国家的一级指标数值也就是广播电视业国际竞争力的数值。

第四，熵权法的基本原理。其原理是：假设研究对象有n个样本单位组成，反映样本质量的评价指标有m个，设实际测出的原始数据矩阵为：

i=1,……,m　j=1,……, n。其中

$R=(X_{ij})_{m\times n}$　X_{ij}

是第j个样本在第i个指标上的得分。另外，因为指标间不同单位、不同度量的影响，要对各测量指标进行标准化，其标准化的公式为：

$$R=\begin{vmatrix} X_{11} & X_{12} & \cdots\cdots & X_{1n} \\ X_{21} & X_{22} & \cdots\cdots & X_{2n} \\ \cdot & \cdot & \cdot\ddots & \\ \cdot & \cdot & \cdot & \\ \cdot & \cdot & \cdot & \\ X_{m1} & X_{m2} & \cdots\cdots & X_{mn} \end{vmatrix}$$

然后根据标准化后的矩阵数据可计算各指标的信息熵。第i个指标的熵可定义为：

$$H_i=-k\cdot\sum_{j=1}^{n}P_{ij}\cdot l_nP_{ij}\ ,\quad k>0\quad k=\frac{1}{l_n{}^n}\ ,\text{if:}\ P_{ij}=0,P_{ij}\cdot l_nP_{ij}=0$$

其中

$$\sum_{i=1}^{n}X_{ij}$$

在指标熵值确定后就可以根据公式来确定第i个指标的熵权如下所示：

$$W_i=\frac{1-H_i}{m-\sum_{i=1}^{m}H_i},\quad 0\le W_i\le 1,\quad \sum_{i=1}^{m}W_i=1$$

由上述基本原理可看出，如果某个指标的信息熵越小，就表明其指标值的变异程度越大，提供的信息量也越大，在综合评价中所起的作用也越大，

其权重也应越大。

4. 实证分析

1) 要素条件测量指标数据结果如下：

<表-5 要素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

一级指标	二级指标	三级指标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要素条件	基础资源	广播电视业的从业人员数占总人口数	%	2010	75.09/133829.9=0.056	2.988/4887.5=0.061	5.48/1227 0 = 0.042
		广播电视业市场销售总额	亿美元	2010	161.3	45.8	289.4
	人力资源	R&D研究人员数	/ 百万人	2008	1,199	4,947	5,189
		高等教育机构入学率16)	%	2010	26	103	60

注： 中国第六次全国人口普查数据显示：2011年中国大陆总人口是133829.9万人；2011年韩国人口协会韩国总人口数为：4887.5万人；日本总务省日本总人口数为：12270万人。2010年汇率：1美元=6.769元人民币、1美元=1156韩元.

数据：中国统计年鉴（2011）p.894；中国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统计信息网；韩国国家图书馆统计系统；韩国文化内容产业统计（2011）p.420；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Price Water Coopers（2012-2016）pp.242-268.

首先，从要素条件的基础资源方面来看，2010年中国广播电视业从业者为75.09万名17)，韩国广播电视业从业者数为2.99万名18)，日本广播电视业从业者为5.48万名19)，分别占各国总人口数的0.056%，0.061%，0.042%，可

16) 联合国教科文组织(UNESCO)所划分出的高等教育是指综合大学、教育大学和技术大学等初级大学以上的教育。本文对广播电视产业中所需要的人才培养机构，即大学以上的正规学校接受教育的学生入学率进行了了解。

17) 中国国家统计局,『2011中国统计年鉴』，(2011), p.494.

18) 韩国放送通信委员会，『放送产业实态调查报告书』，(2011), p.350.

以看出韩国的广播电视业的就业人数相对于本国人口来说相对要高些，具有一定竞争优势。根据PWC的『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2011-2015)』发布的数据，2010年中国广播电视业的市场销售总额为161亿3，000万美元，韩国为45亿7，900万美元，日本以289亿4,100万美元的销售额排居世界第二位。[20]

其次，从要素条件的人力资源来看，根据WorldBank的统计数据，中韩日各国每一百万人中，R&D研究人员数分别为1,199名，4,947名，5,189名[21]，其中中国的R&D研究人员数相比于韩国和日本还是有一定的差距。另外据WorldBank发布的数据，2010年中韩日各国高等教育机构（大学）的入学率为26%，103%，60%[22]，这里中国相比于日韩两国仍旧显出了一定的竞争劣势。

<表-6 要素条件 竞争力指数>

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广播电视业的从业人员数占人口总数	0.23	21.6	23.0	16.2
广播电视市场规模	0.26	14.8	4.2	26.0
R&D 人员数	0.23	5.3	21.8	23.0
高等教育机构入学率	0.27	6.9	27.2	15.8
合计	1.0	48.5	76.2	81.0

2) 需求条件相关指标数据结果如下：

<表-7 需求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

一级指标	二级指标	三级指标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需求条件	消费规模	手机用户总数/总人口数	%	2010	64	105	95
		互联网用户总数/总人口数	%	2010	34.3	83.7	78.2

19) 日本总务省,『2011电波产业年鉴(电波产业调查统计)』，(2011), p.26.
20)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 (2011), pp.350~387.
21) WorldBank: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SCIE.RD.P6, (2012.06.20.检索).
22) WorldBank: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E.TER.ENRR, (2012.06.20.检索).

		有线用户总数/总人口数	%	2010	185.8/133829.9=0.14	18.6/4887.5=0.38	12.8/12770=0.10
	市场需求	音像·影像产品的出口额	亿美元	2010	0.3	0.8	1.0
		音像·影像服务的出口额	亿美元	2010	1.2	1.9	0.9

注：中国第六次全国人口普查数据显示：2011年中国大陆总人口是133829.9万人；2011年韩国人口协会韩国总人口数为：4887.5万人；日本总务省日本总人口数为：12270万人。2010年汇率：1美元=6.769元人民币、1美元=1156韩元

数据：中国统计年鉴（2011）p.894；UN CTAD数据库；ITU数据库。

首先,从需求要素的消费规模来看，根据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的ICT Data Statistic显示，中韩日的手机用户数占各国人口总数的64%，105%，95%，个人互联网用户数占各国总人口总数的34.3%，83.7%，78.2%。[23]

其次，从需求要素的市场需求来看，据UN 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发布的数据，2010年中国的音像·影像产品的出口额为300万美元，韩国为800万美元，日本为1000万美元。[24]同时音像·影像服务的出口额中，中国为 1.2亿美元，韩国为1.9亿美元，日本为0.9亿美元[25]，韩国在音像·影像服务的出口上占有一定的竞争优势。

<表-8 需求条件 竞争力指数>

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手机用户总数/总人口数	0.16	9.8	16.0	14.5
互联网用户总数/总人口数	0.16	6.6	16.0	14.9
有线用户总数/总人口数	0.29	10.7	16.0	7.6

23) ITU:http://www.itu.int/ITU-D/ict/statistics/index.html, (2012.07.05.检索.)

24) UNCTAD: http://unctadstat.unctad.org/TableViewer/tableView.aspx，(2012.06.23.检索).

25) UN CTAD: http://unctadstat.unctad.org/TableViewer/tableView.aspx?ReportId=14774，(2012.06.23.检索).

音像·影像产品的出口额	0.17	5.1	13.6	17
音像·影像服务的出口额	0.22	13.9	22.0	10.4
合计	1.0	46.0	83.6	64.5

3) 相关和支持产业相关指标数据结果如下：

<表-9 相关产业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

一级指标	二级指标	三级指标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相关和支持产业	电影业	电影业总收入	%GDP	2010	0.13	0.15	0.14
	广告业	广告业总收入	%GDP	2010	0.4	0.5	0.8
	化妆品业	化妆品业总收入	%GDP	2010	0.3	0.4	0.5

注：2010年中国GDP为：5兆9,266亿美元；2010年韩国GDP为1兆145亿美元；2010年日本GDP为5兆4,978亿美元

数据：中国统计年鉴（2011）p.894；韩国内容产业统计（2011）p.244；ITU数据库；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2012-2016), Price Water Coopers, p.97。

首先，电影业是与广播电视业联系最紧密的产业之一，2010年中国的电影市场规模为19亿6,900万美元，对比于本国GDP(5兆9,266亿美元)为0.13%，　韩国电视市场规模为15亿4,100万美元，占GDP(1兆145亿美元)的0.14%,日本电影市场规模为76亿7,400万美元，占其GDP(5兆4,978亿美元)的0.15%。[26)]

其次，广告业作为广播电视业的相关支持产业，根据PWC发表的『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显示，2010年中国广告市场规模达到220亿美元，韩国为48亿美元，日本为446亿美元[27)]，对比各国的GDP分别为0.4%, 0.5%, 0.8%。

再次，化妆品业作为另一个与广播电视业紧密相关的支持产业，2010年中国的化妆品产业市场规模达到 159亿美元，韩国化妆品业市场规模达41亿美元，日本达到290亿美元[28)]，分别占各国GDP的0.3%, 0.4%, 0.5%。

---

26) 韩国文化内容产业振兴院(2011),『海外内容市场调查报告』,(2011), p.14.

27)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 (2011), pp.95~97.

28) Naver: http://cafe.naver.com/global2003/40, (2012.06.23.检索).

<表-10 相关产业条件 竞争力指数>

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电影业总收入	0.31	26.9	31.0	28.9
广告业总收入	0.39	19.5	24.4	39.90
化妆品业总收入	0.30	18.0	24.0	30.0
合计	1.0	64.4	79.4	97.9

4) 企业战略/结构/竞争相关指标数据结果如下：

<表-11 企业战略/结构/竞争条件 测量指标数据结果>

一级指标	二级指标	三级指标	单位	年度	中国	韩国	日本
企业战略/结构/竞争	外部竞争	外国人直接投资FDI总额占GDP比重	GII指数	2010	42.5	36.5	36.7
	市场结构	广播电视业的世界市场占有率	%	2010	4.3	1.2	7.8
	著作权保护	著作权保护水平	GIT指数	2010	4.0	4.1	5.3

数据：中国统计年鉴(2011)；韩国文化内容产业统计(2011)；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2011)；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2012-2016)；Global Innovation Index Report(2011)；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2011)。

首先，外国人直接投资是一个国家的企业以取得可持续、长期的投资利润为目的的一种投资，引进更多的投资也必然会对本国的市场形成一定的竞争，根据INSEAD发布的Global Innovation Index报告，2010年评估中国FDI投资为42.5分，韩国为36.5分，日本为36.7分。[29]其次，市场占有率可以反映其产业结构，根据PWC发布的Outlook(2011-2015),中国的广播电视业的市场占有率为4.3%，韩国为1.2%，日本为7.8%。[30]

再次，著作权保护是保证广播电视业长期稳定发展的必要条件之一，根据INSEAD发布的GIT报告，中国著作权保护的评估分为[31]4.0， 韩国为4.1

29) INSEAD, 『Global Innovation Index Report』, p.144, p.180, p.176.
30) KOCCA,『2011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2011), p.124.
31) INSEAD,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2012), p.202, p.237, p.241.

分， 日本为5.3分。[32)]

<表-12 企业战略/结构/竞争条件 竞争力指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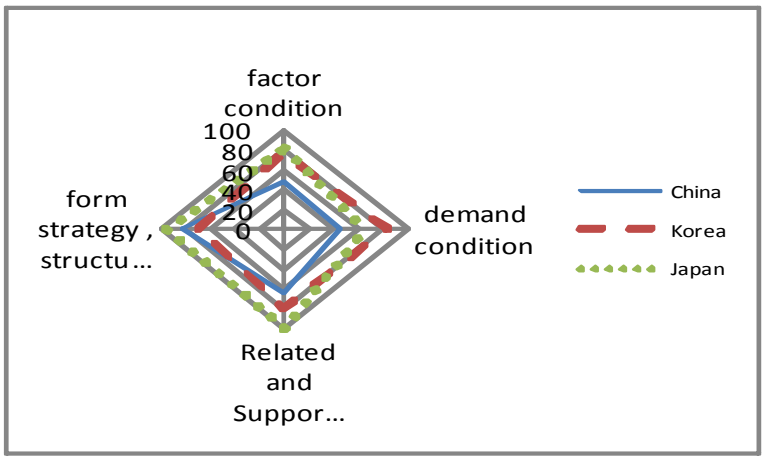
指标	权重	中国	韩国	日本
外国人直接投资FDI总额占GDP比重	0.42	42	36.2	36.4
广播电视业的世界市场占有率	0.21	11.5	3.2	21
著作权保护水平	0.37	27.9	28.6	37
合计	1.0	81.4	68.0	94.4

6) 模型结果分析：

<表-13 中.韩.日广播电视行业 竞争力指数>

竞争力指数	竞争力构成要素	中国	韩国	日本
	要素条件	48.5	76.2	81.0
	需求条件	46.0	83.6	64.5
	相关和支持产业	64.4	79.4	97.9
	企业战略/结构/竞争	81.4	68.0	94.4

<图-1 中.韩.日广播电视行业 竞争力指数>



32) INSEAD, 『Global Infromatioan Technology』, (2012), p.329.

从上图中我们可以看到中·韩·日三国广播电视业的国际竞争力指数情况，第一，中国的广播电视业整体来说呈现出不均衡的发展态势，在要素条件、需求条件、相关和支持产业方面的竞争力要远远低于韩国和日本，凸显出竞争劣势，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介于韩国和日本之间，整体而言其竞争力仍落后于日本和韩国。第二，韩国的广播电视业在需求条件要高于中国和日本，具有一定竞争优势。在要素条件和相关支持产业方面要远高于中国，却又稍落后于日本。而在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相比于中国和日本却显示出了一定的竞争劣势。第三，日本的广播电视业在要素条件、相关支持产业、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较中国和韩国具有竞争优势，需求条件方面较韩国处于劣势，较中国处于优势，介于中韩两国之间。

四、结　论

文化产业已经成了21世纪的代表性产业，它不仅是高附加值的产业，能够提高文化商品的形象，而且对一国文化的传播也有着非常大的贡献。本文首先考察了中·韩·日三国广播电视业的现状，然后考虑三国广播电视业的特性，根据波特的鉆石模型，建立国际竞争力衡量指标体系，综合比较三国的广播电视行业的不同特色，进而对三国的广播电视行业的国际竞争力进行有益的探索，为广播电视业今后更好地发展提出建设性意见。

韩国方面需要在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加大资金、技术上的支持，今后可以通过与中国的国际合作来扩展市场规模，通过本国的高级技术人员与中国的优良“硬件”结合来减少成本、提升效率、避免资源重夏浪费、提升中国资源禀赋开发的水平，进而使得两国都有良好的发展。日本整体来说具有一定竞争优势，只是需求要素方面仍需要継续加强对广播电视业的运用支援、运用整合电算网来改善流通环境；通过与其他行业的合作与互补产生一种利润递增的内生机制，通过正反馈循环最终实现广播电视业的不断发展状大。

中国的广播电视业相比于韩日两国，首先，在要素条件方面R&D人员数，高等教育入学率及广播电视市场规模等指数相对较低，中国广播电视业今后仍需要进一步培养高级研究人员及对广播电视关联领域的优秀人力资源加大培养力度和资金支持。其次，需求要素条件中手机普及率及互联网普及

率较日本和韩国来说仍存在一定差距，今后应加大开发宽带及移动通信基础设施的建设，增加有线用户、数字电视用户、互联网用户、手机用户的人数，同时注重广播电视内容的文化属性，强调其"广播电视内容创意"将潜在消费人群培养成真正的消费者。

再次，相关及支持产业方面中国的广告业及化妆品产业方面现在仍处于为未成熟的发展状态，其中广告业更应该注重专业化，形成广告服务的独特性，在细分市场的基础上，不同专业广告公司通过业务协作和完善的利益分配机制，从而确保整个广告行业专业化服务的顺利实施。同时化妆品产业缺乏对核心技术的掌握、自主创新及品牌建设已经成为化妆品产业成长的核心问题。今后要在国际市场的激烈竞争中占有一席之地，应该通过强有力的政策、税收优惠来支持企业扩大技术研发投入、增强技术创新能力，积极争取国际质量技术标准体系认可，提高产业的竞争力。再次，企业战略/结构/竞争方面，广电企业在企划和调查研究方面仍需增加支持力度，在海外建立市场调查网络制度、运用广播电视的资料室、增加对海外广播电视业绩文化基础的调查、鼓励投资组合共同制作。

最后著作权相关问题应该向发达国家学习，进一步修订≪著作权法≫，延长著作权保护期间、加强技术保护措施、明确法定损害赔偿责任和赔偿额等。同时，支援国内企业多参加国际展示会、积极开拓海外市场、支援国内广播电视节目在海外的上映、加强国际交流积极促进海外推广。

<参考文献>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 (London: Macmillan Press, 1990), pp.71-107.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8), p.377.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8), p.203.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p.320.

顾江, ≪中国文化产业发展报告(2010)≫（文化蓝皮书）,（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0), p.1.

庞井君, ≪中国广播电影电视发展报告(2011)≫（广电蓝皮书）,（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1), p.1.

喻国明·张小争, ≪传媒竞争力：产业价值链案例与模式≫, (华夏出版社, 2005).
丁和根, ≪传媒竞争力 ——中国媒体发展核心方略 ≫, (复旦大学出版社 2005).
吴飞主, ≪传媒竞争力≫, (中国传媒大学出版社, 2005).
祁述裕, ≪中国文化产业国际竞争力报告≫,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4).
彭祝斌, ≪中国电视内容产业链成长研究≫, (湖南大学博士学位论文, 2008).
廖建军, <竞争力评价模型的比较分析>, ≪湖南大学学报≫, 3:21 (2007), p.88.
简超宗, <浅析中国文化产业的国际竞争力>, ≪四川经济管理学院学报≫, 23:2(2010), pp.76-80.
陈向东, <创意产业广电行业国际竞争力的比较分析—基于中国和欧洲的对比>, ≪现代商业≫(2010), pp.53-55.
中国统计局, ≪中国统计年鉴≫, (2011), pp.894-913.
韩国媒体战略研究所, ≪中国和台湾媒体市场的进出方案≫, (2011.12), pp.21-23.
韩国文化体育观光部, ≪文化产业竞争力强化对策≫, (2007).
韩国文化体育观光部, ≪2010年韩国文化内容产业白皮书≫,(2010), p.1.
韩国文化体育观光部, ≪2010文化内容产业统计≫, (2011), pp.70-71.
韩国文化内容振兴院, ≪2010年第四季度 文化内容产业动向分析报告书≫, (2011), p.5.
韩国文化产业振兴院发表, ≪中日韩文化产业竞争力比较分析≫, (2004).
朴彗英,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Film Industry:Analysis and Strategy approach by Generalized Double Diamond Model≫, 韩国首尔大学国际大学院, 硕士学位论文 (2007).
Website: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中国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http://www.sarft.gov.cn/
中国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统计信息 http://gdtj.chinasarft.gov.cn/

中国互联网信息中心 http://www.cnnic.cn/
韩国统计厅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韩国银行 经济统计系统 http://ecos.bok.or.kr/
韩国e-国家指标 http://www.index.go.kr/
韩国放送通信委员会 http://www.kcc.go.kr/
韩国科学技术委员会 www.nstc.go.kr/
韩国文化体育观光部 http://www.mcst.go.kr/
韩国知识经济部 http://www.mke.go.kr/
韩国知识经济部 统计门户网 www.itstat.go.kr/

<ABSTRACT>

In this paper, we take Broadcast Content Industry as an object of study, based on Porter's diamond model an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 Content Industry in China, South Korea and Japan, established an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easure system to do a useful expl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Broadcast Content Industry in these three countries.

Compare to South Korea and Japan, China still has a certain gap with South Korea and Japan in Factor Conditions, Demand Conditions and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In the future to increase the support of the Broadcast Content Industry, establish market liquidity management system, integrated computing network to improve circulation environment is necessary. Increase efforts to train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technical resources, encourage co-production and investment portfolio, improve the financial support is also required.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se four conditions of South Korea and Japan is more balanced than China. Korea is just slightly week on Firm strategy / structure / rivalry and Japan is slightly week on the Demand. In the future, Korea and Japa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China to expand the size of the market; through combining their positive technical staff and excellent hardware of China to reduce costs and improve efficiency. And the same time could avoid the wasteful duplication of resources, enhance the level of resource endowment development, thereby making the three the countries have a good development.

Keywords : Broadcast, Content Industr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iamond Model, Measure System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第42輯(2012.8)
pp.299～334

多元文化社會整合的少數族裔社區服務角色

--多倫多華人與韓人社團爲例

于德豪*

〈目　錄〉

1. 序　言
2. 加拿大移民潮流與少數族裔的形成
3. 多倫多華人社區社團與服務角色
4. 多倫多韓人社區社團與服務角色
5. 結語與建議

1. 序　言

加拿大與美國、澳洲被稱爲三大接受移民的國家。加拿大雖是由過去英法系民族建國，但在十九世紀中期到二十世紀中期一直接受了來自德、意、猶、匈、烏、波、葡、希臘等歐洲國家白人移民，[1]直到二十世紀六〇年代以後，因著國際與國內的局勢變化才開始接受西印度、中南美、港、韓、台移民。八〇年代中後期又接受第三世界的國際難民。此後，印度、中國、菲律賓、伊朗等亞洲國家的移民成爲主流，致使加拿大看得見的少數族群(Visible minority)[2]不斷快速增長。過去英法系主要民族佔人口多數時期加

* 多倫多大學訪問學者 東亞大學校 東北亞國際專門大學院 講師
(yudehao@hanmail.net)

1) 直到1961年，97%的加拿大人仍來自歐洲。當時只有在卑詩省(British Columbia)居住著五萬來自中國、日本等國的亞裔。1947年加拿大總理麥肯齊·金(Mackenzie King)曾發表聲明，“不希望看到因大規模移民造成加拿大人口特徵發生根本性變化。”資料來源：Saywell,J.著，李鵬飛等譯，≪加拿大-走向今日之路≫(北京：北京理工大學出版社，2006.1)，p.23.

2) 加拿大白人的觀點，除了自己與原住民以外，亞、非、南美等地的新移民皆成爲

拿大推行了二元文化(Biculturalism)和官方雙語。[3]但隨著六〇年代移民政策的改變開放了有色種族的移民，在國內各種少數族裔的呼聲也越來越高。1971年特魯多(Trudeau)政府正式簽署批准了“多元文化主義法案(Multiculturism Act)”[4],讓加拿大成爲現今世界上唯一將多元文化主義納入憲法的國家；這標誌著文化的多元性(Diversity)已成爲加拿大社會的基本特色之一。加拿大多元文化的特色有別於美國的大熔爐(Melting Pot)式的將不同少數民族融合成單一的美國主流文化，而是像鑲嵌畫一樣將五顏六色不同民族的文化保留，並且整合(Integrate)在一起形成一種保留自己顏色又可與別的民族共處的馬賽克(Mosaic)文化(John 1938, 106)。有別於大部份由單一民族組成的的非移民國家韓國，加拿大是由許多不同族裔構成的移民國家。[5]以多倫多爲例有色人種就占整個城市人口的四成。[6]由於目前以英法

“看得見的少數族裔”或“有色族裔”。

3) 二元文化(Biculturalism)一詞最早由加拿大新聞工作者與外交官格拉漢姆·斯普賴(1900~1985)提出。按照皇家雙語與二元文化委員會的解釋，二元文化指加拿大兩種主要文化的存在，即與英語密切關係的文化與法語密切關係的文化。加拿大皇家雙語與二元文化委員會(1963~1969)成立時，以“二元文化”作爲自己工作術語。1969年9月頒佈的≪官方雙語法≫標誌著聯邦政府官方語言政策的正式確立。因著這樣的政策，加拿大所有公共服務機構法語與英語得到平等的地位。而1988年加拿大通過新的≪官方雙語法≫，進一步具體規定了聯邦機構的雙語義務，而學校的必修法語課義務及一般民眾所使用的所有產品表示也都是英、法雙語表示。資料來源：高鑒國,≪加拿大文化與現代化≫(瀋陽：遼海出版社，1999), p.97,100.

4) 皮埃爾·埃利奧特·特魯多(Pierre Elliot Trudeau)在1968年到1984年間任加拿大總理，是加拿大多元文化的創立者亦是實行的主要推動者。1971年在聯邦內建立多元文化部。1973年又組建多元文化諮詢委員會，1984年改名爲多元文化委員會，最終將多元文化寫入憲法。但當時有些人冷嘲熱諷地說這是爲了撈取少數族裔的選票而產生的不良動機，另一些人則相信這是面對不斷呈現多元文化和加拿大變化趨勢所做出的正面反應。但特魯多總理推行多元文化政策與他的出身背景有關。他生在一個融合法裔和蘇格蘭文化的加拿大家庭。從蒙特利爾大學畢業後去了哈佛大學求學，他年輕時有著非常廣泛的旅行經驗，無論是與歐洲的學生或是印度農村的農夫都有很深的接觸，并產生了對新獨立的國家貧困的人民的同情和尊重。特魯多政府的一些政策反映了他的背景和早年的經歷。資料來源：Ivan L. Hand著，章士嶸譯，<皮埃爾·埃利奧特·特魯多-中國的老朋友>，≪中國-特魯多·加拿大≫(北京：民族出版社，2004.10), p.1, 4, 12.

5) 根據加拿大統計局2006的人口普查結果,加拿大總人口爲31,241,030人,其主要族群有English(6,570,015)、French(4,941,210)、Scottish(4,719,850)、Irish(4,354,155)、German(3,179,425)、Italian(1,445,335)、Chinese(1,346,510)、North American Indian(1,253,615)、Ukrainian

語爲母語的人口只佔整個加拿大人口的五分之一[7]。因此，就形成講不同母語的人群居的現象。但新移民來到加拿大大部份會選擇在同文同種的社區(Community)居住。Stephen Qiao(2012)以大多倫多市(Great Toronto Aera 以下簡稱:GTA)爲例，來自港、臺、中等地區的華人皆集中在中區老唐人街(Central Chinatown)、東區老唐人街(East Chinatown)、密西沙加(Mississauga)、士嘉堡(Scarborough)、列治文山(Richmond Hill)Highway 7一帶、萬錦市(Markham)等新華人社區。[8]而從南韓和少數的北韓難民以及加入韓籍的朝鮮族則主要居住在 Christine Koreantown 老社區與 North York 的新社區。因華人及韓人集中在這些社區居住，隨著時間的推移漸漸形成了許多不同的組織及社團。華人與韓人的新移民在職場上會與白人或其他民族接觸以外，大部份華人與韓人的生活圈子皆與自己的民族在一起，特別是多倫多華人或韓人較集中的地區，大小型超市、餐館、洗衣店、美容院等許多商店都標示著中英文或韓英文以招攬自己民族的顧客。[9]實際情況新移民剛來到加拿大絶大部份都是通過說自己族裔語言的社區團體來瞭解加拿大生活上必要的訊息。因爲對於剛入境的移民者或短期工

(1,209,085)、Netherlands(1,035,965)、Polish(984,565)、East Indian(962,665)、Russian(500,600)、Welsh(440,965)、Fillpino(436,190)、Norwegian(432,515)、Portuguese(410,850)、Latin American(304,245)、Arab(265,550)、Southeast Asian(239,935)、West Asian(156,695)、Korean(141,890)、Japanese(81,300)人。(Statistics Canada, 2010), pp.167~168.

6) 根據加拿大統計局2006的人口普查結果，多倫多市總人口爲5,072,075人，其中有色少數族裔(Visible minority)爲2,174,065人。(Statistics Canada, 2010), p.170.

7) 根據2006年統計資料，以加拿大的官方語言英法語爲母語的人口爲630萬(占加拿大總人口的五分之一，其次以華語(含普通話、廣東話、客家語、閩南語、潮州話、福建話、上海話）作爲母語的人口爲1,034,000（占加拿大總人口3%）是目前非官方語的最大語種)(資料來源 Statistics Canada, 2010), p.289.

8) 多倫多華人大部份居住在中區唐人街(www.chinatownbia.com)、密西沙加中國城(mississaugachinesecentre.com)和萬錦市太古廣場(www.pacificmall toronto.com)、士嘉堡錦繡中華(www.splendidchinamall.com)Shopping Mall一帶。

9) 大多倫多市有很多區華人比例非常高,以列治文市(Richmond Hill)爲例，整個區民的華人比例高達41%，伊朗人14%，韓人12%。因此，華人新移民即使不會講英文在此區生活也極爲便利。(資料來源：Wing Pong Chan，現TCCSA(2012.3.6訪談))

作者到講英語的機構辦理事務，語言是一個很大的障礙。Soojin Yu 教授(2012)亦告知加拿大公民與移民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以下簡稱:CIC)只負責入境(Immigration)、公民申請(Citizenship)、外國人移民證件審查(Foreign Credentials Referral)的部份工作。至於新移民來到加拿大安居方面所需要取得的各種證件如(Social Insurance Number)、醫療卡(Health Card)、兒童福利(Child Tax Benefit)、老人福利、開銀行帳戶、註冊手續、入籍、駕駛證、子女學校、醫院、就業等信息渠道，皆委託給非營利性社區社團及NGO來執行。經過政府每年二次左右的服務項目(Program)監督及財務審查後，對於做的好的少數族裔社區服務社團給予政府的經費補助(Funding)。加拿大韓人女性會(以下簡稱:KCWA)Olivia Youngoak Kang, Settlement Coordinator(2012)說明加拿大因著長期接受新移民而積累的豐富經驗，目前已經有160個左右的不同族裔用自己語言爲新移民提供安居服務(Settlement Service)。由於加拿大政府從1950年代開始將社會整合的角色以獎勵少數族裔的這種方式進行，使得來到加拿大的新移民、留學生或短期工作者會發現辦理加拿大生活所需的證件及取得安居相關訊息的管道和窗口，不是在政府機構大樓而是在大型超市或社區交通最方便的地方。韓國人則會在H-Mart等韓國大型超市裏面看到新移民服務機構，華人也會在唐人街華人運營的購物廣場看到不同地區(港、臺、中)華人的社區服務團體，其他少數族裔皆有以本族語言服務的非盈利社團。這樣，加拿大的政策出發點爲親民與便民服務，使得新移民可以藉著接觸自己民族和用自己母語來詢問如何適應加拿大的生活及取得相關信息。這樣大大降低了心裡的障礙，使得新移民更快更好的適應加拿大的生活。這樣的安居服務下放給各族裔的非盈利NGO來執行的體系，不僅提高了安居服務的質量，同時亦提高了效率，使社會整合更加高效與便民。這樣政府與少數族群社團在新移民公共行政方面的有機結合，提高了政府的效能同時也降低了新移民融入社會的門檻，提高了社會整合的速度。

本研究中對於“多元文化主義”一詞Young(1990)提出其論點爲：在於在公共領域中應該正視不同族裔群體的差異，幷給予保障。而不是强調傳統上少數服從多數的概念。“多元文化主義”是一種重視差異、非多數主義的概念。多倫多大學(University of Toronto以下簡稱:U of T)喬治·班立夫(George W. Bancroft)教授提及：“多元文化主義”的弱點，就是每個少數民

族都封閉自守。民族與民族之間應多加來往。不然就變成“彼此獨立的文化單元”而已。幷又主張現今社會沒有人想被同化(Assimilation)，因爲同化等於一種較弱的文化被一種較强的文化所取代，但由於所有文化都有其自己的豐富價值。就沒有人願意將自己的文化由別人所取代。不過我們需要注意的是有一種“文化互溶的概念”，就是兩種文化接觸時，互相交換其優點(George 1979，12)。

對於過去有關多元文化整合加拿大華人與韓人的社區服務研究成果有Saywell, John(2006)在“加拿大-走向今日之路”分析了加拿大多元文化主義的實行在某些方面是爲了安撫法裔加拿大人的獨立情結。高鑒國(1999)在“加拿大文化與現代化”中講述到目前加拿大多元文化主義的理論發展首先是從早期“盎格魯遵從”的同化理論開始，發展到“民族熔爐”理論，再到“多元文化主義”理論，近來發展到“馬賽克多元文化主義”理論。David, Chuenyan Lai(2011)的著述 “A Brief Chronology of Chinese Canadian history: from segregation to integration 1788-2010”，幷將加華223年歷史定義爲“從隔離至融合的歷史”。李勝生(1992)在“加拿大的華人與華人社會”中講述了早期從廣東經香港來到加拿大的華人，皆爲農民，因兩地工資差在10~20倍之間，故吸引了大量苦力(Kuli)來加打工。後來加拿大政府爲了限制華人入境徵收人頭稅(Head Tax)高達五百加幣後,華人的移入才漸漸停止。李未醉(2007)在“加拿大華人社會內部的合作與衝突研究”中提到因大陸和台灣外交戰中對峙或休兵，間接影響海外加華社團而形成了“合作與衝突的歷史”。雖然對於華人的社區及社區服務有些以上的先行研究成果，但對於移民史只有五十多年的韓人移民社會，收集有關文獻，實爲不易。可喜的是從今年中旬開始加拿大U of T和英屬哥倫比亞大學 (University of British Colombia) 得到 Korean Foundation與Sharon's Credit 的財政支援以 KCHA (Korean Canadian Heritage Archives)Project之名進行1940年代到現今的加拿大韓人資料的收集工作。[10]。因2013年是韓國與加拿大建交50周年。因此，韓人會目前正在著手編寫加拿大韓人50周年移民史特刊。

---

10) 資料來源:Hana Kim,≪Korean Canadian Heritage Archives≫(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http://link.library.toronto.ca/eal/web/resources/korean/KoreanCanadianHeritageArchives_2012.05.28.pdf)(Searched date: 2012.5.10))

本論文以社會學的角度來分析多倫多華人與韓人的社區與其服務團體的角色。除了參考多倫多華人及韓人的過去文獻和服務社團的相關資料，特別爲了取得最新且最眞實的新移民社區服務訊息，選擇了幾個最具有代表性的華人與韓人社區服務社團的八位負責人進行了深度訪談。訪談對象按時間前後分別有 Wing Pong Chan(現多華會(以下簡稱:TCCSA)Program Assistant，ISAP)、Kang, Shin Bong(前多倫多韓人會(以下簡稱:KCCA)會長，前加拿大韓人會總會長）、Soojin Yu（前加拿大渥太華大學教授）、Daewoon Kang（北韓逃北女性人權保護委員會Director Planning）、李鎭洙會長（現KCCA會長，前加拿大韓人會總會長）、Danise Yan(大多倫多中華文化中心（以下簡稱:CCC）Event Manager)、Choi, Sung Hak(KCWA創會長)、Olivia Youngoak Kang(現 KWCA Program Manager，Settlement Coordinator)。通過社團代表和負責主管的深度訪談，瞭解到實際運營非盈利社團的酸甜苦辣。

通過本研究思想到在一個多元文化社會中究竟通過少數族裔的社區服務的角色可對社會整合貢獻什麼？本論文藉著以上的研究希望得到以下三個問題的答案爲本研究目的：第一，加拿大與韓國社會對於多元文化主義的瞭解上有什麼差距？第二，安居服務方面加拿大模式的特色爲何？第三，以現今韓國的少數族裔社團能採用加拿大模式的可行性？希望藉著加拿大政府多年來接受新移民的經驗所實行加拿大模式，能夠在韓國和台灣的多元文化社會整合上提供寶貴的參考，以便找出適合兩國的新移民社區服務模式。

2. 加拿大的移民潮流與少數族裔的形成

加拿大是移民國家。這與加拿大本身擁有目前世界上最廣闊的土地、豐富的天然資源以及稀少的人口有關。加拿大被譽爲絢麗多彩的鑲嵌畫(或稱馬賽克)，是因加拿大的組成份 子有來自歐洲的白種人 、來自非洲的 黑種人、來自亞洲的黃種人、來自美洲的棕種人等五顏六色的民族色彩鑲嵌在加拿大畫框上，形成多彩多姿、多元文化的一幅畫。這樣形成文化多元性的背景是與加拿大的開拓史有著密切的關系。曾在加拿大渥太華大學任教的Soojin Yu教授將加拿大按移民政策變化爲觀點將北美加拿大開始有人移居到現在按時間前後可分爲四個不同的移民時期：[11]

1) BC40,000~AD1867年期間, 第一民族(First Arrivals)移民期：

這段時間主要是公元四萬年前開始來自亞洲西伯利亞(Siberia)穿越白令海峽(Bering Strait)[12]來到北美大地的原住民(Aboriginal People)，[13]近代1608年來自法國的撒母耳·查普蘭(Samuel de Champlain)在魁北克城聖勞倫斯河邊建立了法國人第一個加拿大立足點，法國人將自己所住的地方稱爲新法蘭西(New France)而從事捕魚、耕作和皮草貿易。以後十七世紀中期英格蘭(England)和蘇格蘭(Scotland)的農夫和工匠開始來到加拿大移居，成爲第二批歐洲人。由於大不列顛和法蘭西因民族間的利益衝突及爲佔據加拿大作爲殖民地而發起了戰爭，最終由英國勝利。[14]此後，加拿大就由大不列顛(British)統治直到今日。後續的移民潮是發生在1776年美國獨立戰爭時期，當時在美國國內不願意看到美國就此脫離英國統治的美國親英份子(US Loyallists)和難民大舉越過邊界來到了加拿大。戰爭結束以後這些人只有

---

11) 資料來源 ： University of Ottawa(課程代號:SOC 4121), January 2010. 2012.5.15 Soojin Yu提供。

12) 自亞洲穿越白令海峽來到北美的有印第安人(定居在Yukon和以南地區)和因紐特人(越過Yukon定居在Mackenzie River以東地區), 以後與法國、英國毛皮商人結婚的原住民, 所生的後代被稱爲梅蒂斯人, 這三種原住民生活在加拿大不同的地區, 過著不同的生活方式。(資料來源:Ralph R Krueger, Raymond G. Corder≪Canada a New Geography(Revised)≫(Toronto,Holt Rinehart and Winston of Canada,Limited,1974), pp.39～41.

13) 2006年統計在加拿大稱自己爲原住民或稱最初民族(First Nations)的後裔總人口爲1,172,790人。其中北美印第安人爲698,025人(佔60%), 梅蒂斯人(Metis)爲389,785人(佔33%), 因紐特人(Inuit)50,480人(佔0.4%)。(資料來源:Statistics Canada,<Population, by Selected Ethnic Origins, 2006>,≪Canada Year Book 2010≫(Publish by Minister of Industry 2010)), p.1.

14) 北美新大陸的發現,法國和英國爲了取得殖民權發生了大大小小的戰爭, 其中1759年在英軍詹姆斯·沃夫(James Wolfe)將軍指揮下襲擊了法國軍官蒙特卡姆(Montcalm)的法軍取得了勝利并控制了魁北克城(Quebec City)。1763年所簽訂的巴黎合約中新法蘭西成爲英國在北美的另一個殖民地。而意外的是征服新法蘭西成爲引起美國革命戰爭的重要起因。由於英帝國在這場戰爭和控制殖民地所需的經費需從增加美國人的稅收來彌補。因此, 激怒了美國人, 并引發了一片“不繳納沒有名目的稅收”的呼聲。最後引起了美國要求從英國獨立的革命戰爭。(資料來源:Saywell, John著, 李鵬飛等譯, ≪加拿大-走向今日之路≫(北京:北京理工大學出版社, 2006.1)), p.34, 39, 42.

10%回到美國，其他人就定居了下來。接著1780年開始德國分離派教會成員(German Sectarians)中門諾派教徒(Mennonites)、摩拉維亞教徒(Moravians)、[15]浸禮會派信徒(Tunker)因著主流教派的逼迫陸續來到加拿大移居。1830年代開始陸續有許多愛爾蘭人(Irish)農夫[16]移入，特別是1945年發生了馬鈴薯饑荒(Potato Famine)，就有更多的愛爾蘭農夫移入加拿大。1858年代因爲在卑詩省(British Columbia)發現金礦[17]大量來自美國舊金山地區的華人移入到加拿大。

2）1867~1914年期間，擴大接受歐洲移民期：

這段時期主要是自魁北克、安大略省等四省聯盟(Confederation)建立至第一次大戰發生時期。1867年因著大不列顚北美法案(British North Act)的通過，加拿大宣佈立國。當時人口僅僅超過300萬。1881年～1884年由於加拿大要建設橫跨東西兩大洋的加拿大太平洋鐵路(Canada Pacific Railway)，因此，從中國廣東招募了鐵路工人。[18]李勝生(1992,2)提及當時

15） 摩拉維亞教徒亦稱兄弟會,當時爲了傳教就來到加拿大原住民的村莊與原住民同住。不僅衣、食、住、行與原住民相同，甚至與原住民通婚完全融入原住民的生活當中。目前在加拿大已有許多摩拉維亞教徒與原住民通婚而生下的後代住在原住民保護區內生活。(資料來源：Soojin Yu, 前加拿大渥太華大學教授(2012.5.25訪談))

16） 根據考究當時自愛爾蘭移居到加拿大的農夫大部份爲家中的老二老三。因爲當時愛爾蘭的風俗爲父親去世以後將耕地的所有權完全給長子作爲遺產。因此，長子以外的子女因得不到耕地就紛紛來到加拿大移居。當時加拿大因獎勵新移民來拓荒，所以土地幾乎是免費提供。(資料來源:Soojin Yu，前加拿大渥太華大學教授(2012.5.25訪談))

17） Anthony提到加拿大的第一批華人淘金移民來自舊金山(三藩市)。1848年在美國舊金山 John Sutter's Mill地區沿著薩克拉門托河(Sacramento)發現金子的消息傳到中國廣東後，立即引起騷動，再加上商人的遊說，使得原本1848年只有300人去加州，到了1852年暴增到25,000人來淘金。淘金熱降下來後，1858年第二個金山則在加拿大的弗雷塞河(Fraser River)與湯普森河發現。這事傳到加州後，加州華人就乘船從舊金山前往加拿大的維多利亞(Victoria)港，另有一些人徒步到達 British Columbia(現卑詩省)的採礦區，這些人是加拿大的華人移民先驅之一。(資料來源:Anthony B. Chan, ≪Gold Mountain≫(Toronto:New Star Books. Ltd, 1983)), p.23.

18） 1881年加拿大要興建橫跨大西洋和太平洋的鐵路，因爲當時可以從事鐵路工的人口太少，而且當時白人保護工人聯盟(後來發展爲反華協會)向政府情願，要求卑詩省內興建的加拿大太平洋鐵路不應使用“蒙古勞工”。後來安德魯(Andrew

兩國的工資差在10~20倍之間，因此吸引了源源不斷的農民苦力(Kuli) 離鄉背井冒著危險前來打工。1880年代同樣爲建築太平洋鐵路也有來自意大利(Italians)的工人。1880年代亦有從俄羅斯逃出來的猶太(Jewish)難民來到了加拿大移居。1886年匈牙利人(Hungarians)開始移入加拿大，幷住在沙省(Saskatchewan)。1887年起摩門教信徒也開始移居到阿爾伯達省(Alberta)，1889年開始陸續有烏克蘭人(Ukrainians)移居到曼馬尼托巴省(Manitoba)定居，以後1899年當時有來自俄羅斯的七千杜霍波爾人(Doukhobors)因著宗教迫害來到沙省定居，後來也移居到卑詩省，1905年約有五千來自印度西北部的塞克教徒(Sikhs)移居到卑詩省，1907年有八千日本人移居到加拿大。1901年有約11,000和1911年有約46,000意大利人移民到加拿大。1913年各國的移入民甚至達到四十萬人的歷史新高。這段時期移民的人數大大上升(Soojin Yu, 2012)。

3) 1914~1962年期間，高度限制其他地區移民同時繼續接受歐洲移民期：

因著1914~1918年第一次世界大戰和1939~1945年的第二次世界大戰加拿大政府因著國防安全考慮就高度限制了移民。而1930年代的經濟大恐慌也加劇了限制移民政策。因此，1914~1945年期間基本沒有人移入加拿大。這段期間加拿大參加的聯軍之敵國如德國及日本族裔則遭受到悲慘的命運，[19] 1945年二戰後因著加拿大經濟的好轉大量的移民也開始湧入，1945~1950年期間許多波蘭(Polish)的貿易商、熟練工及礦工開始移居到加拿大。

Onderdonk)獲得鐵路合同，需要招募至少一萬工人建築鐵路。據統計，1880年卑詩省人口爲35,000，大部份從事淘金、挖煤、裝魚罐頭工業等，剩下不到400人可從事建築鐵路。因此1882年5月加拿大總理麥當勞(John A. Macdonald)爵士對卑詩省宣稱，一定不能抵制華工。如今只有一個選擇:雇用華工，或者放棄建築鐵路。因此，截至1882年底，九千多的鐵路工人當中超過70%是來自廣東的華工，而在鐵路建築過程中，數以百計的的華工因爲意外、嚴寒、疾病和營養不良而喪命。(資料來源：David, Chuenyan Lai,≪A Brief Chronology of Chinese Canadian History: from segregation to integration 1788-2010≫(Victoria: Simon Fraser University David See-Chai Lam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Publishing),p.1.

19) 其中德國的移民者被驅逐出境,而日本的移民者則要求移居到一個地方嚴加管理,否則遭到遣返或監禁其財產也遭到沒收。此外，加拿大也拒簽來自烏克蘭、俄羅斯、芬蘭的移民。(資料來源：Soojin Yu, <University of Ottawa Lecture(SOC 4121)>(JAN 2010), p.5.

1956~1957年匈牙利難民(Hungarian Refugees)開始湧入，其中職業類別非常廣泛。1950~70年代意大利、葡萄牙、希臘移民開始移入到加拿大成爲工廠工人和其他服務業。1960年開始爲數可觀的西印度(West Indians)工人移居到加拿大塡補工廠、護士的勞工市場。1968年來自香港的移民已成爲非歐洲移民的爲數最多的移民。在這一段時期的移民雖然有一些亞洲移民，但國家政策還是看出生地而決定接受移民與否的成份居多。

4) 1962~現在，對所有族群公平篩選移民資格及多元文化主義興起時期：

這段時期可以說是改變了過去以白人爲主的移民政策，將移民的門戶開放給所有夠資格的非白人族裔和國家。而且加拿大亦想藉著引進世界上的高科技人才提升勞工市場的素質。1971年因著宣佈多元文化法案使得移民來源國更加多元化。1960年代開始在德國工作的南韓礦工與護士結束合同以後，有一部份人不願回到南韓而移民到北美加拿大，也有一些參加越戰的老兵和早期移民南美後再移民到加拿大的韓國人(李鎭洙，2012)。1970年代開始從南韓來了許多移民從事餐廳、洗衣店等服務業。1970年代以後陸續也有來自日本、香港、台灣的移民從事服務業。也有來自中南美的移民。基於人道主義又接受了越南難民(Boat People)、中國法輪功被迫害者、逃北難民。[20] 1978年中國改革開放以後開始漸漸有中國留學生來加留學，以後留下來也漸漸形成中國移民。而1997年香港回歸的前幾年，因著擔心香港一旦返回中國就不能實行資本主義市場經濟的中上階層的商人大舉移民同屬英聯邦的加拿大。2006年開始東南亞移入民越來越多，特別是菲律賓人的大量移民，佔據了低工資的勞力市場，特別是照顧白人孩子的保姆市場居多。這段期間大部份的移民來自亞洲，特別是進入2000年末以後香港、日本、韓國、台灣的移民漸漸減少，甚至一些迴流移民，但來自中國的移民的人數每年以最快的速

20) 位於多倫多的“北韓逃北女性人權保護委員會”的 Daewoon Kang, Director Planning說明：2007年起加拿大也開始接受許多從北朝鮮逃到中國、俄羅斯、越南、柬埔寨再向加拿大申請難民保護而順利來到加拿大的逃北者。這些人一到加拿大就可得到每月650加幣的基本生活費和一些生活補助。而且一般在6~12個月就可得到永久居留權，目前約有一千人左右。年齡層40~50歲女性佔五成，小孩佔三成，男性佔二成。(資料來源：Daewoon Kang, 北韓逃北女性人權保護委員會(N.K Women Rights Committee)Director Planning(2012.6.2訪談)及網站)

度遞增幷成爲加拿大成長最快的移民群。

3. 多倫多華人社區社團與服務角色

1) 華人社區現況

根據2006年加拿大統計局資料顯示，整個加拿大華人有1,216,565人，其中安省有576,980人,GTA有486,325人(Statistics Canada 2010,170～171)，並且是成長最快的族裔。華人的加拿大移民史根據不同的學者推算約有150~200多年歷史，[21]文字及資料保存較完整的應屬十九世紀中期的淘金熱，因早期登陸加拿大華人皆群居在卑詩省的維多利亞市；然後慢慢遷移至較大的溫哥華市，近來愈來愈多的華人選擇居住在GTA。因此，這三大城市的華人較多。多倫多華人社區的組成人員來源國非常多樣，U of T江紹倫(Shiu L. Kong)教授提及加拿大華人社區有來自中國、東南亞(香港、台灣、新加坡、馬來西亞、越南等)、印度、非洲、西印度群島(牙買加等)、南美洲、澳洲及歐洲；而且講四~五種方言。因此，華人彼此之間溝通都不太

21) 像 David Chuenyan 部份學者主張加拿大華人移民史應從1788年算起到今年有223歷史。緣起爲1788年春天，英國皮草貿易商人梅亞士(John Meares)船長在澳門和廣州雇用了五十多名清朝的鐵匠和木匠，啟程前往加拿大西岸，於5月13日抵達溫哥華島的綠加海灣(Nootka Sound)。第二年梅亞士船長又雇用了七十多名華工，協助建築一座城堡和一艘四十噸的帆船 。這些幫忙開發當時英屬哥倫比亞(BC:British Columbia)這片處女地的華人工匠，就是最早來到加拿大的華人。David, Chuenyan Lai,≪A Brief Chronology of Chinese Canadian History: from segregation to integration 1788~2010≫(Victoria: Simon Fraser University David See-Chai Lam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Publishing), p.1. 另有一些學者如 Anthony B. Chan主張加拿大的華人移民應從1858年加拿大發現金礦時開始算起，其背景爲1848年在美國三藩市(舊金山)John Sutter's Mill地區沿著薩克拉門托河(Sacramento)發現金子的消息傳到中國廣東後，立即引起騷動，再加上商人的遊說，使得原本1848年只有300人去加州，但到了1852年暴增到25,000人來淘金。淘金熱降下來後，1858年第二個金山則在加拿大的弗雷塞河(Fraser River)與湯普森河發現。這事傳到加州後，加州華人就乘船從舊金山前往加拿大的維多利亞(Victoria)港，另有一些人徒步到達 British Columbia(現卑詩省)的採礦區，這些人是加拿大的華人移民先驅之一。(資料來源：Anthony B. Chan, ≪Gold Mountain≫ (Toronto:New Star Books. Ltd, 1983), p.23.

容易(George 1979,7)。由於來源國不同，除了主流社會說廣東話[22]以外，在自己所屬的親睦團體內也常說著出生地語言如普通話、客家話、潮州話、福建話等。而且服務性社團也分別由廣東、香港、台灣、中國、越南、馬來西亞、緬甸、寮國等東南亞華僑背景爲主所運營的機構。如：台灣僑民社區服務中心、華人諮詢服務處等[23]等社區服務社團，而其中最活潑的應屬說廣東方言的香港及早期廣東移民的社區社團。因此，在這麼多的華人社團中組織最大活動最頻繁、勢力與財力較大的也是說廣東及香港背景的大多倫多文化中心和多華會等社區服務團體。因篇幅有限本論文只能選這兩個活動最頻繁且最具代表性的大多倫多華人社團爲Case Study對象。

2) 華人服務社團

第一、大多倫多中華文化中心(CCC)

CCC是一所坐落在GTA新移民相對集中的士嘉堡(Scarboug)區，第一期工程建築爲23,000M2的大樓，第二期工程建築爲多功能會堂及演藝劇院及中式園林。CCC裏面有接待大廳、展覽室、教室、會議室及辦公室等，爲了促進加拿大與亞太貿易發展在文化中心裏面亦設立亞洲商業及文化發展中心。成立的宗旨爲：中西薈萃，繼往開來；幷積極弘揚中華文化，作爲文化交流的橋樑，目標爲：輔助加拿大華人認識自己的族裔文化；讓全加拿大公民分享中華文化；增進不同族裔之間的瞭解和尊重；共享和諧與豐盛的生活；讓更多國內外人士瞭解加拿大文化特色幷參與文化工作，以求盡善盡美。幷爲全國樹立榜樣；向世界華人宣揚加拿大的成就及就業機會；藉著文化事工溝通東西貿易和商業交流以及使文化中心在國際上享有卓越聲譽(Denise Yan, 2012)。CCC自1988年成立籌備委員，經過各種私人、企業、

---

22) 加拿大老華僑的祖籍大部份來自珠三角八個縣爲主，其中四邑66%；三邑16%;中山縣9%；其餘9%來自其他鄉縣。而目前六七〇年代來自香港的移民所說的比較接近廣東省省會廣州的標準方言，這與150多年前從廣東省鄉下來的苦力工人所說的廣東話有很大的差別。這與1608年早期從法國來到魁北克市、蒙特利爾市所居住的法裔加拿大人所說的古法文與現今法國巴黎所說的法文口音上有很大的差別是同出一撤的。(資料來源：于德豪，<從隔離到融合至貢獻:從國族認同看加華對韓華的啓示>,≪동아시아: 비교와전망≫11:1(2012.4), p.107.

23) 資料來源:台灣僑民社區服務中心及華人諮詢服務處網站。

加拿大政府的募款[24]後於1996年動工興建1998年5月2日完成第一期工程而啓用。2003年開始了第二期工程，根據加拿大政府對於非營利性的NGO社區服務團體的經費資助模式，凡私人及企業捐款一定數量後，政府就給予同等金額的經費輔助。因此，這種鼓勵制度紛紛讓各少數族裔主動在社區發動募捐幷由政府輔助一半的方式建立少數族裔社區服務機構。CCC的運營由董事會來負責，根據2011~2012年董事局組成人員[25]可知，除了一位西人外全都是華人，因此可知這是由華人實際運營的非盈利社區服務NGO。CCC所提供的社區服務項目大體上可分爲溝通中加文化、華人社區服務、一般外展工作還有一些興趣班的課程，其詳細內容可見下<表1>。

---

24) 興建CCC的財政來源有三級政府(聯邦、省、市)的補助; 如聯邦與省兩度撥款共補助300萬加元的Match Fund及市政府免費撥地興建大樓。大額個人捐款方面先後有何鴻燊博士夫人、孔憲紹博士、伍利德蕙女士、文洪磋博士伉儷、梁國光博士、何國源先生、Lucina Ho女士, 企業巨額捐款分別有貝爾電話(Bell)、加拿大航空、加拿大滙豐銀行(HSBC)、皇家銀行(RBC)、4L Graphics、帝國商業銀行、多倫多香港獅子會、滿地可銀行(BMC)、多倫多道明銀行(TD)、豐業銀行等捐款。由於總工程費共花了3,000萬加元。由於當時爲了支付整個工程費, 因此向幾家銀行貸款付清工程費。因此, 需要常常募款以便支付銀行貸款利息及整個大樓的保養費。所以每年五月舉辦"華讌(Imperial Ball)"；七八月舉辦"高爾夫慈善賽"、"活拜馬場華人日"來進行募捐, 並且將大樓一些教室租賃出去, 以便維持整個大樓的經常性支出。(資料來源:Danise Yan, CCC Event Manager(2012.6.22訪談))

25) CCC 2011~2012年董事局成員有主席、副主席、會長、副會長四人、財政、中文秘書、英文秘書、董事9位(其中一位是西人)、海外董事三人。值得一提的是創立CCC的主席張明達醫師爲香港移民, 副主席伍卓生先生亦是生活在加拿大六十多年的老移民。今年加拿大總理訪華時, 張主席亦陪同爲代表團的一員, 並且完成了熊貓致贈加拿大的關鍵任務。CCC義工二百多人來自不同背景與年齡, 整個CCC只有八名領薪資的職員, 其他都是義工來運營。(資料來源:Danise Yan(甄煥燕), CCC Event Manager(2012.6.22訪談))

<表1> CCC服務項目

服務項目	服　務　內　容
溝　通 中　加 文　化 方　面	1、致力增進加拿大國家芭蕾舞劇團與中國舞蹈界之溝通及聯繫，並爲該團之教育性節目引進中國舞蹈。 2、協助主流機構瞭解中國。 3、爲加拿大歌劇團提供協助，并參與策劃及籌備一項中學生欣賞的中西歌劇活動。 4、與安省美術館、皇家安省博物館合辦中國傳統節日新年、中秋節文娛活動。 5、編撰適合學齡兒童有關傳統工藝課程，并協助學校推行此課程。 6、協助主流文化機構在華人社區進行演出及交流。 7、學校活動：小學-介紹中華文化、中學-中國文化及時事 研討會，爲多元文化提供諮詢服務、大專-與多倫多大學及嘉士堡大學簽訂協議提供諮詢及亞洲貿易等課程服務。
華　人 社　區 服　務 方　面	1、組織兒童繪畫、作文及歌唱等各項比賽。 2、通過音樂會、展覽會等活動，贊助及鼓勵華裔藝術家。 3、爲加拿大華裔學者、藝術家等提供介紹及引薦服務。 4、設立華人藝術家電腦網絡。 5、出版各類與中華文化有關之刊物。
一　般 外　展 工　作	1、中文課程，含國語、粵語班。 2、在中秋節、農曆年及其他重要節日在報章刊登中華文化特刊。 3、在學校、養老院及公共圖書館舉行中國文化講座。 4、爲主流社會刊物提供中華文化的文章。

資料來源：Danise Yan, CCC Event Manager(2012.6.22提供)

CCC因具有許多教室，因此可以開設許多興趣班，如：舞蹈、氣功、乒乓、太極、烹飪、書法、戲曲、國畫、陶藝、普通話、兒童乒乓、兒童中的文學校等課程。興趣班一般爲期三個月，每週周間一堂課，每堂90分，收費平均爲100加元，開放給社區所有的人並且以英語、廣東話、普通話授課，但學生爲華人居多。兒童中文學校是九個月課程，每週六上二小時。除此之外近年來CCC舉辦的社區大型文化活動有中國學習團(1998年起)、絲綢之路文物展(2000年)、慶祝澳門回歸演出(2005年)、大型演唱會(2006年)、

郎朗鋼琴大師課等文化活動(2007，2008)、辛亥革命百周年展(2011年)，還有一些慈善活動，如:SARS(2003年)、南亞海嘯(2005年）、印尼地震及菲律賓山崩(2006年)、緬甸風災及四川地震(2008年)、加拿大貧民食物募捐運動(2009年)、殘障人士關注日(2009年)。還有每年頒發加拿大優秀華裔青年人獎和舉辦青年人活動，并聘請Adrian Anantawan(右手殘障國際知名小提琴家)、陳偉群(加拿大世界花式溜冰冠軍)、劉郎寧、王魯(著名雙鋼琴家)爲青年大使。并與中國駐多倫多總領館合辦鄭和下西洋600周年紀念會(2006年)、北京奧運會圖片展(2008年)及尼亞加拉大瀑布中國音樂會(2005年)等活動(Danise Yan，2012)。

第二、多華會（TCCSA）

TCCSA成立於1973年，當時名稱爲多倫多華人社區服務協會，并提供新移民安居與社區服務。麥嘉雅(Lino Magagna)博士提到多倫多華人社團成立之前是意大利社團先向華人服務的[26]。並且協助TSSCA成立及發展的。江紹倫博士回憶當時成立社區服務機構時考慮到四個方面的問題：一、要提供何種服務？二、地點選址要在哪里最爲合適？三、運營經費的來源如何解決？四、人員從哪里來？(George 1979, 41～42)就這樣於1973年TCCSA成立，當年爲社區提供輔導、教育、英語班、入籍班等服務，每月服務500多人次。TCCSA1976年註冊爲非盈利及慈善機構，1984年成爲多倫

26) 加拿大意大利人的移民史是從第一次世界大戰以前,他們從歐洲來到多倫多市中心以北聚集起來。但在一戰結束後，意大利人開始向西部城市移居，因此，當時意大利政府在比華利街（Beverley）及登打市街（Dundas）附近開設辦事處。在五〇年代期間，從歐洲約有15~20萬人移民到加拿大，其中很多人居住在多倫多市。新移民帶來不少問題。因此，在1960年促成設立一所意大利人職業輔導中心，定名爲C.O.S.T.I（目前已發展到18個分部，用60種不同語言每年幫助五萬多新移民，網站 www.costi.org)。而中國移民的大批湧入就在六〇~七〇年代。而多倫多的中區老唐人街就在意大利辦事處附近。因此，就在那里教授英語。華人因地利之便就與意大利人一起學習英語，當時學生各佔一半。1970年~71年之間COSTI覺得應該成爲多元民族的服務機構，并想除了爲歐洲人服務以外，也應爲華人服務。所以就聘請華人江紹倫博士，協助他成立一個完全獨立的機構“TCCSA”。並且在她的發展過程中扮演著旁觀及顧問的角色。(George H.K, <Effective citizenship in canada's multicultural society-a chinese perspective>, ≪The Intercultural Conference Held in Toronto, April 8-9, 1978≫, publish by Council of Chinese Canadians in Ontario on FEB 1979) , p.42.

多公益金成員。隨著港、臺、中華人新移民大量湧入大多倫多市的不同衛星城市，爲了靠近華人社區服務，分別於1990年在密西沙加、1995年列治文山、1996年密西沙加、1997年萬錦市、2002年萬錦市、2006年士嘉堡分別成立分支機構。社區服務主要可以分爲四個方面其詳細內容如下<表2>。

<表2> TCCSA社區服務項目

項目	宗　旨	形式(活動節目)	諮詢(或服務)範圍
安居服務	提供諮詢輔導服務以協助新移民能夠對加拿大的社會制度有更深的認識并早日融入加國生活。	個人輔導、安居資料填寫、電話諮詢、電腦使用、專題資訊講座、資訊佈告板、新移民安居諮詢小組。	教育、就業、移民、醫療保險制度、房屋、入籍、兒童福利、老人福利、註冊手續（出生、結婚等）社會福利援助、稅務、其他。
教育及語言培訓	致力幫助新移民提高英語水平，以便可以充滿信心地在新環境內獨立生活，并將其技能用之於主流社會。	LINC(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ESL英語會話班、入籍班、中文版（14歲以下）。	
社區青少年服務	幫助華裔新移民增強溝通技巧，適應加拿大生活方式并提高生活素質。	義工培訓、青年大使選舉、婦女互助小組、老人互助小組、興趣班、兒童夏令營、Elite-童心智健計劃、親子計劃、中文學校、文化探索之旅、青年環保大使。	
捐贈基金	幫助華人融入社區，爲社會貢獻同時亦獲得稅務優惠。	通過捐款爲TCCSA所提供的社區服務提供資金，以幫助新移民儘早適應加拿大社會。	捐款金額會進入政府註冊的慈善基金會，捐款人可以指定捐贈用途。如：兒童中文學校。大筆基金也可用親友或家人名字留名紀念。

資料來源：TCCSA網站及Wing Pong Chan(2012.3.6訪談)

*LINC班是CIC資助并委任NGO爲新移民(尚未入籍人士)及公約難民開辦的英語課程，年齡必須要18歲以上，不但費用全免，而且爲考慮有孩子不能上課的婦女提供托兒服務和車費補貼。

TCCSA和其他華人社區社團每年聯合舉辦一些大型活動，幷扮演搭建與當地主流社會和其他族裔交流的平臺的角色，其中以多倫多中區華埠同樂日(Toronto Chinatown Festival)及萬錦市國際抬轎比賽(Remington Markham Sedan Chair Challenge 2012)最具代表性，其內容如下：

多倫多中區華埠同樂日是每年多倫多唐人街慶典，歷屆主辦者爲多倫多華埠商業促進區(Toronto Chinatown Business Improvement Area)。舉辦主旨爲讓不同族裔的人們相聚在每年的多倫多中區華埠同樂日，體現著多倫多的多元化。幷藉著華人的中秋節感受到亞洲的文化和藝術。以去年第11屆多倫多中區華埠同樂日爲例；活動選址於登打士西街(Dundas)與書院街(College)之間的士巴丹拿道(Spadina)東側(市內唐人街最繁華的一條街)，時間爲九月十日~十一日。活動節目有舞龍、舞獅、少林功夫及各種國際表演，還有專爲小朋友準備的表演及參與節目。[27]此兩日的慶祝活動吸引了約十五萬人來到中區唐人街。CHINATOWN BIA華人主席雷普信(Tonny Louie)因著爲社區所付出的貢獻，今年被選爲2012年加拿大25位傑出移民獎[28]的得獎人之一。

萬錦市國際抬轎比賽是由TCCSA主辦，萬錦市政府協辦，以及安省旅遊文化廳和THE REMINGTON GROUP贊助。今年剛好第二屆；活動日期爲2012年五月二十~二十一日，地點爲萬錦市市政府廣場舉行。活動節目有嘉年華、抬轎比賽(1.5公里及2.6公里)、大型花轎遊行、亞洲各國美食攤、歌唱音樂表演及煙火表演等活動。[29]

今年多華會還特別舉辦世界最長接龍比賽(破吉尼斯紀錄:5.2公里)。GTA華人居住較多的萬錦市在三位華裔議員的推動下，將位於華人較集中的一條新街道命名爲SUN YAT-SEN Avenue(逸仙路，目前中國以外印度加爾各答市也有一條中山路)，而中國的中山市也回贈世界最長的舞龍。中國中山市長率領的代表團將在2012年9月到達多倫多，參與"萬錦騰飛中山龍"的盛事，並將出席逸仙路的動土禮。從404高速公路沿史刁士大道(Steeles Avenue)向東至冰梨路(Brimley Road)爲5.3公里。多華會正在募

27) 資料來源:多華埠商業促進區網站(2012.6.5)
28) 資料來源:Gautam D. Sharma<Top 25 Canadian Immigrants>≪Canadian Immigrant≫(Volume 9, Issue 6, June 2012), p.24.
29) 資料來源:Wing Pong Chan, TCCSA(2012.3.6提供)

捐，凡捐20元以上可獲得退稅收據。幷招募志願者6,000人參與活動。此龍造價將超過50萬人民幣(約8萬加元)。舊的世界紀錄是2007年河南洛陽牡丹花節的5.065公里長龍。這次舞龍的長度爲5.3公里。這條刷新吉尼斯世界紀錄的大龍，將於今年9月30日在“萬錦騰飛中山龍”慈善舞龍活動中亮相。中國駐多倫多副總領事吳冬梅說，今年是龍年，龍在中國有特別意義，中國人稱爲“龍的傳人”。她希望這條龍不僅是爲萬錦市帶來歡樂和喜事，也促進中加兩國的文化交流。30)

3）華人社區服務角色

從<表1>可以得知CCC對於大多倫多華人社區的服務角色可歸納爲下列幾個方面。一、讓多倫多華人認識自己的族裔語言與文化。二、讓加拿大公民因著瞭解中華文化而增進不同族裔之間的和諧關係。三、讓國內外瞭解加拿大文化特色幷向世界華人宣揚加拿大的成就。四、藉著文化事工作爲加拿大與中華圈國家的橋樑角色。五、提供社區所在的中小學、大學、老人院、公共圖書館有關瞭解中華文化方面的講座及課程。六、參與加拿大的多元文化的相關活動，增進各族裔相互間的瞭解幷使社會更加和諧。

由上<表2>的內容可知，TCCSA的服務重心及扮演的角色在提供新移民的安居服務上，如：一、提供安居諮詢、單張填寫、就業協助、醫療保險、房屋、入籍、稅務、註冊手續、兒童老人福利、社會福利援助等服務。二、開設英語、粵語、國語、兒童中文學校等語言學習課程讓華人認識自己的族裔語言。三、對青少年亦有青年大使選舉來鼓勵融入主流社會幷出人頭地。四、舉辦培育青少年增强溝通能力的活動。

還有華人社區及社團所舉辦的族裔慶典活動帶動了消費及吸引外地人旅遊，成爲GTA多元文化慶典中的一個環節。地方政府藉著與華人社團的合作，增進了加中兩國的友誼。以上華人社區的社團扮演了分擔CIC的新移民安居公共事業，而且採取主動舉辦大型活動幷採取與地方政府合作模式。

30) 資料來源：TCCSA網站(2012.6.25)

4. 多倫多韓人社區社團與服務角色

1) 韓人社區現況

根據2006年加拿大統計局資料顯示，整個加拿大有韓人有141,890人，其中安省有 69,540人，大多倫多市有 55,270人(Statistics Canada 2010,170~171)，自1960年代移民至今已有50年的移民史，當初來到加拿大最早期的韓人移民不是從韓國直接過來的，而是從德國再移民來到加拿大的礦工與護士。[31]根據多倫多韓國日報所出刊的2012~2013年加拿大安大略省韓人黃皮書的韓人職業類別得知，目前多倫多的韓人社區中有宗教、服務、慈善、運動、音樂、同學會、組合、輿論等韓人團體。因韓人信基督教的頗多。因此，多倫多的韓人教會就有超過130多個，而佛教團體只有10~20個，社團中也有比較特別的是北韓難民社團和朝鮮族社團。在加拿大韓人居住最多的城市爲GTA，其中KCCA是最具代表性的韓人社團。另外GTA活動最頻繁的服務性機構是KCWA。除此以外GTA中由韓人所運營的服務社團還有像YMCA Korea Community Services、North York Community Center、約克區(York Region)安居服務中心、學生安居諮詢中心(多倫多、約克、密西沙加等地區)、成人殘疾人共同體、麥種宣教會、韓國老人會、北部老人會、生命的電話、分享宣教會、韓人社會服務會、馬賽克宣教會、韓人學生

31) 1964年南韓每人GNP只有80美金時期，朴正熙大統領爲要向西德貸款就決定順便拜訪在德國礦山和醫院工作的韓國工人及護士。1964年12月10日乘著西德派來的專機(因當時南韓太窮沒有總統飛機)抵達了西德漢博恩煤礦。當時在朴大統領許多韓國派去的礦工及護士演講時大統領說道：“各位朋友們，今天我非常的慚愧又心痛，我身爲大韓民國的，我深深的反省自己。請各位給我時間，我會盡最大的努力，我絶不會讓我們的下一代被賣到異國他鄉...絶不會...”。當時身爲一個軍人的朴大統領與在場的三百多人哭成一團。在接受了從地下三千尺開採出來的石炭所做的煙灰缸和以韓國工人三個月工資爲擔保的貸款，帶回韓國投入到韓國的國家建設。就這樣在1966年~76年去德國的護士有10,030人，礦工有7,800人，每人每月平均工資爲160美金(600馬克)。這些人每年向韓國匯款總和五千萬美金，佔當時韓國GNP的2%。等合同期滿要回韓國的時候，有很多韓國人就移民到北美，而加拿大當時開放的移民政策，讓很多韓人選擇不回國而到加拿大移民，這些人爲加拿大的韓人移民先驅。(資料來源：姜信鳳,≪加人姜信鳳自敍傳-가을나그네≫(_____, 2011), pp.390~394.

獎學金財團、科技技術人員協會等大大小小的服務性社團爲多倫多韓人提供各種社區服務。其中KCWA、韓人YMCA、KCCA、生命的電話、成人殘疾人共同體、老人會等得到加拿大政府多多少少的輔助金以運營自辦的非營利社團(李鎭洙　2012)。下面對這種爲自己族裔提供社區服務的代表性社團進行深入瞭解，幷選擇了GTA最具影響力的二個韓人社區服務團體KCCA及KCWA。

2) 韓人服務社團

第一、多倫多韓人會(KCCA)

多倫多韓人會是爲了增進加拿大韓人同胞之間的友誼以及爲韓人新移民提供多樣的服務爲宗旨於1965年12月28在Cliff Cress United Church成立了籌備委員會，並且爲了興建會館廣泛地向多倫多韓人募捐，同時向加拿大政府及韓國政府請求贊助金。經過十幾年的籌備及捐款、輔助，終能在1977年9月10日在多倫多韓國城附近購得會館(前韓人會館)，並且開始爲韓人社區提供了服務。因爲韓人新移民的不斷增長，使得原場地不敷使用，於1996年11月30日得以賣掉舊會館，搬遷到目前較大的新會館。[32]現KCCA李鎭洙會長在訪談中提及成立的目標爲："團結會員幷追求相互的共同利益、爲發展韓人社區與主流社會和祖國政府合作、爲下一代謀求協助方案、[33]爲新移民提供安居服務與就業培訓、發展婦女福利及相關工作、發展傳統文化及老人福利、有效運營韓人會館、發展韓國與加拿大的友好關係。並且數十年爲了伸張加拿大韓人的權利、人權保護、同胞地位提升而不斷努力。特別是將韓國的優秀文化廣泛地介紹給加拿大的主流社會而不遺餘力。在多倫多的韓人發生一些問題時，特別是人權、權益及種族衝突等問題皆會到韓人會來陳

32) 目前的會館占地35,000M2, 分上下二層, 有15間辦公室和教室及一個可以容納450人的室內會館。在會館內常常舉辦多倫多地區僑民的對外對內活動。(資料來源:多倫多韓人會Hee-Jung Yang, General Mannager 2012.6.2提供)

33) 韓國移民的第1.5代及第2代移民的職業已經比過去第一代的小餐廳、洗衣店、小雜貨店、美容院轉型到律師、醫師、會計師、金融分析師。但進入政府機構工作的人畢竟還是少數。而爲了青少年更能適應并融入主流社會, 像多倫多韓裔趙成準市議員等傑出人士每年舉辦韓裔青少年領袖營活動, 開拓青少年的視野, 設定遠大的願景。

情。韓人會扮演者一種代表加拿大韓人權益的機構向有關機關溝通幷設法解決問題。而多倫多政府對於少數族裔中加拿大韓人傳達一些訊息時，多倫多韓人會則扮演窗口的角色以傳達政府的政令。另外韓國政府要向多倫多居住的韓國同胞發佈信息的時候，也會通過韓人會來傳達。特別是韓國的一些國慶節日如光復節(國慶日)、顯忠日皆在韓人會館內擧行。”對於韓人會會館的運營經費來源和支出李會長答道：“收取多倫多韓人的年會費加起來一年只有約2,000加幣。而租賃韓人會會館一些辦公室給韓人服務團體的租賃費收入，剛好可以支付二人職員的薪資(實際上義工和興趣班老師約20~30人皆免費服務)。而且藉著每年擧辦春季高爾夫球大賽和秋季的馬拉松大賽廣告收入可以擧辦這些大型社區活動。而加拿大政府的輔助有硬體方面，如會館的建築、維修及管理費每年約13~14萬加元，軟體方面，如開發一些新移民安居、英語學習、文化活動、秘書長(General Manager 或 Program Manager)教育費約有18萬加元。[34]幫助少數族裔就業的 Summer Job 的活動輔助經費約 6,000加元。而韓國觀光公社(KTO)爲推動 Super Wave Korea 2012 亦每年補助6,000加元，韓國在外同胞財團亦補助5,000加元。在訪談中李鎭洙會長也提到韓人會目前運營上最大的問題爲經費來源不足，致使整個韓人會只能給二個職員發放工資，其他服務人員全都是義務性服務。因爲工作人員太少，開展一些工作時覺得非常吃力，總是爲經費傷透腦筋。”而前KCWA姜信鳳會長(2011,170)對這方面提出較消極的看法：“加拿大多元文化政策雖是滿足了少數族裔要求，但另一方面帶來了分散少數族裔團結力量。自從加拿大宣佈多元文化政策，少數族裔的團體像雨後春筍一樣成立，而國家的財政支援也同樣被分散地發放給這許多的新興團體。因爲，服務團體太多、會長太多而各自爲政，以致力量分散的結果，變成無法對抗加拿大的英法系創始民族的現象。”這樣的觀點在多倫多韓人會的立場是可

34) 安省秘書長(General Manager)培訓經費是安省政府爲了讓少數族裔的安居服務更加專業化而提供的訓練費。以今年爲例5月25日~26日在多倫多North York Novotel由民間團體PGP(Partnership Grant Project)所擧辦，多倫多地區的13個韓人社區服務團體的20位秘書長參加爲期二天的培訓。培訓結束以後記者採訪參加培訓的韓人秘書長培訓後心得時，答道：“從兩天培訓中學習到運營服務社團的標準模式及成果測定、法律知識、業務標準等運營知識。特別是爲要一個團體能夠持續運營，如何取得資金方面給予了很多的方法與技巧，原以爲這些都是主流社會專有的，沒想到將這樣的高級資訊也能透過培訓取得。(資料來源：The Toronto Education Post jun.7. 2012, vol.143)

以理解的。因爲，雖然韓人會應該代表整個韓人社區而取得大部份政府資源而爲社區韓人服務，但因大多倫多市有太多的韓人團體皆在等著政府的資助。致使加拿大政府能給KCWA的經費補助就非常有限。

韓人會爲了讓加拿大的主流社會瞭解韓國的文化，同時讓自己的民族保存發揚自身的文化在韓人會館內特別開設了許多韓國文化課程，其詳細內容如<表3>：

<表3> KCCA韓國文化課程

成人課程	韓紙工藝、傳統刺繡、手製裝飾、烹飪、書法及東洋畫、韓語班、電腦班、圍棋班、劍道班、跆拳道、韓國傳統鼓、面具舞、西洋畫、英語班、攝影班、K-POP Singing Class、韓國傳統武術、薩克斯風、華語班*。
兒童課程	傳統舞蹈、跆拳道、韓語班。
時間及費用	成人班課程平均三個月，每週一次，每次90分，60加元。兒童班則在週末教授。
注：以上所有的興趣班教師皆爲志願者，免費授課。	

資料來源：KCCA Hee-Jung Yang, General Mannager 2012.6.2提供

*由於韓人所經營的餐廳、美容院、化妝品店等的顧客群中，華人佔很大的比例。因此，對學習華語就非常感興趣。以韓人餐館爲例，大部份願意雇用鮮族職員以便爲華人顧客服務。

第二、加拿大韓人女性會(KCWA)

KCWA成立於1985年7月，同年11月登記爲非盈利團體。1986年開始得到加拿大政府的補助，隨後1989年相繼得到United Way、安省女性部與其他政府機關與一些基金會得到經費補助。1991年登記爲慈善團體。2004年開始改名爲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從過去只爲女性服務，如今服務對象擴大到不分年齡的男女老少。KCWA Choi, Sung Hak 創會會長(2012)訪談中提到“當初我們在1985年成立KCWA的目的，是發現移民加拿大的韓國人夫妻因著語言障礙無法取得安居、就業、福利、法律等相關信息而經常吵架造成家庭離異，這些破碎的家庭就會造成社會問題，無法融入當地社會，幷造成加拿大社會整合的困難。我們的安居、就業等服務正是幫助CIC解決這些問題促進多元文化的社會整合。如果CIC自己要翻譯160種少數

族裔的語言幷提供服務，那需要非常大的經費與人力。但CIC只需給我們一些夠用的經費，我們就可以做這些服務，除了少許領薪資的職員外大部份都是義工來做這些工作。[35]"加拿大韓人女性會的任務是藉著安居、家庭、社會福利服務建立健康的移民社會。所追求的價值觀爲包容性：尊重個人固有價值觀幷努力建立包容所有人的環境，優秀性：有效解決受服務人之問題幷提供最優質的服務，誠實性：所有的服務以透明、負責、正直、專業的態度應對，尊重：尊重每一個人的尊嚴幷承認每個人的固有價值，相互協力：對內對外皆鼓勵團隊服務與相互協力(박상희,하영리, 7)。Choi, Sung Hak, KCWA創會長(2012)提到當初以"沒有障礙的加拿大社會整合"爲KCWA的標語，是因感到對於一個移民者來到一個新的國家有語言上、法律上、膚色上、種族上等各方面的障礙，阻擋著新移民適應社會。因此，KCWA希望幫助新移民克服這些障礙。按照加拿大韓人女性會所做的統計2010~2011年一共提供了30,000人次的服務。KCWA理事爲15人，職員爲17人。目前加拿大韓人女性會的服務項目主要可分爲家庭服務、安居服務、就業服務、社會福利服務、移動服務、興趣班、健康課等服務，特別是新移民接受這些服務，大部份上年齡的人。因爲不太懂英語因此常常需要幫忙塡寫老人福利申請的單張或陪同他們到一些機關申請。對於提及KCWA的社區有什麼優缺點的提問上 Olivia Youngoak Kang(2012) 回答:"我們所提供的服務帶給韓人可以用母語瞭解加拿大一些安居的訊息，所以非常方便。我們還定期擧辦就業博覽會及硏討會幫助韓人早日就業。因此，有很多住的較偏遠省份的韓人專程做飛機或開長途汽車前來接受服務。但是因爲接受這麼完善的安居服務，很多時候就不培養靠自己能力去辦一些公共行政方面手續，變得依賴KCWA。因此，少了接觸加拿大人的機會，使得英語沒有多大的進步。"不過KCWA優點絶對是遠遠多於缺點的。對於KCWA服務內容可見下<表4>：

35) 根據Olivia Youngoak Kang(2012)) 所提供的書面資料, 目前KCWA領薪資的正職員只有17人, 很多工作是靠義工來完成的。2010~2011的工作報告中顯示, KWCA一年當中爲14,963人提供了服務。其中ESL/LINC 879人、移民及公民4,348人、健康諮詢690人、稅金和駕照及資格證3,103人、法律知識612人、社會福利1727人、翻譯及口譯510人、硏討會及課程3076人。(資料來源Olivia Youngoak Kang, KWCA(2012.6.26訪談))

<표4>KCWA服務項目(2011~2012年)

服務項目	服 務 內 容
家庭服務	諮詢服務：個人、家庭、家庭暴力、幼兒、青少年諮詢、安全計劃樹立、過渡期服務、福利、家庭相關的翻譯、口譯服務。
	法律資訊服務：分居、離婚、子女贍養權、子女贍養費、配偶贍養費、財産分割、法律救助。
	課程：預防家庭暴力Outreach workshop、建立自信、調整憤怒、壓力管理、健康對話法、個人與家庭美術指導、女性支援團隊-長靑。
安居服務	安居諮詢：安居調查、加拿大身份證件(SIN,駕照,OHIP)、LINC/ESL訊息、學校登記及教育訊息、更新永住權、申請公民。
	新移民安居講座
	與其他機關聯合服務：參與加拿大社會-做義工、參與社區服務、連接加拿大政府機構。
	翻譯、口譯服務：新移民剛來加拿大所需的就業及職業訓練服務。
就業服務	針對性的就業諮詢：幫助尋找適合本人的職業種類、將海外的技術證明應用在加拿大就業市場、幫忙書寫履歷表、面試練習、提供就業相關教育訊息。
	定期擧辦就業硏討會
社會福利服務	社會福利諮詢：CCTB(Canada Child Tax Benefit),GSB, CPP(Canada Pension Plan),GIS、老人年金、藥費補助等社會福利相關諮詢及翻譯、口譯服務。
	社會情報硏討會
移動服務	新移民安居服務及填寫申請書：列治文山：H-Mart文化中心, Thornhill：Galleria文化中心, 多倫多：韓人會館
敎養課程	與安居相關的英語、美術、書法、電腦、韓文敎室。
健康課程	醫療資訊硏討會、移動診療服務、乳房癌支援團。
其他課程	FEM(Free and Empower me)project、NFF(Neighbours, Friends and Families)project、PGP(Partnership Grant Program)project

資料來源：Olivia Youngoak Kang, KCWA Program Manager(2012.6.26提供)

KCWA的運營經費基本上是由三級政府(聯邦、省、市)及民間團體得到的。我們可從表五看到加拿大韓人女性會2010~2011年度財務報表。其中2011年及2012年曾給予經費輔助的單位有加拿大乳癌基金會(Canadian Breast Cancer Fundation)、多倫多韓國總領館(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安省社區服務部(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安省移民局(Ontario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多倫多市地區服務課程(City of Toronto-Community Services Grants Program)、CIC、聯邦人力資源管理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在外同胞財團(Korean Heritage Foundation)、女性部(State of Women)、聯合勸募基金(United Way)等機構。其中經費補助最多的是CIC。因爲，KCWA工作主要是代替CIC進行新移民的安居服務。因此，從CIC接受經費輔助的也最多。這就是加拿大的安居服務模式。然後就是安省社區服務部的經費。KCWA作爲一個社區服務的非盈利NGO，分擔了GO政府的社區服務部門的公共事務、教育等課程。代替了市政府及區公所一部份的職能。因此，得以接受經費輔助。對於以上輔助的金額上還有不足的時候，則舉行阿裡郎GALA女性會基金捐款晚會。根據<表5>的資料，去年五月的募捐晚會上扣掉場地費共籌到79,149.63加元。

<表5> KCWA 2010~2011年度財務報表

單位：加元

收　入	2011	2010	支　出	2011	2010
政府支援	622,278	604,142	宣傳費	1,711	886
基金募款	139,321	117,386	銀行手續費	1,421	855
會費	2,620	2620	通訊費	4,391	3,563
服務收入	12,290	5,171	支援社區	1,950	735
利息及其他	2,002	1833	翻譯費	6,997	6,205
合計	778511	731152	募款	49,334	52,401
政府輔助	２０１１	２０１０	保險	4,623	4,573
			團聚	4,046	8,557
加拿大乳癌基金會	－	12,307	租賃	32,184	27,773
多倫多韓國總領館	－	1,500			

安省社區服務部	176,722	110,688	辦公室經費	6,994	11,869
安省移民局	58,855	69,281			
多倫多市地區服務課程	26,535	26,010	專業人士委託費	3,844	19,374
聯邦移民局	323,998	332,849			
聯邦人力資源管理局	-	25,000	Promming運營費	58,190	45,060
在外同胞財團	5,074	6,507			
State of Women	31,044	-	薪資	552,835	505,044
United Way	-	20,000			
合　　計	622,278	604,142	合　　計	728,553	686,895
2011年3月5日進行阿里郎募捐活動, 扣除當晚餐費, 總募款額爲 $79,150加幣					

資料來源：Olivia Youngoak Kang, KCWA Program Manager/Settlement Coordinator(2012.6.26提供)

韓國社區服務團體最近因著韓流風靡全球，加拿大已有許多青少年對K-POP非常著迷，因此每當韓人社區舉辦 K-POP Contest 時加拿大的白人、黑人、黃種人等不同膚色的人，組成大大小小的隊伍參加韓人社團舉辦的熱舞勁歌比賽。以GTA而言2012年韓人社區所舉辦的大型對外活動有DANO(端午)春季活動慶典(Korean Dano Spring Festival)和 Super Wave Korea 2012等。

以DANO春季活動慶典來講是由多倫多韓國城 商業發展區(Toronto Korean Town BIA)[36]、韓國日報及All TV所舉辦[37]。今年剛好是第20屆是舉辦日期爲6月1日~2日，地點爲Christie Pits Park公園(韓國城內)，節目的內容有K-POP Cover Dance舞蹈大賽(初賽)、音樂表演、韓國電影之

36) 多倫多韓國城商業促進區(Toronto Korean Town Business Improvement Aera)位於多倫多老韓國城Bloor與Christie Street 一帶, 爲了向GTA市民宣傳Koreatown的各種韓國美食及商品, 每年都舉辦盛大的DANO慶典活動。

37) 節目詳情請參考www.koreanDANOspringfestival.com與www.koreatownbia.com 網站。

夜、兒童高爾夫、第二屆藤球比賽、兒童藝術班、各種飲食及攤位、韓國傳統摔跤大賽、DANO韓服小姐選美、第三屆青少年足球運動會、探究韓國文化、跆拳道示範表演、歌唱比賽、K-POP Cover Dance舞蹈大賽(決賽)、韓國護照、公證服務等活動。雖然活動期間有點陰雨，但沒有讓喜愛K-POP Cover Dance的參加團體卻步。今年參加的團體至少有三十個團來自加拿大全國各地，有坐三小時飛機來的參賽者也有坐了十小時長途巴士的參賽者，參賽者族裔非常多元，韓裔比例只占10~15%左右。整個慶典除了加拿大韓人外，大部份還是加拿大的各種族裔參加，可印證實行多元文化主義的加拿大社會各各少數族裔社團所發揮的增進彼此瞭解建設和諧社會的機能。而且Koreantown BIA 韓人主席Joseph Kang在今年還特別邀請了前韓國總理鄭雲燦先生參加此一慶典，前鄭總理也在賀詞上表達了希望在加拿大的韓人同胞能夠努力融入加拿大主流社會，並且將韓國的文化介紹給居住國。

其次是SUPER WAVE KOREA，這是由KCCA、KTO主辦，今年舉行日期爲10月底，地點則在韓人會館內體育館。今年剛好是第三屆，根據去年的情況是將加拿大全國各地的K-POP Cover Dance參賽者，將自己團隊的舞蹈錄像以後發到You Tube以後，KCCA及KTO的評審委員審查合格後，讓合格的十組在韓人會館參加決賽。去年大會規定不准韓裔團體參加比賽的情況下觀衆來了五百多人，今年準備也開放給加拿大韓人參加比賽。預計今年將會有更多的人參賽和參觀。韓人會舉辦這樣的活動可以讓喜歡韓流的加拿大各種族裔有接觸甚至參與瞭解及享受韓國文化的機會。韓人社區剛好提供了這樣的平臺，作爲瞭解韓國文化的窗口，以致因著瞭解而產生好感，在促進各種族裔彼此的融合上起了積極地作用。

3) 韓人社區服務角色

從與KCCA會長訪談內容可以瞭解到多倫多韓人會所扮演的社區服務角色可歸納爲以下幾點。一、讓加拿大韓人能夠相互團結以追求共同的福利。二、爲了加拿大韓人的發展增進與加拿大的主流社會與祖國的交流。三、支援韓人第二代在加拿大的發展。四、爲新移民提供安居服務與職業培訓。五、增進加拿大與韓國各方面的交流。六、提供多倫多市民瞭解韓國文化的

機會以增進民族的和諧。KCCA亦扮演者GTA韓人及僑民聲音的代表性社團。

來到多倫多的韓人新移民可以說是幾乎都接受到KCWA的服務，因爲KCWA會的服務項目完全是按照韓人新移民而設計的，其中包含了安居、兒女就學、翻譯、家庭暴力、就業、社會福利、英文學習、醫療諮詢等全方位的韓語服務。特別是所有職員皆爲加拿大的韓人，他們瞭解韓國的文化與習俗，因此，讓安居服務的質與量得到相當的提高。並爲CIC分擔了許多的新移民安居的一系列服務工作。而且，DANO慶典及SUPER WAVE KOREA等一系列活動，不僅帶給韓人社區商街經濟的繁榮，亦可促進消費。作爲GTA各種族裔特色 街道的一部份，使得城市 更加多元和多 彩多姿。而韓國的K-POP拉近了不同族裔年輕人的距離，增進了社會的和諧發展。

5. 結語與建議

以由於韓國和台灣的國民近年來與外籍新娘的國際婚姻日益增多，[38]整個社會已進入了多元文化及多元民族的階段。因着人權受到侵害及犯罪問題，引起韓國及台灣當局亦開始關心這一群少數族群，并出臺一系列的社會整合政策。韓國和台灣的安居服務目前幾乎都是市、區級政府機構公務員負責，外籍配偶大部份不諳韓語和華語，因語言文化上的差異與障礙，致使新移民融合社會的效果不張。從以上多倫多華人與韓人社團瞭解到少數族裔社團在社區扮演的角色。除了新移民的安居以外，還爲政府分擔了社會整合的工作。在多元文化的沃土里，以自民族、自語言、自運營的三自方式的少數族裔服務社團的個案研究中，我們可以發現貢獻社區良多。經過本研究對序

38) 据中華民國(台灣)內政部如出國移民署與戶政司統計，2006年台灣總結婚人數中，配偶爲外籍(含中國)的比例爲17%，根據韓國統計廳統計，2007年韓國總結婚人數中，配偶爲外籍的的比例爲11.1%。(資料來源：維基百科 http://zh.wikipedia.org/zh/%E5%A4%96%E7%B1%8D%E9%85%8D%E5%81%B6_(%E5%8F%B0%E7%81%A3)Searched date:2012.5.2)，김희수<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대구·경북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원논문≫(2010), p2.

言里所提及的三個問題，經過分析結果可歸納爲以下的答案。

第一，加拿大與韓國社會對於多元文化主義的瞭解上有什麼差距？

本文第2章所述，加拿大因著廣大的土地和稀少的人口，過去不斷接受來自從世界各地的發達國家到第三世界甚至國際難民的移入。因此加拿大的移民人口呈現多樣化，經濟水平也高低不一。隨著移入民與英法主流的人口比例漸漸拉近，少數族裔的意見也反映在憲政上，以至於對“多元文化主義”的觀念上有著與韓國較不同的認知。加拿大對於“多元文化主義”的瞭解與解釋可由幾位政府官員及學者得知。1977年5月4日安大略省首席部長(Premier of Ontario)戴維斯(william Davis)宣告三大方針來維護多元文化:一、機會均等-保持人身尊嚴，消滅種種歧視。二、便民運動-保證政府機構替每一個居民服務。三、維持保存各固有的語言文化傳統，促進文化交流(George 1979，5)。在1978年安省文化康樂部長(Minister for Culture and Recreation of Ontario)羅勃威爾署(Robert Welch, Q.C.)提到：“種族優越感及種族歧視的偏見，與多元文化觀念誓不兩立，讓我重申多元文化的意義：凡屬國民不論何種膚色，信何宗教，操何語言，或任何文化背景，都應該受到平等的待遇，他們不僅應盡一切義務也應享受所有權利”(George 1979，3，5)。

因爲韓國一直以單一民族爲榮。因此，韓國基本上是不積極接受移民的。所以外國人政策中對於生活在韓國的外國人過去一直實行“排斥與放任”政策，比如1991～1997年在韓國得到歸化許可的人數，每年平均只有108人，而且對於出生在韓國的第二、三代外國人亦無永住權，取得韓國籍也非常不容易。但隨著近來國籍法的修正自2002～2006年平均每年歸化取得韓國國籍者達到7,199人(이종우,　2007:50)。可見比起海外上千萬以上的韓國僑民，韓國一直是移民輸出國。因此，對於多元文化的觀念目前還是停留在韓國社會中下階層男士與東南亞女性結婚處於非主流社會和弱勢群體。而且對白人以敬仰的態度，對東南亞人卻以歧視的兩種尺度衡量。這與加拿大60年代老百姓的認知極爲類似。

第二，安居服務方面加拿大模式的特色爲何？

加拿大一直是移民接受國家。因此，對於新移民安居服務方面有著50多

年的經驗，幷發展出一套非常先進及成熟的安居節目(Program)。較特別的是爲新移民提供服務的主體是非營利性的社區社團。而政府鼓勵及支持自民族、自語言、自運營方式的少數族裔社團提供安居等社區服務。加拿大情況是由民間負責新移民安居，因此達到在各大超市就可以接受安居方面的便利服務爲其特色。

第三，以現今韓國的少數族裔社團能採用加拿大模式的可行性？

目前在韓國少數族裔在各大城市皆有自己的社團或親睦團體，如來自越南、中國、台灣、日本、菲律賓、泰國、馬來西亞、緬甸、寮國等社區中，有些族裔已經有相當的會員或如建築等硬體設施，有些族裔可能就沒有較健全的組織。但如果給予這些團體教育輔助及經費輔助，幷讓他們在政府機關實習，幷在一定時間評價合格後，就讓他(她)獨立開設自民族、自語言、自運營的社區安居服務機構。但關鍵在於韓國(或台灣)政府願不願意改變目前的制度，將安居服務工作放心委任給少數族裔社團，幷定期給予監督和訓練。目前加拿大已發展到以160國語言提供安居服務。雖然韓國的外國人沒有加拿大多亦不具規模，但社區服務團體需要幾年的時間培養及訓練。而幾年後的韓國社會新移民也會比現在增加許多。因此，政府無法做好所有新移民的安居服務，必須分散給民間組織來運營。

對於研究多元文化社會整合的少數族裔社區服務角色以後歸納幾點研究心得，茲向韓國與台灣地方政府建議：

第一、活用多元文化背景的移民者參與社區服務

來到加拿大可以發現許多過去是新移民的女性在參與社區服務。比如利用自己的才華和專長在圖書館、社區中心、宗教團體參與社區服務。這樣可防止與當地社會脫節，使生活更加豐富，更容易融入當地社會。韓國和台灣地方政府方面應該鼓勵新移民在社區從事英語教學、烹飪、樂器、導遊、康樂、文化課等的教導者和參與者。

第二、給予少數族裔成爲社會工作師的優待政策

爲了讓少數族裔可以成爲社會工作師，並且可以獨立作業。政府應提供

學習方面的學費減免政策。經過一段時間的培養以後，加上政府的資金輔助。少數族裔就可以漸漸自立地運營社區新移民服務中心。讓先來的新移民爲後來的新移民提供服務是最有效最適合的方法。這樣韓國政府亦可加快多元文化家庭的社會整合。

第三、讓少數族裔有機會參與地方活動，幷成爲決策者之一

看到多倫多的許多慶典如：DANO春季活動慶典、世界最長舞龍比賽、萬錦市國際抬轎比賽、國際龍舟比賽慶典、多倫多中區華埠同樂日、SUPER WAVE KOREA等活動皆是以少數族裔所舉辦的社區大型對外活動。通過這樣的活動及慶典，可以增進族裔間的交流，也製造了一個讓主流社會瞭解少數族裔的平臺。因爲，各少數族裔舉辦與自己傳統有關的慶典時參與度就非常高。而且節目的內容少數族裔亦會爲了發揚族裔文化，安排的更加多彩多姿。結果是辦的有聲有色。可惜的是，目前韓國很多有關少數民族的活動如釜山Chinatown慶典與國際龍舟比賽。由於主辦單位是地方政府（東區廳與水營區廳），很少邀請華僑或華人新移民參與籌委會或成爲策劃者之一。只是偶爾會被邀請參加活動。以此爲例，目前在韓國和台灣大部份的地方社區活動還是以當地政府主動策劃及運營，少數族裔排除在外。在現今提倡多元文化主義的社會當中，應該給予少數族裔發表自己意見的機會，幷給予參與的機會，這樣才能使文化更加多元幷能永續經營。而不是强調傳統上少數服從多數的概念。“多元文化主義”是一種重視差異、非多數或强勢主義的概念。這是多元文化主義的精神。

<參考文獻>

姜信鳳, ≪加人姜信鳳自敘傳-가을 나그네≫(_____, 2011)

김희수, <여성 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대구·경북 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원논문≫(2010)

박상희,하영리, <캐나다 한인 여성회 연례 보고서 2010-2011>,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2012)

이종우, <한국 화교 현지화연구 : 부산거주 화교를 중심으로>, ≪동아대

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于德豪, <從隔離到融合至貢獻:從國族認同看加華對韓華的啟示>, ≪동아시아: 비교와전망≫제11집 1호(2012)
高鑒國, ≪加拿大文化與現代化≫(瀋陽：遼海出版社, 1999)
李勝生, ≪加拿大的華人與華人社會≫(香港：三聯書局有限公司, 1992)
Saywell, John著, 李鵬飛等譯, ≪加拿大-走向今日之路≫ (北京：北京理工大學出版社, 2006)
李未醉, ≪加拿大華人社會內部的合作與衝突研究≫(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7)
Ivan L. Hand著, 章士嶸譯, <皮埃爾·埃利奧特·特魯多-中國的老朋友>, ≪中國-特魯多·加拿大≫ (北京：民族出版社, 2004.10)
Anthony B. Chan, ≪Gold Mountain≫ (Toronto: New Star Books. Ltd, 1983)
David, Chuenyan Lai, ≪A Brief Chronology of Chinese Canadian History: from segregation to integration 1788-2010≫(Victoria: Simon Fraser University David See-Chai Lam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Publishing)
Gautam D. Sharma, <Top 25 Canadian Immigrants>, ≪Canadian Immigrant≫(Volume 9, Issue 6, June 2012)
George H.K, <Effective citizenship in canada's multicultural society-a chinese perspective>, ≪The Intercultural Conference Held in Toronto, April 8-9, 1978≫(Publish by Council of Chinese Canadians in Ontario on FEB 1979)
John Murray Gibbon, ≪Canadian Mosaic: The Making of a northern nations≫(Toronto: McClelland & Stewart, 1938)
Ralph R Krueger, Raymond G. Corder ≪Canada a New Geography(Revised)≫(Toronto, Holt Rinehart and Winston of Canada, Limited, 1974)
Soojin Yu, <University of Ottawa Lecture(SOC 4121)> (JAN 2010)
Statistics Canada,<Population, by Selected Ethnic Origins, 2006>, ≪Canada Year Book 2010≫(Publish by Minister of Industry 2010)

Statistics Canada,<Visible Minority Population, by Province and Territory, 2006>, ≪Canada Year Book 2010≫(Publish by Minister of Industry 2010)

Statistics Canada,<Visible Minority Population, by Census Metropolitan Area, 2006>, ≪Canada Year Book 2010≫(Publish by Minister of Industry 2010)

_____, ≪The Toronto Education Post≫(vol.143 jun. 7. 2012)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加拿大韓人女性會 (KCWA: Korean Canadian Women Association) (http://www.kcwa.net(Searched date: 2012.6.3))

多倫多韓國城商業促進會 (Toronto Chinatown Business Improvement Area) (http://www.koreatownbia.com(Searched date: 2012.5.20))

多華會 (TCCSA: The Cross - Cultural Community Services Association) (http://www.tccsa.on.ca(Searched date :2012.6.1))

多倫多韓人會 (KCCA:Korean Canadian Culture Association) (http://www.koreancentre.on.ca(Searched date: 2012.6.3))

多倫多華埠商業促進區 (Toronto Chinatown Business Improvement Area) (http://www.chinatownbia.com(Searched date: 2012.6.18))

台灣僑民社區服務中心 (TCCSA : Taiwanese Canadian Community Ssrvice Association) (http://www.kcwa.net(Searched date: 2012.6.7))

北韓逃北女性人權保護委員會(N.K Women Rights Committee)Director Planning (http://3zon.com(Searched date:2012.6.3))

維基百科

http://zh.wikipedia.org/zh/%E5%A4%96%E7%B1%8D%E9%85%8D%E５％８１％Ｂ６_(％Ｅ５％８Ｆ％Ｂ０％Ｅ７％８１％Ａ３)(Ｓｅａｒｃｈｅｄ date:2012.5.2))

華人諮詢服務處 (CICS : Centrefor Information and Community

Services of Ontario) (http://www.cicscanada.com(Searched Date:2012.6.3))
COSTI(Centro Organizzativo Scuole Tecniche Italiane) (http://www.costi.org(Searched date: 2012.6.1))
Hana Kim, ≪Korean Canadian Heritage Archives≫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http://link.library.utoronto.ca/eal/web/resources/korean/KoreanCanadianHeritageArchives_2012.05.28.pdf) (Searched date: 2012.5.10)
Stephen Qiao, ≪Chinatown In Toronto: A historic survey of the Chinese immigrants community in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Cheng Yu Tung East Asian Library) http://link.library.utoronto.ca/eal/flash/files/Chinatown.pdf(Searched date: 2012.5.8)
Choi, Sung Hak, KCWA(加拿大韓人女性會)創會長(2012.6.26Interview)
Danise Yan (甄煥燕), CCC (大多倫多中華文化中心) Event Manager (2012.6.22 Interview)
Daewoon Kang, 北韓逃北女性人權保護委員會(N.K Women Rights Committee)Director Planning (2012.6.2 Interview)
Kang,Shin Bong(姜信鳳), 前多倫多韓人會 (KCCA) 會長, 前加拿大韓人會總會長 (2012.5.6 Interview)
Olivia Youngoak Kang, KWCA Program Manager, Settlement Coordinator(2012.6.26 Interview)
Soojin Yu, 前加拿大渥太華大學教授 (2012.5.25 Interview)
李鎭洙會長, 現多倫多韓人會(KCCA)會長, 前加拿大韓人會總會長 (2012.6.11 Interview)
Wing Pong Chan (陳榮邦), 現多華會 (TCCSA) Program Assistant, ISAP (2012.3.6 Interview)

〈국문초록〉

다문화 사회통합의 소수민족 커뮤니티서비스의 역할
- 토론토 華人 및 韓人단체 중심으로

세계화 및 아시아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과거부터 북미와 유럽국가에서 나타난 인구의 다양화 및 다문화사회는 오늘 아시아의 한국 및 대만 신흥국가로도 확장되어가고 있다. 유럽국가와 달리 캐나다는 UN에서 권장한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성공한 모범사례이다. 1971년 캐나다 트루도(Trudea) 정부는 다문화주의 법안(Multiculturism Act)을 통과시켜 캐나다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문화주의를 헌법에 명기한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다문화주의는 캐나다정부로부터 사회 전반까지 관철 되었다. 이는 여러 소수민족 문화를 미국주류문화에 융합시키는 미국의 멜팅팟 (Melting pot)방식과 달리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특색은 각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존하고 다양성을 인정 및 존중하여 각 민족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 있도록 하여 같이 모여 한 폭의 모자이크(Mosaic)그림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토론토의 화인 및 한인 커뮤니티 서비스도 이런 캐나다식의 다문화 통합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그 중 새 이민자 사회정착서비스(Social Settlement Services) 부문에서 자민족(自民族), 자언어(自言語), 자운영(自運營)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어, 한국어를 포함한 160개국 언어로 자민족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로부터 세계 각 국에서 온 이민자가 캐나다 사회통합(Integration)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이런 옥토(沃土)을 제공하는 캐나다 다문화 사회통합시스템을 한국에 적용가능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키워드 : 다문화주의, 모자이크, 사회정착 서비스, 사회통합, 화인, 한인
關鍵詞 : 多元文化主義, 馬賽克, 安居服務, 社會整合, 華人, 韓人

Keywords : Multiculturism, Mosaic, Settlement, Services Integration, Chinese Canadian, Korean Canadian

투 고 일 : 2012.6.30
심 사 일 : 2012.7.2~8.20
게재확정일 : 2012.8.22

≪中國學≫ 발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Chinese Studies”, 한글 명칭은 “중국학”, 한자 명칭은 “中國學”으로 한다.

제2조 (발행처)

학술지의 발행처는 대한중국학회이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년 3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본 학회지의 발행은 년 3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1) 학술지 발행 시기: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2) 원고 마감 시기: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을 원고 마감일로 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 심사 절차 및 일정표

발행월	4월	8월	12월
원고마감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편집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선정 논문 및 심사표 발송 평가 의뢰	3월 10일	7월 10일	11월 10일

논문심사	3월 20일	7월 20일	11월 20일
논문심사 결과 취합 및 게재 여부 결정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결과 통보(게재여부 및 수정지시 통보)	4월 10일	8월 10일	12월 10일
원고 수정 및 반송	4월 17일	8월 17일	12월 17일
수정 원고 재심사	4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
≪중국학≫ 편집 및 인쇄	4월 27일	8월 27일	12월 27일
≪중국학≫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 전 기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료 10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은 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학회는 출판 후 논문 1권과 별쇄본 20부를 저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인쇄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고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大韓中國學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硏究함으로써 韓國의 학술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의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1) 正會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敎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議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의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2) 準會員 :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4) 團體會員 :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擧權 및 被選擧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에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의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理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 명·運營委員 약간 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理事 약간 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한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硏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4章 會 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硏究倫理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1) 定期總會: 每年 8월중

2) 臨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理事에 한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의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2) 豫算 및 決算

3) 會則改正

4) 事業計劃의 議決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2) 會則改正案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4) 新入會員 審査 및 理事의 認准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주관하고 論文審査委員을 委囑한다.

1) 編輯委員會는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10명 전후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2)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되, 編輯理事를 겸하며,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論文審査委員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정한다.

第23條

硏究倫理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필요시 調査委員會를 구성한다.

1) 硏究倫理委員會는 硏究理事, 編輯委員長, 學術理事를 포함한 5인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2) 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하며, 硏究理事를 겸한다.

3) 委員은 會長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기타 자세한 事項은 별도로 제정된 硏究倫理 규정에 따른다.

第5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 8월말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6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7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다.

第28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9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30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제정 1984년 10월 23일
개정 2000년 2월 26일
개정 2001년 8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개정 2009년 10월 31일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4) 위원의 선정 절차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개최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에 개최한다.

다.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논문심사 규정

1)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을 촉진한다.

2) 심사 시기

매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3월 31일 심사를 마감하고,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7월 31일 심사 마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11월 30일에 심사를 마감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자가 있는 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가. 선정 시기: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나. 심사위원의 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심사위원의 위촉: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처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졸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목으로 한다.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7) 심사결과의 처리

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을 득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의견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8)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 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발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라.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9) 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심사일정 명시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논문심사세칙>에 따른다.

논문심사 세칙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中國學≫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학 전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재의 적합성(20%)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3) 내용의 독창성(20%)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3) 심사 결과는 ⑴ 게재 적합 ⑵ 수정 후 게재 ⑶ 수정 후 재심사 ⑷ 게재 부적합 등으로 나눈다.

4) 상기 3)항의 ⑵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⑶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0)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5)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6)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17)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18)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19)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논문투고 규정

1) 원고의 내용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재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사용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3) 인용문

원전을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4) 분량

논문은 당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편집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조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5) 게재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는 해당 학회지 약간 부와 추인본 약간 부를 증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이버 논문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초록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 초록(반쪽 분량)과 주제어(5개~10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심사절차 및 일정

가. 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로 한다.

나. 심사의뢰: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다. 심사기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이전에 완료한다.

라. 게재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31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31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30일로 한다.

마. 결과통보(수정지시):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0일로 한다.

바. 수정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7일,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1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7일로 한다.

사. 게재최종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0일로 한다.

아. 편집·인쇄: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7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7일 이전에 완료한다.

자.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9) 기타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글 워드는 흔글 프로그램(2005 이상 권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나 낮은 버전의 흔글을 사용한 파일은 편집자 임의로 코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중문으로 작성한 원고의 경우 번체자 또는 간체자 출력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일률적으로 간체자 출력을 합니다.
3. 논문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여백(F7)

<table>
<tr><td colspan="2">위쪽 60</td><td colspan="2">머리말 10</td></tr>
<tr><td rowspan="2">왼쪽
50</td><td rowspan="2"></td><td rowspan="2">오른쪽
50</td></tr>
<tr><td>제본
0</td></tr>
<tr><td colspan="2">아래쪽 60</td><td colspan="2">꼬리말 0</td></tr>
</table>

스타일(F6)

		본문	인용문	각주
문단 Alt+T	왼쪽여백	0	0	0
	오른쪽 여백	0	2	0
	들여쓰기	10pt(韓) 20pt(中)	27pt	18pt
	줄간격	150	140	120
글자 Alt+L	대표 한자	바탕 SimSun	바탕 SimSun	바탕 SimSun
	장평	95	95	95
	자간	-1	-1	-1
	글자크기	10	9	9

4. 전체제목, 장 제목, 절 제목, 이름 및 참고문헌 등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양식은 편집부에서 일괄 조정합니다.
5. 논문 제출 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본인의 영문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혼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벽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하여 파일 안에 첨부하여 주시고 출력본 1부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7.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행본의 배열순서: 저자 및 역자명,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월), 인용 쪽수. 예)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5쪽.
 ② 논문의 배열순서: 논자명, <논문명>, ≪논문집명≫ 권수: 호수(출판연월), 인용쪽수. (예) 楊尙梅,<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 23:4(2001.7), 44쪽.
8. 참고문헌의 처리는 각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행본: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② 논문: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23:4(2001.7)
9. 초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원고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중국어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5만원, 그 외에는 7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0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2. 서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6, 3417), 논제, 작품명 및 편명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4, 3415), 중간점은 ·(HNC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09. 01

대한중국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

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뎃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

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

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年三刊 中國學 第 42 輯

2012년 8월 25일 인쇄
2012년 8월 31일 발행

編輯人 : 大韓中國學會
會 長 : 李 哲 理
發行處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49
(우) 631-701)
慶南大學校 中國學部 內
TEL : 055-249-2143
FAX : 0505-999-2138
E-mail : dochtkim@kyungnam.ac.kr
印刷處 : 中文出版社 053-424-9977

ISSN 1229-9618